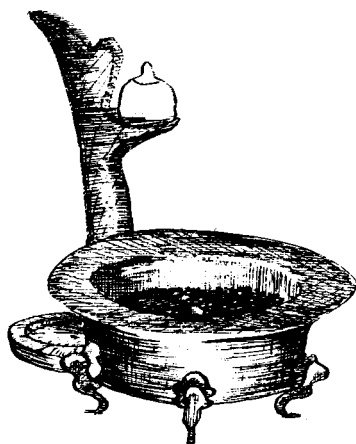


北原의 자취



原 城 郡

北原의 자취



原 城 郡

發 刊 辭

原城郡守

한 民族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있듯 어느 고장을 막론하고 그 地方 特有의 郷土史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太白의 줄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장은 半萬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도 빼놓지 않고 民族의 열과 슬기를 구석에 담아 놓은 값진 寶庫이기도 합니다.

해발 1,288m의 우뚝 솟은 雉岳의 精氣를 이어받은 이 고장은 예로부터 山水가 좋아 有名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國寶 제59호인 智光國師 玄妙塔碑와 寶物 제78호인 圓空國師勝妙塔碑, 寶物 제463호인 眞空國師 塔碑龜趺 및 이수, 寶物 제464호인 興法寺址 三層石塔등이 있으며 雉岳山을 중심으로 新羅時代에 창건한 龜龍寺를 비롯하여 20여개의 크고 작은 寺刹과 鵠原山城등 3개소의 山城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雉岳山 일대의 자연경관은 그 풍치가 아름다워 1984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 祖上의 열이 듬뿍 담겨져 있는 문화재와 유서 깊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 民族의 우수성과 영구불멸의 위대한 창조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전통에 빛나는 民族文化를 이어받아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하여 투철한 향토애를 기르는데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향토의 사랑속에 선조의 열이 빛나는 이 위대한 유산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 보호에 임할 것은 물론, 이를 배우고 익혀 후손들에게 전승토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향토의 열과 조상들의 슬기를 담은 「北原의 자취」를 기 81년도에 발간하였다가 다시 보완하고 다듬어 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가 실증하듯이 그 지역의 특성은 향토사의 흐름과 지세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도 역사의 변천도 달라지는 것처럼 고을마다 풍물도 인물도 인심도 같을수야 없으니 과연 우리의 고장은 어떤곳인지 이 한권의 책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재 발간 되기까지 자료 수집에서 부터 조상의 열과 채취를 더듬어 편찬에 협력하여 주신 황주익 문화원장님과 그외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향토문화에 소중한 자료로 널리 쓰여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고장의 발자취

상고시대(上古時代)는 마한(馬韓) 영역의 제일동쪽 끝이었는데 백제(百濟)가 일어나서 마한땅을 병합할때 원주(原州)도 그의 관도안에 들어갔다.

그후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때 그의 영토(領土)가 되었고 고구려는 여기를 469년(장수왕 57년)에 평원군(平原郡)이라고 하였다. 다시 신라(新羅)의 북상으로 진흥왕(眞興王)당시 그의 영토가 되었다. 678년(문무왕 18년)에 여기에다 북원경(北原京)을 설치하였다.

그후 통일신라가 전국을 9주5소경(九州 五小京)으로 구획(區劃)할때 원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오소경(五小京)중에 하나인 북원소경(北原小京)이 되었다(小京은 오늘날의 직할시와 같은것). 고구려에 와서 940년(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원주(原州)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다시 995년(성종 14년)에 전국을 10도(十道)로 구획할때 원주는 중원도(中原道: 현 충북)에 속한 후 1394년(이태조 3년)까지는 강원도 지방과는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하여 주지사(州知事)가 통할(統轄)하고 있었다. 그러나 1258년(고종 45년)에는 이고장 사람 송필(松弼)의 반역(反逆)사건으로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 개칭되었다.

1269년(원종 10년)에는 공신(功臣) 임유무(林維茂)의 외가집 시골(外鄉)이라고 해서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昇格)하였다.

1291년(충렬왕 17년)에 합단적(哈丹賊)의 침입(侵入)때 향공진사 원충갑(鄉貢進士 元沖甲)이 합단의 무리를 물리친 공으로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개칭되었다.

1308년(충렬왕 34년)에는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하여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1310년(충선왕 2년)에 다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성안부(成安府)로 되었다가 다시 1353년(공민왕 2년)에 치악산(雉岳山)에 왕자의 태(胎: 치악태실)를 봉안하고 원주목(原州牧)으로 회복되었다.

1395년(이태조 4년)에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할때 원주는 강원도(江原道: 강원도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으로 생기면서 원주가 수부였다)에 귀속되면서 강원도

관찰부(江原道觀察府)가 신설되면서 강원감영(江原監營)의 소재지로서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 행정구역으로는 1부(府), 3군(郡), 3현(縣)과 주천(酒泉)은 원주 속현이었다.

1638년(숙종 9년)에 이고장에서 여인(女人)이 남편을 도끼로 찍어 죽인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원주는 학성현(鶴城縣)으로 강등(降等) 격하(格下)되었다가 1692년(숙종 18년)에 다시 원주목으로 회칭 복구되었다. 1728년 4월(정조 4년)에 정무중(鄭茂重)의 모반사건으로 강등 원성현(原城縣)으로 개칭되었다가 1738년(영조 14년)에 다시 원주목으로 회칭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에 전국의 도를 없애고 23부 331군으로 구획할때 원주는 다시 충주관찰부(忠州觀察府)로 속하게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전국을 다시 13도로 개편할때 강원도로 귀속되면서 원주군(原州郡)으로 되었고 강원도청은 춘천으로 이전되었다. 그후 계속해서 21개 면촌(面村)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1913년 3월 1 일자로 시행된 행정구역 변동에 따라 원주군에 속해있던 강천면(康川面)을 경기도 여주군(京畿道 驪州郡)으로 이속시키는 한편 서원면(書院面)을 횡성군(橫城郡)으로 주천면(酒泉面)과 수주면(水周面)은 영월군(寧越郡)으로 이속시키면서 작은 면촌을 통합하여 10개면으로 축소한 것이 원주군의 행정구역이었다.

1929년에 원주 본부면을 폐합하면서 원주면(原州面)을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시키므로 원주군(原州郡)은 1읍 9개면이 되었다.

그후 인구증가에 따라 1955년 9월 1일 원주읍(原州邑)이 시(市)로 승격됨에 따라 원주군이 원주시(原州市)와 원성군(原城郡)으로 고쳐지면서 원성군은 9개면을 관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61년 10월 1일자로 원성군이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했다. 원성군은 동경 127도 북위 37도 21분에 자리잡고 총면적 743.3km²로써 관내 일순거리는 17.153km로 되어있다. 또한 군은 강원도의 서남방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은 횡성군(橫城郡) 서쪽은 경기도 여주군 동쪽은 영월군 동남방으로는 충청북도 제천군(忠淸北道 堤川郡) 남쪽은 충청북도 중원군(忠淸北道 中原郡)에 각각 인접하고 있으며 중심부는 원주시(原州市)가 자리잡고 있으나 군청 소재지가 원주시내에 있으므로 군관내는 4km~6km 정도 떨어져 있다. 산하(山河)로는 횡성군 태기산(泰崎山)을 상류로 하는 섬강(蟾江)이 있어 소초(所草) 호저(好楮) 지정(地正) 문막(文幕) 부론(富論) 등의 면(面)을 관통하는 오대산(五台山)을 상류(上流)로 하는 영월천(寧越川)과 섬강이 합류하는 남한강(南漢江)이 부론면을 포류하고 있는데 현재 원성군은 9개의 법정(法定) 면(面)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보 제59호 法泉寺지광국사현묘탑비 (智光國師玄妙塔碑)

소재지 :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 664

국보 제101호 法泉寺 지광국사 현묘탑 <경복궁 이전>

보물 제78호
원공국사 승묘탑비
(圓空國師勝妙塔碑)
소재지 :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 144



보물 제643호
진공대사 귀부 및 이수
(眞空大師龜趺, 躡首)
소재지 :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 519-2



보물 제644호
 흥법사지 3층석탑
 소재지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 517



보물 제750호
 거둔사지 3층 석탑
 소재지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



천연기념물 제93호 성황림
소재지 : 원성군 흥업면 대안리 1303 - 1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소재지 : 원성군 문막면 반계리 1458



천연기념물 제279호 홍업면 티나무
소재지 원성군 홍업면 대안 리 1295



사적 제168호 거둔사지
소재지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 144외 33필



지방유형문화재 제24호 구룡사 대웅전 소재지 :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1029



치악산 구룡사 전경



지방유형문화재 제25호
상원사석탑 및 광배
소재지 : 원성군 신림면
성남리 781, 782



지방기념물 제27호
영원 산성
소재지 :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산50 - 1



호자 황무진의 충효사
소재지 : 원성군 문막면
반계 3 리

目 次

제 1 편 역사(歷史)의 향기

제 1 장 내고장을 빛낸 사람들.....	19
* 법천사(法泉寺)와 고승(高僧) 지광국사(智光國師)	20
* 거둔사(居頓寺)와 고승(高僧) 원공국사(圓空國師)	21
* 학문 존중한 실학자(實學者) 한백겸(韓百謙)	21
*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한준겸(韓浚謙)	23
*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한 김제남(金悌男)	25
* 만고에 길이 빛날 황무진(黃戊鎭)	27
* 한시(漢詩)에 뛰어난 이달(李達)	30
* 바른소리 잘하던 정시한(丁時漢)	33
* 세기의 풍운아 임경업(林慶業)	37
* 고구마 종자를 처음 들여온 조엄(趙瞻)	40
* 구국일념의 필봉(筆鋒) 한기악(韓基岳)	42
제 2 장 내고장 효열행(孝烈行) 유적	45
* 효자 황무진(黃戊鎭)의 충효사(忠孝祠)	46
* 이위(二位) 열녀문.....	46
* 정선 전씨(全氏) 열녀비	46
* 김병근(金炳根) 효자문.....	47
* 추병각(秋秉珪)의 처 경주김씨 열녀문.....	47
* 경주김씨 효자각.....	48
제 3 장 현장의 발자취.....	49
* 견훤(甄萱)과 왕건(王建)의 싸움터 문막(文幕)	50
* 임진왜란과 구미포(龜尾浦)	51

* 은섬포(銀蟾浦) 와 흥원창(興原倉)	52
* 연안김씨 종가 봉기(蜂起) 의 안창리(安昌里)	53
* 국난극복 유적지 원주성(原州城)	55
* 원성군의 3.1 만세운동	57
● 노림학교(魯林學校) 의 운동	57
● 소초면(所草面) 에서의 항거	58
● 흥업면(興業面) 의 시위	61
● 귀래면(貴來面) 의 시위	62
● 각 부락에 일어난 봉화시위	63
* 월송리(月松里) 원진거리와 6. 25	69

제 4 장 유적(遺蹟) 유물(遺物) 의 모습 71

* 국보 제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	72
* 보물 제78호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74
* 보물 제463호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75
* 보물 제464호 흥법사지 삼층석탑	76
* 사적 제168호 거둔사지	77
* 법천사지(法泉寺址)	79
* 흥법사지(興法寺址)	80
* 구룡사와 대웅전	81
* 황장금표(黃腸禁標)	83
* 거둔사지 삼층석탑	83
* 입석대와 청석탑	84
* 상원사와 삼층석탑	85
* 황산사 미륵상과 삼층석탑	86
* 구도(龜島) 에 있는 미륵불 입상(立像)	88
* 평장리 석조불두(石造佛頭)	90
* 영원산성(鵠願山城)	90
* 운산태봉(雲山胎峰)	90
* 관어대지(觀魚臺址)	91
* 취병정(翠屏亭) 의 내력	91
* 고산(高山) 입석(立石)	93
* 김제남(金悌男) 신도비	94
* 조엄(趙瞻) 의 공적비	94
* 임경업(林慶業) 추모비	95

제 2 편 조상의 얼과 슬기

제 1 장 향토의 전설	99
*치악산의 유래	100
*구룡사의 유래	101
*단정(端亭)과 노산군(魯山君)	104
*용마암(龍馬岩)	105
*장마때 떠내려간 동산	106
*호전(虎田)	108
*욕바위	109
*과거(科擧)와 산신제	111
*사제월(沙堤月)의 수난	113
*피내울	114
*비석 만들던 비두리(碑頭里)	115
*근면한 사람들이 살던 차면이(叉勉)골	116
*신립(申砮)장군 승전기	116
*무명장군 묘	117
*쉬고개와 솥을 뵈	118
*쇠세바위와 박씨부인	120
*노적바위와 마귀할미	123
*후리사지(後利寺址)와 고사리	124
*진사동(進士洞)	125
*해삼(海三)터	126
*금사동(金寺洞) 이야기	127
*공양왕의 유배지 순위실(遜位室)	128
*도참설과 백씨문중(白氏門中)	129
*명심보감, 노당선생(露堂先生)	131
*원신장군과 열녀 심씨(烈女沈氏)	134
*시묘 3년	135
*선녀 발자욱	137
*지음곡(知音谷)의 까마귀	138
*중다리미 바위	138
*금대리	139

제 2 장 옛생활과 풍습 141

* 의생활(衣生活)	142
* 식생활(食生活)	144
* 주생활(住生活)	147
* 오락(娛 樂)	149
* 토속신앙(土俗信仰)	155
* 세시풍속(歲時風俗)	157

제 3 장 특산명물(特産名物) 175

* 소초면의 양잠	176
* 담배재배	176
* 강냉이엿의 원산지 황골	177
* 농지개량에 필요한 농용석회	178

제 3 편 천혜의 자원과 보배

제 1 장 명승·경관(名勝·景觀) 181

* 진귀 명산 치악산(雉岳山)	182
* 섬강(蟾江)의 위용	184
* 심산유곡 구룡계곡	186
* 옥산동대(玉山東臺)	187
* 간현의 병풍바위 문연동천(汶淵洞天)	187
* 희귀 식물대 수림지	188
* 회전터널(또아리굴)과 천연동굴	189
* 열두봉의 장엄한 미륵산과 황산골	189
* 평천(平川)과 종포(終浦)	190

제 2 장 희귀의 종(種) 193

* 관상수 향나무, 재래사과 능금나무, 나전칠기와 옷나무	194
---------------------------------------	-----

제 3 장 유서깊은 나무 195

총람

* 인물(人物) 유적(遺蹟)	201
* 부록: 목조건물 각 부분의 명칭	215

제 1 편

역사(歷史)의 향기(香氣)

제 1 장 내고장을 빚낸 사람들

제 2 장 내고장 효열행 유적

제 3 장 현장의 발자취

제 4 장 유적·유물의 모습

제 1 장 내고장을 빚낸 사람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모든 개인은 어떠한 사회나 국가의 영위(營爲)에 참여하게 된다.

그 개인들은 크거나 작거나간에 또는, 좋은 의미로나 좋지 못한 의미로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는 사회나 국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로부터 받기도 한다.

이 개인들 중에는 사상이나 학식이나 활동이 뚜렷한 사람은 그 사회 국가에 주는 영향도 그 역량(力量)에 정비례 하여 큰 바가 있다.

우리의 선인들 중에는 우리 국가 사회에 기여, 공적이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행실과 업적을 남김으로써 귀감이 되는 일도 많다.

그 시대 시대에 당면한 운명을 도맡았던 선봉자였고 과거에서 현대를 잇는 교량역(橋梁役)인 것이었다.

그들이 남긴 행적과 유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밑거름이 되었고, 당면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방향감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원성지방의 인물들은 신라 고려를 거쳐 이조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역사에 또는 각종 실록(實錄)에 실려있다.

옛날부터 산수(山水)가 좋고 복잡함 보다는 초야속에서 생활했던 때문에 이지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서, 학자가 많고 국가 사회에 기여했던 인물이 어느 고장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제 조국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모든분야가 새롭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 원성지방의 옛 주인이었던 선조들의 인간성과 행적을 단순히 회고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간추려, 앞으로의 비약에 발판을 삼고자 한분 한분 소개해 본다.

법천사(法泉寺)와 지광국사(智光國師)

고려(高麗)때 사람으로 화엄종사(華嚴宗師)화엄종의 대강사(大講師)스님으로써 성은 원(元)자는 거룡(巨龍) 본관은 원주며 984년(성종 3)년 휴(休)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海麟)

어려서 부터 고승이 되고자 법고사(法阜寺)관웅(寬雄)에게서 수학 하였으며, 해안사(海安寺)준광(俊光)에 의해 중이 되었고 용흥사(龍興寺)에게 목종 2년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1004년(목종 7) 승과(僧科)에 급제 대덕 대사를 거쳐 1021년 호경(평양)의 중흥사(重興寺)에서 중대사(重大師)가 된후 수다사(水多寺) 해안사의 주지로 있다가 덕종때 삼중대사(三重大師)에 올라 수좌(首座)가 되고 승통(僧統)이 되었다가 1056년 왕사(王師)에 올랐다.

그후 1058년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사(國師)가 되어 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원성군 부론면 법천사(法泉寺)에서 1057년(문종21) 입적(入寂)한 인물이다.

그는 문종때 왕사와 국사로 승려로서는 최고 지위를 차지했던 유례가 드문 고승(高僧)이었는데, 그가 주지로 있던 법천사는 현재 존재치 않으나 사지(寺址)로써 아직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의 탑비가 세워져 있다.

법천사는 서기 725년 창건된 절이라고만 밝혀지고 있을뿐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이곳 절터에는 아직도 현존해 있는 것으로 그의 탑비인 지광국사 현묘탑비(玄妙塔碑)가 세워져 있다.

선종 2년에 건립한 것으로 1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현재 국보(國寶) 제 5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탑비에는 국사의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으며, 고려초의 문장이 뛰어나고 시(詩)잘 짓기로 유명한 이부상서(吏部尚書)를 지낸 정유언(鄭惟彦)이 왕명을 받들어 비명(碑銘)을 짓고 글씨는 안민후(安民厚)가 썼다.

또한 국사가 죽은지 15년 후인 1085년에 그의 부도인 현묘탑(玄妙塔)이 옆에 세워졌는데 이것 역시 우리 나라 묘탑(墓塔)중 최대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탑은 한일 합방후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까지 되었다가 국내 여론이 분분하자 다시 반환되어, 현재는 경복궁에 세워져 있으며 국보 제1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듯 고승으로 많은 치적과 대우를 받다가 죽으니,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던 현묘탑비와 현묘탑은 9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교문화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호는 지광(智光)이다.)

거둔사(居頓寺)와 고승 원공국사(圓空國師)

거둔사지(居頓寺址)는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창건된 고찰로서 절터가 약 7500坪으로 現在 3층 석탑(보물제750호)와 원공국사 승묘탑비(圓空國師 勝妙塔碑)(보물 78호), 불좌대와 기초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절터의 금당지(金堂址)는 전면 6줄 측면 5줄 주초석과 본래 20여 칸의 대법당(大法堂)이 있었던 것으로 높이 200cm의 화강석 불좌대(佛座臺)가 있다.

3층석탑은 높이 530cm로 2층 기단 우주(偶柱)와 상주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렸다. 탑신에는 우주(偶柱)가 새겨있고 옥개석(屋蓋石)은 층급받침이 5단으로 귀끝이 약간 치켜들려 있다. 탑 꼭대기의 상륜부(相輪部)에는 노반(露盤)이 남아있다. 이탑은 통일신라 3층 정형탑(定型塔) 양식을 따르고 있다.

원공국사(圓空國師)는 고려 태조(太祖) 13년(서기 930)에 출생하여 8세에 불교에 입문하였으며 속성(俗姓)은 이씨(李氏)로 전주인(全州人)이다.

현종(顯宗) 4년에 왕사(王師)가 되어 현종(顯宗) 9년에 죽으니 그의 나이 89세였다.

승묘탑비(勝妙塔碑)는 죽은 지 7년후인 현종(顯宗) 16년(서기 1025)에 건립되었으며 비신(碑身) 245cm 폭 126cm에 귀부 120cm의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절터 아래 30m에 위치한 정산국민학교에 길이 960cm 폭 80cm의 당간지주(幢竿支柱) 한쪽이 있으며 하나의 지주는 지금의 현제산(賢溪山)의 동남쪽에 있다고 한다.

한편 승묘탑(勝妙塔)이 고려 현종 16년(서기 1025)에 건립되었으며 보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현재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음. 이 탑은 일정기(日政期) 때 화단염(和團稔)의 집에 있다가 해방후인 1948년에 현위치로 옮겨졌다.

학문존중한 실학자(實學者) 한백겸(韓百謙)

선조조에서 역학(歷學)과 역사 지리학 연구에 고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 중기 실학(實學)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있으니 그가 한백겸(韓百謙)이다.

그는 1552년(명종 7) 한효윤(韓孝胤)의 아들로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原城郡 富論面 魯林里)에서 태어났다.

지는 명길(鳴吉)이요, 호는 구암(久庵)으로 청주 한씨 구암공파의 시조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움에 힘썼으며 민순(閔純)에게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

을 배웠고 계속하여 의리(義理)에 관한 연구에 힘써 육경논맹(六經論孟)과 염락관민(濂洛關閩)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1586년(선조19) 천거(薦舉)에 의하여 중부참봉(中部參奉)이 되고 이어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을 지내고 선릉참봉(宣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했다.

1589년 자살한 정여립(鄭汝立)의 시체앞에서 통곡한데다 그 시체를 후히 장사지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또한 정여립의 생질(甥姪)인 이진길(李震吉)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장류(杖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대사(大赦)로 풀려나와 내자사직장(內資寺直長)으로 기용되고 1595년에는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1601년 형조정랑(刑曹正郎)이 되었다가 청주목사등을 거쳐서 1607년 판결사(判決司)를 역임하고 그해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

이듬해, 선조가 승하하자 빈전도감당상(嬪殿都監堂上)이 되었고 1601년(광해군2)에 강원도 안무사를 거쳐 이듬해 파주 목사가 되었는데 파주 목사를 끝으로 관제에서 물러났다.

그는 항상 청렴한 관리였고 언제나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항시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했던 그는 1608년(선조41) 이원익(李元翼)과 더불어 공물(貢物)의 폐단을 들추어 대동법(大同法)을 실시케도 했다.

공물이란 각지방에서 특산물(特産物)을 헌납하는 제도였다.

옛날 백성의 부담은 일반토지세(一般土地稅)와 병역및 부역세(賦役稅)와 특산물로 바치는 공물인데 지방관리의 횡포로 말미암아 특히 공물때문에 생긴 폐단은 컸다.

특산물을 강제로 재배케 하거나 혹은 중간 상인과 관리가 결탁하여 특산물을 고가로 매수하여 바치고 그 댓가를 백성에게 강요하는 방납(防納)의 폐단이 명종때 부터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임란 후에 더욱 심해져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었다.

이러한 때 한백겸은 시정책(是正策)을 주장하여 이원익과 더불어 대동법을 실시하게끔 하였다.

대동법은 조선왕조 경제정책의 최대 개혁으로서 공물제를 폐지하고 공물대신 쌀로 바치게하여 그 쌀로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을 사서 쓰게함으로써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청주 목사로 있을 때에는 실묘(묘를 잃어버림)한 조상의 묘를 찾는 것을 소원으로 하였는데 청주한씨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노씨 문중에서 묘비와 묘를 없앤것을 탐지하고 노씨문중에서 자백을 받고 조상의 묘를 찾았다는 일화도 있다.

한백겸은 관리로써 역사에 특기되어 오고 또 높이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벼슬보다 학문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구암 자신이 한 말이다.

학문을 좋아했지만 형식화한 정주학자(程朱學者)의 공리공론(公理公論)에 얽매어 있지는 않았고 고증학적 방법을 적용한 자기를 닦고 세상을 알아서 그것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여 경세하는것이 목표이고 그와 같이 수기치인(修己治人) 하는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주창한 구암 한백겸은 1613년(광해군 5) 향년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저서로는 기전고(箕田考), 주역전의(周易傳義),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구암유고(久庵遺稿)등이 있으며 원주 칠봉서원에서 제향하고 그의 유지를 계승 기념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조 중기의 실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구암 한백겸의 청주 한씨 후손들은 현재도 부론면 노림리에서 동족 부락을 형성하여 살고있다.

구암 선생과의 얽힌 일화도 많지만 지명과 관계되는 것중에는 구암선생이 관직에 있을 무렵 노국(魯國)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희귀한나무 몇 그루를 가지고 와서 고향에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노국에서 가져온 나무의 숲이라 해서 노림(魯林)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나무는 느티나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노림리 일대가 그 나무로 가득차 있었으나 6.25 이후, 토지 개량과 부락 개량등으로 모두 난벌되어 현재는 불과 몇 그루에 지나지 않아 노숲이라는 지명은 이제 하나의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구암공은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의 친형이 된다.

노숲과 청주 한씨에 대해서는 한준겸 편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국난극복(國難克服) 앞장섰던 한준겸(韓浚謙)

서평부원군 한준겸(西平府院君 韓浚謙)은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의 아우(弟)로서 자는 익지(益之)라 했고 호는 유천(柳川)이라 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 본관은 역시 청주이다.

관관을 지낸 효윤(孝胤)의 둘째 아들이로서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진사가 되어 태능(泰陵) 참봉이 되었다가 1526년(선조 19년) 문과에 응시 급제하여 사국(史局)에 뽑혀 검열(檢閱)이 되었다.

선조가 출제하여 유신(儒臣)들에게 글을 짓게 했을 때 수위로 뽑혀 표피(豹皮)를 상으로 하사받기도 했다.

그는 그후 궁천현감(衿川縣監)으로 외직에 나가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반란이 일어나자 일찌기 사위 이진길(李震吉)을 천거했던 연유로 파직 수금 되었

다가 다시 기용되어 1592년에는 예조정랑을 거쳐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었다.

그후 내직으로 들어가 지평(持平)등을 거쳐 1597년(선조 30)에는 승지(承旨)가 되었다. 또 다시 왜적이 쳐들어 오게 되자 이 때는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를 도와 마초(馬草)와 군량미(軍糧米)등의 수집 저장에 노력하였고, 경기도 관찰사, 대사성, 영남안찰사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공은 원래 정인홍(鄭仁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집 앞을 지나게 되어도 외면하여 오던 터에 인홍의 일당인 문홍도(文弘道)의 무고로 파직되기도 했다.

1600년에 다시 기용되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사도체찰사부사(四道體察使副使)를 겸했다가 다시 호남안찰사와 예조참판(禮曹參判)에 보직을 받았는데 당시 변경에 호적들의 침범이 잦아 사도도원수(四道都元帥)로 부제학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후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다가 다시 관서(關西), 영북(嶺北)의 안찰사가 되었으나 1613년(광해군 5)에 옥사 사건에 관련되어 일시 수감되었다가 파직 유배케되었다.

5년동안 충원(忠原)땅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적소에서 중추부지사로의 소명을 받고 5도 도원수를 겸한 겸직관으로 중화(中和)에 부(府)를 두고 북로(北虜)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임금의 장인으로써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으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1624년(인조 2년) 이괄의 난에 왕을 공주(公州)로 모시고 가 있다가 1627년 정묘호란때는 왕세자를 전주(全州)에 모시고 적이 물러간 뒤에 환궁하여 얼마후 죽으니 때는 1627년(인조 5) 그의 나이 70세였다.

이와 같이 공은 갖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슬기롭게 넘겼고 때문에 공(公)은 구암(久庵)과 함께 조선왕조의 처족 거족 명문으로서 대의명분을 세웠고, 청주한씨 문중의 인물중의 인물로 부각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공이 원주목사로 재직당시 원주에는 관아(官衙) 건물조차 없어서 주민의 행랑채를 빌려 정사(政事)를 보았는데 여기서 딸을 낳은 것이 나중에 인조의 비(妃)인열왕후(仁烈王后)가 된 것이다.

인열왕후는 어려서 고생하던 원주에서의 일을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것을 생각하며 일상 고향생각에 젖어있어 인조의 물음에 아뢰은 바, 원주 인동에 왕비각을 세우게 되었으며 왕비의 애향심을 달래주기도 했다고 전해온다.

뿐만 아니라 한씨 문중에서는 인열왕후 외에도 왕비가 5명, 그리고 재상이 11명이나 배출되었다고 전해진다.

구암의 선조 명회(明淮)가 이곳 노림에 정착한 이후 한씨의 문중 마을로 인근

에서는 보기도문 큰 고옥들이 가득 차있어 지방에서는 자랑거리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6.25동란때 이 부락이 완전 소실되어 지금은 옛 고옥이라고는 한민우씨가 살고 있는 과히 크지않은 집 한채 뿐이고, 이제는 한씨네 보다는 각 성(姓)이 모여사는 살기좋은 신흥부락이 되었다.

한때 문막 팔경 중에는 (노림송성=魯林頌聲)이라는 귀절이 있었다. 노림리에서 글 읽는 소리가 8경중에 하나였다니, 재상이 11명이나 배출될만도 했다고 하겠다.

부관참시(剖棺斬屍)당한 김제남(金悌男)

김제남(金悌男)은 이조 선조(宣祖)의 장인(國舅)으로 자는 공언(恭彦) 시호는 의민(懿愍)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영의정(領議政)까지 지낸 전(詮)의 증손자로 원주(原州) (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에서 태어났다.

1597년(선조 30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이르렀던 그는 인목왕비(仁穆王妃)의 아버지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피봉 되었으나 1613년(광해군 5년) 이이첨(李爾瞻)등으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결국 잡혀서 죽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아들도 다 화를 당하고 말았다.

자부 초계 정씨와 어린 손자 천석(天錫)과 군석(君錫) 형제만이 화를 모면은 했으나, 온전히 목숨을 보존할 길이 없어서 하루는 정씨가 아들 천석과 군석이 급사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관속에 넣어서 상여로 운구(運柩)하는 것처럼 동대문 밖 멀리까지 나와서 다시 『선영인 원주까지 가야한다』고 이유를 내세워 원주에 있는 외조부(外祖父) 댁까지 와서 숨어 살게 하였다.

그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복권됨으로써 제주도에 유배중이던 부인 노씨(盧氏)도 돌아오고 손자 천석(天錫)과 군석(君錫)도 찾았다.

한편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사람에게 또 가하는 극형)까지 당했던 김제남(金悌男)도 왕의 특명으로 고향인 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에 묘를 크게 만듦과 사당(祀堂)도 짓게 되었다.

지금도 이곳 안창리(安昌里)에는 공의 사당과 함께 신토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도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딸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고, 손자였던 천석과 군석이 살아서 연안김씨(延安金氏)의 중시조가 되기까지의 행적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인목대비(仁穆大妃)는 이조 선조의 계비로 김제남의 딸이다. 그리고 선조(宣祖)의 유일한 적통(嫡統=적출=정실)에서 난 계통을 이을 사람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로서 1602년(선조 35)에 왕비(王妃)로 책봉되었으며 존호를 소성(昭聖), 정의(貞懿), 명렬(明烈)등으로 각각 받았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왕세자로부터 폐위하려던 소북파(小北派)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大北)의 정인홍(鄭仁弘)등이 득세하게 되면서 1613년(광해군 5) 대북파의 흥제로 영창대군을 비롯하여 아버지 김제남이 피살되고 이때 인목왕후도 서궁(西宮)에 유폐되는등 한 때의 유혈극이 벌어졌다.

그후 1623년(광해군 15) 살제폐모사건(殺弟廢母事件)을 이유로 서인(西人) 이귀(李貴)등이 들고 일어나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하자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질책하고 능양군(陵陽君=仁祖)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서 인목대비는 대왕대비(大王大妃)가 되었다.

그후 인경궁 흠명전(欽明殿)에서 기거하다가 한 많은 세상을 떠났던 대비는 한때 폐모가 되어 친정인 연안김씨 한 가문의 씨조차 말리게 되자, 요행스럽게도 조카벌 되는 어린 천석과 군석을 상여에다 넣어서 살려낸 기억을 더듬어 인조에게 부탁하여 천석과 군석을 찾았다.

그럼 연안김씨대를 잊게된 천석과 군석의 행적을 살펴보자.

10세도 안되는 천석형제는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상여속에서 서울을 빠져나와 부모님의 고향땅으로 들어 왔으나 갈 바를 모르고 헤매다가 행가리, 지금의 원주시 무실동(茂實洞) 외조부(外祖父)댁으로 가서 숨어 살았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으로는 이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외가(外家) 또한 무사하지 못함을 짐작한 외할아버지인 정묵(鄭默)이 남몰래 영원사(領原寺)주지(主持)에게 부탁하므로써 떠돌이 고아로 주위의 눈을 피하며 치악산 영원사에서 10년 동안을 숨어서 자랐다.

1623년 인조반정 뒤 대왕대비의 부탁을 받은 인조가 특명으로 전국에 방을 놓아 찾게 되니 이때 영원사 주지에 의하여 원주감영(原州監營)에 신고되었고 대왕대비



〈金梯男 신도비〉

인 인복대비의 확인으로 찾게되었다.

인조의 특명으로 천석은 돈영부 참봉(敦寧府參奉)에 올라 할아버지인 김제남의 사당(祀堂)을 모시게 되었고, 후에는 홍산(鴻山), 홍천(洪川), 금성(金城), 마전(麻田) 등의 수령(守令)을 역임했으며 다시 연안김씨의 대를 잇게 한 중시조가 되었다.

여기서 애석한 것은 아우인 군석에 대해서는 그 후의 행적을 알 수 없다. 후대를 잇게 한 연안김씨 문중에서는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 김제남의 신도비각을 보수하는 한편 사당도 재건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원주문화원(原州文化院)에서 그 문중의 후원으로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일륜골(原城郡板富面 金垞里一輪谷)에 천석(天錫)과 군석(君錫)이 어린시절 숨어 자란 유적지에 유적비(遺蹟碑)를 세우기도 했다.

만고(萬古)에 길이 빛날 황무진(黃戊鎭)

지금으로부터 4 백여년 전인 인조때, 원주에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하는 황무진(黃戊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창원황씨 부정공(副正公)의 5 대손이며 증의 아들로 1568년 3월22일 현 봉산동 무진고개에서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태어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지금의 원성군 문막면 반계리(盤溪里) 골무내기라는 마을이었다.

비록 가난해도 천성이 온순하고 효성이 지극한데다 학문에도 열중하였는데,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은 새벽같이 광채를 뿜었으며 용모 또한 준수하여, 그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게 하였다.

그가 처음 출사(出事)한 곳은 강원감영(江原監營) 이다. 골무내기 마을에서 강원감영 까지는 50 리 거리나 되었으며 새벽밥을 지어먹고 일찍 집을 나서서 감영에 도착하면 그때야 치악산의 아침해가 뜨곤 했다.

점심과 저녁밥을 대개 감영에서 먹게되는 그는 워낙 가난한지라 항상 집에 홀로 계신 노령의 어머니의 끼니 걱정으로 가슴을 죄었다.

때로는 자기가 먹을 저녁밥을 먹지않고 싸두었다가 퇴근할 때면 가지고 돌아와 어머니께 드리곤 했다. 그것도 행여나 음식이 식을새라 품속에 품고 다녔으나 집에 가면 식곤해서 더운 음식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또한 안타까워 하는 그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일을 마치고 원주의 동구밖인 누문(원주역 부근)계를 나

오고 있을 때였다.

어둑어둑한 길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보는 순간 그는 엇／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퍼런 두개의 불, 그것은 호랑이가 분명했다. 담력이 있다고 자부하던 그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머리끝이 쭈뼛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낸 그는 호랑이를 노려 보면서 꾸짖었다.

『듣건대 호랑이는 영물로서 산중의 왕이란 말을 듣는 처지어늘 어찌 무고한 나를 해치려 하느냐?』

말을 들은 호랑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그런 뜻이 아님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노령의 어머니가 집에서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사람이니 네가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줄 수 없겠느냐?』 이러는 황효자의 마음은 가슴에 품은 음식을 한번이라도 좋으니 따듯할 때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심정이 호랑이에게 통했던 말인가,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하더니 그에게로 등을 돌려대었다. 담력이 있는 그가 황소만한 호랑이의 등에 털썩 앉으니 호랑이는 그야말로 비호같이 달려서 잠시 후 골무내기 자기 집 앞에 내려 놓는 것이다.

호랑이 잔등을 내린 황효자는 호랑이에게 치사하고 어머니앞에 음식을 내어놓으니 어찌나 빨리왔던지 음식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아침 저녁으로 호랑이등에 업혀 왕복 일백리 길을 출퇴근하게 되었는데, 특히 좀 늦게 퇴근하여 어두운



밤길을 달리면 황효자의 형형한 두눈과 호랑이의 등잔같은 푸른 눈빛이 모습은 안보여도 어찌나 밝은지 사람들은 사등선생(四燈先生) 행차라고 일컬었다.

그러던중 며칠동안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밤 꿈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다. 깜짝 놀라 잠을 깨 그는 꿈에 본 곳을 찾아 나섰다.

몇십리 산길을 달려 찾아 가는데 날은 밝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충주(忠州)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다다랐을때 사냥꾼 몇이 모여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하지?』 하며 의논을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찾는 호랑이라 그는 사냥꾼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호랑이를 구해주니 그를 본 호랑이는 마치 질들인 강아지와 같았다.

또한 황효자는 두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두번 다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이유인즉, 그 아내들이 시어머니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늙으막에 가끔 망령을 부려서 며느리가 짜놓은 기름항아리를 오줌통이라고 들어다 밭에 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하니 며느리로서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며느리에게 할 말이 많아도 시어머니를 못모시는 며느리는 당시의 봉건적인 윤리가 허락치 않았던 시대인데, 더구나 어머니께 지성을 다하는 황효자의 경우는 더 심했으리라는 것도 짐작이 간다.

이리하여 세번째 맞이한 아내가 과평윤씨(披平尹氏)로 참의인 윤철(允喆)의 딸이며, 계유년(癸酉年) 2월 5일 출생한 현숙하고 부덕높은 규수로 황효자 못지 않은 효부요 어진 아내였다.

그녀는 설령 시어머니가 기름항아리를 오줌통이라 우겨대며 버릴라치면 『어머님 절 주세요, 무거우신데 제가 갖다 버리지요』하고 시어머니 모르게 오줌통과 바꾸어 내어다 버리는 지혜로움이 있었다 한다.

또한 황효자의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고생이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들면 기침 병으로 곁에서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찾아 다니며 좋다는 약은 모조리 구해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병이 더욱 위중하니 황효자의 마음은 암담하고 초조하기조차 했다.

애타는 그의 효성에 감동한 어느 의원 한사람이 『자당의 노환에는 약으로 꼭 잉어가 효험이 있는데 어디 구하기가 쉬울라고...』하며 딱한듯이 말을 하였다.

그는 귀가 번쩍떡였다. 광명을 보는듯 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잉어를 구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곧 앞 강으로 뛰어 나갔으나 때는 엄동설한(嚴冬雪寒)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무슨 수로 잉어를 잡으랴. 그는 먼저 천치신명께 두손 모아 빌었다.

잉어 구하기를 일념으로 축원하면서 가지고 간 도끼를 휘둘러 얼음판을 내려쳤다.

지성이면 감천인가! 그 두꺼운 얼음장이 썩 잘라지면서 뜻밖에도 큰 잉어 한

마리가 갈라진 얼음틈으로 뛰어 올랐다. 참으로 천지신명도 감동한 결과이리라. 얼음장 위에서 펄펄 뛰는 잉어를 잡아 들고서 뿔뿔이 기뻐하며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잉어를 약으로 쓰니, 마침내 효험을 보아 어머니의 병환이 쾌차하였다고 한다.

그가 잉어를 잡은 곳이 바로 섬강(蟾江)중에서도 물이 깊고 푸르러서 푸른용소라 했는데, 그뒤부터 황효자는 자기의 호를 벽룡담(碧龍潭)이라 했다.

이렇듯 황효자는 평소에 효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壬辰倭亂) 때는 왜적이 밀물처럼 쳐들어오자 친우인 김창일(金昌一), 허후(許厚) 등과 더불어 분연히 일어나 의군을 모으니, 그를 따라 일어서는 이가 많았다.

마침내 왜적이 물러가니 국토를 지킨 공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龍驤衛)에 봉해지기도 했다.

황효자가 별세한 후 그의 효행은 널리 국내에 알려져 임금에게 까지 알려졌고, 더욱이 당시의 대국인 명(明)나라에서 특효(特孝)의 인사를 천거하라 할 때, 조정에서 황효자를 제일 먼저 천거하니 그의 이름은 멀리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

1634년(인조:仁祖 12) 나라에서 명하여 효자정문(孝子旌門)을 그의 집앞에 세우게 하였으며, 효종(孝宗) 원년에는 특히 일중추(逸中樞)를 제수하고 자룡(子龍)이라는 이름까지 내려졌다

85세까지 장수하고 1652년(효종 3) 4월 22일에 돌아가니, 시호(諡號)를 충효공(忠孝公)이라 했고 그 이듬해 다시 효자정문을 세우게 하여, 『살아서는 청살문(靑旌門), 죽어서는 홍살문(紅旌門)』하면서, 사람들은 두번씩이나 효자정문을 나라에서 세우게 한 황효자를 우러러 출천지효(出天之孝)라고 칭송하였다.

그의 사당(祠堂)은 충효사(忠孝祠)라 했고, 이조말엽 까지 원주읍 향교마을 지금의 원주시 명륜동 향교자리에 있었으며, 매년 강원 감사와 원주 목사가 그 향화의 비용을 보조하여 왔었으나, 일제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충효사의 관리도 소홀해지게 되니, 황효자의 후손들이 골무내기로 옮겼는데 마을 뒷산에는 황효자의 묘와 사당이 있고 바로 옆에 호비(虎碑)가 세워져 있다.

한시(漢詩)에 뛰어난 이달(李達)

이달(李達)은 이조 중기의 한시인(漢詩人)으로 자는 익지(益之)요 호는 손곡(蓀谷) 본관은 홍주(洪州)이다.

오경사성의 5 세손이며 부정수함의 아들로 홍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독서(讀書)에 힘써 비상한 글재주를 보여 신동(神童)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다. 그는

비록 쌍매당 이첩의 후예로서 문벌높은 집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첩(妾)의 자식이라는데서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도 세상에 나설 수 없었다.

당시는 아무리 양반의 자손이라고 해도 서출(庶出)이라 하는 첩의 소생에게는 사회 진출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한 시대였지만 원채 문장이 뛰어났던 그라, 한리학관(漢吏學官)이 되어 일을 보기도 했으나 뜻에 맞지 않아 그 직을 사직하고, 향리인 원주에 돌아와 시문(詩文)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때에 사귄 친구로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과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선생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형(天才型)인 그는 성미가 몹시 까다롭고 피뻘스러운데다가 풍채 또한 남들에게 뒤떨어져, 서울에 있을 때도 사람을 사귀는 데는 항상 손해만 보아왔다고 한다.

대인관계에 능숙치 못하게 되니 더욱 시문에만 온 정신을 기울였는데, 이렇게 지나는중에 하루는 사제(思齊) 김정국(金正國) 선생이 손곡의 시를 음미하고 난 후, 손곡의 시가 비록 호방하기는 하나 당시(唐詩)의 아류(亞流)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통렬히 비판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손곡은 사제의 말을 옳게 여기고 더욱 분발하여, 고향인 손곡리(孫谷里)의 산골집에서 5년이란 세월을 두문불출하며 글 공부에 전념했는데, 이와 같이 노력한 끝에 그의 시문은 더욱 새로운 경지를 터득하였다.

그후 여러 시작(詩作)을 읊어 문우(文友)들에게 보이니, 모두가 그의 대 시인으로서의 성장에 경탄을 아끼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삼당(三唐)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삼당이란 최경창, 백광훈과 같이 당시에 뛰어났다는 데서 이 세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손곡이 읊은 시 중에서 한 수를 소개해 보면

화려했던 옛 대월이

풀속에 묻혔으니,

꿀 뜯던 마소들은

석양에 누었구나.

나라 망친 슬픈 원한

이제야 뉘 알라마는,

강산이 물드니

단풍 놀이 풍을시고.

이 시는 고려왕조의 폐허를 고독했던 평민시인의 마음에다 비유할 수 있겠고, 변해버린 세상에 단풍놀이를 즐기는 세속적(世俗的) 체념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시를 평해 고절(孤絶) 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적 편력을 지칭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특히 율절가곡(律絶歌曲)에 가장 재능이 발휘되었고, 패강사(溟江詞)食詞)등이 모두 절창이라고 알려져 있다. 칠언율시(七言律詩)로서 제연상인축(題衍上人軸)이 더욱 이름 높았다.

전체적인 대표작으로서는 반죽원, 만랑가(漫浪歌) 등이 있으며 특히 산사시(山寺詩)에는 고절한 풍경과 외로운 인생처럼 처절함이 마치 그의 심회를 읊은 듯하다.

이처럼 그의 시풍이 고독과 체념으로 승화된 것은 시대 자체를 탓하기 전에 인간의 운명을 탓한데 있으며, 그의 생애 자체가 불만과 울분을 갈무리하기에는 곤욕이 될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거족이었던 허엽(許曄)이 허난설헌(許蘭雪軒)과 균(筠)의 교육을 부탁했던 것도 그의 고절한 인품을 믿었던 까닭이었다.

불우한 평민시인으로 총명한 제자를 가르치는데서 산수에 사는 만큼의 위안을 받았다고도 볼수 있는 그는, 허균이 참형당하던 해인 1609년(光海君 10년)에 57세를 일기로 한많은 생애를 끝마쳤다.

한편 제자(弟子)중에 허난설헌과 그의 남동생 허균이 있는데, 허난설헌은 강릉(江陵)에서 태어나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등진 사람으로, 동생 허균과 함께 원성군 부론면 손곡리에 와서 손곡 이달에게 글을 배웠고, 따라서 그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허균이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지은 후 다시 적서타파운동의 선봉에 섰던 일이라든지, 허난설헌의 시문이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양반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요소가 많은 일들이 모두 스승인 손곡 선생의 영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등진 허난설헌이 지은 시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기 한 수를 소개해 본다.

가난한집 처녀가
 겨울 긴긴 밤을
 자지도 못하고 짹짹 짜내는
 그 비단은 누구의 옷감이란 말이나
 추위에 곱아드는
 이손 저손으로「복」을 주고 받으며
 짜고 또 짜는
 그 처녀도 그것은 알수 없으리라
 오직 제 옷감 아닌 것만 분명하다.

또한 그녀의 남편 김성립(金誠立)이 백면서생으로 접(接：선비들이 글 읽는곳)에 나가 공부할 때 공부는 많하고 기생들과 놀기만하자 이것을 비꼬아 「고지접유재 금지접무재(古之接有才 今之接無才)」란 글을 썼다.

이 글의 뜻을 보면 단순히 옛날 집에는 재주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는 뜻만이 아니라, 접(接)자는 재(才) 방변에 첩(妾)이다. 남편이 공부 하는 그 집에 재(才)가 없으니 첩(妾)만 있다는 뜻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옳게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손곡의 지도를 받은 그들도 당시의 부패한 정세와 생애 자체가 불만과 울분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을 알수 있으며,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바른소리 잘하던 정시한(丁時翰)

정시한(丁時翰)은 1625년에서 1707년 사이의 인물로 자는 군익(君翊) 호는 우담(愚潭)이며 본관은 나주(羅州)로 관찰사를 역임한 언황(彦璜)의 아들로 현 부론면 법천리(富論面法泉里)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면서 고향인 법천리에서 후진 양성과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원래 문벌 높은 가문의 귀공자였기 때문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집의(執義=이조판서 사헌부의 종 3 품 벼슬)와 사업(司業=성균관의 정 4 품 벼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원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과거에도 오르지 않았던 터라 그와 같은 관직을 주어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뜻을 바꾸어 관계에 나간 그는 진선(進善=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 4 품관으로 정원은 1 명임)에 올랐었다. 1691년(숙종 17). 기사환국【己巳換局=1689

년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하는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과 이를 지지하는 남인(南人)과의 싸움에서 남인이 득세한 일】 때는 인열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잘못이라고 상소(上疏)했던것이 문제돼 사직당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기용되었으나 사퇴하고서는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한 채 초야에서 지냈는데 1696년에는 희빈 장씨의 강호(降號)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당파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뜻을 기탄없이 토로하기도 했다.

그후 1704년에 노인직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라는 벼슬을 받았을 뿐 화려한 가통(家統)을 잇지않고 평생을 야인(野人)으로 학문과 후진양성, 그리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정의 그릇된 점을 직소(直訴)했던 절의의 사람이다.

1707년 향년 81세로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의 학문은 그후 정약용(丁若鏞), 이익(李瀾)등 실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정시한의 색목(色目=4색)을 굳이 가려낸다면 남인(南人)에 속하며 활동한 것이 숙종시대이니만큼 우리 역사상 당쟁(黨爭)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로 노소론(老少論)의 싸움에 앞서, 서인과 남인의 예론(禮論)을 중심한 싸움이 극심하였던 때였다.

이 틈바구니에서 잘못하다가는 귀향살이 가는것이 당시 벼슬살이 하던 선비들에 예사로운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사약(賜藥)에 이르는 비극을 당해야 했던 시기였다.

그는 송시열(宋時烈)을 필두로 이른바 역사에서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이라고 하는 이하명(李頤命), 이견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김창집(金昌集)등 정계의 거두들이 일시에 사사(賜死)를 당하던 살어름판과 같은 어수선한 환경속에서 살아왔다. 대개의 선비집안 사람들이 바라는 벼슬길에서 출세해 가지고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데 정시한은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집안의 조건과 충분한 여건에서 임오록(壬午錄), 관규록(管窺錄)등의 저서(著書)로도 능히 그의 문장이나 글공부의 깊이가 당대에 추앙을 받아, 학자들이 우담(愚潭) 선생이라 일컬었을 정도였고, 독학으로 성리(性理)에 관한 연구를 하여 이 방면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학자였으므로, 학문과 문장이 부족해서 벼슬길에 오르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벼슬살이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한 이유의 하나는, 앞서 말한 어수선했던 벼슬길의 풍파에 혐오(嫌惡)를 느꼈던 점과 당시 벼슬길에서 제대로 행세하자면 색목(色目)의 줄을 타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였었는데,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후 실제로 남인이 득세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 못했던 점을 들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여건때문에 나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적 성품상에 연

유된 바가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의롭지 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대로 보아넘기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때문에 어지러운 당시의 여전에서는 벼슬질이 그에게는 순탄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겠다.

또한 그는 강직한 성격때문에 상소를 곧 잘 올렸다는데 그가 올리는 상소가 늘 문제가 되었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숙종 15년에서 20년대까지의 기록에는 그의 상소때문에 말썽이 되었던 귀절이 여러번 나타나 있다.

숙종때는 당쟁이 고비에 이르러 앞서도 잠깐 말하였지만 귀양살이나 사약을 받고 죽는 사람이 어느 시대보다도 많았다. 이러한 정세의 불안정을 보고 숙종 22년 병자년에 올린 상소에

「전하(殿下)께서는 늘 큰 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귀양보내는 것을 일삼으며 조금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빛이 없으니, 이렇게 귀양보내는 것과 사약으로 죽이는 일을 많이 한 시대가 역대 군왕중에 전하 이외에 또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처벌과 포상이 조석으로 변하고, 선과 악이 금시에 뒤바뀌며, 어제 내 쫓았다가 오늘 다시 등용했다가 내일 쫓기기도 하고,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이 뒤범벅이 되었고, 형벌에도 일정한 기준도 없이 나라를 다스리니 어느 누가 불신하지 아니하겠습니까?」로 시작되었다. 군왕의 사사로운 감정적 처사와 관원들의 부정부패, 사회도의, 색목파당의 피해등 강직한 성격에서 읊어 나오는 데로 붓을 움직여 끝내는 읽는 사람이 머리카락까지 오싹하게 하는 글을 썼다.

(卒致五胡之亂 今日之事 豈不為國家滅亡之兆乎)「갑자기 오호(五胡)의 란을 당하면 오늘의 이러한 일들은 어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겠습니까?」하고, 상소문 뒤에 쓰여있는 이 말은 벼슬 아치는 물론 의사(義士)다 열사(烈士)다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기 어려웠으며, 아무리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매운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한가지로도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왕조실록에 정시한이 20여회나 기록이 나온다. 벼슬이라야 고작 진선(進善) 정도로 끝나고 말았으니 정사에 참여하는 고관대작(高官大爵)의 발언으로 기록되었을리 없고 그가 상소한 상소문으로서 숙종실록에 자주 오르내렸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절기(節氣)외에도 학문이 깊고 효행도 두터웠다고 하는데, 숙종실록 숙종 2년 병진12월 초(初)에 보면 당시의 이조판서가 왕에게 올린 말에

「치도(治道)에 급선무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일인데 금세(今世)에도 학문과 절기와 효행을 갖춘 인재가 있습니다」라고 아뢰고, 7명을 천거했는데 그중 제일 먼저 정시한을 뽑은 귀절이 있다.

그의 절기에 대하여는 상소문등에서 이미 예거 하였거니와 그는 또 효행의

사람이기도 하였다.

숙종실록 권정오17권두(肅宗實錄 關正誤十七卷頭)에 보면

「그는 고풍순질(高風淳質)하고 효성이 두터우며 소학으로 몸을 닦고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며, 몸소 농사지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산수(山水)를 즐겨 팔방으로 산수를 찾아다녔으며, 어머니가 늙은 뒤에는 어머니 모시느라 문밖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실록에

「시한(時翰)이 일찍 과거를 단념하고 향리에서 살면서 효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고, 살림이 가난했으나 검소한 가도(家度)로 줄여갔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도 이미 60노인이 되어 있었으나 늙은 몸을 이끌고 법도대로 장사를 치러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라고도 했고, 이외에도 「정시한 문효우(丁時翰文孝友)」라는 귀절도 더러 나오기도 한다.

그는 사대부(士大夫)의 몸으로 원성군(부론면 법천리 도시랭이)에서 선비의 사회에서는 천하게 여기는 농사를 몸소 지었고, 이러한 실질적인 그의 생활태도는 그의 일문이었던 정다산(丁茶山)이나 이익(李瀾) 등의 실학적(實學的)영향을 많이 끼쳤으며, 그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한 동지들은 그를 추모하여 광암사(廣岩祠)를 세웠다.

강릉의 임영지(臨瀛誌)에 원주 사람의 기질과 강릉 사람의 성품을 대비한 귀절에 원주 사람의 기질을「실검박(實儉朴)하다」하였는데 이것은 정시한의 실질 검소했던 생활 태도에서 감화된 바가 컸을 것이다.

세기(世紀)의 풍운아(風雲兒) 임경업(林慶業)



〈임경업장군 추모비〉

이조 중엽의 풍운아 임경업(林慶業) 장군을 흔히 충북 달천(達川) 태생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손곡리 평촌(蓀谷里平村) 마을 태생이란 것을 먼저 밝혀둔다.

임경업 장군의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며, 본관은 평택(平澤)이고 판서 임정(林整)의 후손이다.

1594년(선조27년) 11월 2일 평촌 마을에서 출생, 충주 달천으로 어려서 이사를 갔다.

그의 부친은 원주 감영의 옥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임경업이 김자점(金自點)의 손에 죽을 것을 임장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임장군의 부친이 원주 감영에 옥사장으로 있을 때, 원주골 여인숙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혐의를 받아 붙잡힌 죄수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안 임장군의 부친은 몰래 죄수를 도망치게 하여 그일로 파면 되었다.

옥사장을 그만두고 손곡리 평촌에 이사하여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8년이 지난 어느 날 임씨 집에 찾아온 중 원치록(元致錄 = 전에 도망시켜 준 죄수)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묘(墓)자리를 골라 주고 갔다.

상(喪)을 당하면 3일장을 하되, 장사 전날에 광을 짓고 거적을 씌울 것, 피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광속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

임씨는 그후 부친상을 당해 중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밤중에 광속에서 이상한 칼소리가 들려오므로 무의식중에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좌우에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앉았는데 그 가운데 두 무사(武士)가 칼을 맞대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었다.

한 무사가 들여다 보는 임씨에게 결눈질을 하는 사이 다른 무사가 결눈질 하던 무사를 내리쳐 죽였다.

후회는 하면서도 부친을 정해진 묘자리에 모셨으나 삼오제에 산소를 가보니 관이 묘 밖에 나와 있었다.

관을 다시 묻고 그날 밤을 묘 옆에서 지내는데, 공중으로부터 무사(武士) 3명이 내려 오더니 『너 같은 천민은 이같은 자리에 묘를 쓸 수 없다. 이 자리는 임자가 있는 자린즉 즉시 시체를 파다가 다른 곳에 묻어라. 불연이면 또 파내겠다.』하며 당장 묘를 파가라고 호통을 쳤다.

이 소리에 임씨가 용서를 비니 묵묵히 듣고 있던 무사 중 한사람이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하더니, 김씨네 자리는 다른곳으로 정하겠다면서 사라졌다.

이때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임경업을 낳았다.

후에 김자점과의 대립을 미리 점쳐준 것이라 하겠다.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이 지방의 전설이 운명론적이고 풍수지리설에 따른 것은 한국 인물 탄생 설화와 비슷하다.

임경업은 소년시절부터 항상 전쟁놀이를 했고 대장이 되어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며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했다.

그의 소원은 무인(武人)이 되는 것이었다.

일찌기 사기(史記)를 읽고 항우(項羽)의 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굳은 성명을 기록하면 족한 것이니, 만 사람을 대적하는 방법을 배워라」는 대목에서 이것이야말로 대장부가 할 일이라고 감탄했다.

그래서 그는 군사에 관한 실기를 열심히 배웠고, 27세가 되던 1620년(광해군11년)에 처음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인으로서의 길이 열렸다.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한 후 1620년 이괄의 난(李适의亂)이 일어 나자 그는 관군으로 출전하였고, 질마재 싸움에서 크게 이겨 공을 세우고 일등진무원종공신(一等振武原從功臣)이 되었다.

우림위장(羽林衛將), 낙안군수(樂安郡守)를 거쳐, 정묘호란(丁卯胡亂)때는 (1627년)강화에 갔다가 1630년 평양중군이 되어 검산성(劍山城)과 용골성(龍骨城)을 수축했다.

1631년부터는 정주목사와 영변목사를 지내다 백마산성(白馬山城)과 의주산성(義州山城)을 수축, 명나라 반도인 공유덕(孔有德)등의 반란을 토벌하여 명나라로부터 총병관(總兵官) 벼슬을 얻었다.

이듬 해 의주부윤이 되고, 청북방어사를 겸했으나 포로된 오랑캐를 석방했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다.

1636년 협의가 풀려 다시 의주부윤에 복직했다가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백마산성에서 역전하여 적의 진출을 막은 바 있다.

이즈음 중국 대륙의 형세는 신흥세력인 청나라가 기성세력인 명나라를 꺾고 일어날 때였다.

조정은 친명 일색이었으나 청나라 세력에 눌리어 겉으로는 청나라 말을 따라야 했다.

임장군도 철저한 친명파에 속했는데, 청나라가 명군을 공격하는 전초전으로 가도에 주둔할 명군을 섬멸코자 조선에 원병을 청하게 되니, 수군장(水軍將)에 발탁된 임장군은 가도에 있는 명나라 군사와 미리 내통하여 싸우는 체 하는 것으로 피차간의 피해를 없앴다.

1640년(인조18)에도 청군의 요청으로 주사상장(舟師上將)이 되어 명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역시 명군과 밀통하여 싸우는 척만하고 돌아오니, 나중에 청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체포, 청나라에 압송하려 했으나 임장군은 금교역에서 탈출 회암사(檜巖寺)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1644년(인조22) 중으로 가장한 임장군은 명나라로 건너가 지나온 사실을 밝히고 명나라의 총병이 되어, 우리 조정에 그 뜻을 알리고 청나라 공격에 나섰으나 명나라는 이미 망한 때라 이기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심기원(沈器遠)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임장군의 관련설도 있고해서 청나라에 임장군의 송환을 요청했다. 송환되어 온 임장군은 인조의 친국을 받았으며, 이때 김자점의 명을 받은 형리에 의해 장살(杖殺)되니, 때는 인조 25년 그의 나이 53세 되던 6월 20일이었다. (1646년)

『나는 천지의 기품을 타고 날 때 물건이 되지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다. 더구나 사람 중에서도 부녀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했거니와, 『이 작은 편벽된 지방에 태어났으니 좁은 곳에 비벼대며 살아가는 팔자가 되었구나』하고, 탄식한 내용으로 보아 그의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이 땅은 너무나 좁고 편벽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임경업 장군은 태어나기 전의 일화가 있듯이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자점의 독단적인 모함으로 피살된 것이다.

그후 나라에서는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정조(正祖)때는 충민공실기(忠愍公實記)라는 책을 만들어 그의 음덕을 기렸으며, 글을 지어 비석을 세우니 이것이 어제달천충렬조비(御製達川忠烈調碑)이다.

또한 이조 때에는 임경업을 모델로 한 전쟁소설이 많이 나왔는데 임충신전(林忠臣傳), 임경업전(林慶業傳), 임장군전(林將軍傳)등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병자호란의 영웅으로 그려져 있다.

이제까지의 내용과 같이 임경업은 무인으로서의 큰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정치 구조가 너무 보수적인 데다가 이조의 당파싸움으로 복잡한 때에 보다는 큰 뜻을 못 펼쳤지만, 무인으로서의 전쟁능력은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이 뜻을 기리기 위해 1968년 8월 원주문화원에서는 임경업장군의 출생지인 부론면 손곡리(富論面 孫谷里)에 임경업 장군 추모비(追慕碑)를 세웠다.

고구마 종자를 처음으로 들여온 조엄(趙儼)

고려조의 문익점(文益漸)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직물계에 혁신을 일으켰거니와, 이조때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艮峴里)에서 태어나 벼슬하던 조엄(趙儼)공은 일본 대마도(對馬島)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다 퍼뜨려서 당시의 식량 생산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조엄은 1719년(숙종 45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낸 상형(尙炯)의 아들로, 자는 명서(明瑞)며 호는 영호(永湖)라 했고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1738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752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으며, 사서(事書), 수찬(修撰), 지평(持平)등의 일을 보다가 1757년부터는 교리(校理) 동래부사(東萊府使)를 거쳐,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이듬해부터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냈다.

그는 이상의 벼슬을 지내는동안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만큼 뚜렷한 업적을 남기었으니, 그것은 창원(昌原)에 마산창(馬山倉)을 세운 것과 진주에 가산창(駕山倉), 밀양(密陽)에 삼랑창(三浪倉)을 세운 일 등, 모두가 그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부담시켰던 세곡 수송의 폐를 직소하여, 세곡 수송은 나라의 부담으로 하고, 곡물의 수납을 공정하게 하므로써 국고(國庫)의 충실을 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치적을 쌓은 후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1763년(영조 39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까지 건너가게 되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던 때는 마침 가을이었다. 지금은 뱃길로도 일곱시간이면 건너는 현해탄이지만, 풍선(風船)을 타던 당시에는 바람따라 며칠도 걸릴 수 있는 험한 뱃길이었다. 현해탄을 건너던 중 조통신사 일행은 대마도 즉 「쓰시마」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조공은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곡식을 본 것이다.

일본인들이 밭고랑에서렁쿨을 헤치며 땅을 파내니,렁쿨에는 과일같은 곡식이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은가. 처음 고구마를 구경한 조공은 회안하게 여겨서 『저것은 마치 땅속에서 열리는 과일같은 곡식이구나』고 혼자말을 하였다.

지금도 고구마를 지과(地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때 조공이 느낀데서 연유하였고, 사실 조공 자신도 이것을 가져다가 퍼뜨리면서 곡식 이름을 지과라 했다.

조공은 대마도 번주(播主)가 자기를 대접하는 객관에서, 낮에 처음본 지과(地果)같은 곡식을 먹어 볼 수 없겠느냐 청했다. 조공의 청에 일본인들은 고구마를 찌다 바쳤는데 처음 맛을 본 조공은 그 맛이 좋다 생각하고 생(生)으로된 고구마의 맛도 보고자 했다. 그래서 다시 생고구마를 청했더니 일본인들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며 생고구마는 맛이 없다고 시치미를 뻘다.

일본인들의 태도로 미루어, 그들이 고구마 종자를 외국인에게 주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눈치챈 조공은, 그날 밤으로 부하에게 금부치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접근해서 종자 몇 알만 얻어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남모르게 종자 세알을 구한 그는 다음날 시치미를 떼고 대마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 봄을 기다려 다시 대마도에 들렀다.

걸음으로는 일본에 들어가 사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일이라 해서, 대마도 번주도 의심않고 그를 환대하였는데, 여기서 몇일 묵는 동안 또다시 부하를 시켜 고구마 심는 법과 가꾸는 법등을 세밀히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신주모시듯 가져온 고구마 세 알을, 동래(東萊)와 제주도(濟州島)에서 정성들여 가꾼 보람이 있어, 몇해 후에는 각 도에 종자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고, 계속 퍼져나간 종자가 전국에 보급되어 식량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조공은 그후 공조판서, 동지성균판사, 지의금부사, 이조판서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무고로 그 직에서 파면되었다.

그후 혐의가 풀려 다시 대사간과 이조판서를 지냈으나 1774년(정조 1년)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무고로 또다시 위원(渭原)에 유배되는 몸이 되었다.

유배되어 처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아들 진관의 직소가 주효해서 죽음은 면했으나 다시 김해(金海)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병사(病死)하니, 1777년(정조 1년) 향년 57세 였다.

그는 사업과 재정에 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뛰어나서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문장으로 또는 식견으로 도꾸가와(徳川) 막부의 요인들을 심복시켰다는데, 이러한 그의 글재주를 자손들도 닮은 탓인지 그의 후손들은 7대를 내려 오면서 판서를 지냈다고 하며, 이래서 그의 문중이 살던 동네 이름을 지금도 「작동」이라 한다. 「작」이란 벼슬「爵」자인데 이것도 아마 조공과 그의 자손을 경모하여 부쳐진 이름 같다.

지금 지정면 간현리 작동에 가면 공의 묘비와 사적비가 있는데, 사적비에는 2가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갈 때 풍랑으로 고생하던 일까지 낱낱이 적혀있다.

또한 순조(純祖) 14년 10월에는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됨과 동시에 문익(文翼)이라는 시호를 받은 그는, 문장에 뛰어난 학자였으며 국가재정과 경제에 밝은 경제가 였고, 관제의 경력이 다채롭듯 행정가였으며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제일 먼저 수입 재배를 시도한 산업인이기도 했다.

고구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농작물로서 우리생활에 긴요하게 쓰여지고 있다.



조임선생 묘비

구국일념(救國一念)의 필봉 한기악(韓基岳)

언론인 한기악(韓基岳)은 호를 월봉(月峰)이라 했고, 부론면 흥호리(興湖里)에서 홍문관 교리를 지낸 한정우(韓正愚)의 유복자(遺腹子)로 1898년 1월 4일에 태어났다.

명문(名門) 청주한씨(淸州韓氏)의 후예로 효종때 우의정을 지낸 흥일(興一)의 12대손이며, 예조판서를 지낸 돈원(敦源)의 증손자이고, 선조조의 구암 한백겸(韓百謙)의 후손이기도 하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계신 할머니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이름 높은 명문 집 귀공자로서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기도 했다.

고향인 월봉산 기슭에서 성장한 그는 병오 정미(丙午 丁未 1906—1907) 년간에 일어난 의병봉기(義兵蜂起)때는, 왜병(倭兵)들의 병화로 월봉 마을이 모두 불타 잿바닥이 되었을 때, 험 집을 헐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시 집을 짓도록 주선해주고, 가족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는 중앙학교(中央學校)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법과를 졸업한후, 망국의 한을 달래다 못해 만주, 시베리아등지를 유랑하

며 구국단심(救國丹心)을 불태웠으며, 3.1운동 때는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다시 상해(上海)로 건너가 임시정부(臨時政府)에서 법무위원(法務委員)으로 국권회복(國權恢復)에 힘을 기울였다.

1920년 귀국하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창간 때는 정치부 기자로 들어가 필봉으로 애적을 공박하는 등 구국이념에 불탔다.

그후 경제부장, 사회부장등을 역임하다가 1925년 시대일보(時代日報) 초대 편집국장으로 옮겼으며, 1927년에는 조선일보(朝鮮日報) 편집국장이 되어 구국운동의 일념으로 필봉을 종횡무진 휘둘렀다.

한편 민족합일전선(民族合一戰線)인 신간회(新幹會)의 한 주역으로 민족해방과 사회평등의 구현에 분골쇄신하여오기도 했다. 그는, 1935년에 이르러서는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간사(幹事)를 역임하는 등, 교육대업(教育大業)에 헌신 노력하던중 1941년 병에 걸려 그해 6월 26일 한참 일할 수 있는 4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 후예로는 만춘(萬春)을 비롯하여 3남1녀가 있다.

그의 고절한 뜻을 받들고 기리고자 1975년 기념사업회가 발족 월봉저작상(月峰著作賞)을 제정, 해마다 시상하여오고 있다.

한편 유도회(儒道會) 원주지부(原州支部)에서는 월봉의 송덕과 유지를 널리 찬양하여 만대의 사표로 삼고자, 각계의 거족적인 성원을 얻어, 40주기를 기념하는 일로 1981년도에 그가 태어나서 자란 유서 깊은 월봉산 기슭에 사적비를 세웠다.

비석에는 월봉(月峰) 한기악(韓基岳)이 남긴 유작시(遺作詩)한편이 새겨져 있는데 소개해 보면

아! 「동아일보」야

민중의 벗으로 동아세아에

반만년 찬란한 우리 역사와

삼천리 화려한 우리 강산을

위하고 위해서

죽을 것 같고 언 건 죽히려

잠복(潛伏)된 일체를 발흥케 하려

압착(壓搾)된 온 것을 소생케 하려

장애와 시험을 패념(掛念)치 말고

너를 고대(苦行)한 지 이미 오래고

너에게 바람이 많고 컷도다.

네 사명 증함은 누구나 알고

네 주의(主義)가람은 누구나 안다.

1920년 4월 2일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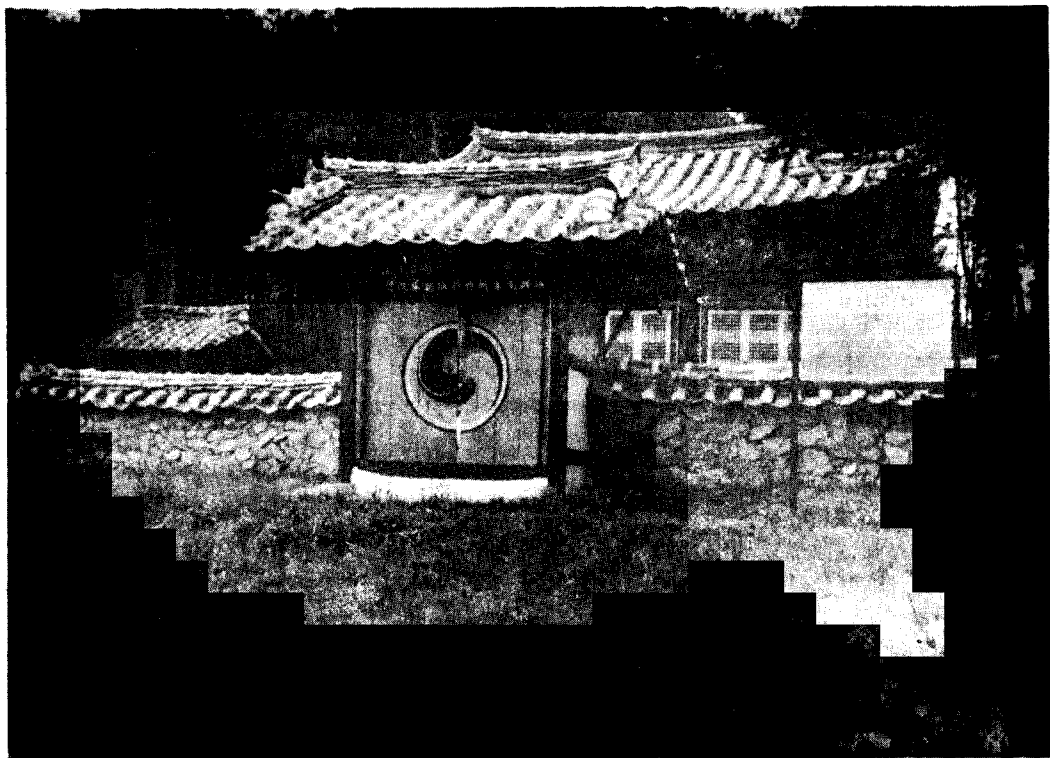
제2장 내고장 효열행 유적

우리 한 민족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의 맥을 이어온 전통적인 옛 선조들이 남긴 자취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열행 유적이 남아 있어 그 뜻이 지금의 시점에서 더욱 되새기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선조들은 충효정절이 뛰어났는가 하면 그 유적을 잘 관리 보존하고 있는 슬기로운 고장이다.

이러한 유적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며 그 뜻을 새겨 쇠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선조들의 인간성과 행정을 단순히 회고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가꾸어 천 만대 후손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효자 황무진(黃戊鎭)의 충효사(忠孝祠)

효자 황무진은 조선 인조(朝鮮仁祖) 때 사람으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낳은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였을 때에는 황효자(黃孝子)의 효성에 신(神)도 감동한 듯 그로 하여금 잉어를 얻게하여 어게하여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였으며 호랑이도 감동하여 그에게 순종한듯 황효자는 출입할 때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는 전설이 있다.

1634(仁祖 12)년 조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황효자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효자정문(孝子旌門)과 함께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또한 황효자는 충성심이 대단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칭호를 받았다. 인조때 충효의 정여(旌閭)가 내려져 그때부터 충효사(忠孝祠)라 하였다.

· 현재 원성군 문막면 반계리에 있다.

이위(二位) 열녀문

이정문(旌門)은 권용성(權用聖)의 처 김해 허씨(金海許氏)와 권용엽(權用燁)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하여 1887년에 건립된 것이다.

열녀 허씨(許氏)는 남편 권용성(權用聖)이 병들어 죽게되자 남편의 상례를 치른 후 부인으로써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한다.

또한 열녀 박씨(朴氏)는 그의 남편 권용엽(權用燁)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일주일 간 음식을 전폐하고 슬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한다. 한 집안에서 두부인이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는 정절(貞節)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이곳에 열녀문을 세웠다.

현재 원성군 소초면 둔둔 1리에 있다.

정선 전씨(旌善全氏) 열녀비

이비는 열녀(烈女) 정선 전씨(旌善全氏)의 효열을 기리기 위하여 면민(面民)이 건립한 것이다.

열녀전씨는 함경도(咸鏡道)에서 이곳 신림면 구미동에 이주하여 단란하게 살다가 남편 염신식(廉信植)이 병들어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절개가 굳은 전씨(全氏)는 남편이 죽은 방에서 한 발도 밖에 나오지 않고 단식(斷食)한지 9일 만에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烈女)로 그를 기리기 위해 뒷날 이 비를 세웠다 한다.

현재 원성군 신림면 구학리 64번지에 있다.

김병근(金炳根) 효자문

이 비는 청주김씨(淸州金氏) 김병근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49년에 건립된 것이다.

효자 김병근(金炳根)은 효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되자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고 뒷 뜰에 단(壇)을 만들어 병이 낫기를 하늘에 빌었는데 어느날 단(壇)위의 물 그릇에 날으는 새가 단환(丹丸) 한알을 떨어뜨리고 가 갈아서 약으로 썼더니 어머니의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이같이 효성이 지극한 효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이 곳에 효자문을 세웠다.

현재 원성군 호저면 매호리 417번지에 있다.

추병각(秋秉珪)의 처 경주김씨 열녀문

이 비는 부락 주민들이 열녀 경주 김씨의 효열(孝烈)을 기리기 위하여 서기1948년에 건립된 것이다.

열녀 경주김씨는 15세에 결혼하여 20세에 첫 아들을 낳고 남편을 잃게 되자 개가(改嫁)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굳게 정절(貞節)을 지키는 한편 늙으신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눕자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리는 등 극진히 보살폈으나 끝내 회생(回生) 시키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돌아가셨다.

나라에서는 이같은 사연을 듣고 효열부의 정문(旌門)을 내렸고 대동출판 협회에 서는 표창장을 전했다고 한다.

현재 원성군 소초면 교항 1 리에 있다.

경주김씨 (慶州金氏) 효자각

이 효자각은 김동희(金東熙) 김동윤(金東潤) 형제의 효심(孝心)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 유림(儒林)과 김씨 문중에서 서기 1956년 5월에 세운 것이다.

효자 김동희(金東熙)는 1894년(고종 31년) 부친이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되자 부친 대신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애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칼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큰 상처만 입고 목숨은 살아났다.

그후 나라에서는 김동희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마침내 부친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한다.

아우 김동윤도 역시 효성이 지극하여 주위의 칭송이 대단하였다.

현재 소초면 교항 1리에 있다.

제3장 현장(現場)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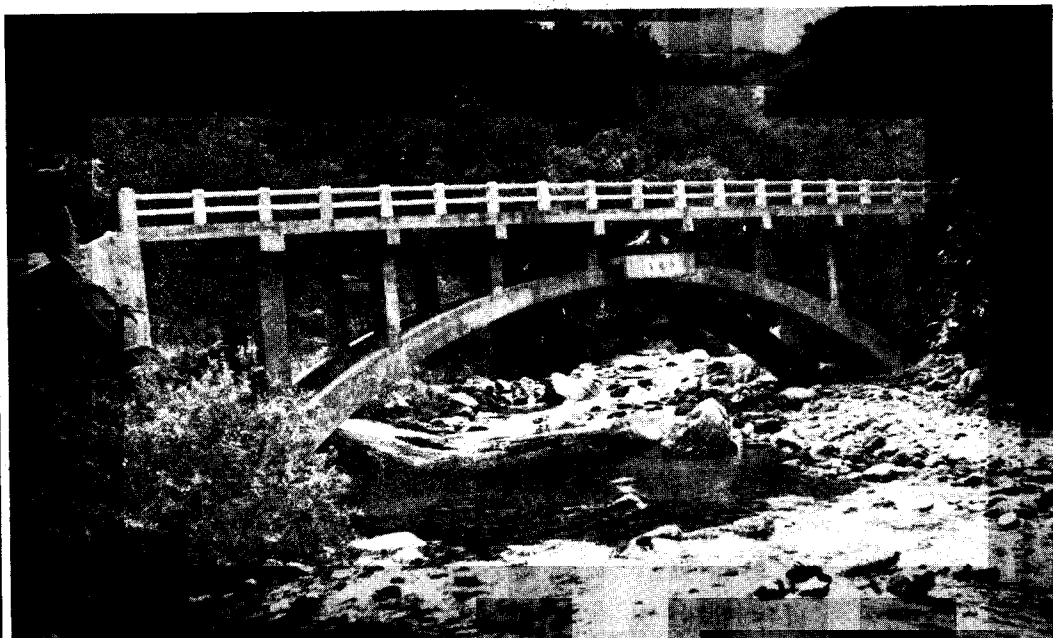
아득한 옛날은 그만두고 라도 이고장 원성(原城)이 병마(兵馬)의 고장으로 알려져 내려 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건들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는 데에서도 기인되리라?

치악산(雉岳山)을 중심으로 양길(梁吉), 궁예(弓裔), 왕건(王建)등 천하를 주름 잡으려던 호걸(豪傑)들의 발자취에서부터 역사가 바뀔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거란유족(契丹遺族)의 침입에 이어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힘을 잃고 쇠진해지자 5백년 왕업(王業)은 무너지고, 왜정치하(倭政治下)에서도 자주 독립만을 간구해 왔다.

그 염원은 헛되지 않아 독립은 되었으나 국토는 남·북으로 갈리워지고 따라서 6.25라는 비운으로 동족상쟁이 꼬리를 무는 현실에 있어 숙명과도 같이 적의 표적이 되어 많은 희생자와 재산손실을 받아야했다.

어느 고장 어느 지역인들 국난(國亂)을 당할때 마다 피해가 없는 곳이 있었으랴마는 특히 우리 고장의 활동은 한 역사의 장(章)이 될것이며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사실기록(事實記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의 기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구룡계곡에 있는 구룡교〉

견훤(甄萱)과 왕건(王建)의 싸움터 문막(文幕)

신라사회의 퇴폐와 왕실의 부패는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더욱 심하여, 왕조멸망의 징조가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었다.

왕실은 왕실대로 지방관리는 그들대로 부패하여 통일성업을 성취할 때의 신라정신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에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양길(梁吉)은 북원(현재의 원주)에서 난을 일으켜 벌써 30여 성(城)을 확보하고 세력이 당당하여 원주를 본거지로 하고 있었다.

이때 궁예(弓裔) 또한 왕실의 되어가는 모양이 못마땅해서 반기를 들고 죽산에 있는 견훤(甄萱)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려 했으나 그의 소심이 뜻에 맞지 않아 북원(北原)에 웅거하던 양길(梁吉)의 부하장으로 들어가 신라왕실에 항거하는 뜻을 펴게 됐으니 그때가 바로 829년이였다.

이때부터 궁예(弓裔)는 원주와 인연이 된 것이다.

양길은 궁예를 잘 대우하여 모든 정사를 위임하고 드디어는 군사를 나누어 취서 동편지방을 경략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궁예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치악산(雉岳山) 성남사(城南寺)에서 군사를 정돈해 가지고 영월, 평창, 정선을 거쳐 삼척까지 나아가며 모조리 항복을 받았다. 894년(진성여왕 8년)에 궁예는 강릉을 동해안 지역을 모조리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와같이 궁예는 양길의 집에서 발을 붙여 그 기초를 굳힌 후 강원도 북부지역을 모두 흡수하여 강원왕국을 건설하였다.

이때 개성의 토호 왕웅(王隆)이 아들 왕건(王建)을 데리고 와서 궁예에게 충성을 다했다.

세력이 커진 궁예는 왕건을 앞세우고 양길을 치기 시작했다.

이때 궁예가 가평(加平)에서 양길의 대부대를 격파하고 왕건으로 하여금 남쪽정벌을 명령했다.

남쪽정벌을 시작했을 때 왕건이 문막(文幕)에서 후백제의 견훤(甄萱)부대와 맞섰던 곳이 바로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建登里)의 건등산이며 왕건의 진지로서 왕건성지(王建城址)라고도 한다.

지명 또한 왕건이 오른산이라고 해서 건등산이니, 건등리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이고 여기서 넓은 벌판으로 약 4키로 떨어진 맞은편에 소위 견훤성지가 있다. 후백제의 견훤이 문막 궁촌리(宮村里)에 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궁실을 짓는

등 지반을 닦으면서 한편으로는 앞산에다 석축을 쌓아 성지구축을 단단히 하였다.
이때 왕건이 나타나 동쪽 맞은편 산을 이용하여 진을치고 장기전을 펴했던 것이다.

결국 왕건의 힘을 당하지 못한 견훤은 패주하고 말았다.

지금은 당시의 견훤이 웅거하던 곳을 궁말이라고 하며 앞산을 견훤성지라 하는데 아직도 약간의 석축은 남아있다.

궁말은 흙을 모은 토성이라고 하나 오랜세월과 또한 전담으로 이용되어 흔적조차 알길이 없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구미포(龜尾浦)

구미포(龜尾浦)란 섬강유역(蟾江流域)에 있는 나루터를 말함이다.

원성군 지정면 무장리(茂長里)에서 횡성군 서원면(書院面)을 잇는 배나드리(도선장)를 구미포라고 불러왔다.

섬강유역에서는 문막(文幕)다음가는 넓은 강변이 있고 강 건너에는 칠봉서원(七峰書院)이 자리잡고 있어 옛부터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을뿐 아니라 간재를 지나 들어오는 상선(商船)들이 모여 하나의 항구 구실을 하기도 했다.

이곳의 지형이 흡사 거북의 꼬리와도 같다는 데서 구미(龜尾)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한자로는 구미포(龜尾浦)로 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넓은 강변에는 집어 던지기 좋을만한 돌을 모아서 만든 크고 작은 돌무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미포 싸움터의 흔적이요 임진왜란의 소산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임진왜란때 왜적이 충주를 공략하며 한강유역으로 선발대가 들어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곳 주민들이 남여노소 혼연일치가 되어 돌을 주어 모았다고 한다.

정말 비장한 각오였다.

만일 적이 나타나면 석전(石戰)으로라도 한명의 적도 침범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별다른 대책과 방비책은 못되었고 다만 우리 민족의 굳은 결의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보겠다는 의지였을 뿐 신식무기를 갖추고 있는 왜적을 돌로 때려 잡을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적의 대부대는 섬강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지나 여주 벽절 앞에서 강을 건너 양평을 거쳐 서울로 들어갔다.

이때 강원도 조방장(漕防長)으로 여주 목사 원호(元豪)가 있었는데 강원관찰

사는 명하여 원호 조방장으로 하여금 섬강유역의 월송리(月松里)에 진을 치게 했기 때문에 당시의 왜적의 진로가 바뀌었다고 짐작이 된다.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康川面과 북내면(北内面)까지가 원주관찰부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주목사도 강원감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구미포 나루 부근에는 돌무지가 그대로 옛말을 말없이 전해 주기만 한다.

은성포(銀蟾浦)와 흥원창(興原倉)

이 흥원창(興原倉)은 우리나라 12조창(漕倉)중의 하나로 삼도접경(三道接境)인 원성군 부론면 흥호리(興湖里)에 있었다.

이 흥원창(興原倉)은 조세미(租稅米)의 수송을 위하여 수로연변(水路沿邊)에 설치하였던 창고(倉庫)로서 강상(江上)수송을 맡았던 수운창(水運倉)이다. 이 조창의 제도가 완비된 것은 992년(고려 성종11)경이었다.

세미(稅米)의 수송은 국가재정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므로 고려는 조창의 운영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 정종때에는 12창에 조선(漕船=수송선)의 수를 정하였는데 이때 흥원창에는 2백섬(石) 씩을 실어 나르던 배 21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매년 2월부터 세미(稅米)를 수송케 하였는데 그 기한은 가까운 거리의 것은 4월까지 수송이 끝나야 하고 거리가 먼곳의 것은 5월까지로 하는 한편 횡령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각 조창에 창감리(倉監理)를 1명씩 파견하였다.

이때 원주 흥원창에는 원주(原州), 평창(平昌), 영월(寧越), 정선(旌善), 횡성(橫城), 강릉(江陵), 삼척(三陟), 울진(蔚珍), 평해(平海)군등에서 가져오는 세미는 모두 육로를 거쳐 이 흥원창까지 와야 했다.

그러나 고려 말경에 왜구(倭寇)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수송은 전폐되다시피 되고 육로(陸路)로 운송하게 됨으로서 조창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조에 들어와서 조운(漕運)의 제도가 다시 정비되었으나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차차 육로가 개척되면서 수운의 이용은 줄어들었으나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등지에서는 이 흥원창(興原倉)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후, 신작로(新作路)가 개설되면서 따라서 중앙철도(中央鐵道)가 시설되니 수

운(水運)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 홍호리에는 흥원창(興原倉)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은 섬강(蟾江)과 남한강(南漢江)과의 합수가 되는 지점으로 은섬포(銀蟾浦)라고 했다. 한때 이곳에 조창이 이용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중 원주에서 이곳까지 70리길이 쪽바리, 우마차 등으로 길을 메었다.

그리고 문막(文幕)이 중간 항구(港口)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막의 경제동향이 원주보다 좋았었다고도 전해진다.

연안 김씨 종가 봉기(蜂起)의 안창리(安昌里)

을미년 11월 하순으로 접어들자 원성군 지정면 안창역(安昌驛)에는 사람들의 내왕이 부쩍 늘어났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11월 28일 연안김씨(延安金氏) 종가에서 창(倡義)을 결의하고 안창역에서 29일 의병봉기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육의사열전(六義士列傳)의 안하사전(安下沙傳)에는 을미년 8월부터의 급박했던 국내정세를 이렇게 밝혔다.

“을미년 8월 20일에 김홍집, 조희연, 장박, 유길준, 어윤중, 정병하 등이 왜놈의 형상을 지닌 병정을 거느리고 왜놈의 앞잡이가 되어 대낮에 대궐로 들어가 국모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웠다. 그해 음력 11월 15일에는 유길준, 김홍집 등 제적(諸賊)이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꺾게하니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머리 꺾는 화가 급박하게 되었다. 이때에 관찰사나 군수된자는 적당(賊黨)의 심복이었음으로 그에 대한 시행이 바람과 우뢰보다 맹렬하여 순식간에 온 나라에 거의 사람의 형상을 지닌자 없게 되었다”

안창에서 창(倡義)의 깃발을 올린 의병의 대의명분 또한 이와 다를바 없었다. 안창리의 연안김씨 종가에 모인의병장은 안승우(安承禹) 이춘영(李春永) 이필희(李弼熙) 김백선(金伯善) 등 이었다. 안창리는 인목대비(仁穆大妣)의 아버지 되는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이 태어난 곳이고 연안 김씨 가문의 중시조 천석(天錫) 이래로 세가를 이루고 살았다.

김광연(金匡淵)대에 이르러 양근(楊根) 현감을 지냈음으로 경기도 일원에서 이들 문중의 세교는 빈번했다.

그의 아들 김조수(金祚秀)는 경기 양근 지평 지방의 유학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갑오년에 김광연(金匡淵) 현감이 작고 했으므로 김조수(金祚秀)는 향리안창에서 거상을 하고 있었다. 의병봉기에 뜻을 두었던 지평 지방의 유학자들은 그들과 세교가 깊었던 안창 마을의 김조수(金祚秀)옹을 찾게되었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창의(倡義) 장소로 연안김씨 종가의 사저가 제공되었다. 당시 연안김씨 종가는 99칸의 집이어서 집안에서 거사를 모의해도 밖으로 전연 새어 나가거나 발각될 염려가 없었다. 의병장 이춘영(李春永)에게는 마침 연안김씨 문중이 처가였으므로 연안김씨 종가를 창의(倡義) 거사장소로 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드디어 창의(倡義)의 깃발을 드는 날은 왔다. 을미년 11월 29일 안창역 마을에서 수백명 의병군은 기병(起兵), 원주성으로 쳐 들어갔다. 안창 의병의 군량(軍糧)은 연안 김씨 문중에서 제공되었다.

당시의 원주군수 이병화(李秉和)는 의병이 당도하자 도망을 치고 관군은 흩어졌다.

안승우 의병장은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이춘영(李春永) 의병장에게 “지금 삭발의 화가 매우 급박하여 인심이 흉흉하니 비록 우리의 병력이 고단하고 미약하나 죽히 적의 수령된 자들을 축출할 수 있을 것인즉 번개같이 바람같이 이 무리들을 제거한 뒤라야 인심이 조수족(措手足)할 겨를이 생겨 의리에 호응하게 되며 따라서 고무 격려하면 대사를 성공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천은 유림이 모인 고을인데 주령 김익진(金益鎭)이란 자가 삭발의 독촉이 날로 심하여 다른 고을 보다 더욱 혹독하니 마땅히 먼저 이 고을을 구원해야한다 하고 군사를 제천으로 옮겼다. 이 때가 을미년 음력 12월 3일(양력 전양원년 1월 17일)이었다. 이필희(李弼熙)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고 서상열(徐相烈)을 추대하여 군중의 스승으로 삼고 李春永은 중군장이 되고 행군하여 단양으로 들어갔다. 이춘영(李春永)의병장은 이때 지금 수령이란 자는 모두 흉적들이 내세운 것으로서 비록 왕비를 폐하자는 문자나 의복을 바꾸고 형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흉적이 시키는 것이라면 남보다 뒤질까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 임금의 신하로 이런 무리를 먼저 토벌하여 흉적의 무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다. 제천에 모인 의병장은 이필희(李弼熙), 서상열(徐相烈), 주용규(朱庸奎), 이범직(李範稷), 신지수(申芝秀) 등 이었는데 여기서 의병진의 부서가 결정되었다.

대장 이필희(李弼熙), 군사 서상열(徐相烈) 중군 이춘영(李春永) 군무유도 안승우, 안창에서 창의(倡義)한 후 원주를 거쳐 제천, 단양, 영월, 방림 다시 제천으로 옮기면서 의병부대는 활약하였다.

우리나라 의병을 대표하는 제천의병은 안창 마을의 창의(倡義)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더욱 커져서 당시의 팔도열읍(八道烈邑)을 휩쓸었던 것이다. 안창리는 그래서 을미 의병사의 기점으로 재조명된다.

국난극복 유적지 원주 성(原州 城)

중국 대륙을 정복,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이 되었던 원나라도 쇠퇴기에 접어든다. 여러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도적떼가 날뛰다. 홍건(紅巾)이 휘장을 하고 민심을 선동하던 홍건적의 횡행도 그 하나였다.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민심을 선동하던 홍건적의 두목 한산동(韓山東)은 붙잡혔으나 그의 부하 유복통(劉福通)이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중국 각 지방을 노략질했다. 한산동의 아들 한림아(韓林兒)를 황제로 삼고 나라 이름을 송(宋)이라 했다. 홍건적은 만주로 침입하여 요양(遼陽)을 점령했다. 그러나 원나라 군사에 쫓겨 고려로 들어오게 된다. 2차례에 걸쳐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는데 원주를 침공 함락한 것은 2차 침공때인 공민왕 10년(1361년) 12월 이었다.

글안적의 원주 침입으로 원주가 함락된 것은 고종 4년(1217년) 6월이었다. 몽고족을 물리치고 성을 지킨것은 고종 40년(1253년) 10월이었다. 합단적을 치악산 영원산성에서 쳐부순 것은 충렬왕 17년(1291년) 1월이었다. 홍건적의 침입까지 1백 40여년 동안 무려 네번이나 원주에 외적이 침범했다. 2회는 항전 물리쳤으나 2회는 함락되는 비운을 당했다. 오랫동안 몽고란에 시달렸던 터였음으로 침입한 외적의 살인 방화 약탈이 극심해서 원주 지방민의 생활은 곤궁한 상태였었다. 일반적으로 몽고란 이후의 고려사회는 불안정했지만 외적을 쳐부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기운이 없지 않았다. 원주 지방에는 옛부터 4개의 성이 있었다. 신라시대 양길(梁吉)이 웅거했던 치악산의 영원산성과 영원산성에서 서방 1.5km지점에 있는 금대성(金臺城) 그리고 서쪽 1km지점에 있는 해미산성(海美山城) 원성군 문막면 후용리에 있는 전현성이 원주지방의 고성이다.

원주지방에 쳐들어온 외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거나 함락 당했을때 막연히 원주성을 가리켰는데 이것은 전현성을 제외한 영원산성, 금대성, 해미산성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합단적의 침입과 왜적의 침입때는 영원산성 함락으로 명시되지만 몽고족과 홍건적의 침략은 원주성으로 지칭되고 있다.

원주성은 그러므로 원주목을 둘러싼 소규모의 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주목 7리에 단구역이 동쪽 45리에 신립역이 서쪽 45리에는 안창역이 유원역은 북쪽 7리에 있었다. 신흥역은 동쪽 1백리에 아야니원(阿也尼院)이 서쪽 38리에 송현원(松現院)은 서쪽 60리에 두었다. 둔탄원(屯呑院)은 북쪽 38리에 있었으며 요제원(要濟院)은 북쪽 80리에 있었다.

5백여년 전 조선 왕조 초기 원주목의 동서남북 교통망은 6백 20여년전 홍건적이 쳐들어 올때의 교통망 보다 확대되었다. 홍건적이 쳐들어올 당시의 원주성

은 훨씬 규모가 적었으리라 추측된다. 홍건적에 의해 원주성이 함락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극히 어려운 모습을 띠었다.

처음 홍건적이 침입해온 때는 공민왕 8년(1359년) 11월초 3천여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와 노략질을 하고 간 뒤부터였다. 12월에 홍건적의 괴수 모거경(毛居敬)이 4만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얼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와 의주를 함락시키고 부사(副使) 주영세(朱永世)와 1천여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적은 다시 서경을 함락시키는 강세를 보였다.

다음해 2월 고려군에 홍건적의 원수 황지선(黃志善)이 사로잡혔고 2만여명이 죽었다. 상만호(上萬戶) 이방실(李芳實)이 이끄는 고려군이 적을 추격하자 적병은 굶주리고 지쳐서 안주 철주 사이에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길에 잇대었다. 적 잔여부대 3백여명은 압록강을 건너 도주했다.

3월에 평안도와 황해도 해안으로 들어와 약탈했다. 이 전역이 홍건적의 1차 침입 양상이었다.

1차 침입때는 강원도까지 홍건적의 세력이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홍건적의 2차 침입때는 상황이 달라져 공민왕과 고려 조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되는 전란을 겪어야 했다. 공민왕 10년 10월에 홍건적의 위평장(僞平章) 반성(潘誠) 사유(沙劉) 관선생(關先生) 주원수(朱元帥) 등이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삭주(朔州)를 침범했다. 고려군과의 접전을 계속하면서 자비령을 넘어 밀어 닥쳤다.

적의 선봉이 예리해지자 공민왕은 피난길에 올라 12월에 안동에 도착했다. 공민왕은 정세운(鄭世云)을 총 병관으로 임명하고 적을 치게 했다. 홍건적의 기병 3백여명이 원주를 함락한 것이 이때였으며 목사 송광언이 전사했다.

홍건적의 1차 침입때 최영 장군은 김득배와 경천흥(慶千興)등이 싸움에 패해 평양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다음 서북면 병마사로 기용되었다. 이어서 평양 탈환에 성공하고 의주로 적을 추격 압록강 밖으로 쫓아버렸다. 이 싸움에서 이긴 공으로 평양윤과 서북면 순문사를 겸했다가 다시 서북면도 순문사 좌산기상시(左山騎常侍)를 지낸다.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있자 정세운·안우 등과 합세하여 서울(개성)을 수복하고 적을 몰아냈다. 그에게는 훈일 등과 국형벽상공신(國形壁上功臣)이 내려졌다. 글안적의 침입때 횡성출신의 조중장군이 전란을 마무리한 것처럼 홍건적의 침입은 철원 출신의 최영장군이 그 종결에 공을 세웠다. 원주의 강원감영(江原監營)이 설치된 것은 조선 태조 4년(1395년)이었다. 중앙의 행정 조직을 본떠서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방(房)을 두었으며 고장의 이속(吏屬)들로 감사(監司)를 보좌하도록 했다. 원주의 감영 건물은

임진왜란때 모두 불타버렸으며 인조 12년(1634년) 이배원(李培元)목사가 다시 건축했다. 현종 6년(1665) 감사 이만영(李晩榮) 이선화당 과 3 문을 시작하여 이 후산(李後山)목사가 완성했다.

6.25 동란으로 대부분 허물어 졌으나 선화당과 문루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원주의 도시 모형이 조선 왕조 초기에 그 윤곽이 잡혔던 것이다.

원성군의 3.1만세운동(三·一万歲運動)

읍내에서는 만세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골로 분산되어 일어났던 것은, 당시 읍 내에는 일본 관헌들이 많이 주재하고 있어서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고저 하는데도 그원인이 있었지만, 읍내 밖에 있는 여러마을이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역량 면에서 충분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각 지방별로 전개된 만세 운동은 다음과 같다. (원주시와 원성군의 실정을 분리하였음도 밝혀둔다)

● 노림학교(魯林學校)의 운동

노림학교는 실제 노림의숙(魯林義塾)으로서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魯林里)에 있는 노림국민학교의 전신이다.

노림리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의 문중 마을로 실학과(實學派) 한백겸(韓百謙)형제의 후손이 살고 있다.

일제시대 초기에는 부론면사무소(面事務所)가 여기에 있었다.

3.1운동 당시에는 흥원창(興原倉) 그러니까 서울 다니는 뱃터가 흥호리에 있었으며 그후 1936년(丙子年洪水)이후 현 법천리(法泉里)로 옮겼다.

문막(文幕)과 흥호리를 동서로 약 4 km정도에 두고 그 중간에 있는 노림리라는 마을에서 일제 초기에 학교를 세운 것이 「노림의숙」이었다.

문막리에는 보통학교가 건립되었는데도 노림의숙을 세운 것은 다른 경우와 같이 일제교육에 항거한 이유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채용한 교사들은 모두 항일사상가였다.

3.1운동 당시에 홍남표(洪南杓), 어수갑(魚秀甲), 한진충(韓鎭忠)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

홍선생과 어선생은 양평과 김포 사람이었으며, 이 두 교사는 평소에도 사상교육을 많이 실시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날 무렵 홍선생과 어선생은 미리 고종 인산(因山)에 참례한다는 구실로 서울에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서 졸업생 40여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노림학교는 1915년에 설립된 학교로 그해 3월 22일 제 1 회 졸업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 졸업생은 40명이었는데 홍선생과 어선생은 졸업생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준 뒤에 바로 서울로 일 보러 간다고 다시 가버렸다.

그런데 3월 27일 부론면에 원주군수 오위영(吳惟泳)이 소위 민심수습차 출장을 나왔다.

부론면 소재지인 홍호리에서 시국강연을 듣던 졸업생들 몇명이 즉석에서 항거하려다가 부론면 서기 유(俞)모씨에게 쫓겨서, 그길로 노림리에 온 졸업생 한범우(韓範愚)를 주동으로 한돈우(韓敦愚), 한태우(韓泰愚), 한민우(韓民愚), 정현기(鄭鉉基), 김승수(金聖洙), 김일수(金一壽)등 7 명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의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군수(郡守)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당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군수가 나타날 때 만세를 부르기로 했다.

군수가 나타나자 당나귀 고삐를 잡고 『철원군수도 만세를 불렀다니 원주군수도 만세를 부르라』고 요구하였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계속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그 오 군수는 말하기를 『어른들이 부르면 모르되 너희들과 점잖게 못하게 내가 어찌 같이 부르겠느냐』고 말하고 『자 이만하면 되었으니 그만둘 두지』하였다.

이말을 듣고 『그럼 군수님은 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말고삐를 놓아 주었다.

그후 얼마 안 되어서 문막헌병과전소 아리무라(有村常吉) 상병등과 채진묵(蔡陳默)헌병보조원이 달려와서 한범우는 즉석에서 체포되었고, 그외는 모두 피신을 했으나 정현기는 홍호리에 나가 숨어 있다가 채보조원이 상주모양으로 상복을 입고 온 것을 모르고 나왔다가 잡히고 말았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만세 운동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린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군수와 상복으로 변장까지 해서 체포에 눈이 빨갓던 채진묵헌병보조원은 반 민족적 행위로써 마땅히 규탄받아야 했었을 것이다.

● 소초면(所草面)에서의 항거

소초면(所草面)은 현재 원성군(原城郡)이지만 그 당시는 원주군(原州郡)이었다.

지형적 조건과 거리, 교통관계등으로 횡성(橫城)과 연락이 잦았기 때문에 4월 1일 횡성장날 만세운동에도 소초면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가담하였다.

이미 원주읍내에서는 직접 시위가 없다는 연락도 받았고 또한 원주읍내에서는 일본 헌병의 대부대가 있어서 회생을 가급적 피했기 때문에 횡성 장날 장터에서 하자는 내통은 미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먼저 횡성군의 운동을 참고로 해야 이해가 되겠으므로 횡성운동 주동자 강달회(姜達會), 강만형(姜萬馨)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 그들을 중심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강만형은 소초면 둔둔리(屯屯里) 사람인데, 둔둔리는 천도교구로서는 횡성 교구에 속하며 횡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전 횡성 천도교구장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인데, 강도영이 또한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횡성군 청일면 당고개에서 전사한 뒤 그를 계승하여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횡성에서도 제 1차로 만세운동을 3월 27일로 정하고 빈틈 없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미리 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체포됨으로써 대중운동으로 발전 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날은 원주 소초면 둔둔리에서 강달회, 하영현(河永賢), 신경묵(辛敬默) 그리고, 교향리의 추병륜(秋秉倫)등이 주동자들중에 끼여 있었으며 또한, 하영현(河永賢)과 강달회는 천도교인의 인술을 받아 만세꾼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활동이 과격하였다.

이날은 관헌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대규모적인 운동으로 격화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시위군중이 일시에 일어나서 면사무소와 군청을 때려부수는 등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때 마침 헌병 분전대장(고지마 : 小島)이 말을 타고 달려 나왔다.

그것을 본 군중들은 일시에 분노가 터져 『저놈 끄집어 내서 죽여라』는 소리와 함께 고지마 헌병이 탄 말로 물려와 그를 말에서 끄집어 내리고 구타했다. 이때 마침 지원을 나왔던 원주 헌병대는 대중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이때 둔둔리 사람들은 횡성 면사무소로 물려가서 하영현과 강달회의 시체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촛불로 밤을 밝히면서 시체를 걸머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둔둔리의 주민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4월 5일 소초면사무소가 있는 평장리로 물려가서 다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4월 5일 소초면사무소에 있었던 만세시위는 성격이 좀 색달랐다. 이것도 역시 둔둔리에서 발단된 것인데 4월 3일 강사문과 하영하의 장사때 이야

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 참여했던 신경묵 말에 의하면 그것은 의병출신으로 둔둔리에서 서당(書堂) 훈도로 있던 박영하(朴英夏)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소초면 여러 마을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박영하가 주동한 이 계획은 평장리(平庄里) 신현철과 함께 추진되었는데 신현철(辛鉉喆)은 자기의 동생 신현성(辛鉉成) 마을의 청년 유재경(柳在景) 김홍열(金興烈)과 심의성(沈宜聖)을 시켜서 소초면내의 의관리, 장양리, 평장리, 교항리에 연락하였다.

한편 박영하는 면내에 격문을 만들어 뿌렸으며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것은 4월 4일이었는데 면내의 연락에서 수암리를 제외한 것은 당시 소초면 관할 현병주제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 날인 4월 5일에 예정대로 모였다. 군중은 면사무소로 가는 부채고개에서 먼저 모였는데 교항리 주민은 때마침 이 마을에 장례식이 있어서 오후에 도착했고 술도 약간들 취했었다.

이렇게 모인 군중의 수는 강원도장관의 보고(報告)와 헌병사령부 통계에는 1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현철(辛鉉喆)의 판결문에는 수백명으로만 나타나 있으며 당시 참여한 심의성의 증언으로는 400여명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모로 참고해보면 약 3백명은 된것 같다.

그들은 부채고개에서 일단 만세를 부르고 나서 다시 면사무소로 가서 면장 남상철(南相喆)을 끌어내 만세를 같이 부르게 했다.

이때 교항리의 김춘선(金春先)과 의관리 김동혁(金東赫)같은 과격한 농민들은 면장에게 덤벼들어 매우 험악한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으나 때마침 박영하의 선창으로 만세소리가 폭발하니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에 마음을 모았다.

군중이 부채고개에서 내려갈 때는 점심 때였다. 이날의 시위는 원래 둔둔리의 하영현과 강사문의 죽음에 대한 위로만세의 성격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제각기 마을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수암리 헌병 주재소에서 원주 분전소의 지원을 얻어 각 마을을 수색하여 만세 참가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주동인물로 신현철과 박영하가 체포되었고 그의 많은 사람들이 무도하게 끌려갔다.

소초면에서도 태형을 받고 나와 살이 터지고 썩어 구더기를 파 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것은 구전일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흥업면(興業面)의 시위

흥업면(興業面)은 원주읍에서 가장 가까운 면 소재지이다.

당시의 면사무소는 잘개미(自甘村)에 있었고, 현재의 흥업으로 면사무소가 옮겨진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원래는 흥대촌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세운동이 추진된 동기는 고종황제의 인산(因山)때 서울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서울의 소식과 독립선언서를 입수한데 있다.

만세운동은 4월 9일에 있었는데 이날 낮과 밤 두 차례에 걸쳐 벌어졌다.

낮에는 사제리(沙堤里)와 대안리(大安里), 매지리(梅芝里)의 주민이 시위를 했고 밤에는 흥업리(興業里)의 주민이 마을 뒷산에 모여 시위를 하다가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시위를 했다.

낮에 있었던 시위는 사제리의 서당 훈도 김상익(金商翼)의 주장으로 그 마을에 주민 윤산악(尹山岳), 이재손(李在孫), 원성규(元成圭)가 주동이 되었는데, 4월 8일 원현복(元顯福)의 집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선전문과 대안리와 매지리에 보낼 연락문을 작성하여 세군데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4월 9일에 모두 사제리로 모였는데 모인 이유는 당시 면장인 서정우(徐廷禹)의 숙소가 사제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개 마을중에서 거리가 먼 매지리의 주민은 신작로를 따라 흥업리를 지나서 사제리로 갔는데 세개 마을에서 모인 군중은 약 2백이나 되었다.

군중은 사제리 앞 뜰에서 만세를 합창하고 면장(面長)의 집으로 갔으나 면장은 이미 없었다. 그래서 군중은 면사무소를 향하여 나오는데 언제 연락되었는지 원주읍에서 기마(騎馬)헌병이 출동하여 군중의 길을 막았다.

여기서 잠시 당시의 실정을 말하는 증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흥업리에는 당시 일본사람들의 밭(田)이 있어서 잠업(蠶業)과 양귀비(아편)재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매지리의 군중이 흥업리를 지날 때 그 일본사람은 읍(邑)으로 도망쳤고 결국 그들의 고발로 헌병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증언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편 재배에 대한 것인데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식민지에서 벌써 아편 재배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여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세운동은 일단락되고 밤이되자 흥업리 주민에 의해 다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사제리와 흥업리 주민 사이에 무슨 대립이나 알력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낮에 있었던 시위운동을 추진할 때도 흥업리 보다 먼 매지리에는 연락

을 하고 홍업리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낮에는 홍업리 주민이 방관만 하다가 밤에 일어난 점 등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홍업리의 운동 추진은 갑작스럽고 보다더 강력하게 수행되었다.

이러는 동안 홍대동에 살던 이현순(李賢淳)과 홍대성(洪大成)이 주관하여 커다란 태극기(太極旗)를 만들어 거기에 「대한 독립 만세」라 썼으며 홍학성(洪學成) 함원동(咸元東)을 앞세워 주민을 동원하였다.

처음에는 약 40명이 모였는데 이현순(李賢淳)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망곡례(望哭禮)를 올리던 뒷산 언덕으로 인솔하여 봉화(烽火)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이때 만세 군중을 동원하려갔던 사람도 오고 군중도 더 많이 모였다. 그리고 군중은 면사무소로 갔다. 또한 군중의 일부는 평소 그들의 품(勞動)을 이용하여 농사짓던 일본사람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인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면사무소로 몰린 군중은 사무소 건물을 포위하고 「면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면서기가 도망칠 때 면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군중은 밤중의 고요를 깨고 면장 서정우(徐廷禹)를 불러대며 옥박하였다. 면장도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군중 앞에 나왔다.

군중은 면장에게 태극기를 쥐게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여기서 이현순(李賢淳)의 판결문(判決文)에 나타난 면장 서정우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서정우는 「할 수 없이 만세를 불렀다」고 하였다.

면장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은 일본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니 순박한 양민에게는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었다. 군중도 외치고 면장도 외치는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의 만세소리는 한달이 넘는 4월 9일 원주 홍업마을에서도 울리고 또 울렸다.

군중은 그날 밤에 해산했으나 이튿날부터 일제의 검거 선봉은 모질게 붙어 거의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아니면 고문과 태형을 받았는데 홍대성과 함원동은 충청도 방면으로 피신했다가 오랜 뒤에 돌아왔다고 한다.

● 귀래면(貴來面)의 시위

귀래면은 원래 귀래에 있지않고 운남리(雲南里)에 있다가 귀운리(貴雲里)로 옮겨간 직후였다. 이 귀운리가 지금은 그렇게 큰 마을이 못되는 것은 저수지 때문이다.그당시는 여러 마을을 합하면 상당히 큰 동리였었다.

여기서의 만세운동의 추진은 천도교도(天道敎徒)인 김현수(金顯洙)와 김현홍(金顯弘) 그리고 선비 서상균(徐相均) 또 서당 훈도인 이정계(李鼎季)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을 사람을 모아서 망

꼭례(望哭禮)를 올렸던 것이다.

귀래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날은 4월 7일과 8일인데 7일은 본 마을인 평촌 사람만 모였고, 8일은 평촌, 고창, 새동말등 여러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약 2백명의 군중이었다.

그들은 망꼭례를 올렸던 마을 앞 언덕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는데 가운데는 천막을 치고 큰 태극기(太極旗)를 세웠다. 군중이 모였을 때 김현수는 독립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강연이 끝난 뒤 모두 만세를 불렀다.

이틀 동안의 이러한 시위를 마을 사람들은 「만세식」이라고도 불러온다. 소위 만세식이 끝난뒤 운남현병주재소에서 손석균(孫碩均)등의 현병보조원이 앞장서서 참가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김현수, 김현홍은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으며 이정년은 자기의 고향인 제천으로 피신하였다.

그런데 주동 인물의 하나인 서상균(徐相均)은 일제헌병이 잡으러 오니 『일본놈들에게 잡혀가선 죽느니보다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칼로 자기의 목을 몇 번이고 찔렀으나 다행이도 죽음은 면하여 원주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하고 나왔는데 병어리가 되어 평생동안을 말하지 못하고 지내다 죽었다.

한편 말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가 통고무줄을 달고 그 고무줄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 영양섭취를 한 애닭은 생애를 살았음은 일제의 정책이 그 얼마나 혹독했었는가를 짐작케 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 각 부락에 일어난 봉화시위(烽火示威)

위에서 기술한 4개면의 만세시위 운동외에도 많은 마을에서 4월 8일과 9일을 중심으로 밤을 이용하여 마을 곳곳마다 앞 뒷산 혹은 망꼭례(望哭禮)를 올리던 곳에서나 보름 달맞이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봉화(烽火)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다른 곳의 경우에는 대개 장날 장터에서 장꾼들을 이용하거나 당시 관청이 있던 곳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원성군내에서는 특히 문막면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로 운동을 전개했고 한편 봉화를 올렸던 예가 많았다.

그런데 특히 4월 8일과 9일경에 많았던 이유는 봉화시위였기 때문에 연쇄적인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나 한편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노립학교 학생들의 운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3월 22일 졸업생에게 40여매의 독립선언서가 뿌려진 것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럼 먼저 4월 8일 밤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날은 마침 문막장날인데 그날밤 문막 부근과 지정면 방면에서는 산마다 봉

화가 올랐고 또한 만세 소리가 그칠줄 모르게 올려퍼져 왔다고 증인들은 말하고 있다.

문막 부근은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인데 비교적 지대가 넓고 작은 봉우리 산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봉화시위가 연락하기도 좋았고 효과가 컸다.

봉화시위로는 마을과 마을이 연락하기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적은 인원이 봉화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이 올릴 수도 있는 곳이어서 전체적으로 몇명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더구나 시위를 한 곳을 전부 알 수는 더욱 없으니 당시의 실정을 명확하게 알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일제측 보고문서에는 4월 8일만 봉화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를 조사하고 판결문을 검토하니 9일에도 계속 되었고 11일에도 있었다고 조동걸 교수는 증언한다.

그러면 4월 9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기로 한다.

● 문막면 반계리(礪溪里)

문막면 반계리는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4키로 가량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넓은 평야의 한 귀퉁이여서 면소재지에서 건너다 보이는 섬강(蟾江) 건너편에 있다.

이 마을은 원래 유교의 고장이었다. 시위운동의 추진은 곽한선(郭漢璇)이 주장하였고 그 당시 구장으로 있던 이도순(李道淳)과 채홍묵(蔡鴻默)의 사랑방에서 홍승복(洪承復) 선생이 가르치던 서당 안양의숙(安養義塾)의 생도가 협조하여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약 1백명이 먼저 구은평(九銀坪)에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고종황제가 승하하였을 때 망곡례를 지낸 뒷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물론 이때의 봉화는 캄캄한 밤 산에서 싸리나무와 장작을 쌓아올리고 불을 지르니 상당히 멀리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것이 신호로 이마을 저마을에서 봉화를 올렸던 것이다.

● 문막면 동화리(桐華里)

이곳은 면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4키로 가량 떨어진 비교적 협곡이 많은 곳이지만 얇은 산봉우리 사이에 자그마한 마을이 많다.

여기에서는 매사동(梅沙洞)과 동화동(桐華洞) 뒷산 달맞이 하는 산언덕에서 수 10명씩 모여서 봉화 시위를 했는데 매사골의 김준기(金準基)등이 앞을 선 이 마을의 주민이 뒷산에 올라갔을 때는 벌써 건동리 등안골 그리고 지정면 안창

리(地正面安昌里)에서도 흥법동 창말과 월운동 뒷산과 간현리 방면에도 봉화의 불길기 올라 있었으며 만세 소리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수없이 들려 왔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강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 건너다 보이는 곳이었으니 봉화불이 서로 보이는 것은 물론 큰소리로 외치는 만세 소리가 안들릴 수 없었을 것이다.

● 문막면 궁촌리(宮村里)

이 마을은 면사무소에서 서편으로 한 4키로 떨어진 전횡산성을 앞에둔 마을이다.

전횡이 한때 이곳에 진을 치고 성을 쌓았다고 해서 「전횡산성」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유래되어 「궁말」이라고도 했고 지금도 궁촌(宮村)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봉화는 김현구(金顯九)를 중심으로 유인수(柳寅秀) 김원기(金元起)등이 앞장섰는데 이날 밤 뒷산에 올라간 인원은 모두 50~60명 내외라고 전한다.

당시에 이마을 구장(區長)이 만세운동에 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현구는 구장과 다투었는데 4월 9일 천에다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구장에게 쥐어주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한것이 도화선이 되어 김현구는 헌병에게 체포되어가고 말았다.

한편 궁촌리 마을 뒷산에서 만세소리가 한창일 때 맞은편 서석동(西石洞)에서도 최재희(崔在熙)가 주동하여 뒷밭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최재희의 재판기록으로는 참석인원이 수십명이 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문막면(당시에는 진동면이었음)의 봉화시위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문막보통학교 생도들의 활약이 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당시의 각도 헌병대장 회의가 6월에 있었는데 그 회의 서류에서 보면 문막보통학교 생도 1명을 퇴학시키고 4명을 정학처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해진다.

● 지정면 보통리(普通里)

보통리는 지정면이기는 하지만 동화리와 바로 인접한 마을이다.

보통리 자갑촌(自甲村) 뒷동산에서 이만식(李冕植)이 주동하여 역시 8일 밤에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규모가 크지는 못하였지만 이만식은 아깝게도 체포되어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지정면 가곡리 (佳谷里)

여기서는 유복열(柳復烈)이 주동을 해서 밤 10시경 마을의 박종형(朴鍾溚)과 같이 박종명(朴鍾鳴)의 집앞에서 만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유복열 재판 기록에 나온다.

● 지정면 간현리 (艮峴里)

간현리는 이조시대에 재상으로 있다가 산수좋은 곳을 찾아 여생을 지내고자 찾아 온 이희(李璽)옹이 와서 자리 잡음으로써 간옹(艮翁)이라는 별호를 써왔고 그 후 간현 또는 간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하며 산수가 좋아 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곳이라고 만세시위에 빠질리 없었다. 이 간현리에서도 이석경(李錫敬)과 김원삼(金源三)이 선봉에 서서 마을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 밤 늦도록 만세를 부르며 민족의 독립을 소리높여 외쳤다.

여기서 있었던 운동의 재판기록에는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대개 그때 재판석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인원수를 줄였을 터이니 아마 그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지정면 안창리 (安昌里)

이 안창리라는 곳은 말 그대로 안창「속창」즉 우리나라 12조창중에 하나인 흥원창(興原倉)이 한강과 섬강의 합류지점인 흥호리(興湖里)에 있었으니, 원성군내의 세곡(稅穀)대동미(大同米)등을 집결시키는 소창고(小倉庫)가 있어 섬강안에 창고라는 뜻에서 안창(內倉)으로 불려 온 것이 지명이 되었는데 이 안창에는 고려의 고찰인 흥법사(興法寺)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다. 현재까지도 사지(寺址)에는 보물 2 점이 있다.

안창나루를 이용해야 서울에 다니던 옛시절에는 안창역이 있었고 또한, 연안김씨(延安金氏)가 문중마을을 이루어 살며 여기서 인목대비(仁穆大妃)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 구한말 을미년(乙未年)에 이춘영(李春永), 안승우(安承禹)등이 의병을 일으킬 때 이춘영의 처가 마을인 이곳에서 협의하고 전략을 짜서 일어났으니 을미의병의 산실(産室)이기도 한 곳이다.

4월 8일 여기서는 흥법(興法), 월운(月雲), 창말(蒼村)등 각 마을 뒷산에서 수십명씩 모여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지리적으로는 건동, 문막동의 마을과 멀리서 건너다 보이는 마을인데 어디서 먼저 봉화를 올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이 4월 8일 밤에 있었던 봉화시위에 대하여서는 소개를 했으나 봉화만세의 분위기와 이 지방의 지형을 고려하면 여기에 소개한 것 외에 술한 마을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곳곳에서 봉화가 오르고 만세소리가 온 천지에 퍼져 메아리치던 이날 밤 각면의 헌병주재소에서는 물론 원주읍에서 헌병과 4월 5일부터 주둔한 제79연대의 병력이 온 마을을 이동하면서 만세 군중을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쏘는 총소리도 봉우리 마다 올라간 봉화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4월 9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봉화시위는 계속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4월 9일 흥업면에서는 면 단위의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귀래면 귀래리에서는 비록 마을 단위의 운동이었으나 낮에 있었던 시위이다.

그러면 4월 9일에 있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지정면 안창리 (安昌里)

8일에 이어서 9일에도 안창리에서 일어났다. 이날은 많은 군중이 동원된 것 같지는 않는데 재판기록에 의하면 마을의 김은봉(金恩鳳)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뒷산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 부론면 법천리 (法泉里)

4월 8일밤 지정면과 건동면의 봉화시위는 부론면으로도 옮겨갔다. 부론면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접경으로 특히 법천리 공양산은 3도의 중앙에 있는 산이다.

4월 9일 법천리 산수동에서는 표광천(表光天), 지천복(池千福)이 주동하여 마을사람 수십명을 모아 명봉산 꼭대기에 올라가 시위를 했다.

법천리에서는 3월말경 계획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접경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아 당시 배제학당에 다니던 이근성(李根成)과 이진원(李建元), 정우진(丁宇鎭)이 추진하다가 광고문이 발각되어 실패한 일이 있었다.

● 부론면 손곡리 (蓀谷里)

손곡리는 옛날 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이 탄생한 곳이며 고려 공양왕(高麗 恭讓王)의 유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위실(遜位室)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한편

이달(李達)과 허균(許筠)이 공부하던 곳으로 손곡(蓀谷)이란 이달의 호도 여기에서 연유된다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이다.

한편 금광(金鑛)으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왜정 중엽까지도 순사를 보지 못하였다는 아주 두메 산골로 알려지기도 했던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서였는지 독립만세의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메아리 칠 때 이 손곡리에서는 제일 늦게 4월 11일에서야 만세 소리가 울렸다.

여기서는 김복기(金福基), 정완용(鄭完用)이 주동을 했고 이마울의 서당 훈도로 있던 이재관(李在琯)과 이은교(李殷敎)가 힘을 모아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김복기의 선창으로 만세를 불렀다.

이곳도 역시 밤에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였다.

이상으로 봉화시위에 대한 소개를 맺기로 한다.

여기서 몇가지 특징적인 것은 태극기나 어떤 깃발 같은 것이 없었다는 점, 또는 마을 단위로 운동을 벌였고 뒷동산 같은 곳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밤에 수십명씩 모여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 시위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위운동에서 주동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면 서당의 훈도나 유학자가 가장 많았고, 곳에 따라서는 새교육을 받은 청년이 주동한 경우도 있었다.

군내의 만세 운동을 종합적으로 보면 운동이 있었던 장소가 확인된 곳이 15개소, 확인된 횟수가 18회인데 확실한 인원이 2천명이라고 하니 실제의 인원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속된 원주지방(현 원성군)의 운동은 그 주동인물의 성격면에서 유학자, 일반청년 지식인, 서당생도, 보통학교학생, 천도교인 등이 주도하였다.

또한 소초면과 홍업면은 면 단위로 했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마을 단위의 시위였고 특히 밤에 봉화시위가 많았다.

여기에서 특기 해둘것은 날자와 숫자 그리고 성명등은 조동철 교수의 판결문 조사와 기타 재판기록 또는 당시의 강원도 장관의 보고서등을 열람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호저면 주산리에서 있었다는 지방인 증언과 고산리에서도 그리고 신흥면 용암리에서와 부론면 단강리에서도 시위운동이 있었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기술하지 못함을 필자는 안타까울 뿐이다.

이 기록에서 빠진 곳의 운동은 확인되는 대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월송리(月松里) 원진거리와 6.25

원성군 지정면 월송리(月松里)에 「원진거리」라는 지명이 있다. 원진이란 원주 조방장(原州漕防長) 원호(元豪)가 임진왜란 때 이곳에 진(陣)을 쳤다고 해서 『원씨가 진을치다』의 「원진」이며 거리란 장소를 말한 것이다.

이곳에서 크게 싸운 일은 아니지만 여주목사면서 강원도 조방장까지 맡아 겸직으로 일했던 원호가 강원감사의 명에 의하여 이곳에 진을 치게 된 것은 충주를 공략한 왜군이 한강 유역으로 부른면 단강까지 왔을 때 왜적이 섬강으로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취해진 작전이었다.

적은 그대로 지나 여주 못미쳐 강천나루를 건너 양평방면으로 주력부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당시의 원주주변은 크게 접전한 곳은 없다.

그러나 섬강 유역에 우리 군사가 없었다면 적의 진격은 달라 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을 원진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월송리는 중요한 군사적 요지였음을 근세에 와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지난 6.25동란 때 중공군(中共軍)이 아군의 폭격으로 3백여명이 몰살된 곳이다.

이곳은 중공군이 남하한 최남단지역으로 대부대가 아군의 북진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중공군이 섬멸됐던 곳이다. 지금도 높은 고지에서는 중공군의 무기와 탄환등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한편 이곳에서 중공군은 섬강을 건너려고 도강작전을 펴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간이교량이 끊겨서 백여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던 곳이다.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당시의 실전 상황을 기록에 남기지 못함을 아쉬워 할 뿐이다.

제 4 장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모습

우리 한민족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세계 어느나라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특히 신라 고려때의 융성했던 문화는 불교문화와 맥을 같이 하여 오늘날 까지도 찬란한 문화 유산으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보물급 문화재에서 더욱 실감있게 찾아 볼수있다.

우리 원성지방에서는 그 뜻과 자취를 더욱 실감있게 찾아볼수 있는데 그 옛날 대찰(大刹)로서의 사격(寺格)을 갖춘 거대한 사찰의 사지(寺址)가 3군데나 있다. 신라때 창건되었다는 거둔사지(居頓寺址)를 비롯하여 고려때 창건된 흥법사지(興法寺址), 법천사지(法泉寺址)등 사찰의 건물은 자취도 없이 없어졌지만 터에 남아 있는 주초석을 위시하여 발굴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출토되는 유구(遺構)에서 옛 선조들의 예술성을 짐작할수 있다.

이렇듯 원성지방은 역사와 전설이 깃든 유서 깊은 고장으로 조상들의 예지와 문화적 유산이 가는곳 마다 있어 지난날의 영광된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또한 우리 원성 지방인 것이다.

허나 외적이 침입할 때 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은 수난을 당해야 하기도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많은 유산이 소실되고 없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몇점의 보물이라도 아끼고 원형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지정 보존되는 것으로는 국보 1 점, 보물 4 점, 사적 1 점, 천연기념물 2 점 등이며 지정만 안됐을뿐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유적 유물은 곳곳에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아끼고 가꾸고 잘 보존시켜 천만대 후손에 까지도 전해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보(國寶) 제59호 법천사지(法泉寺址)

지광국사 현묘탑비(智光國師 玄妙塔碑)

원주시에서 서쪽으로 26 km 떨어진 부론면(富論面) 법천리(法泉里) 명봉산(鳴鳳山) 아래 자리잡고 있는 러말(麗末) 석비(石碑)로 특징적인 양식을 보이는 걸작으로 조각 또한 정묘하다.

왜정초 이전까지만해도 석비(石碑)와 탑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는데 왜정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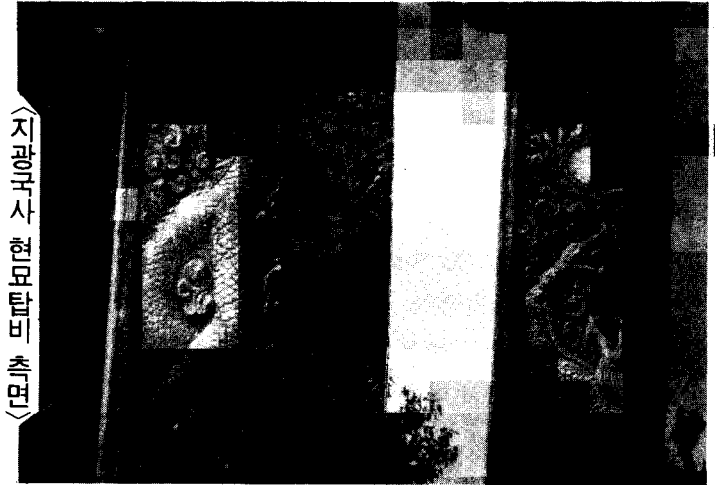
에 탑은 경복궁(景福宮)으로 이전되

어 지금은 국보제1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해지는 말로는 국보제59호인 이 탑비도 이전될때 함께 옮기려 했으나 워낙 정묘한 조각인 데다 치밀함이 대단하고 걸작품인고로 파손될까 염려하여 건드리지 못하고 탑만 이전하여 갔다니 얼마나 귀중하게 아끼었던가를 짐작할수 있다.

고려(高麗) 선종(宣宗) 3년에 세워진 이 비는 전체 높이가 455cm, 전체 폭이 260cm, 전체 두께가 260cm이고 비신(碑身)의 높이는 297cm, 폭이 142cm, 두께가 30cm이며이수(麟首)와 귀부(龜趺)가 갖추어진[보기드문 큰 비석으로 옛 조상들의 슬기와 재능을 과히 자랑할만 하다고 하겠다.

재료는 화강석인데 비신만은 검은 청석으로 되어 있고 귀부는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넓은 지대석위에 놓여 있고 그 밑에는 구름무늬로 장식 되었으며 거북의 목은 길게 직립하여 전면을 바라 보는것 처럼 되어 있고 목에는 고기비늘이 표현되어 있으며 머리는 입을 벌린 괴상한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다. 등에는 구갑문(龜甲文)을 노출시켰고 그 안에 임금왕자(王子)가 양각 되었으며 등 한복판에 비석을 세우게 확을 파고 그 확언저리에는 복연문(伏蓮文)으로 표시했다.

이와 같이 형태라든가 조각술법 모두가 아름답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석비의 비신 양쪽 옆 언저리에는 당초문을 둘러놓았고 그 안에 여의주를 물고 상천하는 형상의 용트림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의 특별한 양식이며 섬세함이란 말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조밀하게 수 놓아져 있다 개석



(蓋石: 비석위에 얹어놓은 갓석)은 위가 활짝 벌어진 형태로서 다른 비두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며 네 귀퉁이의 전각은 우뚝하게 솟아 있고 귀꽃을 달았는데 전면에 무늬가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또한 중심에는 연화가 조각된 3층의 보주(寶珠)를 얹어 놓았다. 이와 같이 정밀하고 장중미려(莊重美麗)함은 보는 이를 탄복 시킨다.

또한 이 비석의 비문은 2050字나 되며 비음(碑陰)의 글까지 있다.

이 비의 글은 려초에 문장이 뛰어나고 시 잘 짓기로 유명한 이부상서(吏部尚書)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使)를 역임한 정유언(鄭惟彦)이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글씨 잘 쓰던 상서도관낭(尚書都官郎)을 지낸 안민후(安民厚)가 썼으며 조각은 이영보(李英輔) 장자춘(張子春)이란 사람이 한것으로 되어 있다.

비문내용은 지광국사(智光國師)의 수도한 내력과 불교도덕의 진리를 통달하였다는 국사의 행장(行狀)이 기입되었고 비 뒷면에는 법천사의 내력과 탐비전립 당시 종사한 승려 인원수 및 전립내역을 기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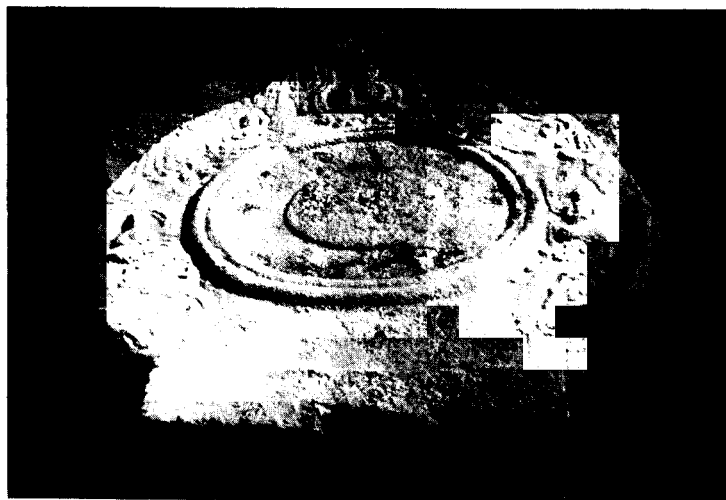
비 전면 글씨의 크기는 7분이고 비음의 자경은 9분이며 서체는 그 당시 유행되었던 구양순체(歐陽詢體)의 구성궁법(九成宮法)에 가까운 것으로 필획(筆劃)이 균정하고 그 운필의 기지(起止)가 정명하면서도 관후한 자존미가 있으므로 우수한 솜씨를 증명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서예가의 우수한 솜씨를 증명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비석에 쓰여진 글씨중 1, 2품을 다룰만한 일품이라고 평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비 뒷면의 해서(楷書)는 전면의 해서 품위만 못하다. 서체도 구양순의 것보다는 유공권(柳公權)의 것에 가까운데 가끔 행서(行書)의 체도 혼합되어서 통일성이 아쉽다는 평을 듣게 된다.

동일인의 글씨라고 생각하기엔 의심스럽기 까지 하면서도 비 뒷면에 서명한 내용으로 보아 동일인의 필적임을 알수 있으니 이는 필시 글씨를 쓰는 시기와 장소 기분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한 비석의 주인공은 지광국사인데 그는 해린(海麟)이라는 속세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고려 성종(成宗) 3년(AD 999년)에 수계(受戒)하여 18세에 이미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다. 역대 왕의 우대를 받아 오다가 덕종조(德宗祖)에는 삼중대사(三重大師)라는 호를 받았고 문종(文宗) 21년(AD 1067년) 법천사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3년후 86세를 일기로 입적(入寂)하니 하수계(夏受戒) 71이었다.

그후 18년만인 1085년에 국사의 내력비와 함께 현묘탑을 세운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나 정교함이 국보로 지정된 6개의 비석중에서도 최상품으로 평가되는 국보 제59호로 지정된 이비는 1천년 동안의 풍마우세(風磨雨洗)와 뇌전(雷電) 등으로 파손된 곳이 많고 문자와 조각에 금이 많이 가 있어 보수가 시급하나 그래도 이 고장의 국보로서 유일하게 보존



되어 있으며 경북궁으로 이전된 탑이 그대로 현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물(寶物) 제78호 거둔사(居頓寺) 원공국사 승묘탑비(圓空國師 勝妙塔碑)

圓空의 姓은 李氏, 이름은 智宗, 字는 神則, 本貫은 全州다.

거둔사(居頓寺) 원공국사(圓空國師) 승묘탑비(勝妙塔碑)는 부론면 정산리(富論面 鼎山里) 거둔사지에 위치하며 높이 245cm, 폭 126cm, 귀부(龜趺) 높이 120cm의 거대한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비석이다.

원공은 고려초기의 명승(名僧)으로 그가 1018. 4. 17 89세를 일기로 입멸(入滅)하니 왕명에 의하여 이곳에 승묘탑비가 세워졌는데 비석에는 증시원공국사승묘지탑(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이라 쓰여 있고 고려국 원주 현제산거둔사... (高麗國原州賢溪山居頓寺...)로 시작하는 비문은 고려 문종때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불리우던 최충(崔沖)이 지었고 글씨는 김거웅(金巨雄)이 썼으며 글자의 크기는 1.8cm로 장자체이다. 비의 조각형태는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귀부의 조각은 중곽갑문(重廓甲文)이 정 6각형에 가까우며 그안에 곤자와 꽃모양을 서로 교차되게 양각(陽刻)으로 조각하였고 비좌(碑座) 사면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였다. 머리 모양은 입을 다물은 용의 형태이나 짐승처럼 조각한 경향이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비(碑)위에 육중하게 올라 앉은 이수(鱗首)의 조각은 사실성을 강하게 풍기나 아랫부분을 수직선으로 둘러놓아 외레적인 특색과 장엄함을

나타냈고 규격이 웅대한 점을 다른 비와 비교할수 없는 특징이라 하겠다. 조각은 이수를 중심으로 양옆에서 두마리의 용이 가운데를 향한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다. 꼭대기에는 용의 움직임이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향은 조형수법(造形手法)이 조금은 형식화한 러비(麗碑)라 하겠다.

현재 이 승묘탑비가 있는 곳에 3층석탑이 1기(基) 그리고 원공국사의 부도탑(浮屠塔)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석탑은 현재도 보존되나 부도탑은 일정시대 때 서울에 사는 일본인 집에 옮겨다가 1948년 현재의 위치인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이 부도 역시 고려시대의 정형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모습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며 현재 보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보물의 주인공인 원공국사는 고려 태조(太祖) 13년 즉 930년에 출생하여 8세때에 불교에 입문하였으며 속성(俗姓)은 이씨로서 전주인(全州人)이다.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현종(顯宗) 4년에 왕사(王師)가 되었다가 5년만인 현종 9년에 입멸하니 그의 나이 89세였다. 승묘탑비는 그가 죽은지 7년후인 현종 16년인 1025년에 건립되었다. 이 탑비는 현재 보물(寶物)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寶物) 제463호 진공대사탑비

(眞空大師塔碑) 귀부(龜趺) 및 이수(躑首)

진공대사(眞空大師) 탑비(塔碑) 이수(躑首) 및 귀부(龜趺)는 지정면 안창리(地正面 安昌里) 흥법사지에 위치하며 이수규격은 1.8m×0.99m 귀부규격은 252cm×195cm×75cm로 화강암석이다. 이수와 귀부는 현 위치에 남아 있으나 비신석(碑身石)은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회랑(廻廊)에 옮겨져 있다.

언제 어떻게 파손되어 이수와 귀부만 남아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남아있는 이수와 귀부의 조각됨이 정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지못함을 못내 아쉽게 한다.

이수에는 진공대사(眞空大師)라는 전서글씨 4자가 새겨져 있으며 사방의 구름 문양속에 상하좌우로 모두 9마리의 날으는 비룡을 얹히고 설키게 조각하여 놓은 것이 금시라도 움직일듯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귀부는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의 귀부와 같은 모양으로 중곽갑문(重廓甲文)은 정 6 각형에 근사하고 내공(內空)에 근자와 꽃문양을 서로 교차하게 양각하였다. 머리 형태 역시 용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짐승 모양에 가깝게 조각되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한편 경복궁 근정전에 절단되어 있는 비신석은 3쪽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비문은 고려 태조가 직접 글을 짓고 최광륜(崔光胤)에게 명하여 당태종(唐太宗)의 글씨를 모아서 조각한 행서체(行書體)의 집자비(集字碑)이다.

비는 중간부분의 결실(缺失)로 인하여 판독불능(判讀不能)인 부분이 많은데 이 탑비의 주인공인 진공대사는 신라말 고려초 사이의 고승으로 신라 경문왕(景文王) 9년 즉 869년에 태어났으며 속성(俗姓)은 김씨다.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그는 고려건국후 태조의 왕사가 되었다가 태조 2년 72세의 나이로 죽으니 태조가 직접 비문을 짓고 명하여 탑비를 세우게 하였다. 탑비와 함께 부도탑(浮屠塔)도 현 위치에 세워졌었는데 1931년 경복궁으로 옮겨졌으며 보물 제 3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도와 더불어 석관(石棺)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독특한 점으로 이 탑 역시 고려 초기에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대(下臺) 복련석(伏蓮石)에는 16개의 연꽃을 조각하였다.

또한 이수와 귀가 있는 부근에 3층석탑과 흥법사지에서 출토된 여러가지 석재물이 있으며 옛 사지로써 대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듯 고려시대의 최대 걸작품으로써의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보물 제 463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寶物) 제464호

흥법사지(興法寺址) 삼층석탑(三層石塔)

흥법사지(興法寺址) 3층석탑(三層石塔)은 지정면 안창리(地正面 安昌里) 흥법사지에 위치하며, 높이는 369cm, 폭 215cm의 3층석탑으로 보물(寶物) 제 4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탑은 화강암재로 되어 있으며 이중기단(二重基壇)위에 방형석탑으로 일반전형양식에 속하고 있다.

탑은 발 가운데 서 있는데 경작으로 인하여 지대석(地臺石)이 일부 드러나게 됐다. 지대석 위에는 하대석과 중대석을 둘 하나로 만들어 네개의 돌을 짜서 맞춘 하기단이 있으며 사면에는 기둥과 보가 모양없이 각면 삼구석의 안상(眼象)이 있고 안상안에는 지선에서 꽃 모양으로 솟아 있어 고려때의 눈에 특별히 띄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

두장으로서된 갑석(甲石)은 넓이가 좁은 편이고 밑에 부연(副椽)이 없으며 윗면에는 심한 경사가 있음이 특히 눈에 뜨인다.

가운데는 삼층기단을 받치기 위한 얇은 단에 괴임이 있어 약화(略化)의 과정을

얹고 있다. 삼층기단 중석(三層基壇 中石)은 여러장의 넓직한 돌로 불규칙하게 짜여져 있으며 구조는 길면서 매우 크고 넓이는 좁은 기둥과 보 하나가 있다.

두장으로 덮은 갑석(甲石)은 얇은 편으로 하층기단(下層基壇) 갑석에서와 같이 부연이 없고 위에는 경사가 있으며 중앙에 네모가 진 삼단의 받침이 있음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탑신부(塔身部)는 기단에 비하여 갑자기 작아져서 좋은 비교라고 할수 없다. 넓이는 절반이 되었고, 높이는 약 3분의 2정도로 줄었다. 1층 옥신에 비해서 2층 이상의 옥신은 높이가 3분의 2로 줄어졌다. 각층마다 옥신에는 가느다란 우주형(隅柱形)이 모각(模刻)되었을뿐 달리 새겨서 꾸민것은 없다.

지붕 덮개(屋蓋)는 추녀에 상한 곳이 많으나 지붕 뒷면(屋裏)의 받침이 각층 4단임을 알겠다. 얇은 받침에 비하면 낙수면(落水面)은 두꺼워서 경사는 심하고 추녀밑은 전각(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으니 모두 고려시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옥정(屋頂)에 옥신(屋身)을 받치기 위한 1단의 각이 진 모양의 받침이 있음은 다른것과 같다. 상륜부에는 노반(露盤)돌 하나가 있을 뿐이나 손상이 많다. 규모도 작을뿐 기단부와 탑신부의 비례 불균형은 특히 눈에 띄고 석재구성(石材構成)이나 표면 조각에서도 기백을 잃고 약체화되었음을 보겠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 제작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전반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사적(史蹟) 제168호 거둔사지(居頓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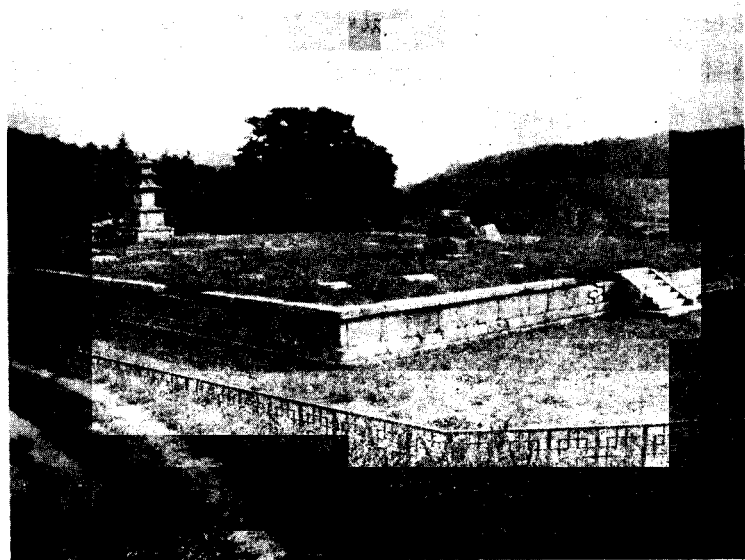
거둔사(居頓寺)는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창건된 절로서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에 있었으며 현재 넓은 절터에는 3층석탑(三層石塔) 1개와 원공국사 승묘탑비(圓空國師 勝妙塔碑), 불좌대(佛座臺) 그리고 기초석(基礎石)이 보존되어 있다.

절터(寺址)는 약 7500여평으로서 사적(史蹟)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당지(金堂址)에는 전면 6줄, 측면 5줄의 주초석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본래는 20여칸의 대법당(大法堂)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중앙에는 높이 약 2m의 화강석 불좌대(佛座臺)가 있다.

금당지 앞에는 석탑(石塔) 1개가 있어 당시 격을 갖춘 사찰임을 알수 있다. 이 석탑은 높이가 약 530cm로서 2중기단(二重基壇)에 우주(隅柱)와 상주(掌柱)를 보이며 옥개석(屋蓋石)의 층급(層級)받침은 5단이며 윗부분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과 앙련(仰蓮)으로 조각된 1석(一石)이 보인다.

또한 절터에 있는 민가의 우물가에는 탑옆에서 옮겨왔다는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으며 그 크기는 135×58cm의 판석(板石)으로 전면에 3, 측면에 하나씩 안상(眼象)을 조각했고 상부 중앙에는 연꽃무늬를 조각했다.

3층석탑으로 부터 북쪽 약 50m 지점에는 원공국사 승묘탑비(圓空國師 勝妙塔碑)가 있는데 비신(碑身)의 높이가 245cm, 폭이 126cm이며 귀부(龜趺) 높이가 120cm의 화강석(花崗石)으로 되어있다.



〈대규모의 사찰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거둔사지〉

비문은 고려 문종(文宗)때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불리우던 최충(崔冲)이 지었고, 글씨는 김거웅(金巨雄)이 썼으며 글자의 크기는 1.8cm로서 정자체이다.

귀부의 중곽갑문(重廓甲文)은 정 6 각형에 가까우며 그 안에 만자(卍字)와 꽃문양을 서로 교차하게 양각(陽刻)으로 조각하였고 비좌(碑座) 4면에 안상(眼象)

을 조각하였는바 현재 보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공국사(圓空國師)는 고려 태조(太祖) 13년 즉 서기 930년에 출생하여 8세때 불교에 입문 하였으며 속성(俗姓)은 이씨(李氏)로서 전주인(全州人)이다.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현종(顯宗) 4년에 왕사(王師)가 되어 현종 9년에 죽으니 그의 나이 69세였다.

이 비석은 그가 죽은지 7년후인 현종 16년 즉 서기 1025년에 건립되었으며 그의 부도(浮屠)가 비석에서 서쪽 산중턱 60m 지점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일정시대(日政時代) 서울에 사는 일본인 집에 옮겨졌다가 1948년 현재있는 경복궁으로 다시 옮겼다. (보물 190호)

이 부도(浮屠)의 높이는 268m의 화강석으로 8각원당(八角圓堂)의 기단에는 16개의 연잎을 복련(伏蓮)으로 새겼고 간석(竿石)에는 8면에 각각 안상(眼象)을 조각했으며 내공(內空)에는 8부신상(八部神象)을 조각하는 등 고려시대 부도의 정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보물 제 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절터에서 약 30m 아래의 국민학교에는 길이 960cm, 폭 80cm, 두께 57cm의 거대한 미완성품의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는데 이것은 이 돌을 운반하던 장사의 두 남매 가운데 남동생이 죽게되어 그대로 미완성인채 남아있다고 하며 남동생이 옮겨 오다가 둔 하나의 지주(支柱)는 지금도 현제산(賢溪山)의 동남쪽에 있다고 한다.

법천사지(法泉寺址)

법천사(法泉寺)는 서기 725년 창건한 절로서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 명봉산(鳴鳳山)에 자리잡고 있으며 1965년 발굴에 의하여 정리되었는데 발굴당시의 유물을 열거하면 불상광배(佛像光背), 불두(佛頭), 연화문대석(蓮華紋台石), 용두(龍頭), 석탑재(石塔材) 등의 여러가지 석조물(石彫物)들이며 본전(本殿) 왼쪽에 지광국사 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가 서있다.

이 비석은 고려 선종(宣宗) 2년, 즉 서기 1085년에 건립되었으며 높이가 약 455cm 비신(碑身) 길이 297cm 비신평 142cm이며 글자의 크기는 전면이 2.1cm 후면이 2.7cm이고, 비문(碑文)은 2050자로서 정유언(鄭惟彦)이 지었고, 글씨는 안민후(安民厚)가 썼다.

사실적으로 조각된 귀부(龜趺: 거북이 머리)는 정면으로 향하였고 등에는 중곽갑문(重廓甲文)이 정 6각형에 가까우며 그 안에 왕자(王字)를 양각(陽刻)으로 조각하였다.

귀부(龜趺)와 비두(碑頭)가 화강석이며 비신(碑身)은 점판암(粘板岩)으로 되었고 비석글씨는 정사각형의 줄을 긋고 있다.

또 비면(碑面) 주위에는 아름다운 국화문양을 조각하였으며 좌우 양쪽에는 각각 두마리의 날으는비룡(飛龍)이 여의주(如意珠)를 회롱하는 모습을 양각(陽刻)으로 조각했다. 이 비석의 조각은 1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절작으로 현재 국보 제 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비석에는 지광국사(智光國師)의 행적(行蹟)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고려 성종 2년 즉 서기 984년에 출생하였고, 속성(俗姓)은 원씨(元氏)이며 원주인(原州人)으로 16세에 불교에 입문하여 문종(文宗) 12년 즉 1058년에 국사(國師: 덕이 높은 중을 나라에서 스승으로 모시는 것으로 스님의 최고 명예임)가 되어 문종 24년 즉 1070년에 죽었으니 그의 나이 87세 때였다.

지광국사가 죽은지 15년이 지난 1085년에 그의 부도(浮屠: 스님이 죽으면 화장을 하여 넣는 무덤으로 일종의 탑(塔)을 법천사에 건립 했는데 이 부도의 독특한 점은 재래의 부도양식인 8각원당(八角圓堂)의 기본형태에서 벗어나 평면방

형(平面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새 양식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묘탑(墓塔)중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점에 있다.

부도양식이 우수하여 한일합방 후 일본에까지 반출되었다가 국내 여론에 의하여 다시 반환되기도 하였으며 높이가 610cm로서 현재 국보 제 101호로 지정되어 경복궁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절터 남쪽으로 약 800m 지점에는 완전한 형태의 당간지주가 서 있어 화려하던 법천사의 옛날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법천사지(法泉寺址)에는 국보 제59호인 지광국사 현묘탑비(智光國師 玄妙塔碑)와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고 현재 경복궁에 있는 국보제101호인 지광국사 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이 있었던 것이다.

절이 없어진 연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때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높이가 280cm의 화강암으로 신라시대의 작품이다. 법천사지 남쪽으로 800m 지점에 원형으로 서 있는데 이 당간은 법천사의 표시였으며 사격(寺格)을 천양하는 일종의 기식으로써 상단에 깃발을 달아 대찰로서의 중풍을 선양하였던 것으로 현재는 1/3정도가 토석과 풀속에 묻혀있으며 둔중하고 우람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당간은 지면으로 부터 2.5m까지 정직사각형 돌기둥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옛날 당간지주가 서 있는 사찰에 신도들이 들어 갈때는 지주 앞에 짚신을 벗어 놓고 맨발로 법당(法堂)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곤 했다고 한다.

흥법사지(興法寺址)

흥법사(興法寺)는 신라말기(新羅末期)의 절로서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에 있었다. 약 만여평에 달하는 절터에는 삼층석탑(三層石塔) 1개와 진공대사 탑비(眞空大師 塔碑)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가 있고 금당지(金堂址)로 보이는 대상(臺上)에는 민가가 있어 축대석 및 많은 유구(遺構)들이 흩어져 있다.

보물 제463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는 절터 서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비신(碑身)이 없는 이 귀부(龜趺)는 이수(螭首)에 「진공대사(眞空大師)」라는 전서글씨(篆額) 4자가 있다.

귀부(龜趺)는 거둔사비(居頓寺碑)와 같이 중곽갑문(重廓甲文)은 정 6각형에 근사하고 내공(內空)에 만(卍)자와 꽃문양을 서로 교차하게 양각으로 조각하였으며 이수(螭首)는 사방의 구름문양(雲紋)속 상하좌우에 총 9마리의 날으는 용(飛龍)에 얹혀있어 고려초기 석조 공예술의 최고 수작(秀作)이라 하겠다.

비신(碑身)은 3개로 절단된채 경북궁에 보관되어 있으며 비문은 고려 태조가 글을 짓고 최광륜(崔光胤)에게 명하여 당태종(唐太宗)의 글씨를 모아서 조각한 행서체(行書體)의 집자비(集字碑)이다.

진공대사(眞空大師)는 신라 말 고려초기의 중으로 신라 경문왕(景文王) 9년 즉 서기 869년에 태어났으며 속성(俗姓)은 김씨(金氏)로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왔으며 태조 23년에 죽으니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가 죽자 부도탑(浮屠塔)을 법흥사에 세웠으며 1931년 현재의 경북궁으로 이전 보물 제3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도와 더불어 석관(石棺)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독특한 점으로 탑의 높이는 29cm, 지대석(地台石) 폭 179cm 석관(石棺)은 45×94cm이며 높이는 48cm로서 초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대(下台) 복련석(伏蓮石)에는 16개의 연꽃을 조각하였다.

또한 흥법사지 중앙에는 3층석탑이 1개 있는데 높이가 369cm 지대석(地台石) 폭 220cm로서 2중기단(二重基壇)에 방형 3층(方形三層)을 유지하고 옥개석(屋蓋石)의 받침은 4단이며 낙수면(落水面)은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석탑에서 약 10m 정면에 4기의 장방형(長方形)의 주초석이 있는데 이곳에서 정교한 용문(龍紋), 연화문(蓮華紋), 당초문(唐草紋), 삼존불(三尊佛)의 와당(瓦當:기와)이 출토되었고 또 상당수 소형의 말, 코끼리, 사자등의 토우(土偶:흙으로 만든 인형)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석탑으로 부터 서쪽 약 100m 지점에 속칭 중샘(僧泉)이 3개 있는데 이곳에서 약 150m 가량의 하수구가 절터를 가로질러 뚫려있어 당시 흥법사가 거대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룡사(龜龍寺)와 대웅전(大雄殿)

원주 시내에서 서북방 약 24km 지점에 위치하는 구룡사(龜龍寺)는 현재 치악산 내에서 가장 큰 사찰이며 조선말기 까지도 그 사격(寺格)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의 명산이며 도립공원인 치악산에 자리잡은 구룡사는 도내 수사(首寺)였으며 말사(末寺)의 승려(僧尼)가 모두 이곳에서 수계득도(受戒得道)하는 일대 정계(一大淨界)였다. 구룡사에 전해지는 사증기록에 의하면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6년(서기 666년) 의상대사(義相大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한다.

그후 조선 1706년(숙종 32년)에 구룡사가 중건되었으니 현재 구룡사의 모든 건물은 숙종대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근세의 중수에 대하여는 현 주

지 태허당(太虛堂) 종영사(宗泳師)의 공적을 들 수 있다.

종영사는 1966년 구룡사 주지로 부임하여 그 이듬해 부터 치악산 주봉 비로봉에서 호국기원대제(護國祈願大祭)를 베풀어 이제는 지방의 연중행사가 되게 함과 동시에 구룡사 발전에 획기적 전기(轉機)를 마련하였다.

황량하였던 사원(寺院) 전모(全貌)를 증신하였는데 우선 1966년에는 현 보광루(普光樓:전평 38평)을 해체 복원하여 단청(丹青)을 마쳤다. 또 1968년에는 현재의 심검당(尋劍堂)및 요사(寮舍)를 보수했고 상수도를 신설했다.

1971년에는 성각(聖閣)을 보수 단청 했으며 최근에는 대웅전(大雄殿)을 보수 및 단청하였으며 1982년 종각을 증축하고 대형범종과 북, 목어, 운판을 설치함으로서 대찰이 갖추어야 할 법구(法具)를 완비하였다.

현 대웅전 건립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지만 건축수법이 전형적 조선시대 건축으로서 숙종대를 지난 영조(英祖)로 부터 정조년간(正祖年間)으로 추측된다.

전물은 전면 3칸 56평의 다포(多包)집으로 조영(造營)되었고 내부 닛집은 2중포작(二重包作)에 사실적으로 조각된 용문(龍蚊)등의 수법 그리고 그 섬세한 결구(結構)는 타처에서 보기 어려운 수작(秀作)이다.

3존목불(三尊木佛)은 후덕한 얼굴에 풍부한 양감(量感)이 조선조 불상조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불상의 중앙 주존(主尊)은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로서 높이 5척 5촌이며 좌우 양대보살(兩大菩薩)은 4척 5촌으로 상부 닛집과 잘 조화되어 있다.

특히 이 닛집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 박은 것으로 어느 곳이든 깎아 박은 나무를 하나라도 빼게 되면 닛집은 허물어진다고 하는 정교품이다.

대웅전 앞 좌우에는 90여평의 심검당(尋劍堂)설선당(說禪堂)의 승사(僧舍)가 있고 정면에는 보광루(普光樓)가 푸른 숲에 반사되어 그 위용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보광루는 38평으로서 내부 전체를 짚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명석으로 깔았다. 이는 인부 3인이 3개월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국내 최대의 명석이라 할 것이다.

절에 따른 산림은 총 550정보로서 송림이 대부분이고 절 주위에는 잣나무 등 유실수와 전나무가 식목되어 있다.

절 입구에는 7기의 조선시대 부도(浮屠)가 있고 또 구룡사의 전설을 말해주는 거북바위와 용폭(龍瀑)이 있으며 폭포 아래는 용소(龍沼)의 계수(溪水)가 흘러 아름다운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다.

황장금표 (黃腸禁標)

이 금표는 황장목(黃腸木) 봉산(封山) (널판지로 사용하는 품질좋은 큰소나무가 있는 국가지정 보호국유림의 경계표지로서 황장목 금양(禁養) (궁중용재보호)을 위하여 일반인의 도벌을 금지하는 경계표지로 설치된 것이다.

치악산은 질이좋은 소나무가 많을뿐 아니라 강원감영(江原監營)이 가까워 판리에 유리하며 한강(漢江) 상류(上流)에 자리하여 한양(漢陽)까지의 운반이 편리하여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황장금표는 이곳뿐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설치 년대는 알 수 없다.

지방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었으며 원성군 소초면 학곡 2 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둔사지(居頓寺址) 3층석탑(三層石塔)

거둔사지(居頓寺址) 3층석탑은 부론면 정산리(富論面鼎山里)에 위치하며 원공국사 승묘탑비가 있는 옆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 530cm의 화강암재로 된 석탑(石塔)이다.

신라 일반형의 3층석탑으로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곧 지정될 수 있는 훌륭한 보물급 문화재이다.

주춧돌 한쪽에 위치하며 지대석 위에는 하대석과 중대석을 만들어 네개의 돌을 짜서 맞춘 하기단(下基壇)이 있으며 사면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다.

두장으로 된 갑석(甲石)은 밑에 1단의 부연(副椽)이 있으며 윗면은 밋밋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기단에 비하여 갑자기 작아졌으며 높이도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

각층마다 옥신에는 무늬가 별로 없으며 지붕 뒷면의 받침이 각층 5단으로 되고 앞은 받침에 비하여 낙수면(落水面)은 두꺼워서 경사가 심하다. 상부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과 양연(仰蓮)으로 조각된 1석(一石)이 있다. 아직도 옛날 거둔사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간직한듯 도도히 서있다.

입석대(立石臺)와 청석탑(靑石塔)



〈입석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바위〉

라고 편액(篇額)을 쓴 암자가 있으나 이곳은 입석대 본래의 사지(寺址)는 아니고 이곳에서 남쪽 50m 지점 세칭(世稱) 신선바위 바로 아래 옛날의 사지가 지금도 유존해 있다.

이 사지는 처음에 신라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이곳에 토굴(土窟)을 짓고 수도했다는 구전(口傳)이 있을 뿐 다른 문헌이 없어 사력(寺歷)을 알 수 없다.

치악산의 주봉 비로봉(毘盧峰)에서 흘러 내린 힘찬 줄기가 사지(寺址)뒷쪽의 신선바위에서 멈추었고 바른쪽에는 급한 바위산이 총총히 내려오다가 입석대 벼랑에서 우뚝 솟았으며 왼쪽에는 보다 완만한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있다.

멀리 전면에 원주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 사지 뒷쪽에는 맑은 석간수(石間水)가 있어 수도처로서 적합하였던 곳으로 보인다.

사지 근방에는 잡초만 육어졌을 뿐 다른 유구(遺構)는 발견할 수 없고 입석이 있는 전방에 점판암(粘板岩)을 이용한 소형의 청석탑(靑石塔) 1기가 있다.

탑의 높이(現高)는 약 220cm로서 폐탑(廢塔)을 모아 쌓았으므로 부재가 결실되어 있다. 기단은 탑 면석으로 보이는 탑재들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연화문을 새긴 점판암의 옥개석(屋蓋石)이 놓여 있다. 옥개석은 모두 5매로서 아랫쪽 3매에만 연화문을 새겼고 상부 2매는 일반 석탑에서와 같이 소문(素紋)의 낙수면(落水面)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연화문 조각을 중간에 가진 이 옥개석의 하단부 일석은 일반 탑에서 기단 면석을 덮고 있는 갑석으로 조영(造營)된 듯 하며 놓여있는 화강석의 옥신석은 커튼이 기둥을 나타내는 우주(隅柱)를 묘각했는데 위의 2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 탑도 화강석의 탑재와 청석탑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석탑은 탑의 원형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석대 사지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각을 갖춘 청석탑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혼치 않는 청석탑이 보문사(普門寺)와 이곳 입석대 두 곳에서 나타난 것은 그 옛날 원주 지방의 화려했던 불교문화를 짐작케 한다.

다시 입석대로부터 서북방 약 20m 지점 석벽에 마애여래좌상 1기가 있어 매우 흥미롭다.

불상의 총고는 86cm 두고(頭高) 28cm 어깨넓이 40cm로서 뒷 쪽에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나타내었고 결가부좌(結跏趺座)했다. 하단부에는 연화대를 받치는 좌대(坐台)를 음각(陰刻)하였으며 높이는 2.2m이다. 머리 부분은 완전 양각(陽刻)되었고 아래는 선각(線刻)으로 나타내었다.

머리는 나발(螺髮)이며 풍만한 얼굴은 잘 조화되어 있다. 법의는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이며 오른 손은 들었고 왼손은 복부에 가볍게 놓았다. 특히 오른손을 들어 결인한 모습은 사실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부좌한 오른 발은 법의 밖으로 들어내 선각을 보이며 법의의 의요(衣襖) 등 처리가 단조로운 점 등은 고식(古式)을 따르고 있으나 목에는 세 줄의 주름을 나타내는 3도(三道)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마애불 정면에 콤파스를 놓았더니 불상은 정 서향하였고 멀리 섬강이 굽이쳐 경관 또한 절경이었다. 이 마애불은 그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 시대의 작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불상의 수인(手印) 방향 등으로 보아 아미타여래좌상(阿彌陀如來坐像)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석사는 그 어느 때인가 미타신앙(彌陀信仰)의 도장으로서 법등(法燈)을 이어왔으며 한때는 이곳에 훌륭한 조각승이 있어 자기의 신앙을 딱딱한 화강석 암벽에 새겨 서방정사(西方淨土)의 발원을 부각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원사(上院寺)와 삼층석탑

상원사(上院寺)는 원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오늘날까지도 치악산(雉岳山)이란 산명이 있게 한 유서깊은 절이며 은혜 값은 평과 뱀의 이야기는 이 절에서 생겨난 전설이다. 위치는 원성군 신림면 성남리(城南里)가 된다.

속전(俗傳)에는 상원사를 신라 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했다는 설과 무착대사(無着大師)가 창건하였다는 양설이 있는데 현재 절(寺)에 있는 석탑(石

塔)등 유물로 보아 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大雄殿)을 위시한 법당(法堂)은 1968년 당시 주지 송문영법사(宋文永法師)와 의성(義成)보살에 의하여 중신복구(重新復舊)되었다. 법당 앞에는 석탑 2기(基)가 있어 고산사찰(高山寺刹)의 운치를 더욱 장엄하게 해주고 있다.

석탑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쌍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쌍탑이 등장하기는 대체적으로 삼국통일 후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 석탑은 신라 석탑의 정형(定型)을 따른 2중기단(二重基壇) 위에 3층옥개를 형성 하였으며 상부 상륜(相輪)은 둥글게 연꽃 봉오리 모양을 새겨 일반 탑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 탑의 바로 앞에는 화염문(火炎紋)을 보이는 불상 광배(光背)와 연화대석(蓮華台石)이 보여 본래 이 곳에 석불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나 현재 발견할 수 없다.

황산사(黃山寺)

미륵불상(彌勒佛像)과 삼층석탑(三層石塔)

백운산(白雲山)의 일지맥(一枝脈)이 뻗어내려 또 하나의 산을 형성하였는데 해발 6백여미터나 되는 독립된 산이다.

이 산은 귀래면 귀래리(貴來面貴來里)와 귀운리(貴雲里) 사이에 있으며 미륵산(彌勒山)이라고 한다.

이 산상(山上)에는 웅기종기 12개봉이 있고 그 12개봉의 가장 크고 높은 봉이 주봉인데 그 주봉 암벽(岩壁)에 미륵불상(彌勒佛像)을 큼직하게 음, 양각으로 조각을 해 놓았다. 그래서 이 산을 미륵산이라고 한다.

이 미륵불상은 미륵산 주봉에 정 남향관으로 상봉에서부터 20여미터의 높은 암벽(岩壁)이 마치 깎아세운 것같이 되어있는 암벽에 음각(陰刻)과 양각(陽刻)으로 조각되어 있다.

두부(頭部)는 머리에서부터 양쪽 볼이 음각으로 완전하게 조각이 되었고 눈은 음, 양각으로 눈 언저리를 파서 눈알이 솟아오르게 해서 보통 불상형식을 취하고 콧날은 양쪽 볼을 나타내느라고 파서 자연적으로 오뎅하게 세워져 있으며 입 부분도 입술을 완전히 음, 양각을 겹드려서 잘 나타냈고 귀 부분도 잘 나타나 있어서 두부는 완전하다고 하겠다.

목에서 부터 앞 가슴까지의 상체(上體)는 음각으로 모든 형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하부(下部)로 내려오면서 부터 음각된 선(線)이 약하며 그대로 바

위벽에다 선만 그어서 형태를 나타냈으나 확실하지는 못하다.

그런데 그 불상의 크기는 이마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길이가 2「미터」는 되고 안면의 넓이는 1.5「미터」가 넘어 보인다. 그리고 옷뚝하게 나온 코의 길이는 어린 아이의 키만하다.

그리고 눈과 눈사이가 너무 멀어서 가까이에서는 형체를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2「키로」떨어진 곳에서 보아야 완전하게 불상으로서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의 길이는 약 13.5「미터」는 된다고 하겠다.

그럼 이와같은 불상을 언제 누가 이루었을까 하는 것은 전연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해지는 말 몇가지가 있다.

이 미륵불상이 있는 산 계곡(溪谷)을 황산골(黃山谷)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황산사(黃山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말로는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 927~935년 사이)때 창건된 것이라는 말 뿐이다.

또한 언제 폐찰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지(寺址)의 규모나 부도(浮屠) 탑재석(塔材石) 등으로 미루어 봐서도 과히 작은 절은 아닌상 싶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는 동경(銅鏡)이 라던가 조그만크씩한 불상이 사지에서 발견되는 점등으로 봐서도 소규모의 사찰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 와서 그 사지에다가 석조 건물(石造建物)로 장용기(張龍基)라는 화주(化主)가 황산사를 재건하고 탑재석을 모아 3층석탑(三層石塔)도 완성시켰고 부도탑도 모두 정돈을 해놓았으나 아직까지도 년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황산사가 있었다는데서 이 계곡을 황산골이라고 한다.

그 미륵불상은 바로 황산사 법당에서 한 1「키로」가량 떨어진 뒷산에 있다. 그래서 미륵불상과 황산사와 무슨 관련이 될 것으로 추정도 해본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참고가 될만한 근거는 없다.



〈황산사의 미륵불상〉

어떤 확실한 고증은 없으나 황산사가 창건된 후 시주자들에 의해서 이룩된 것으로 추측이 되나 그와 같은 암벽에 어떠한 기법으로 그와 같이 거대하게 조각을 하였을까 또한 상체는 완전하게 표현을 시킨데 반해 하체는 왜 적당하게 선만 표시 했을까 하는 의문점은 많다.

이토록 의지하고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더욱이 미륵불상의 안면을 만지기란 더욱 힘이 들어서 생긴 말인지는 모르나 누구든지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 미륵불상의 코를 만지면 소원성취가 되고 특히 자손없는 사람이 코를 만져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왔던 사람들은 미륵불의 코를 만져볼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황산사 경내에는 3층석탑이 있는데 2개의 화강암재(花岡岩材)로 되어 있으며 몹시 손상이 되어 있다.

기단이 있으나 탑의 중심을 잡아주기는 연약해 보이는 듯 하고 탑신에는 우주가 나타나 있으며 옥개석의 층 받침대는 4단으로 되어있고 처마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상륜부에는 원형으로 앙연(仰蓮)이 조각되어 있다.

구도(龜島)에 있는 미륵불(彌勒佛) 입상(立像)

흥업면 매지리(興業面梅芝里) 미륵 동산에 있는 입상(立像)으로 고려시대(高麗時代) 어느 사지(寺址)에 있었던 것을 이 부근에 옮겨 놓았다가 세월이 흘러가므로 하천속에 묻혀있던 것을 저수지 신설공사때 찾아 세운 것으로 조각은 일반 미륵 양식대로이며 정묘한 모양은 아직도 마멸(磨滅)되지 않은채 잘 보존되어 있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고 목에는 3도(三道)가 있으며 법의는 양어깨를 타고 내린 통견(通肩)이다. 9자(九尺) 크기의 화강암(花崗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므로 몇가지 소개해 보면,

이 불상은 가끔 마을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계시를 한다. 지금으로 부터 오래전 흥업수리 조합에서 만든 이 저수지는 지금도 그 연못한 가운데에 마치 거북처럼 생긴 동산이 있어 그 형상이 마치 거북이가 목을 내밀고 앞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동산을 거북섬이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

본시 이 석불은 저수지를 만들기 이전에 세운 것인데 지금으로 부터 약 백여년 전에 큰 장마로 인하여 떠내려가서 한때는 땅속에 깊숙히 묻혀 버렸다. 워낙 큰 물난리를 만난 마을사람들은 미륵이 묻혔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는데 이곳 매남

동 사는 박경선씨의 6대조인 박시승씨의 꿈에 예의 미륵이 나타나『내가 지금 흙 속에 묻혀있어 갑갑하기 이룰데 없으니 나를 좀 파내어 원자리에다 세워다오 그 은혜는 복으로 갚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꿈이거니 생각하고 무심중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번 세번 연거푸 꿈에 나타나므로 일러준 장소를 찾아가 파본즉 미륵불이 나왔다.

박씨는 힘께나 쓰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우기는 하였으나 워낙 힘이들어 제자리에 옮겨놓지는 못했다. 그후 세월이 흘러 100년이 되었다.

홍업수리조합이 처음 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였을때 영험있는 미륵불에 대해서 마을을 대표한 유지가 조합측에 선처를 요망했으나 일소에 불었다.

저수지를 완공한후 물이 가득차기를 바랬으나 어떤 일인지 날은 가물었다. 간혹 비가 온다 해도 저수지 있는 쪽은 도무지 신통치가 않았다.『혹시나 미륵불을 방치해둔 탓이 아닐까? 옛부터 영험하다는 석불이라던데……』『그까짓 미신 같은 소리 작작 하라고』

『아니야 무슨 꼭절이 있을거야 하필이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안오는지』

『글쎄 하긴 이상도 해』

홍업면민들은 무언가 개운치 않았다. 어느날 당시 수리조합 이사로 있던 이중실씨의 꿈에

『나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저수지 한쪽 귀퉁이에 쓰러져 있는 미륵이란 석불이요 당신들은 나를 무관심속에 취급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면 비가 안와 못물을 못채울 것이니 나를 거북동산 옛 자리에 세워주지 그래』

꿈에서 깨어난 이씨는 너무나 생생한 현몽에 적이 가슴을 설레었다. 이튿날 날이 새기를 기다려 수리조합에 나가 간밤의 꿈얘기를 하고 한번 속는셈 치고 예의 미륵불을 동산에 옮겨놓자고 제의했다.

평소 점잖고 싱거운 소리 않는 분의 말인지라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날 당장 미륵불 옮기는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몇일이 못되어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가물이 해소된 것은 말할것도 없이 저수지 물도 가득 채워졌다. 지금도 저수지 물은 넘치도록 피었고 미륵불도 동편을 향한 자세로 깊은 영상에 잠겨있는양 서있거니와 저수지에는 고기가 많아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오고 있다.

평장리(平庄里) 석조불두(石造佛頭)

원주에서 서북쪽 10km 지점 구룡사(龜龍寺)로 가는 도로변에 불두(佛頭) 1좌가 있다. 주위가 넓은 전토에는 뽕나무밭이 있고 한쪽 옆 바위 위에 거대한 불두가 있다.

이곳의 사명에 대하여는 알길이 없으나 이 거대한 불두를 타처에서 옮겨 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불두 높이는 103cm 폭 92cm로서 둥근 얼굴에 명확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두 귀는 길게 처져있고 다소 투박한 입 등은 조각 수법의 졸속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전체적 감정은 그런대로 불상의 모습을 잘 나타내었다 하겠다. 건너편 암벽에 선녀상이 조각 되어 있으나 알아 보기 어렵다.

구전 으로는 임진왜란때 왜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전한다.

영원산성(鵠願山城)

이곳은 지금의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산 50-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문무왕(文武王)시에 쌓았으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양길(梁吉)이 이 성(城)에서 웅거하며 궁예로 하여금 주현 예성 등 동편 옆고웅을 지키게 하였으며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때에 원충갑(元冲甲)이 성에서 결안(契丹)의 침입을 막았으며 1253년(고려 고종 40년) 몽고족의 침입 1290년 합단족(合丹族)의 침입 등 여러차례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군관민(軍官民)이 하나가 되어 이들을 물리치고 성을 보존하였다 한다.

가장 크게 처절한 싸움을 벌인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때로 당시의 원주 목사 김제갑(金梯甲)은 5천의 원주관민(原州官民)을 이끌고 물밀듯 밀려오는 수만의 왜적(倭敵)을 맞아 결사전을 벌이다가 순직한 곳이며 5천의 관민이 향토의 수호신으로 승화한 곳이다.

운산태봉(雲山胎峰)

운산태봉(雲山胎峰)은 홍업면 대안리(大安里)솔내에 있다. 비석에는 임인세숙명(壬寅歲淑明) 숙징(淑懲) 양공주 태실(兩公主 胎室)이라고 새겨져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글씨를 잘 알아보기가 힘들고 태실(胎室)도 파헤쳐져 돌 항아리가

밖으로 나와 산 밑에 나뒹굴고 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도굴범의 소행으로 태실이 나뒹굴고 있다고 하는데 파괴된 비석이 그대로 있어 김갑수(金甲洙)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또 다시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되면서 비석은 파괴되었다.

관어대지(觀魚臺址)

관어대(觀魚臺)는 호저면 주산리(珠山里)에 있는 것으로 관어대 글자 그대로 물고기를 보는 대(臺)라 한다.

치악산의 낙맥과 백운산의 낙맥이 한데 모여, 서로 세차게 부딪치려는 기세를 가로 막기나 하듯 원주천(原州川)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주를 흘러내리는 마지막 수문구(水門口)이기도 한 곳이다.

기암절벽을 이룬 밑으로 맑은 냇물이 흐르니 물고기들 노는 것이 잘 내려다 보임으로 이곳을 이름지어 관어대라 했고 경치가 좋으니 옛 선비들이 이곳 바위에 올라 물고기 노는 것을 바라보며 술 마시고 시를 읊은 곳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주말이면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드는데 옛 얘기로는 관어대 바로 아래 주산정(珠山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아직도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취병정(翠屏亭)의 내력(來歷)

취병정은 지금의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건동리 세골 뒷산 늪은 은행나무 옆 숙부인(淑夫人) 광주이씨(廣州李氏) (사한(四寒)선생 12대 사손(嗣孫)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시제(金時濟)의 부인)의 묘역에 있었던 조그마한 모정(茅亭)의 이름이다.

이 조그마한 모정(茅亭)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까지 오르게 된것은 그 모정(茅亭) 자체 보다는 이 모정을 짓고 거기서 이곳 산수의 경관을 즐기며 여생을 고고(孤高)하게 보낸 이조 중기의 성리학자(性理學者) 김창일(金昌一) (1548~1632) 호(號) 사한(四寒) 1호(一號) 취병(翠屏), 관은일지중추(官隱逸知中樞)의 덕망때문이다. 김사한(金四寒)이 원주에 온 것은 그의 동문수학인 한백겸(韓百謙)의 아우 한준겸(韓浚謙)이 임난초(壬亂初) 전사한 김계갑(金梯甲)의 후임으로 원주 목사에 부임되자 그를 따라 서울에서 이곳으로 피난하면서 부터다. (1592년경)

처음에는 지금의 원주시내인 정전(庭前)들에 우거(寓居)하다가 문막에 있는 건등산(建登山) 남늑(南麓) 관천(寬川) (너그네)으로 옮기고 광해(光海)의 혼정(昏政)때 협천군수(陜川郡守)를 그만 두고 다시 취병산(翠屏山)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세골로 정착했다 한다. 그러니까 취병정(翠屏亭)의 건립년대는 17세기 초엽이라 추측된다.

본래 취병정의 옛터는 양씨(梁氏)라고 하는 부호(富豪)의 집이었는데 당시 이곳에는 호랑이들이 창궐하여 인명 피해가 많았다. 양부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대문앞에서 호환(虎患)을 당해 죽자 흉가가 되어 비어있는 것을 김사한(金四寒)이 사들였다 한다. 허관설(許觀雪)이 쓴 사한선생행장(四寒先生行狀)에 의하면 그 후에도 호랑이가 이 집 뜰안에 나타났는데 사한이厲聲(厲聲)으로 소리치자 꼬리를 늘어뜨리고 쫓겨간 뒤 다시는 호환이 없었다고 한다.

취병정이 이름이 나게 된 직접원인은 명(明)나라 사신 진좌효(陳佐堯)가 여기를 친히 찾아와서 김사한(金四寒)과 시문(詩文)을 논한 일이 있기때문이다. 진좌효(陳佐堯)가 김사한을 찾아온 것은 김사한의 시우(詩友) 유서경(柳西炯)이 중국에 갔을때 시문으로 친해진 진좌효(陳佐堯)가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조선의 고사(高士)와 교류(交遊)하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는 간청을 받고 김사한을 추천했기 때문이라 한다.

김사한과 진좌효가 주고 받은 시문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진좌효(陳佐堯)의 율시(律詩) 한 수만이 알려져 있는데 김사한이 진(陳)시에 화답한 율시한수가 그 후손들에게 전승(傳誦)되어 오고 있어 여기에 소개해본다.

진좌효(陳佐堯) 취병정 시

茅屋悠然点地靈，四詩風月入窓楹，江吞大野橫銀帶，山插中霄列翠屏，花鳥迎多意趣，酒基當座足歡聲，主翁浩放無儔匹，眞是塵寰隱德星.

(소박한 초가집이 평화롭게 신령스러운 명당을 차지했구나 / 집은 가난하지만 사시의 경관이 뜰안 가득히 찾아든다 / 강물은 대야(大野)를 휘감아 돌아 마치고 대를 먼것 같고 / 산은 구름위에 꽃혀서 푸른 병풍을 둘러친듯 하다 / 트락의 꽃내음 숲속의 새소리가 침아(檐牙)가에 감도니 시정이 절로 나고 / 술과 바둑이 나그네의 시름을 잊게하니 때때로 웃음소리라 / 주옹(主翁)이 이토록 호탕하고 경지가 드높아 감히 짝할만한이 없으니 / 참으로 티끌 세상에 숨어 있는 덕성이 이 아닌가!)

김사한(金四寒) 취병정화운(翠屏亭和韻)

晚卜幽居養性靈，晴嵐淑靄時繞楹，大江滌去三生垢，列嶂遮來隔世屏，壽世漁樵

林下福, 康衢烟月逸民聲, 樂天知命了無惑, 自是人間一少星.

(나이들매 조용한 곳을 찾아 여생을 보내노라 / 개인 날이면 산바람 저문 날이면 맑은 구름이 부담없이 찾아든다 / 앞에 흐르는 대강은 나의 생애 온갖 영욕을 씻어 보내주고 / 둘러선 산 봉우리들은 병풍을 친듯 세상과 인연을 끊게 해준다 / 난세에 이만한 산천을 갖고 어초(漁樵)로 삶을 영위하니 은사(隱士)의 복록이 아니던가 / 평화스런 이웃마을로 부터 이따금 백성들의 꾸밈없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 내 자연을 즐기고 분수를 알아 이렇게 아무런 의혹없이 살아가니 / 덕성이라고 까지야 하겠는가만 스스로 소미성(少微星)이라 자처하노라 소미성(少微星)은 처사성(處士星)의 일명 즉 선비의 별을 말한다)

인물이 가면 사적(事迹)도 인멸되는법 김사한이 세상을 뜬 뒤 정자 근처에 다투어 묘(墓)를 들어 주위를 오독(汚穢) 시킴으로써 정자는 퇴폐되어 버리고 늙은 은행나무만이 옛 풍성(風聲)을 전해오고 있다.

본래 정자 터 만든 돌담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안창의 김세기(金世基) 판서가 석지(石芝) 앞 강을 막느라 이곳을 자주 지나면서 이 정자터를 보고 자기 선대의 묘를 이장하려 하므로 김사한(金四寒) 후손들이 아예 먼저 산소를 들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은행나무 수령을 약 400년을 헤아린다.

제공 : 고려대학교 철학교수

金 忠 烈

고산(高山) 입석(立石)

이 입석암(立石岩)은 고산리(高山里) 입암부락에 위치한 선바위로 높이는 10m 직경 또한 10m되는 거대한 바위로 산중에 우뚝하게 서 있어 그 밑을 지날때는 근엄한 마음마저 갖게 되는 기암이다.

바위 중턱으로 올라가는 구름이 허리를 질러 마치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은 공포감마저 생기며 현기증까지 일어난다.

옛날 어떤 웅기장사가 이 바위밑을 지나다가 바위 위력에 끌려 넘어지는 바람에 웅기짐을 모두 깎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바위 옆에는 약수가 있어 그 약수를 마시면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먹기 위해 이 기암을 찾고 있다.

김제남(金悌男) 신도비(神道碑)

김제남(金悌男) 신도비(神道碑)는 지정면 안창리(地正面 安昌里)에 위치하며 사당과 함께 묘소도 근방에 있다.

가로 2.25cm 세로 1.65cm 높이 3.4cm의 귀부와(龜趺)이수(麟首)가 있는 거대한 비석으로 재료는 화강암이다.

귀부는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넓은 지대석(地臺石)위에 놓여 있는데 거북의 목은 비석을 쳐다보는 듯 돌려져 있고 등에는 구갑문(龜甲文)를 노출시켰으며 등한 복판에 비석을 세우게 함을 파고 그 확인저리에는 복연문(伏蓮文)으로 표시했다.

비석은 섬세한 글씨로 새겨져 있고 개석(蓋石)은 옥중한 감을 주며 용(龍)두마리가 가운데를 향하여 양쪽에서 바라보는 형상을 조각하여 놓았는데 그조각의 섬세함과 특별한 양식은 후세인들로 하여금 선조들의 정교한 예술성에 탄복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김제남은 이조 선조때 사람으로 자는 공언(恭彦)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의 아버지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인물이다.

1613년 광해군(光海君) 당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서소문(西小門)밖 자택에서 사약을 받고 다시 1616년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가 인조반정후 역고의 무죄함과 안주(安州)의 전공을 인정받아 1624년 인조때 그의 산소를 예장(禮葬)으로 모시고 아울러 신도비를 세우게 됐다. 1623년 왕명으로 사당(詞堂)이 세워졌으며 시호는 흠민(懿愍)이다.

조엄(趙睪)의 공적비(功蹟碑)

조엄선생 공적비는 지정면 간현리(地正面 艮峴里)에 있으며 높이 380cm 폭 100cm의 화강암으로 된 지대석과 비갓 비신은 옥석(玉石)으로 이조 정조(正祖)때 세워졌다.

비석에는 그의 경력과 일본에 통신사로 건너갈때 배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일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공적비 주위에는 그의 묘와 석등 그리고 특이하게 양의모습을 한 상이 묘소 양쪽으로 세워져 있다.

조엄은 문벌(門閥)로나 다채로운 관역으로나 목민관(牧民官)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대하였던 인물로 1719년에 태어나 1777년 회갑을 3년 남겨놓고 세

상을 떠났다.

자는 명서(明瑞)호는 영호(永湖)라 했던 그는 문장에 뛰어난 학자였으며 국가 재정과 경제에 밝은 경세가(經世家)였고 관계의 경력이 다채롭다보니 유배(流配)도 당해야 했던 우리나라 고구마를 제일 먼저 수입 재배하였던 산업인 이기도 했다.

그러나 말년에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무고로 귀양살이를 하다 김해(金海)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또한 직언(直言)을 잘하는 강직한 신념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다.

순조(純祖)14년 좌찬성(左贊成)에 증직 됨과 동시에 문익(文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의 비 전면에는 조선 이조판서 증 의정부 좌찬성 시 문익 조공엄지묘비라 새겨져 있다.

임경업(林慶業) 추모비(追慕碑)

임경업 장군 추모비(追慕碑)는 부론면 손곡리(孫谷里)에 있는 것으로 높이 330cm 폭 60cm의 화강암으로 된 추모비이다.

이조 인조때 명장으로 현 추모비가 있는 곳에서 태어난 장군은 자를 영백(英伯)호는 고송(孤松)이라 했으며 1647년 김자점(金自點)의 무고로 피살될때까지 이괄의난을 평정시키므로써 일등진무 원종공신(一等振武原從功臣)이 되어 명나라 청나라에 까지 벼슬을 받으며 용전했던 인물이다.

무인으로써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졌던 그의 무용담을 그린 전쟁소설은 많으며 대부분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영웅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무인으로써의 전쟁능력은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라를 지키려는 무인으로서의 투쟁심은 아직도 후세에 빛을 발하고 있다

이같이 한 많은 세상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그에게 그후 나라에서는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정조(正祖)때는 충민공실기(忠愍公實記)라는 책자를 만들어 그의 음덕(陰德)을 가렸으며 글을 지어 비석에 새겨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제 달천충열사비(御製達川忠烈祠碑)이다.

최근에 와서 모든 고증과 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임장군의 출생지가 부론면 손곡리라는 사실을 안 원주문화원장 황주익(黃柱益)의 주선으로 1968년 장군의 생가터에 추모비를 세웠다.

황무진(黃戊鎭)의 충효사(忠孝祠)

황무진의 황효자문은 원래 충효사(忠孝祠)라고 하는데 문막면 반계리(磻溪里)에 위치하며 이조 인조(仁祖)12년에 세워졌다.(1634년)

충효사 앞에는 높이 1m의 화강암으로 된 충호비(忠虎碑)와 비각이 있는데 이는 1968년 12월 창원황씨 종친회에 의해 세워졌다.

황효자는 이조 인조때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전설과 같이 지극한 효자로서 호랑이도 이에 감동, 출퇴근때 마다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하며 천지신명도 감탄하여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중할때 잉어를 얻게 해 주어 효심을 기렸다는 얘기도 있다.

그에 효행은 널리 알려져 선조 12년에는 나라에서 명하여 그의집 앞에 효자 정문(旌門)을 세우게 했으며 효종(孝宗)원년에는 특히 일중추(逸中樞)를 제수하고 자룡(子龍)이란 이름까지 내렸다.

그의 사당은 충효사라 하여 이조 말엽까지 원주에 있었으며 매년 강원감사와 원주 목사가 그 향화(香花)의 비용을 보조해 왔었으나 그후 관리소홀로 사당이 퇴락하자 후손들이 현 골무내기로 옮겨 관리하고 있다.

현 사당에는 인조가 친히 하사한 은잔대 3개와 정여지문(旌呂之門)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생존해 있을때 항상 호랑이를 타고 다니던 그였는데 반계리 저수지 공사때 후손들의 집안에 호랑이에 얽힌 불미한 일이 생겨 숙의(熟議)끝에 1968년 황효자 사당옆에 충호비와 비각을 세웠다. 충호비 전면에는 「忠虎碑」라 쓰여 있다.

제 2 편

조 상 의 일 과 슬 기

향 토 의 전 설
옛 생 활 의 풍 습
특 산 · 명 물

제 1 장 향토(鄕土)의 전설(傳說)

우리의 선조(先祖)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여 왔는가는 여러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선인들의 애환은 한그루의 나무와 무심하게 흩어져 있는 한 조각의 돌에 어린 전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속에는 생활과 예지와 민족의 신비가 담겨 있을뿐 아니라 귀중한 사적(史的)자료가 될수 있는 민족사상과 서민의 생활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기도 하다.

우리 원성지방에도 어느곳 어느 구석울가도 아기자기한 전설이 많아 마을과 마을의 애(哀)와 환(歡)으로 얹혀져 민족정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가 하면 우리의 삭막한 풍토를 훈훈하게 해주는 전설들로 오랜 역사의 노래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내려오는 것이다.

특히 우리고장에는 지명(地名)에 얹힌 전설이 많으며 또한 유머러스한 얘기도 심심치 않다.

그런가 하면 외적이 침입했을때 수난(受難)을 당했던 현지 상황이 사실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도 많다. 이렇듯 약자로서 당해야 했던 서러운 얘기와 함께 깊은산 험한 골짜기의 초옥(草屋)에서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야사도 있다.

여기 원성지방에서 전설로 흘러내려오는 얘기를 하나하나 소개해 본다.



치악산(雉岳山)의 유래(由來)

경상도 의성에 사는 한 나그네가 과거를 보러 한양을 향해 떠났다. 적악산 기슭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숲속에서 평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잔솔밭 아래 커다란 비단 구렁이가 평을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나그네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는 평을 불쌍히 여겨 활을 당겨 구렁이를 쏘아 죽였다. 그리고 길을 재촉하여 가는데 해가 저물었다. 깊은 산중에서 해가 저물어 부득이 인가를 찾게 되었다.

어두워서 찾아낸 집은 어느 이름 모를 절간이었다. 문을 들어서면서 주인을 찾으니 이상하게도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나그네는 하루밤 자고 가기를 간청했다. 여인은 쾌히 승낙하면서 방으로 안내했다. 여인은 저녁밥을 차려다 주고 대접을 융숭히 해줬다. 저녁밥을 든 나그네는 피곤이 몰려 곧장 깊은 잠에 빠졌다. 잠속에서 몸이 부자유스러움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온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나그네는 놀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죄없는 선비를 해칠려고 하는 법이 어디있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구렁이는 두 갈래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손님은 오늘 오시다가 도중에서 살생을 했소. 그 구렁이는 내 남편이오, 그를 죽였으니 임자도 마땅히 죽음을 당하여야 하오” 하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살려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이 절위에 절루가 있는데 그것을 세번만 울리면 살려줄 수가 있소” 하고 조건을 내놓았다.

나그네는 자신의 활 솜씨를 믿고 그까짓 종 쯤은 문제없이 맞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절 뒤뜰에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이야기한대로 종루가 있고 그 끝에는 종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그 종루는 어찌나 높은지 다른 종루와는 달랐다. 나그네는 화살을 뽑아 시위에 걸고 힘껏 당겼다. 그러나 첫 화살은 종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둘째 화살도 첫 화살처럼 종을 미칠듯 미칠듯 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마지막 화살을 뽑아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종을 향해 쏘았다. 마지막 화살도 종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제는 할 수 없이 구렁이에게 죽음을 당해야 겠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던 때였다. 그런데 이게 웬 변고인가?

「땡／ 땡／ 땡」하고 종루에 종이 세번 울리는 것이었다.

종이 울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렁이의 변신인 소복한 여인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나그네는 위기를 면하게 됐다.

나그네는 종소리가 난것이 하도 이상해서 종루 밑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썰 세마리가 머리가 터진채 죽어있었다. 전날 살려준 썰의 식솔들이 은혜를 갚기위해 나그네의 위험을 구하고자 머리로 종을치고 죽은 것이었다.

이후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赤岳山 이던 산 이름을 썰이 보은을 한 산이라하여 썰 치(雉)자를 써서 雉岳山이라고 바꾸었다 한다.

치악산에 한 쌍의 구렁이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치악산의 상원사 주지스님은 욕심이 많고 속세 사람과 같은데가 많았다.

어느해 신종(神鍾)을 만들기 위해 장안 십만 집에서 그 집 식구대로 숟가락 하나씩을 거두어 들였다.

이 주지 스님은 처음에는 볼심 그대로 종을 만들려고 했으나 견물생심이라 슬며시 탐욕이 생겨 걷어들인 숟가락 중에서 절반쯤은 숨겨두었다. 그뿐 아니라 이 스님은 같은 절에서 수도하고 있는 보살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거두어 들인 숟갈중 절반만 들여 종을 하나 만들었다.

높다란 종각을 짓고 종을 매달았다. 서라벌 황룡사의 신종만은 못해도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빌기에는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거창한 시종식(試鍾式)을 갖게됐다. 식구 수 대로 숟가락을 바친 시주들이 구름 메 처럼 몰려들어 이 큰종의 첫 소리를 들으려했다. 몰려온 사람들은 큰종의 모습을 보고 모두 스님의 노고를 칭찬했다.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스님의 공덕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큰 종은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칭찬이 자자했다.

맨 처음 종을 치는 것은 스님이 손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종을 쳐도 종소리가 나질 않았다. 연거푸 몇차례 종을 쳐 보았으나 바위를 때리는 소리 만큼도 나지 않았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에서 부터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주의 목소리였다. 그 스님은 부처님의 저주를 받아 구렁이가 된 것이다.

구룡사(龜龍寺)의 유래(由來)

아득한 옛날이라고 할 천삼백년 전의 일이다. 메마른 품이 학같은 늙은 스님 한분이 원주지방에 찾아와 절자리를 두루 고르고 있다가 관서의 거산(巨山) 치악산(雉岳山)을 향해 떠났다.

이 스님의 이름은 무착대사라고도 하고 의상조사라고도 하나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원주서 치악산을 향해 육십여리 길을 가던 대사는 그곳에서 다시 시오

릿길을 더 가서 지금의 구룡굴에 멎었다.

스님이 사방을 살펴보니 동쪽으로는 주봉인 비로봉이 솟아있고 다시 천지봉의 낙맥이 앞을 가로질은 데다가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절을 세울만한 곳이군. 그러나 대웅전을 세우려면 저 연못을 메워야겠는데...』

대사는 발을 옮겨 연못가로 갔다. 그때 그곳에 있던 큰 연못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

『연못을 메우자니 모처럼 용들이 사는 것을 쫓아야겠고 난감한 일이구나.....』

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못에 살던 용들이 들었다. 그리고는 대사를 향해

『대사님 대사가 벌써 우리를 내어쫓을 생각을 하시나 우리도 마음이 안놓여 살수가 없오. 대사와 우리가 서로 내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대사가 이곳에 절을 못지을 것이요 지면은 선뜻 자리를 내어드리리다』했다.

대사가 『너희들이 무슨 재주를 부리려느냐?』하니

『그것은 잠시 두고 보시면 압니다』

고 대답한 용들은 연못에서 날아 하늘로 치솟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우박같은 비를 쏟아놓았다.

이 바람에 근처의 산들은 삼시간에 물에 잠기고 대사 또한 물속에 빠져 죽는 가 했으나 대사는 태연하게 앉았다가 비로봉과 천지봉 사이에 배를 건너 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동안 비를 퍼부은 용들은 이만하면 대사가 물속의 귀신이 되었겠다 생각하고는 비를 거두고 내려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사는 배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홉마리의 용들이 다 내려오자 부시시 일어난 대사는

『너희들의 재주가 고작 그것뿐이나 이제 내가 조화를 부릴 것인즉 너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 보아라』

하고 부적을 한장 그려 연못속에 넣었다.

얼마 안있어 연못에서는 더운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큰 연못의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뜨거움을 참다 못한 용들은 뛰쳐나와 한다름에 동해바다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홉마리의 용 가운데 한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미쳐 달아나지를 못하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연못으로 옮겨 앉았다.

용들이 달아나자 대사는 못을 메우고 지금의 구룡사 대웅전을 지었다. 한편 뜨거운 물에 쫓겨 달아나던 용들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구룡사 앞산을 여덟개로 쪼개놓으며 도망했다 하는데 지금도 구룡사에서 동해를 향한 능선은 여덟개의 골이 치어있으며 이때 미쳐 도망하지 못한 눈먼 한마리의 용은 구룡사 옆에 있는 용소에서 지난 왜정때까지 살다가 그해 여름장마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한다.

또한 지금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바꾸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본래 구룡사는 스님들의 수양도장으로 세워졌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따른 곡절이 많았다.

이조에 들어 서면서 치악산(雉岳山)에서 나는 산나물은 대부분 궁중에서 쓰게 되어 구룡사 주지스님이 공납의 책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좋거나 나쁘거나 구룡사 스님의 검사 하나로 통과되는 지라 인근 사람들은 나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별도로 뇌물을 받치기도 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아무리 부처님같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엔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구룡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신도장으로서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럴 즈음 한 스님이 찾아와 몰락한 이 절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 절이 흥하지 못하는 것은 절로 들어오는 길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절에서는 그 스님의 말을 믿어 거북바위를 쪼개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후부터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적어지고 거찰(巨刹: 큰절)로서의 명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급기야는 절문을 단아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럴 때 어느날 도승 한분이 또 찾아왔다.

『이 절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가 하면 그 이름이 맞지 않기 때문이오』 하고 말했다. 주지 스님은,

『그건 무슨 말씀이지요?』 하고 물었다.

『본시 이절은 절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북바위가 절운을 지켜왔는데 누가 그 바위를 동강으로 내 혈맥을 끊어버렸으니 운이 막힌 것이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지 스님은 재차 물었다. 그랬더니 그 도승은 거북이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지금 현판에 새겨진 대로 치악산 구룡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단정(端亭)과 노산군(魯山君)

영월로 가는 유뱃길은 멀기도 했다. 여주에서 뱃길로 부른면 단강리(富論面丹江里)의 단정동에 이른 노산군은 허기에 갈증까지 겹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영월을 향한 유배의 길이라고는 하나 호송하는 나졸들의 처사가 너무도 혹독했다.

지나는 길에 음식을 바치는 백성도 있었으나 나졸들은 못받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눈을 부라렸다.

『누가 죄인에게 떡을 바치랬어!』 그렇다. 자기는 죄인이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인가.

왕좌(단종)에 앉아 백관의 하례를 받던것이 얼마전의 일 아저씨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더니 사육신이 자기의 복위를 꾀했다 해서 죄인이 되고 지금 천리벽지로 유뱃길을 떠나는 것이다.

더위에 땀냄새는 나고 이것이 뭉쳐서 종기가 되어가지고 고름이 흘러도 약을 쓰지못하게 하는 나졸들의 처사는 위로부터의 지시였는가. 아니면 위에 잘보이려는 나졸의 짓인가. 나졸의 눈치마저 봐야하는 어제의 제왕이었다.

『애들아 저 느티나무 밑이 좋구나. 시원한 그늘아래 넓은 바위도 있으니 좀 쉬어가면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가자』

들어주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으나 나졸들도 아닌게 아니라 쉬어갔으면 하던 참이었다.

『정이 그러시다면 조금만 쉬어 갑시다』

생색이나 내듯 말하고 먼저 그늘밑 바위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 나졸들이었다. 노산군도 같이 앉았다. 목이 마르나 물을 퍼다 받칠 나졸들이 아니었다.

『누가 없을까?』 하고 사방을 살필때 이 행차가 어제의 단종왕이요 오늘은 노산군의 행차란 것을 안 동리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길가에 부복했다.

『아— 목이 마르는구나. 이곳에 샘이 없는가?』

노산군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백성가운데서 노파가 일어나 샘물을 떠다 바쳤다.

이곳서 한참을 쉬고난 일행은 또 멀고 먼 영월을 향해 떠났고 노산군은 영월서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연고로 이곳 사람들은 동리 느티나무 밑에서나마 잠깐 쉬어간 단종을 내내 잊지 못하고 있다.

그후 느티나무밑 바위에는 정자가 하나 세워졌고 정자 이름을 단정(端亭) 이라고 했다.

정자 이름이 단정인 것은 단종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것이 아니라 평해 사람인 문정선생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조정의 정승을 지낸 문정 선생은 벼슬을 물러난후 팔도 강산을 유람하며 여생을 보냈다.

두루 다니며 마음에 드는 곳마다 정자를 하나씩 짓고 다니는데 하루는 이곳에 들렀다가 강변과 마을이 하도 마음에 들어 정자를 짓고 내 평생 벌써 열 다섯 개의 정자를 지었으니 이것으로 마지막 정자를 삼자— 해서 끝단(端)자를 달아 단정이라 했단다.

단강 2구 사기막에 「진대골」이란 곳이였다. 거둔사(居頓寺) 입구의 진대를 세우는데 그 석주(石柱)를 이곳서 만들어 간후 그만 진대골이란 이름이 생기고 말았다. 그런데 단정동은 부론면 소재지에서 강편으로 5「키로」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용마암(龍馬岩)

치악산 남대봉(南大峰) 기슭에 있는 상원사(上院寺)는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절이라 하겠다.

이 절 바로 앞에는 40m나 되는 벼랑이 있으며 이 벼랑위 바위 끝에는 말발자욱 형태와 사람의 손가락 자욱같이 패어진 곳이 선명하며 그 밑으로는 갈색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말발자욱과 손자리 그리고 갈색의 흔적이 있어서인지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치악산 상원사에서 동남간으로 40리허에 제천땅 백련사(白蓮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의 주지 스님은 여자를 좋아했다. 그는 스님이면서도 아내를 두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치악산(雉岳山) 남대봉 기슭에 있는 상원사의 주지도 겸했다.

이 스님은 백련사와 상원사를 왕래하며 두 절의 주지 스님으로 있었는데 불제자로서 마땅히 불도(佛道)에만 정신을 쏟아야 할 터인데도 여자를 너무 좋아하여 백련사에는 본처를 두고 상원사에도 소실을 얻어 재미를 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상원사에 가는 날이 잦아지자 백련사에 있는 본처는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해 봤다.

그랬더니 상원사에 젊은 소실을 두고 있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스님과 몰래 살고있는 처지이기도 하나 본 부인은 참고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이 스님은 백련사에서 상원사를 용마(龍馬)로 왕래했다. 용마는 번개처럼 잘

달리는 말이었다. 슬며시 화가난 본처는 내놓고 싸울수도 없어 속으로만 앓고 있다가 스님이 타고 다니는 용마를 쫓겨 죽이기로 했다.

『저놈의 말만 없으면 스님은 첩이 있는 상원사를 자주 가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되도록 말에게 죽을 적게 먹이기로 했다.

한번 뛰었다 하면 천리도 마다 않는 용마였지만 본처의 계획적인 음모로 어느 날 스님을 태우고 상원사로 달리는데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았다. 속모르는 스님은 용마에게 채찍만 호되게 내리쳤고 주인의 채찍을 맞은 용마는 용을 써 겨우 상원사까지 이르러 그만 마지막 바위에 턱을 대고 털썩 꺼꾸러지고 말았다.

이 바람에 등에 올라탔던 스님은 말 잔등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손을 짚었고 말은 앞발을 디딘채 그 바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벼랑으로 떨어졌다.

그후 가까스로 올라온 스님은 이것이 큰부인의 소행이었음을 알고 소실과 상원사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스님의 손자국과 용마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있고 말이 떨어지며 흘렸다는 핏자국이 또한 남아있어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마바위」라고 부른다.

注：이 상원사는 근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절이며 얼마나 높은 곳인지 삼복 지경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할만치 한냉하다. 또한 모기등'날 파리가 없으며 절은 3백여평 남짓한 암석(岩石) 위에 지었고 석함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신기하기만 하다.

법당 앞에는 신라때의 3층석탑이 양쪽으로 2개가 있고 그 앞에는 소위 계수나무라는 고목 3그루가 서 있다.

장마때 떠내려간 동산

원주 의관리 비행장을 지나 고분다리 건너에 파히 크지않은 동산이 있다. 본시 이곳은 횡성군에 속해있던 땅이었으나 어느해 장마때 이 동산 한귀퉁이가 큰물에 떨어져 내려가 지금의 원성군 문막면 반제리 앞에와서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강물에 떠내려 오는 동안 반쪽 동산은 마치 둥그란 꽃감모양이 되었다. 장마가 개고 하룻밤이 지난 사이에 난데없는 동산하나가 생겨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횡성군민들은 동산 한모퉁이가 없어진 것은 떠내려 간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강물을 따라 찾아나서 반제리 앞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것이 우리 횡성에서 떠내려간 동산이니 그리알라고 그 소유권을 확인하고는 돌아갔다.

일년쯤 있다가 찾아온 횡성 사람들은 『여보 염치없는 짓들이지 남의 땅을 거저 쓰는 법이 어디있오』

『무슨 말씀이신지?』

『한해동안 밭으로 쓰고 풀베고 나무해다가 살면서 그래 시침을 똑베고 있을 작정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도지를 내야지요』 워낙 순박하고 정직한 문막면 주민들이라 한마디 군말없이 도지를 낼것을 약속했다.

이로부터 몇해동안은 횡성사람이 도지를 잘 받아갔다. 그런데 문막 주민은 고지식하게 꼬박꼬박 해마다 도지를 주고나니 슬그머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 다음해는 도지를 내지 않았다.

『왜 도지를 안내는 거요?』

『이 동산이 이제 필요없어서 그러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으로 가져 갈터이니 그리아오』

『종소이다』

『그럼 저 동산을 재(灰)로 끈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놓으시오』 하고 자리를 뜨고 돌아갔다.

문막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같았다. 사원재로 새끼를 꼬아 묶어놓으라니 아무래도 억지소리다. 그렇다고 못한다고 약한 대답은 하기 싫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근심에 잠겨있다가 그 마을에 신동(神童)이라고 불리는 8살 나는 소년의 지혜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거 어려울게 없어요』

『성한 짚으로 새끼를 꼬아 동산을 칭칭 감아놓고 새끼에 기름을 바른 후 불을 질러 보세요. 그럼 새끼는 타도 재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게 아닙니까?』

소년의 말에 어른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횡성사람들이 동산을 끌어간답시고 메로 물려왔다. 정말 재로 끈 새끼줄로 묶어 놓았는지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다.

그 후부터는 다시 나타나지도 도지 타령도 하지 않았다 한다. 지금도 문막 족섬(足島)이라는 지점에서 1km 떨어진 마치 꽃감처럼 생긴 둥근 동산이 그때 문제되었던 동산이라 전한다.

호전(虎田)

문막면 취병리(翠併里)에 사는 원(元)씨 문중의 소유로 3백여평에 불과한 문전 옥토가 있다. 1백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름을 호랑이밭(虎田)이라고 한다.

그 유래를 보면 취병리 벌새터골에 사는 원모씨는 힘이 장사였다. 비록 무식한 농꾼이었지만 의협심이 강해서 항상 그의 객담에는 불을 튀기는 정열이 있었다. 옳은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배기는 그의 젊은 한때의 용맹담은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어느날 석양무렵이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지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마을앞 우물에서 쌀씻는 젊은 아낙을 뒤에서 막 해치려는 호랑이 한마리가 나타나 위기일발의 순간을 보이고 있었다.

원씨는 마치 자기에게 향한 위협인듯 나뭇짐에서 재빨리 도끼를 뽑아들고 호랑이쪽으로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원씨를 향해 쏜살같이 덤벼들었다. 원씨는 자신도 모르게 높이 들었던 도끼로 내리쳤다.

천만다행으로 도끼는 호랑이 머리를 명중, 호랑이는 일격에 나가 떨어졌다. 원씨는 만일을 몰라 연거푸 몇대를 더 가해서 완전히 골통을 박살냈다.

이후로 『원서방이 호랑이를 때려 잡았다』는 소문은 온마을을 흥분의 소용돌이로 만들었다.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기에 도끼가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을 당할뻔 했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좋아하는 마을사람들은 숫제 원씨가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절로 전해졌다.

이 화제거리는 얼마간 문막면의 신화에 가까운 얘기가 되었었다. 원씨도 도끼로 때려잡은 호랑이를 처분하여 가족은 가족대로 팔고 나머지 고기와 뼈까지도 약으로 비싼 값에 팔았다.

50년전의 호랑이 한마리 값은 논 3마지기를 살수 있는 돈이었으며 원씨는 이때 지금까지 그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장만해 놓은 것이다.

아무리 궁해도 조상이 호랑이를 때려잡아 마련한 논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다.

이후 호랑이로 인해서 산 논이라 해서 호랑이밭(虎田)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을 남긴 원씨의 용맹과는 달리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다. 하루는 원주감영에서 원씨에게 호출장이 날아들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보고 오라가라 하다니 어쨌든 관가에서의 출두명령은 과히 기분좋은 일은 아니었다.

『무슨 영문일까?』

『아따 무얼 걱정하나, 얼마전 호랑이를 때려잡았기에 원님께서도 치하겸 후한 상을 내리려고 그러시겠지. 어서 가 보게나』

땀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원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영에 출두했다. 그러나 원님앞에 섰을때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놈 이 미련하기 그지 없는놈, 그래 호랑이가 어떤 동물이라고 맨주먹으로 상대하여 때려잡다니 그러다가 되물리거나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아니 올시다. 맨주먹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도끼로 때려잡았습니다』

『도끼같은 흉기로 호랑이를 해친 것은 더욱 잘못이다. 자고로 호랑이란 만수의 왕으로 산중 영물이 아닌가? 또 호랑이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법이 없느니라. 네가 마을 한 아녀자에게 힘깨나 쓴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천만한 소행을 저질렀지?』

원씨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원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날 원씨는 볼기 50대를 맞고 차후엔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은 말도록 단단히 훈계를 받고 돌아왔다.

글쎄 돌아오면서 원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런지…….

옥 바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安昌里) 덕가산(德加山) 골짜기에 이른바 「옥바위」라는 야릇한 이름이 붙은 바위가 있다.

한편 옥바위 맞은편 영경산 기슭에는 「여재바위」니 중다래미바위가 있어 암석 전설의 백미편(白眉篇)을 이루고 있다.

옥바위에 전설인즉 이마일에 서당 훈장까지 지낸 선비가 있었으니 성질이 팔팔한데다가 참울성이 없었다. 가슴에 치미는 울분은 한바탕 욕으로 퍼부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렇지 않으면 풀지못한 심화때문에 때로는 몸져 누워야 하는 때도 있었다. 황보씨는 마을에서도 피짜 선비로 통했다.

그가 하는 욕에도 가지가지여서 어떤 욕은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마구 내뱉으므로 주위 사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이 황보씨는 원주목사로 부임해온 원님에 대하여 심히 못마땅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제간놈이 뭐라고 날 업신여겨 오라 가라 하누 ○○같은 자식』

물론 마음 속으로 하는 욕이다. 만약 욕이 원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치도곤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사람 같으면 벌써 정면을 향해 그의 특유한 욕설을 퍼부었을만도 하지만 어느 존전이라고 당돌하게 나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며칠째 끔끔 앓고 있던 것이었다. 의원을 데려와 진맥을 하였으나 한결같이 심화로 인한 병이라 했다.

「약이 소용없어요. 가슴에 품은 일이 있으면 모두 큰소리로 외쳐버려요.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뜬은 의원도 명진단을 내렸다. 그러니 원주목사에 대한 욕을 참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수개월을 앓고 있는데 그 목사가 다시 한양으로 영전이 되어 떠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욕선비 황보씨는 큰일이 났다. 떠나기 전에 목사를 보고 실컷 욕을 퍼부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한담. 욕선비는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집에 하인을 시켜 되도록 긴 사닥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무엇에 쓰려 하십니까?」

「잔말 말고 긴 사닥다리를 만들어라」

하인은 산에서 긴 나무를 베어다 사닥다리를 만들어 두었다. 그날 아침 원주목사의 행차가 덕가산 기슭 산길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아둔 욕선비는 사닥다리를 메고 그 원님이 지나가는 길옆 바위에 걸쳐놓고 올라가서 사닥다리는 바위위로 꿰어 올렸다.

그리곤 원님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있자니 구종별배를 거느린 원의 일행이 나타나 높이 솟은 바위아래 가까이 이르고 있었다. 욕선비는 때가 지금이라는듯

「네이놈 듣거라 ○○같은 목사놈아」

목사 일행중 제일먼저 들은 것은 한 아전이었다.

어느 정신병자이거니 생각했으나 목사를 향해서 주먹질 발짓으로 욕을 하는데 민망스럽고 망치스러워 들을 수가 없었다. 하도 욕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원의 행차가 발길을 멈추었다.

「저놈이 웬놈인고?」

「이 고장에서 욕 잘하는 선비라 하오」

「그런데 어찌 저토록 떠들고 있는가?」

「황송하옵게도 원님께 욕을 퍼붓는가 하오」 내게 욕을 퍼붓고 있다고? 당장 잡아 오너라」 몇 사람이 바위 곁으로 달려갔으나 까마득한 바위위만 쳐다 볼뿐

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가던길을 늦추고 사닥다리를 만들어 올라가 붙잡아 내릴수도 없었다.
『안되겠습니다. 워낙 높은 바위인데다가 제가 올라간 사닥다리는 바위위로 거
두워 버렸습니다』

원은 울화가 치밀었다. 이려고 있는 새에도 옥선비는 갇은 옥을 퍼붓는다.

『○○같은 목사놈아, 너의 어미 ○○은 여우○○인데 그것은 나밖에 아는 사람
이 없느니라. 이놈아 그것은 이 세상에 네 애비하고 나밖에 없느니라』

원은 기가 찼다. 저런 능지처참을 할 놈봐라.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뒤두고 어서 길을 재촉하렸다.』

원의 행차가 멀리 사라질때까지 옥선비는 옥을 그치지 않았고 목사는 별수 없
이 생옥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지나갔다는데 그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
서 이를 옥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과거(科擧)와 산신제(山神祭)

이조중엽에 고준문(高俊文)이란 준재(俊才)가 지금의 소초면 둔둔2리(所草面
屯屯二里)에 살았다.

특히 시문의 제술에 능하여서 벼슬길에 뜻을두고 해마다 서울가서 과거를 보았
으나 어찌된일인지 낙방만하고 돌아왔다. 이러기를 여섯번 그동안에 과거장에
서 사권 낙방생들도 많이생겼는데 이런관계로 하루는 자기가 내놓을 시문을
다 짓고나서 그동안에 친했던 낙방생 최모의 글도 대신 지어주었다.

시험결과는 발표되었다. 그러나 고준문은 또 낙방이었건만 이상하게도 자기가
대신 지어준 최모는 훌륭하게 급제를한 것이었다.

과거의 집념에 사로잡혔던 고준문은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과거를 보
았으나 번번히 낙방이었고 자기가 대신 지어준 글을 베껴바친 친구들은 틀림없
이 과거을했는데 이러기를 거듭하는 동안 그만 탄로가 나고말았다.

조정에서는 고준문을 붙잡아 들였다. 고준문을 불러놓은 임금은 고준문의 사
람됨을 훑어보고나서

『너는 무슨 까닭으로 다른사람의 과거를 보아 급제시키면서 너만은 급제를 회
피하였노』했다.

이말을 들은 고준문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나 그렇다고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떨구고 있으려니 다시 임금의 말이 떨어졌다.

『말을 못하는것을 보니 이는 필시 임금을 불신하는 불충의 뜻에 틀림없으렸다』

청천 벽력같은 소리였기에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절대로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남의 것을 써주면 꼭 급제하였으나 제것을 제가 쓰면 낙방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이 안타깝고 고향에 면목이 없어 벌써 열번째의 과거를 보았사오니 해마다 틀림 없이 낙방했고 제글을 가지고 급제한 사람의 수는 벌써 네명이나 됩니다. 이래서 이즈음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제가 살고있는 곳의 풍수탓이 아닌가도 했습니다』

말을 다 듣고난 임금은 고준문의 고향인 소초면 둔둔리에 사람을 보내어 가문을 알아오게 했다.

요새말로 신원조사를 한것인데 조사결과가 모두 그의 진술과 일치하고 또 가문의 내력으로 보아 나라에 반심을 품을 집안도 아니매 다시 이름있는 풍수를 둔둔리에 보냈다.

고준문의 말대로 그렇다면 산수탓이 아닌가를 조사케한것인데 이쯤되면 조정에도 꽤 친절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풍수가 내려와서 지형을 살펴보니 천옥형(天玉形)이라 천옥형의 지세에는 천고성(天高性)을 피해야 큰 벼슬을 할터인데 천고성은 피하지 못하고 여자가 배틀에 앉아 베를 짜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그런대로 마을 뒷산구봉에 있는 큰 바위만 없애면 벼슬길도 열리겠으나 이것이 있어 벼슬길이 막힌다고 판단했다.

풍수의 말을 듣고난 고준문은 『저놈의 바위때문에 내가 벼슬을 못하다니 당장 바위를 없애 버리겠다』 마음먹고 풍수를 작별한 다음날로 연장을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밑을 파기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억수같은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부득히 마을로 내려와서 그날저녁 꿈을꾸는데 백발죽장의 신선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그 바위를 파내면 너는 벼슬길에 들어서려니와 이마을에 사람이 살수없을 것이며 그대로 두면 벼슬길에는 못나갈것이나 마을사람들의 의식주는 걱정이 없을것이니 알아서 해라』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에게 그가 꾸 꿈이야기를 했더니 너도 나도 그런꿈을 꾸었다고 나섰는데 알고보니 마을사람 남녀노소 할것없이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었이었다.

이래서 고준문씨는 십여년간의 집년이었던 벼슬길을 단념하고 대신 마을을위해 바위에다 제사를 지내야 겠다고 의논하고 그해부터 바위에서 산신제를 올리기 시작한 것인데 이산신제는 지금껏 계승되어오고 있다.

고준문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3백 60년전 사람으로 후대로 내려오면서 3년만

큼 늦으면 5년만끔씩 걸려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산신제를 지낼때는 제사 3일전부터 동리 어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남자들만 제당에 모여 누런송아지를 잡아서 지내는데 해마다 지내고 싶어도 송아지 사는 비용때문에 몇년씩 걸으곤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제월(沙堤月)의 수난(受難)

원성군 홍업면에 사제월이란 곳이있다. 행정지명으로는 사제리로 되었으나 이곳 사람들은 사제마을을 사제월이라 하는데 한문으로는 사제월(沙堤月)이 된다.

글자의 뜻과 같이 사제월은 평해월(平海月) 송정(松亭)앞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달빛처럼 이곳에 달이 비치면 모래언덕이나 은빛 냇물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운 동네의 나무와 언덕에 배어시정을 더욱 돋우워준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에도 수난이 있었으니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때 왜병 수백명이 이곳에 와서 주둔하게 되었다.

그토록 평화스럽던 동네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으나 그런대로 둔전뜰의 전담에서 추수를 할수는 있었다.

왜병들은 아마 이때를 기다리거나 했던지 추수가 끝나기 바쁘게 주민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하면 죽였다.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결국 남부여대로 정든 마을을 떠나 백운산 용수막으로 들어가 숨어살게 되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어도 왜병들은 떠나지 않으니 숨어살던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굶주린 농민들은 결국 자기들의 식량을 빼앗아 먹고있는 왜진속으로 들어가서 식량을 훔쳐오려고 염탐을 보냈다. 염탐꾼은 왜놈들이 방심하고 매일 파수병도 없이 자고있다 했다. 때는 이때라고 좋아한 농민들은 눈내리는 것도 돌볼 겨를없이 그날로 왜진속에 기어 들어갔다.

우선 마굿간에 가서 십여필의 말을 끌어내어 말잔등이 휘도록 식량을 싣고 돌아왔다. 아침에 말과 식량이 없어진 것을 안 왜병들은 눈위에 뚜렷한 말발자국을 따라 뒤를 밟아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굶주렸던 판에 훔쳐온 식량으로 아침을 지어먹으면서 좋아하던 농민들에게 왜병들의 칼은 사정없이 내려쳐졌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일대학살이 벌어져 숨었던 사람들이 모두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피 내 울

세줄기 산이 이곳에 떨어지니 청천외(靑天外)요 두줄기 물이 한곳에 합쳤으니 백노주(白鷺洲)라……』

이것은 원주 평천동 피내울의 경관을 노래한 귀절인데 사실 태기산의 낙맥이 북으로 부터 내려와 이곳에 떨어졌고 백운산 낙맥은 남으로부터 치악산맥은 동쪽으로 부터와서 이곳에 떨어졌다. 세개의 산줄기가 이곳을 맞대고 있는 사이로 섬강과 봉천물이 합치는데 강변은 백사장이요 떨어진 낙맥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으니 과연 경가한 곳으로 이름이 날만도 한데 이곳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임진왜란때 이곳에는 인근 피난민 수백명이 숨어살고 있었는데 이인민(李仁敏) 이선민(李善敏) 형제분도 이곳에 피난와서 지냈다.

형인 인민씨는 삼수군수를 지냈고 아우인 선민씨도 높은 벼슬을 지내다가 이곳 동태산 서남간에 있는 후봉산밑에 부친을 모시고 피난온 것이다.

하루는 강전너 피내울 왼쪽 벼랑위로 왜병 3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왜병들은 인근 피난민들이 숨어사는곳을 향하여 가는지라 이곳을 본 아우가선민씨가 형을 보고

『형님 저놈들을 그냥 보낼수가 있오』했다.

『그만두게 그까짓 세명밖에 안되는 것을……』

형은 만류하였으나 듣지않고 화살을 메겨 연달아 쏘니 정통으로 화살을 맞은 왜병 세놈이 모두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세명밖에 안되는줄 알았던 왜병은 그사실 대부대에 앞서서 오던 척후병이었다.

뒤따라 오던 왜병들은 척후병의 시체를 발견하고 인근에 우리군사가 숨어있는 줄 알았다.

혈안이 되어 찾다가 우리군사를 발견치 못하게 되자 근방에 숨어살던 피난민들을 끌어내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때려 죽였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섬강물이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 한다.

척후병을 죽인것이 화근이 되어 많은 피난민들을 죽게한 이씨 형제는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갚겠다고 왜병들이 야속하는 진을 배회하면서 게릴라 전법으로 수백명에 왜병을 죽이고 끝내는 자신들도 전사했다 한다.

그후부터 이곳을 「피내울」이라 부르게 되고 왜병이 말에서 굴러 떨어진 곳을 「말굴이」라 한다.

비석(碑石)만들던 비두리(碑頭里)

원성군 문막면에 비두리(碑頭里)라는 마을이 있다. 속칭 비두네미라 부르는 이곳에는 옛날부터 질이 좋은 화강암이 많이 나와 그것이 비석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오늘의 거둔사(居頓寺)에 세워진 승묘탑비를 세울때의 이야기이다.

비신과 좌대는 완성됐으나 비갓을 만들만한 석재가 마련되지 않아 거둔사 주지는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이마을 근처에서 화강암이 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석공을 데리고 가서 알맞는 바위를 떠 용이 구름에 쌓여 있는 양각 무늬까지 쪼았다. 그러나, 막상 이 비갓을 옮기려하니 어떻게나 무거운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꼭질이 있는게 아닐까』 힘겨나 쓴다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 갓이 꺾임도 하지않자 모두 슬며시 땀무늬를 빼고 없어졌다.

절쪽에서는 심히 난처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스님 한분이 이 마을에 들렸다.

그는 어느 농가에 들러 『이택에서 먹이는 소 좀 빌립시다』고 부탁해 왔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인이 물었다.

『비갓을 실어 옮겨야겠는데 댁의 황소면 거뜬히 할수 있을것 같소』

주인은 선뜻 승낙해 주었으나 내심으로는 수십명의 장정들이 모여 옮기려다가 옮기지 못한 것을 스님 혼자서 어찌 황소 한마리의 힘을 빌려 그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인은 소에게 쇠죽을 잔뜩먹여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앞마당에 매어놓았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소를 끌고 갈듯한 스님이 해가 다 지도록 나타나지를 않는다.

『실없는 중이로군. 익힌밥 먹고 선소리 치는 사람이로군』

주인은 일부러 쇠죽까지 잔뜩 먹여 놓은 일에 울화가 치밀었다.

이때 스님이 나타났다.

『주인어른 고맙소이다. 긴히 부리고 소는 잘 모셔 왔읍니다.』

주인은 놀랐다. 종일 마당에 매어 있었는데 언제 소를 끌고 갔다 돌아왔다는 말인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주인의 생각을 눈치챈 스님은

『네, 몸뚱아리는 그대로 두고 소의 혼만 데리고 가서 일을 마치고 무사히 왔소. 소가 몹시 힘겨운지 땀을 흠뻑 흘리고 있오』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아무래도 피이한 일이라 주인은 비갓을 옮겨갔다는 비두네미골로 가보았다. 이미 비갓은 분명히 옮겨지고 그것을 끌고간 자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이곳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비두네미로 불러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행정구역명으로 「비두리」라 고쳐졌다 한다.

근면(勤勉)한 사람들이 살던 차면이(叉勉)골

원주는 옷나무가 많은 곳이라 옷의 생산지로서도 알려져 있거니와 원주 방면에서 옷을 제일 먼저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제일 많은 옷진을 생산하는 곳으로서는 호저면 「차면이골」을 친다.

차면이골은 만중서 동북간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보면 마을이 있는데 「웃채미니」 「중간말」 「아랫채미니」의 세개 부락으로 나뉘어진다.

이 근방의 지명은 큰골, 밀골, 영산큰골, 병개골, 동막, 산지골, 구채미니등인데 올바른 동리 이름은 「채미니」가 아니라 「차만리」라 한다. 한문으로 쓰면 「叉勉里」인데 마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왜정때 마을에 처음으로 옷나무를 심으면서 「힘쓰고 또힘써야 산다」는 그런 뜻에서 또 차(叉)자에 힘쓸 면(勉)자를 달았다는 것이다.

사방에 심은 옷나무는 논이나 밭의 둑에도 빈틈없이 옷나무를 심었다. 이곳서 옷나무를 처음 심기시작한 것은 왜정때 이성삼(李成三)이 지도원으로 와서 시작한 것인데 옷진을 내서 칠로 파는 수입이 부락수입의 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풀이였다.

이곳에 처음 들어와 마을을 개척한 것은 밀양박씨였으며 그다음이 마을의 고로인 원형규(元亨圭)의 10대조 「집」이란 분이란다.

한편 구차면 부락한가운데 있는 샘물은 이 근방의 명물인데 평지서 솟는 조그만 샘에서 어떻게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동네 2만5천여명 논물을 모두 이샘으로 댄다고 하며 여름에는 여름같이 차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생명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립(申位)장군 승전기(勝戰記)

임진왜란때 소초면 평장리(平庄里) 곡촌과 교항리 사이에 들어온 신립장군의 군사들은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녔다.

왜군의 선봉이 벌써 충주를 떠나 백운산에 다달았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 신립 장군이건만 부하들에게 명하여 천태산 마고선녀의 두상만큼이나 크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개의 장수화상도 크게 그리도록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위 옆에다 석탑을 쌓게 하였는데 명을 받은 부하들은 근방에서 큰 돌들을 날라다가 五층의 석탑을 만들었다.

『우리 장군은 이상한 일도 하시네』

『마고선녀의 화상이 싸움을 한다나?』

『석탑은 높이 쌓아 무엇을 하려나』

모두 한마디씩 하며 궁금해 했으나 그렇다고 불평들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립장군으로 말하면 그때의 우리 조선조에서는 제일 날랜 장수로 소문난 사람이다.

동북에서 「니탕개」의 군사를 쳐부수고 그 소굴에 까지 쫓아가서 분탕칠을 하고 온 사람이 바로 신립장군이다. 이러한 장수가 다소 이해키 곤란한 일을 시킨다고 무슨 불평을 하랴. 준비가 된 것을 본 신장군은 마고선녀의 두상을 산위의 바위 위에다 세우고 좌우로는 二十미터씩 사이를 띄워 장수화상들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사방에 깃발을 무수히 꽂고 불을 피워 놓은 다음 군사를 이끌고 왜군선봉진의 후미를 에워쌌다. 갑자기 함성을 지르며 달려든 신립장군의 기습을 당한 왜군은 당황하여 「곤촌」과 교항리 사이로 빠져 나가려했다. 그러나 그곳에도 무수한 깃발과 장수가 서있는 것으로 속은 왜적은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허나 신립장군은 이미 이곳을 노려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다. 석탑을 쌓고 마고선녀의 화상을 그리고 깃발을 꽂아둔 것은 밤중에 쫓기는 겁먹은 왜적의 눈을 속여 반대편 골짜기로 몰아넣으려는 술책이었다.

숨어 있던 장군들의 복병이 일어났다. 뺨가리를 치고 목죽을 터트리며 왜적의 얼굴을 쑥 뽑아놓고 활로 또는 창으로 찔렀다. 아비규환이었다. 왜병에 대해 무자비한 도살전이 감행된후 아침이 되어서 보니 적은 3백여개의 시체로 변해 있었다.

이후 이곳에서는 왜적을 쳐서 평정시켰다고 「평정리」라 했던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평장리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문자로 음역이 되어 평장리란 마을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무명장군(無名將軍) 묘(墓)

유파 한경원이 정사에서 물러나 향리인 부론면노림리(魯林里)에 와서 한가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꿈속에 천병만마를 거느린 장수가 나타나더니 옆드려 절을 하며 말하기를

『저는 이미 죽은 저승사람으로 대감댁 바로 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몇해를 가야 물 한모금 얻어 먹을 수 없으니 킬킬하고 섭섭해서 더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다 못해 대감께 간청하오니 물리치지 마시고 현주 한잔이라도 부어주시면 한을 풀겠습니다』하고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유파는 참 이상한 일이라 하며 그냥 지냈는데 사흘후에 또 전날의 장수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찬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까지 줄 줄 흘리면서

『대감 어찌하여 저의 청을 물리치십니까. 후일을 생각해서라도 들어주십시오』하고 사라졌다.

유파는 이튿날 일찌감치 하인을 불러서 집뒤에 고분(古墳)이 있는가 자세히 살피고 오너라 했다. 한참만에 돌아온 하인은 집뒤 풀속에 고분이 하나 있더라고 아뢰었다.

유파는 몸소 하인을 따라 고분을 찾았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날 동리사람들을 불러서 꿈이야기를 하고 누구인지는 모르나 두번씩이나 현몽하여 간청하는 것을 모른다 할수 없으니 우리 마을 전체가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의가 없는지라 자신이 제주가 되어 동짓달 초사혼날 제사를 지냈는데 이후 이것이 마을의 연중행사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중에 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위토(位土)로 논 두마지기를 세워 놓고 따로 면비에서 3원씩의 제사돈을 대어왔다고 한다.

어쨌든 조상제사도 거르기 쉬운 이즈음 현몽의 전설로 무명장군이라는 것밖에 모르면서도 오랜동안 제사를 지내온 인심이 돈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곳의 어떤이는 그 산소비석에 어장군지묘(魚將軍之墓)라는 비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전물한 견훤의 부장(部將)중의 한사람일것이라 했고 또 어떤이는 옛날 이곳까지 쳐내려왔다가 강감찬장군에 의해 죽은 굴안(契丹)의 장수가 아니겠느냐고도 말한다.

쉬고개와 솟을 뒀(山)

원성군 호저면 만종리 산 162번지 일대를 「쉬고개」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

설이 있다.

쉬고개 마루에는 서낭당이 있다. 그 서낭당에는 한 그루의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던지는 돌로 큰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삿갓모양으로 가지가 떨어진 이나무 아래서는 누구나 쉬어가지 않으면 탈이 난다는 말이 있었다. 두다리가 갑자기 빠근해지고 단단해져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 고개위 서낭당 앞에 다다르면 주위들은 돌 한개를 정성스레 던지고선 쉬어가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이 고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속칭 원장사(元壯士)로 자처하는 힘깨나 쓰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장사는 심술궂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으며 거기다가 도술까지 쓸줄 안다고 뽐내는 위인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항상 괴인으로 생각했다. 그의 도술이란 항상 남의집 음식을 감쪽같이 도적해 먹는 일인데 명절이나 제사음식은 물론 남의 혼인잔치 음식까지도 갑자기 없어지거나 분량이 줄으면 모두 원장사의 신통력으로 생각하고 그때마다 언짢은 혀를 찼다.

어느날 원장사가 말을 타고 쉬고개 서낭당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땅히 말에서 내려 잠깐 쉬어 가기로 되어 있었다.

고개마루를 심술사납게 그냥 지나는 원장사의 오만한 태도에 서낭할미는 섭섭한 말로

『이고개는 옛부터 쉬어가는 고개라 누구나 쉬어감이 옳거늘 너만은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함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때 원장사는 발끈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

『허허, 할미야말로 나를 몰라보고 하는 말이오. 원장사가 그래 서낭할미보다 낫다 그말이요? 뿔뿔』 그는 침까지 뱉고 고개를 넘어갔다.

가면서도 생각하니 더욱 울화가 치미는지라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기르는 개를 때려잡아 가지고 가죽은 서낭나무가지에 걸쳐놓고 개피는 돌무더기 위에 뿌렸다.

『이렇게 하면 영험하다는 서낭할미 맥을 못추겠지』

그날밤 원장사의 꿈에 서낭할미가 나타났다.

『나는 쉬고개의 서낭할미인데 낮에 내가 언짢은 말을 하였기로 그런 장난을 할 줄 몰랐다. 속히 개가죽을 벗겨주고 개피도 깨끗이 씻어다오. 그동안 원장사가 잘살게 된것은 이고개를 지키고 있는 내덕이 컸거늘 그걸 모르고 배은망덕을 하다니 앞날이 좋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원장사는 서낭할미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라고 일소에 불었다.

그후부터 원장사는 하는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일이 비위에 거슬려 그뻔 또 주먹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굶기야는 관가에 불려

가 적잖은 곤욕을 당했다.

『내가 서낭할미에게 대항한 것이 마침내 이런 양화를 면치 못하는구나』

원장사는 가족들을 데리고 정처없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후 관가에서는 그집을 헐어버리고 그의 조상을 위해 세웠다는 위선의 비석
까지도 없애버렸다.

지금 이 쉬고개에는 제8 전방 영현 봉안소가 자리잡았는데 이곳에서 골짜기를
가로지른 길위에 원경납(元景訥)지묘라고 쓴 묘(墓)가 있다. 가즈런히 선 녀장
의 묘중 두번째에 자리잡은 산소인데 이묘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커가는 것이었다.

보통 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자손들이 묘가 깎이지 않도록 때를
덮거니와 이상하게도 조금씩 커만가는 것이다.

지금 이 묘를 보아도 보통 산소 몇배는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말이 왜정
때 일본 관헌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산에 혈을 지른다고 쇠말뚝을 박았는데
그후부터 묘는 더 커지지 않았고 이런일이 있던 후부터 묘이름을 솟을묘라고 부
르게 되었다.

쇠세바위와 박씨부인(朴氏夫人)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소초면 흥양리 살여울(興陽里失灘)에는 이치방(李致芳)
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벼 만석이 될만한 큰 부자에 규모가 큰 집을 짓고 사는 그에게도 남부러운 일
이 한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일찌기 자신이 글공부에 힘쓰는것 보다는 돈벌이
에 힘을 쓴 까닭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중옥(重玉)이란 아들은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글공부를 시켜서 과거를
보게하여 벼슬자리에 앉도록 만들리라고 결심하고서는 어렸을 때부터 정성을 다
 쏟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아들 중옥이에게는 글재주가 있었고 또 자신이 글공부에 재미를 붙
여서 힘쓰는지라, 이에 만족한 이 부자는 아들의 글공부를 위해 경치가 좋고 물
좋은 동리산간을 골라서 공부방을 지었다. 한 50여명 가량의 터를 닦고는 그곳
에 공부방과 객실을 겸한 큰집을 지었는데 이토록 훌륭한 공부방과 이 부잣집의
거리는 오르막 산길에 십리하고 오리는 가야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잣집과 공부방 시오리 (십리하고 오리가 더한 거리) 사이에는 설
령줄을 매어 놓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잡아흔들어 하인을 부르게 했다.

지금 같았으면 전화(電話)라도 놓았건만 그때는 이길밖에 도리가 없었던지라

공부하던 이도령이 설령줄을 잡아다녀서 종이 달랑달랑 울리면 하인은 시오리 산길을 올라가서 대령 하고 다시 내려 왔다가 또 올라가서 분부를 거행해야 되었으니 하인의 고생도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택은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는데 이 부자는 공부방을 지은 다음부터는 경치 좋고 바람 시원한 공부방으로 글 잘하는 아들자랑도 겸해서 손님을 모시곤 했다. 그러니 술상을 올릴라 잔 심부름을 하랴 하인들은 발이 붓도록 산길을 오르내렸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녀자들의 고생도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지금 살여울에 사는 이병우(李秉宇)의 6대조모가 여주사는 박씨문중서 시집왔었는데 그네는 매일같이 당하는 시중일에 견딜수가 없다하여 하인들과 의논한 끝에 용하다는 도사(道士)를 모셔다가 손님 안오는 방도를 묻게 했다.

얼마후 분부를 받은 하인이 도사에게 이런말을 하자 도사는 대뜸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을 했다. 마침내 도사와 박씨부인이 만나게 되었는데 박씨부인에게 대한 도사의 설명은 대강 이러한 내용이었다.

지금도 살여울부락 1백미터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에 수백년 묵었음직한 느티나무 숲이 있고 나무밑 그늘진 곳에 넓직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모양이 헛바닥을 내민 소입처럼 생겼다. 그리고 동리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극이라 「쇠세바위」라 하는데 이 소헛바닥 부분인 바위를 깨내고 동산 위에 있는 일산바위라는 둥근돌을 이 위에다 굴러내려 놓으면 손님이 그치리라고 가르쳐 주었다.

도사의 말을 들은 박씨부인은 그후 여러명의 석수(石手)들을 모아다가 소 헛바닥을 끊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석수들에게 끊긴 소 헛바닥 부분의 바위가 끊으면 다시 마주붙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수의 수(數)를 늘려 일시에 바위를 깨고 헛바닥이 마주붙기전에 다른 큰돌로 췌기를 박았다. 그랬더니 짧은 헛바닥부분의 바위에서 피가 흐르고 흘러서 그 밑에 있던 소(沼)를 시뻘정게 물드렸다고 한다.

좌우간 이런 일로 이부잣집에 손님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는 전하여지는 말이 없어 미심적으나 이부자의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었던지 그후 이중옥씨는 과거에 급제하여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지냈고 그 후손들도 내리 9대에 이르도록 진사 벼슬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중옥씨의 후손들인 시탄과 원주 이씨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그때 박씨부인이 잘랐다는 「쇠세바위」의 헛바닥형극으로 생긴 바위에는 정으로바위를 잘라낸 것같은 형적이 역역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때 「쇠세바위」를 찢르고 굴러떨어뜨렸다는 둥근 일산바위는 꼭 설악

산의 흔들바위 모양으로 생겼고 한사람이 밀어도 또는 열사람이 밀어도 같은 정도로 흔들거린다고 하여 「흔들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살여울 마을은 일군사령부 못미쳐 하사관학교서 조금들어간 곳에 있는데 이곳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것이 「○바위」의 이야기다.

마을 동쪽으로 잠깐 걸어 나오면 「살여울」이란 냇가가 있고 냇가 한옆에 「○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형국은 틀림없이 여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반신형(半身形)이었고 다리 가운데는 궁문도 뚜렷하게 패여 있다. 더구나 바위는 오랫동안 시냇물에 닳고 달아서 반들반들 한데 하도 그모양이 여자의 그것과 닳아서인지 이곳에 와서 「○바위」의 그곳에 무엇을 넣고 지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고 하여 지금도 밤중에 남모르게 불을 밝히고 치성을 드리는 여자들의 모습을 가끔 본다고 한다.

노적바위와 마귀할미

일군사령부 뒷쪽문을 지나 봉천냇물을 따라 한참가면 「두집네」라는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은 박씨형제가 백여년전에 아래 위에 집을 짓고 단 두집만이 살았다 하여 「두집네」라 부른 것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5만분지 1 지도에도 「두집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몇해전까지도 박씨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다시 큰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냇물을 건너 서쪽으로 잠시 가면 「점실」이란 부락이 나선다. 먼 옛날 이곳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고 한다.

동리도 포실한 편이어서 부잣집이라 그런지 이집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와 먹고 자는 사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사람, 또는 좋은 장사거리가 많이 있다는 사람 등 별사람들이 다 찾아들었다.

이래서 주인이 은근히 짜증을 내고 있던 참에 어떤 노승이 시주를 청하여 왔단다.

주인이 가로되 시주는 다소 하겠으나 찾아드는 손님이 없어지는 방도는 없겠느냐 물어 보았다.

노승은 주인이 말하는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것은 어렵지 않으나 후회할 일이 있을것 같아 말뭇하겠다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뒤쫓아 가서 방도를 가르켜 달라고 졸으니 노승이 말하기를 「저기 보이는 노적바위를 깨내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하고 노승은 사라졌다.

노승을 보내고 난 주인은 예라! 후회될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매일갈

이 찾아와서 돈달라 보태달라는 성화를 받기보다야 낯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일군을 얻어 노적바위를 깨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상한 일은 바위를 깨낸 다음날부터 그토록 번다하게 찾아오던 손의 발길이 뚝 그쳤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부자는 망해나가고 또한 동리사람의 살림도 점점 가난해졌고 그래서 늘어나느니 댄 동네로 이사가는 사람뿐이었는데 이일이 있은후 점점 가산을 실어낸다고 그 마을 이름이 「점실이」가 되었다.

「점실」서 나와서 다시 봉천내를 따라 한참 걸어가다보면 왼쪽으로 「봉장동」이란 부락이 있다.

10여호가 모여 사는 동네 뒤에는 백운산 금맥인 동산이 있고 동네앞으로는 봉천내가 흐른다. 먼 옛날 이 부락에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세(家勢)가 점점 쇠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끼니를 이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때 도사가 이집에 들러서 하는 말이 이 마을이 들어 앉은 자리가 봉(鳳)이 묻힌 봉장터로서 봉의 형태로 말하면 봉의 잔등에 해당하는 곳에 마을이 들어앉은 셈이다. 봉이라는 새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처음에는 날으려고 풀력거려서 부자된 사람도 있고 마을 전체가 잘 살았으나 이제 그동안에 힘을 기른 봉미가 날아가게끔 되었으니 모두 못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봉이 아주 날으지 못하도록 두날개를 짓눌러 놓아야한다고 했다.

이 말에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부락 양쪽 백미터거리에 사람의 키만큼씩이나 큰 돌비석을 만들어 세웠단다.

지금도 마을에 찾아가면 전해 내려오는 말대로 글자 한자 새기지 않은 돌비석 두개가 발가운데 서있는 것을 보는데 이렇듯 봉의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로 짓눌러 놓은 후부터는 부락이 흥하였고 그곳을 봉이 묻혔던 곳이라서 봉장동이라 부르고 있다.

봉장동 근처에는 척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초가집 10여호가 모여 사는 동네로 한 1백여년 전만해도 5, 6십호가 모여살았고 호저면사무소도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살림이 점점 궁색해가더니 한집 두집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에 있던 면사무소도 구슬미로 옮겨가 버렸다. 마을은 점점 더 쇠해서 몇집만이 남았으나 그나마도 어려운 일들만 겹쳐서 고생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되자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이토록 우리동네는 망해만 가는 것일까. 혹시 우리동네는 무슨 귀신의 살이 끼이지나 않았을까? 부락 바로 앞에 천년은 묵었을 것으로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노목이 말라죽

더니 그 옆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나와 벌써 큰나무가 되었다.

이 나무옆 길과 논사이에 돌기둥이 서 있다. 기둥 모양은 뾰족하고 아래는 뚱뚱한데 누구의 입에선지 이 기둥을 마귀할미의 지팡이라 했다.

바로 마귀할미의 지팡이에 살이 끼어 있는지 모른다. 그 지팡이가 우리 부락을 향해서 부락의 운을 자꾸 집어 먹으니 부락이 잘될 이치가 없다면 마귀할미의 지팡이를 맞은편 동네인 중방동으로 돌려 놓았단다.

『이제 됐다. 잘 사는 중방동서 얻어먹고 뚱은 우리쪽을 향해서 누게 되었으니—』

그후로는 중방동이 나날이 쇠해 가고 척동은 흥해가더니 집도 늘고 척동에서 호저면 부면장까지 났으니 모두 마귀할미 지팡이의 방도가 들어맞은 것이었다 한다. 좌우간 이런 이야기는 노인들의 사랑방 이야기겠으나 『실지 호저면 부면장이 우리 고장 박종태씨의 아들이 아닌가!』고 말하는 노인들은 어느만큼은 이 방도의 효험(効驗)을 보고 있는것 같았다.

후리사지(後利寺址)와 고사리

백운산 서북간 기슭에 서곡국민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서 약 1키로 정도의 거리에 「등가리」란 곳이 있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 서곡대사가 이곳에와서는 절을 세우고 이름을 후리사(後利寺)라 했으며 9층석탑까지 세웠었다단다.

승려도 수십명이 있어 수도하는 대사찰이었다는데 그렇던 절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며 알려지지 않았다 한다. 단지 그때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는 절터가 남아 있고 비석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곳에 절을 짓고 난 서곡대사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산상에 우물을 파놓고 물을 길어다 먹었다는데 지금도 우물터가 남아 있다

서곡대사는 힘이 과인하였으나 탄것을 먹지 않고 이 고장에서 나는 고사리를 먹었다단다. 그 이유는 탄 곳에서나는 고사리처럼 우리지 않아도 달고 맛이 좋아 이름만 되면 많은 부녀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고사리를 뜯어 갔었다단다.

또한 이고장 이름이 「서곡」이 된것도 서곡대사가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모든 이야기를 끄낼필요 있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불교가 신라에서 공허(公許)된지 얼마지나지 않은 진흥왕때 원주에 큰절을 지었다는 점을 중시한 까닭이라 하겠다.

불교의 전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되었으니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년)에 들어왔던 불교가 신라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서기 479년 - 500년 사이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진흥왕의 전대인 법흥왕(法興王) 때는 조정서 불교를 공허(公許)할것인가의 여부로 의논이 분분하다가 마침내 동왕 15년(서기 528년)에 이를 일반에게 공허하고 다음해는 령을 내려서 살생을 금하기로 했다.

다음대인 진흥왕 역시 불교를 숭상하던 임금으로서 만년에는 머리를 깎고는 승의를 입고 스스로 법운(法雲)이라 호하였는데 왕비도 이를 본받음으로서 보살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신라에서 불교를 공허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때문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이차돈(異次頓)의 순사와 같은 곡절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차돈이란 열렬한 불교 지지파가 불교의 공허여부를 조정에서 논할 때 군신이 이를 반대하자 법흥왕에게 청하기를 『청하건대 신의 목을 베어 중의를 정하소서』했다.

그리고 죽음에 임하여 『나는 불교를 위하여 형에 취함이니 부처님께 만일 신령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니 잘려진 목에서 젖(乳)빛 같은 흰피가 용솟음치니 모든 사람이 피이하게 여겨 불교를 반대하지 않았다 한다.

이상에 나온 말은 김부식이 삼국유사에서 신라(新羅) 김대문(金大門)의 계림잡전(鷄林雜傳)을 인용한 글이니 삼국유사 3권(三國遺史三卷) 주(註)에 인용된 향전(鄉傳)의 내용은 전혀 다른 글이었다.

즉, 향전에 의하면 그때 이차돈은 거짓 왕명이라 꾸미고 절을 일으키려고 하매 군신이 왕을 간하는지라 왕이 노하여 꾸짖고는 왕명을 거짓 전한 죄로 사형에 처하였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기사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퍼진 불교는 그후 50년 안팎이라고 생각되는 진흥왕 때 원주 백운산 기슭에 이토록 큰 절이 이룩어진 것을 보면 우리 고장의 불교 역사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사실을 과히 짐작할만 하다.

진사동(進士洞) 이야기

호저면 고산리(高山里)에 「곤이골」이 있는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쌓인 골짜기다.

이곳에 진사동이란 부락이 있어 정씨 3형제가 살았는데 부친상을 당하자 어디선지 지관이 찾아왔단다.

지관은 뒷산에 산소를 잡아주면서 『이곳이 왕지혈이요, 천하대지인데 지척이 조금 앞으나 그대로 쓰면 후손에 큰 벼슬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했다.

그리고 『산소는 한자가웃 밖에 못팔 것이나 그대로 하관 하고 봉군은 딴 흙으로 쓰라』고 했다.

세형제는 산소에 가서 묘자리를 파니 불과 자가웃도 못되어 암석이 나왔다. 상제들은 『한자도 미처 못되는 곳에 어떻게 관을 묻느냐』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그래도 지관이 잡아준 자리라 『조금만 더 파고 묻자』해서 바위를 깨고 있는데 『붕—』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밑에서 왕벌 한마리가 나오더니 앓차 하는 사이에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이래서 상제들은 더 바위를 깨지 못하고 그대로 묻고 돌아왔다.

한편 공중으로 솟아오른 왕벌은 쏜살같이 산소를 잡아준 지관을 쫓아 갔단다. 지관은 산소를 잡아주고도 『상제들이 일러준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심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붕—』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 왕벌이 쫓아 오는 것이 아닌가. 『저놈한테 쏘이면 꼭 죽을 것이라』고 당황하던차 마침 지나가던 웅기장수가 있어 동이 하나를 집어서 머리에 썼다. 『붕—』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쫓아오던 왕벌은 동이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지관을 쏘니 동이는 깨지고 지관은 그 자리에서 툭툭부었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이곳 바위를 툭툭부어 죽었다고 해서 「툭툭바위」라 하는데 지금도 이곳을 「툭툭바위골」이라고도 한다.

한편 장사를 지낸 정씨 3형제중 두사람은 이곳을 떠나고 한사람이 살았는데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더니 마침내 진사 벼슬을 얻었다.

지관말대로 산소를 썼으면 더큰 벼슬자리를 할 것인데 공연히 좀 더 봤다가 왕벌이 나간 관계로 진사밖에 못나왔다고들 하는데 하여간 이런 벽촌에서 진사가 난것도 처음이라 「진사 난 동네」라 해서 마을이름도 「진사동」이 되었단다.

해삼(海三) 터(址)

백운산밑 홍업면 홍업리서 서쪽으로 한참 가면 「원수고개」가 있다. 고개가 험해서 어디를 다녀오려 해도 저놈의 고개가 원수라고들 하다가 그만 고개이름이 된 것이란다.

원수고개서 1키로를 더가면 대안리(大安里)인데 옛날에 이곳에 해삼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 해삼이는 부자일뿐더러 온 동네가 우러러보는 글 잘하는 선비였다. 시문을 좋아해서 널리 벼슬 사귀니 해삼이 집에 손님 그칠날이 없었다. 매일

같이 잔치를 하다시피 복적거렸고 해삼이는 친구 찾아드는 것을 더없이 기뻐했으나 해삼의 아내는 반대였다.

월새없이 술상을 차릴라 저녁대접하라 손님 치닥거리에 한시도 월새가 없어 짜증을 내고 있었다.

하루는 젊은 중이 와서 시주를 하라했다.

『스님 시주는 하라는대로 하겠오만 이집에 손님이나 좀 못오게 할수 없을까요.』 그날도 손님 치닥거리에 지쳤다가 불쑥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찾아들어야 먹을 것이 많은 법이외다. 사람이 안찾아오면 그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해도 좋으니 손님이나 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오』

젊은 중은 난색을 표하다가 『저 언덕을 끊으면 손님이 안 오실것이지만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해삼의 아내는 주인에게 말도없이 일꾼을 시켜 언덕을 끊었다. 일꾼이 『언덕 잔등을 팔 때 빨긴 피가 솟구쳐 나왔다』하여 해삼의 아내도 마음이 섬찔했으나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니나 다름까 그날부터 손님이 딱 그쳤다. 매일같이 분주하던 집안이 이후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때부터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여 1년이 못가서 가세가 기울었다.

해삼의 아내는 울려고 해야 울수도 없는 마음이었다. 『내가 공연히 방정맞은 짓을 했구나』 뉘우치던 나머지 그녀는 집앞 큰 연못에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해삼의 집은 그후 아주 망해버리고 말았으나 동리사람 가슴에는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았는가 보다. 해삼이 살던 곳이라해서 「해삼터」로 부르다 나중에 와전되어 지금은 「하삼터」로 부르고 있다.

금사동(金寺洞) 이야기

사람사는 고장마다 전설이 있기 마련이지만 내고장의 전설이기에 하찮은 전설이라도 믿고 지켜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줄 안다.

전설은 흔히 동명이나 마을 이름에도 깃드는데 호저면 대덕리(好楮面 大德里)의 이야기도 대단한 것은 아니나 아끼고 지켜내려오는 이야기다.

대덕동을 금사동(金寺洞)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5리허에 호암산(虎岩山)이 있고 그 밑에 노월동(老月洞)이란 마을이 있다.

옛날 금사동에 금사(金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 낙사 근처에 또 금사가 관리

하는 조그만 말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그만 절이라고 해서 소절이라 하다가 쇠절로 와전되어 지금도 이 근처를 「쇠절이」라 한다.

4백여년전 청풍군수로 있던 지손(池遜)이란 분이 관직을 그만두고 한적하게 여생이나 마칠 곳을 찾았다. 마침 이곳에 당도하여 보니 지형과 산수가 좋아서 자리잡고 여생을 보냈는데 그 후손은 14대나 내려오는 동안 퍼지고 퍼져서 지금 금사동 53호중 35호가 지씨문중이고 기타 최씨와 조씨가 살고 있으나 거의가 지씨와의 연척관계로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원주 원성간에 퍼져 있는 지씨문중 사람이 5백명을 헤아린다니 후손이 퍼지는 세월의 빠름을 짐작할 수 있다.

금사동 부락앞에 「장군수」라는 우물이 하나 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먹어왔는데 이 부락에서 힘쓰는 장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 물때문이라는 소리도 있다.

임진왜란때 왜병들이 소문을 듣고와서 다시는 이곳서 장수가 나지말라고 우물속에 쇠말뚝과 나무말뚝을 박아 혈을 질러 놓았단다.

그후부터 마을에서 힘쓰는 장사가 나지 않았는데 우물에 혈을 질렀다는 말이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 약 40여년전 지금 이곳에 사는 지기선(63세)씨가 우물도 칠검해서 물을 퍼내고 바닥을 파보았더니 과연 말뚝이 나오는데 나무말뚝 두개가 있을 뿐 전설과 같이 쇠말뚝은 없었다한다.

공양왕(恭讓王)의 유배지 손위실(遜位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쫓겨 원주로 내려오니 지금의 원성군 부론면 손곡리(蓀谷里)이다.

공양왕이 공양군으로 강등되어 쫓겨온 그는 천성이 우유부단 하였음인지 마을 앞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개성쪽을 바라보며 우는 일이 많았다. 하기야 천성이 우유부단하지 않은 강철같은 사람인들 어찌 울지 않으랴.

고려조 34대왕 475년의 왕업이 자기 대에 와서 끊기고 급기야는 적인으로 물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눈물인들 없었겠으며 앞날의 목숨인들 어찌 보장하랴.

실지로 공양군은 그후 간성으로 갔다가 다시 삼척으로 옮겨진 후 살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이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손위실(遜位室)로 불렀고 공양왕이 올라가서 개성 쪽을 바라 보며 울던 곳을 배양산이라 했다.

지금은 손곡리라고도 부르고 행정상의 지명도 손곡리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손위실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손위실이 손곡리로 불리게 된데에도 이야기는 있다. 그것은 한시로 유명한 손곡 이달(蓀谷 李達) 선생이 살았다고 해서 손곡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시인 손곡선생은 일찌기 시문에 능하여 선조때 한림학자가 되었으나 곧 사퇴 이곳에 와서 동문인 최경찬 백광훈과 함께 시문을 나누며 지내다가 여생을 마쳤다고 전한다.

이달(李達)은 이조 중기의 한시인(漢詩人)으로 자는 익지(益之)요 호는 손곡(蓀谷)이며 본관은 원주인(原州人)으로 쌍매당(雙梅堂) 침(詹)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독서에 힘을 써서 문장이 능했으며 한리학관(漢吏學官)을 지냈으나 물러나와 원주 땅 깊숙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지냈다.

도참설(圖讖說)과 백씨문중(白氏門中)

우리의 주변에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의 산소부터 들춘다. 최근에도 조상의 뼈를 파 절머지고 다니며 종종 명당고르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산소는 풍수가 고르고 명당에 조상을 모시게 되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풍수의 인과 설이 뼈에 배어 명당자리를 골라준다면 대개 싫다고 할 사람이 없는줄 안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도참설(圖讖說)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은 풍수학의 방대한 이론체계를 보면 얼른 납득이 간다.

우리나라의 풍수설은 근대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일종의 지정학(地政學)에 속할 것이다. 풍수설이 지정학과 다른 점은 근대의 지정학은 자연의 형태를 하나의 무생물(無生物)로 보는데 비해 풍수설은 자연의 형태를 생명체로 보고 있다. 이것이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라 하겠으나 따지고 보면 자연을 인간이 이용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마찬가지다.

아무리 현대인이라고 해도, 집을 지을 때 땅의 높고 낮음과 통풍이나 일광 방향 또는 상·하수도의 여건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모두 풍수설로 귀납되었던 것이다.

옛날의 풍수설이 인생의 화복과 깊이 연결되었던 것은 비지정학적 내지는 비풍수설적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과 풍수설적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과의 건강, 위생, 일상의 생활감정이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풍수설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과학이 아닐까. 근대의 과학적 안목으

로 볼 때 선대의 묘지여하가 후손의 화복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과학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풍수설의 사상은 그 방법에 있어 일종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으로 볼 수 있고 인생의 화복을 인과관계에서 찾으려 한 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사상이나 방법만이 과학적이고, 옛날의 사상이나 방법은 비과학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이자체가 얼마나 비과학적인 것일까?

마귀를 물리치는데 마늘이나 소금을 써온 것은 우리 조상들의 「샤머니즘」인데 옛사람들이 말하는 마귀는 병균을 가르키는 것이고 마늘이나 소금에는 병균을 죽이는 살균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그러한 옛사람들의 「샤머니즘」을 그대로 웃어버릴 수만 있을까.

이제 그만 각설하고— 신라때 풍수지리설과 도참설로 유명한 도선(道詵) 국사가 원주땅 흥업면 대안리 골짜기를 지나다 하도 지리산세가 마음에 들어 세번을 돌아보면서 『대안백천(大安百川)은 내락공(來落公)이요, 오봉사린(五峰四隣)은 거보수(巨寶水)라』하고 지나갔단다.

이후 도선대사가 세번 돌아본 곳이라 해서 삼성동(三省洞)이란 동명이 생겼는데 그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 이곳에 사는 백씨문중이 번성하여 각처에서 찾아오는 선비들이 많았단다.

선비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곳 풍수가 좋아서 천하대지가 있으려면 그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다고들 했다.

이렇지음 풍수지리에 밝은 선비가 찾아왔다. 그리고 당신네가 찾고 있는 명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마을 어구에 있으며 이곳에 산소를 쓰면 앞으로 이름있는 인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단지 금시발복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삼십년은 지내야 발복할 것이라고 했단다.

백씨문중서는 이말을 쫓아 명당이라는 곳에 빈묘를 만들어 놓았다가 1·4후퇴 후 백남식(白南植)씨가 작고하자 그곳에다 장래를 지냈고 다시 십년후에 그 부인이 별세하자 백씨의 생전 원에 의해 합장했다.

그후 약 20년이 지나자 백씨의 후손과 외손중에서 한해에 세사람이 고등고시에 합격 판검사와 군수등 많은 인재들이 나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역시 명당에 산소를 쓴 탓이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땅을 세번이나 돌아다보며 갔다는 도선대사의 이야기를 펼쳐보자.

도선은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신라시대의 인물로서 속성은 김씨 만년에 백계산(白溪山=今光陽) 옥룡사에 살다가 효광왕 2년에 72세로 입적한 우리 나라

도참설의 대가이다.

그의 사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하여 내려오는 것은 없으나 대개 중국에서 생겨가지고 발달한 풍수지리와 음양도참사상을 골자로하여 지리쇠왕설(地理衰旺說)내지 비보설(裨補說)을 주창한 것 같다.

즉, 지리(山水)는 곳에따라 쇠하고 왕성함이 있고 순(順)하고 역(逆)함이 있음으로 왕성한 곳과 순한 곳을 가려서 살것과 쇠하는 곳 또는 역(逆)하는 곳은 사람의 손으로 비보(裨補)할 것이라 말하며 일종의 비기(秘記) 도참서(圖讖書)를 남겼던 것 같다.

후일 고려시대에 성행한 도선비기등의 내용전체가 도선의 문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다소 그 사상에 연원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여간에 그의 비기라고 칭하는 참서(예언서)가 그의 사후에 세상에 퍼져서 인심을 혹하게 한 일이 많았으니 고려 태조 같은 이도 그의 설을 깊이 믿어 자손을 경계하는 십훈요(十訓要)중에 산수의 순역을 추천하여 지덕을 손박치 말라고 유훈하였 다.

십훈요중 도선의 도참설과 관계 있는 것을 찾아보면 도선의 주장대로 함부로 절을 개창치 말것과 서경(平壤)은 수덕이조순(水德李調順)하여 자손만대의 땅이니 주시 하라는 것이다. 차현(車峴=車嶺) 이남 공주강(錦江) 외의 땅은 산형 지세가 배역(背逆)하며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채용치 말라는 것등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노당선생(露堂先生)

이 글은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엮어낸 우리 원주사람인 노당 추적(露堂 秋適)선생의 글로서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될이라.

香燈處皆祈佛 簫鼓家家 盡賽神 惟有數間 夫子廟 滿庭春草 寂無人

—곳곳마다 향로피우고 부처님께 기도하네. 소고울리는 집집마다 모두 뉘신에게 푸닥거리 하전만 오직 두어간 공자님의 사당에는 사람이 없고 봄풀만 가득하네 —

명심보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명심보감을 엮은이가 노당 추적선생이라는 것을 아는이는 드물고 더욱 그가 우리고장 원주사람이란 것을 원주 사람들도 미처 모르는이가 많다.

위의 글에도 나타나듯이 그가 태어난 시대는 불교를 한참 숭상하여 내려오던 고려조 충렬왕(忠烈王) 때였다.

노당선생은 양지추씨(陽智秋氏)의 시조로서 충렬왕때에 문과에 급제 안동서기에서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까지 올랐다.

어느 시대이고간에 세력을 잡은 내시들은 좋은말은 못듣는 모양이어서 노당선생이 좌사간으로 있을때 세력을 잡았던 내시 황석량(黃石良)이란 자가 자기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을 합덕현(合德縣)으로 승격시키려 할때 노당선생이 서명을 거부하였다.

여기서 원한을 품은 황이 충렬왕 24년 노당선생을 무고하여 일시 옥에 갇힌 일이 있었으나 그후 혐의가 풀려 민부상서(民部尚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까지 지내다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고향인 원주지방에 와서 원주-횡성간을 다니며 살았고 일설에는 소초면 학곡리에 살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다.

노당선생이 살던 시절은 불교와 유교가 서로 표리병립하여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였다고는 하나 불교는 국가적 신앙의 대상이었던 만큼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대단한 것이어서 당시의 안문성(安文成) 같은이는

『은세상 모든 사람이 큰물 흘러내려가듯 부처를 섬기며 승려를 신기하게 여기니 옛 성현이 남긴 미풍이 지금은 땅에 떨어져 성현의 법도로 몸가진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한탄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충렬왕 즉위초에 몽고군과 합세하여 강했던 일본원정이 실패하고 다시 충렬왕 7년에 재거했던 일본정벌로도 공을 못이룬 당시의 국내는 피폐할대로 피폐한데다가 호반들의 쿾김은 거셴고 절망에 빠졌던 민중은 불교속에 도피하여 미래의 행복을 찾았으니 공자와 맹자의 도를 찾는이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한다.

이런때 원주에 온 노당선생은 후진을 위한 심성수양의 교재로서 명심보감을 엮고 명심보감 속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기에 노력했다고 한다.

이시대 사람들의 불교관과 유교관을 살펴보면 불교는 인간의 내적생활 즉 정신생활을 주안으로 삼는 교학임에 비하여 유교는 인간의 외적생활 즉 실제생활에 치중하는 교학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수신치기(修身治己)」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교 즉 내세생활에 자하는 종교요 유교는 「제가치국(齊家治國)」의 학 즉 정치경제에 관한 학문이라 함이 당시의 유 불계를 통한 일반적 견해였다.

이런때 선비들의 심성수학을 위해 선생이 엮은 명심보감은

『자일 위선자(子曰 爲善者)는 천보지이복(天報之以福)하고 위불선자(爲不善者)는 천보지이화(天報之以禍)니라』로 시작하며 심성수양의 좌우명이 될 글로차 있어서 초학자는 물론이요 이름있는 선비들도 애송함을 마지 않았다.

그 예로 이조때의 율곡선생 같은이도 명심보감을 구하여 읽고는 감명한 나머지 서문을 썼다. 그러나 역은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옛사람이 후학들에게 이(利)를 따르고 의(義)를 잊을까 걱정하여 지은것이라』 했다는 말도 있다.

그러면 편자 노당 추적선생의 이름은 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술이부작(述而不作) 즉 입으로 말하되 짓지 않는다면 저작태도가 숭상되어 왔었다.

노당선생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현들의 좋은 말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생들의 수양에 보태는 교재로 삼았을뿐 구태어 이에 이름을 부치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랬던 것이 백여년전 대구에 살고있는 노당선생의 후손인 추세문(秋世文) 추학구(秋鶴九) 추기풍(秋基豐) 같은 이들이 자기집에서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세보(世譜)를 찾다가 명심보감의 원본을 발견 그동안 율곡선생의 서발문(序跋文)은 물론 여러 대가들의 서발문을 증보해서 발간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기사대구인흥제사본(己巳大丘仁興齊舍本)이며 이로해서 명심보감의 편자가 그들의 선조인 고려명신 노당 추적선생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노당선생의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 노당선생의 후손인 추익한(秋益漢) 씨에 대한 야담 한 토막을 전해지는대로 적어보겠다.

이분은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유배당할 때 서울살던 학자였는데 단종이 너무도 억울하게 쫓겨감을 원통하게 생각던 나머지 단종이 유배되어 가는 길을 멀지감치 전송나왔다가 그대로 그뒤를 따라 영월까지 갔었다.

그리고 멀리 산속에 숨어서 때로는 머루나 다래를 따다 바치곤 해서 단종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한번은 산머루를 따가지고 단종을 만나러 오는 길인데 단종이 백마를 타고 닥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앞에 었더라

『혼자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장하실까 해서 산머루를 따왔으니 이것을 좀 잡수십시오』 했다.

이 말을 듣고있던 단종은 그러나 뜻밖의 말을 했다.

『그대의 그동안 충의지심은 내가 잘 알았겠으나 이제 나는 그런것을 먹지 못하는 몸이 되었으니 그리 알것이며 또 나는 먼저있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니 그대는 나를따라 태백산으로 가자!』 말을 마친 단종은 말머리를 돌려 태백산으로 향했다.

그도 그뒤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큼 가더니 앞서가던 단종이 홀연히 종적을 감추었다. 그가 단종을 찾아 며칠동안 산속을 헤매는데 하루는 그의 꿈에 단종이 나타나더니

『이제 나는 편안하게 지내니 너는 도루 집으로 가서 살다가 후세에서 다시 만나자』하고 돌아섰다.

꿈속에서 깨어난 그는 그제서야 단종이 죽은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매일 동쪽을 향하여 통곡하며 두문불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원신장군(元愼將軍)과 열녀심씨(烈女沈氏)

원성군 지정면 무장리간무곡(地正面茂長里間茂谷)에 가면 나란히 한줄로 넉장의 묘가 있고 좌우에 또 두장의 묘가 있다.

이곳이 원주태생으로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지내다가 임진왜란때 장렬하게 전사한 원신장군과 그의 부인인 열녀심씨 그리고 그 가족과 말이 묻힌 곳이다.

지금은 원신장군의 12대손인 원경희(元慶喜)씨가 산소를 지키고 있으며 산소의 비석에는 절충장군수황해도병마절도사원공지묘(折衝將軍守黃海道兵馬節度使元公之墓)라 쓰여있고 열녀심씨(烈女沈氏)의 열녀각 현판도 간직되어 있다. 이곳을 맨먼저 자리잡은 사람은 원신장군(元愼將軍)이었다.

장군은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기에 앞서 큰 집을 여기다 짓고 부임하였던 것인데 충청도에서도 인심을 얻어 그가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전임될때는 온 충청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원장군 걸어가는 길에 자기들의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깔아주었다는 것이다.

원장군은 황해도에 부임하여 임진년 왜군을 맞아 싸웠거니와 남편이 부임한후 지정면 무장리 집에 와있던 심씨부인은 그보다 한발 앞서서 왜군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

남편을 멀리 황해도에 보낸후 열살된 아들을 데리고서 집을 지키던 심씨부인에게는 매일같이 왜병들이 찾아와서

『혼자 산다는데 주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주인은 어디로 갔느냐』고 부인을 괴롭게 하였다.

생각다 못한 부인은 열살난 아들을 데리고 집근처에 있는 새밭골 다래덤불 속으로 피신하였다.

어느날 어린 아들의 세수를 시킨 심씨부인이 몸종에게 세숫물을 내다버리라하였다. 몸종이 세숫물을 버릴때 늦대야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돌에 부딪쳤다.

「땡강—」하고 늦대야 소리가 나자 숨어있던 부인과 몸종은 사색이 되었고 이 소리를 근처에 진을 치고 있던 왜병들이라고 못들우리가 있나 외딴곳에서 왜병에게 발견된 심씨부인은 몸종이 보는 그자리에서 왜병들에게 욕을 보고 말았다.

왜병이 돌아간후 부인은 몸종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왜군들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놈들에게 욕을본 몸이 되었다. 이제 남편을 대할 수도 없는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하고 그 길로 어린아들
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마당바위 옆 도롱소에 빠져 죽었다.

이때 원병사는 황해도에서 소실인 조씨부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부인의 죽음을
듣자 자신은 싸움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조씨부인과 그의 몸에서 태어난 세아들
을 심씨부인이 살던 곳으로 내려보냈다.

조씨부인이 내려와 세아이를 데리고 그날 그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낮 익은 말
한필이 혼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들어온 말은 남편이 타던
말이 분명했다.

불길한 예감을 참지못하고 있을때 말은 소리내어 울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
는 것이 아닌가.

괴이하게 여긴 큰 아들 해량(海量)이 말잔등에 올라타니 말은 쏜살같이 달려
서 황해도지방 어느전쟁터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해량이가 내려서 근방을 살펴
보니 그곳에는 화살에 맞아 쓰러진 아버지 원신장군(元愼將軍)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을 거두어 말잔등에 싣고 해량이가 타자 말은 또 쏜살같이 무장리로 돌아
왔다. 그리고는 시신과 해량을 내려놓자 그만 지쳐서 말은 앞발을 꺾고 쓸어
져 죽고 말았다.

그뒤 해량은 원장군과 함께 말도 원장군 묘앞에 장사를 지내어 주었는데 원장
군보다 한발앞서 죽은 심씨산소는 바로 원장군묘 뒤에 있고 그 옆에는 심씨부
인과 같이 소에 빠진 열살배기 애기묘가 있다.

얼마후 조씨부인도 별세하였기 때문에 심씨부인묘 뒤에다 산소를 정했고 후
에 해량이기도 죽자 또 10m 떨어진 곳에 묻게되어서 여섯개의 분묘가 한곳에 있
게된 것이다.

그후 나라에서는 원장군에게 절충장군. 부인 청송(靑松) 심씨에게는 열녀정문
을 내렸다.

이래서 후곡마을 입구에는 열녀비각이 세워졌던 것인데 1968년 여름의 '장마
때' 섬강물이 불어 비각은 쓰러지고 나라에서 내린 열녀비각의 현판도 떠내려
가는 것을 후손들이 전져다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시묘3년(侍墓三年)

옛날에는 부모산소에 3년간을 엮디려 지내는 시묘살이를 말 그대로 실행하는

효자도 있었던 모양으로 이 이야기는 시묘살이 3년에 맺은 인연이 아들대까지 내려갔다는 지정면 보통리(地正面普通里)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제천땅 꽃댕미골이라는 정(鄭)씨가 모친상을 당했다. 정씨는 모친의 산소를 이곳 지정면 보통리 광터넘어 군량골 뒷산에 쓰고 그날부터 묘앞에 꿇어엎디려 시묘살이를 시작했다.

보통리에는 광터와 군량골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 광터에는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미를 쌓아두었고 군량골에도 군량미를 감추어 두었다 해서 이렇게 부른다.

마침 정씨가 시묘하는 근방인 광터에 김상태라는 참봉이 살고 있었다.

「어디 저 젊은이 시묘가 몇일이나 갈것인고……」 노인은 시묘사리 한답시고는 젊은이들 열흘이 멀다하고 내려가는 것을 여러번 보아왔는지라 이번에도 이런 정도로 정씨의 시묘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정씨의 시묘는 예상과는 달라서 눈오는 겨울이나 비오는 가을에도 까딱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날 정씨는 소상이 되어 제천집으로 떠났다.

「웬걸 이제 실증이 나서 고만 오겠지」

그러나 참봉의 예상은 이번에도 빗나갔다. 사흘만에 정씨는 다시 돌아와 묘앞에 꿇어 엎디려 있는 것이다. 늙은 참봉은 크게 감동했다. 그리고 홀로 시묘하는 정씨를 찾아갔다.

「젊은이! 참 시묘에 수고가 많소」 하는 은근한 말에

「웬걸요 이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까」고 담담하게 대답하는 정씨였다.

「먼길을 갔다 오는데 별일이나 없었오」

「허 별일이 좀 있었읍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돌아오는날 비가 많이 오지 않았겠읍니까」

「그랬지」 정씨가 돌아오는 날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냇물이 불어나서 전널수가 없었다. 물가에 앉아 탄식하는데 갑자기 아찔해져서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자기몸은 이미 개울을 건넌고 개울 건너 편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몸에 묻은 물을 털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것 참! 하늘이 알아주는구만 정씨의 효도를……」

참봉은 더욱 감동해서 그날부터 시묘하는 정씨의 먹을것 입을것을 걱정하여주고 겨울을 춥지않게 지내도록 움막도 지어주었다.

실로 정씨가 시묘사리 3년을 무사히 치룰수 있었던 것은 조석으로 따뜻한 밥을 몸소 날라다준 60이 넘는 김참봉의 덕분이었다. 정씨는 그후 3년시묘를 끝내

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3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정효자도 죽고 김참봉도 죽었다. 그런데 3년시묘를 하던 정효자의 아들 정이경씨가 김참봉의 아들 김동혁씨에게 아버지 3년 시묘의 김참봉 은혜를 갚는다고 논 4마지기를 사주었다.

김동혁씨는 굳이 사양했으나 조상의 은혜갚음이니 받아야 한다고 강권하는 바람에 그럼 시제에나 보태겠다고 받았는데 이 김씨가 정씨묘의 시제를 어떻게나 잘차리는지 정씨가 미안해서 『날자나 잊지 않을정도로 조금만 차려달라』고 말하는 처지란다.

선녀(仙女) 발자욱

지금에서야 사람이 달나라에 다녀오는 때이기는 하나, 세상에는 아직도 모를 일이 너무도 많다 하겠다.

30여년전에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연습차 날아올랐던 10여대의 전투기들이 행방을 감춘지 사흘만에 사람은 없이 비행기들만 고스란히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 모두가 아직도 불가사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거니와 「배람발」의 바위에 박혀있는 사람 발자욱이나 또 그 옆벼랑에 있는 사람의 주먹자리도 수백년동안 풀지못하는 우리고장의 수수께끼리라.

호저면 대덕리(好楮面 大德里)에 「배람발」이란 곳이 있고 이곳에 선녀바위가 있다. 바위라야 높이 5척에 넓이 4척가량의 납작한 것이며 이 납작바위 옆에는 산으로 연달아 올라간 바위가 서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선녀바위라는 납작한 바위복판에 움푹하니 사람발자욱 한개가 생겨 있다. 발자욱은 움푹하고 또렷해서 누가 보던간에 첫눈에 사람 발자욱임을 알 수 있는데 길이는 다섯치가량 되어 어린아이의 발자욱 같다.

꼭 두치가량 쌓인 눈위에 어린애가 맨발로 디뎠던 발자욱같기도 하다. 단지 네개의 발고락만은 한곳에 붙은 것인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사람이 쪼아서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 하리만큼 그 모양은 진흙위에 백힌 발자욱같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선녀바위 바로 옆에있는 다섯길가량의 바위에는 사람이 주먹으로 내어지른듯한 주먹자욱이 뚜렷하게 나있다.

이것역시 어느 명공의 솜씨로 새긴것이라고 보기에는 선녀의 발자욱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패어있는 것이다. 이래서 구경은 사람들은 옛날도 또 먼 옛날 이 바위나 선녀바위가 굳지않고 물렁 물렁하였을 때 생긴 발자욱이 아니겠느냐고들

생각해 보는 것이나 그것도 아니어서 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구수한 전설을 듣는 것으로 끝이곤 했다.

옛날 선녀들이 선녀바위밑 옥수에서 목욕을 하다가 올라가곤 하였는데 그들 선녀중 어느 선녀가 무슨 표적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원발을 더더 자욱을 남겼다고 한다.

지음곡(知音谷)의 까마귀

옛날 호저면 고산리 지촌이란 마을은 솔밭을 이루었다. 원주골 사는 원주이씨네 조상들이 좋은 산자리를 찾으러 이곳에 몇번이나 다녀갔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그후 정(鄭)씨 가문에서도 명당자리를 찾으려고 이곳에 와서는 두루두루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도무지 마땅한 자리를 고를 수가 없었다.

침통한 표정으로 골짜기 어귀를 나오는데 까마귀란 놈이 「까웁 까웁」하고 요란하게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올려다보니 골짜기 어귀 바위위 서낭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다.

「까웁 까웁」 「까웁 까웁」 정씨네 조상들은 가만히 이 소리를 들으면서 까마귀우는 울음소리로 미루어 「이곳에 좋은 산소가 있는데 왜 그냥 가느냐」 하는 소리로 판단했단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니 먼저와는 달리 명당자리가 나서서 자리를 정했는데 그후 우연하게도 정씨들이 이곳에 모여살아 10여호의 정씨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 새겼는지는 모르나 까마귀 울던 바위에 지음곡(知音谷)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그 글자가 바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명당자리가 있음을 알았다는 뜻일거라는데 그후 이곳 마을 이름이 되어 지음곡(知音谷) 지음골 하다가 이름이 되었다 한다.

중다리미 바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 영경산 기슭에 「중다리미 바위」란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다. 옛날 영경산의 앞산인 덕가산에 살던 산신령을 만나러오는 한 선녀가 있었다. 그 선녀는 구름을 타고 내려와 산신령을 만나기에 앞서 언제나 영경산 바위밑에 있는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 이런 기미를 알아챈 장난을 좋아하는 스님

이 있었다. 그 스님은 선녀가 목욕을 하는 주위의 층암절벽을 나막신을 신고 오르내리며 돌을던져 선녀가 벗어놓은 옷에 물방울을 튀기곤 했다. 스님이 선녀를 놀리는 것을 안 산신령은 노해서 스님을 주문 한마디로 몸을 뽕뽕 묶어 벼랑에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이것이 오랜세월에 그만 바위가 되어버렸다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중을 달아맨 바위라하여 「중다래미 바위」라고 부른다 한다.

금 대 리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는 치악산 남대봉을 멀찍히 바라보는 산마을이다. 마을 이름을 금대리라함은 옛부터 금항아리가 묻혀있는 집터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불우한 한 부자가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어느 부잣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어느해 그만 돌림병으로 늙은 아버지는 죽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지게에 지고 지금의 금대리 근처 산에 묻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으니 지하에서나마 편안히 쉬시도록 깊숙히 파고 묻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깊게 판후 혼자서 판을 내려놓다가 잘못하여 그만 판이 엎어지게 떨어졌다. 아들은 판을 바로 잡아 묻으려고 애를 썼으나 워낙 깊이 판지라 할 수 없이 그대로 묻고 말았다. 그런데 이 총각이 묘를 쓰는 모습을 처음부터 유심히 보고있는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은 혼자 소리로 「명당 임자는 따로 있구만 당장 발복할 명당자리에 그것도 시신을 엎어 묻어야 한다는 금기까지를 잘 지켰으니」하고 감탄하면서 돌아서 가려다 말고 총각을 불렀다. 「여보게, 묘는 잘 썼나본데 그래도 밥 한그릇 술한잔이야 차려놓고 보아야지 너무 섭섭하지 않나?」하고 일러주었다. 총각은 현재 자기의 처지가 그럴 수 조차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 아랫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으니 그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해보게」하고 말했다. 총각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려 했는데 그 집에서도 역시 지난 여름 돌림병으로 온가족이 모두 죽고 예쁜 처녀 혼자만이 살고 있었다. 처녀는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한 끝에 밥과 술을 준비하여 함께 산소에 가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됐는데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녀도 부모 형제를 잃고 외톨인데 총각도 이제 혼자 몸이니 우리 서로 의지하여 함께 살면 어떻소? 논밭도 수백석 지기는 되니 살기에는 걱정이 없을거요」하는 것이었다. 총각은 쾌히 승낙했다. 그리하여 그 총각은 그날부터 처녀 집에 살면서 부지런히 재산을 늘려 급기야 수천석군의 부자가 되었다. 이들은 그 많은 곡식을 팔아서 항상 금덩어리를 장만하는 버릇이 있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산으로 금덩어리 하나씩을 사 모았

는데 그것이 세 항아리나 되었다. 그들은 그 금항아리를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 두었다. 그래서 지금도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집터라 해서 금대리라 부른다 한다.

제2장 옛 생활(生活)과 풍습(風習)

원성군 지방에서 주민의 생활속에 전래되어 온 전통적인 의식주(衣食住) 신앙(信仰) 및 각종 연중행사(年中行事) 등에 관한 풍속 습관은 타 지역과 대동소이 하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의식주의 일상생활과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예절또는 명절에 관련된 각종 행사가 있으나 이것은 거의 유교사상에 의하여 전래되어 온 민속(民俗)인 동시 불교나 유신론(有神論)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신앙적인 풍습이다.

어느 나라나 민속의 기호(嗜好)와 풍토에 알맞고 또한 역사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주변생활 환경을 좇아 의식주가 시대 변천에 따라 변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반만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통해 모든 생활의 형태가 시시(時時)로 변형되어 온 것은 이 고장도 마찬가지다.

우선 의식주를 보더라도 의복제도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 백의민족의 상징인 한복은 자취를 감추는 반면 양복과 간편한 옷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식생활 역시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한식보다는 양식 왜식 중화요리에서 분식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새로운 요리방법이 개발되었다.

주생활에도 그 옛날의 팔각지붕의 한옥보다는 고층건물에서부터 양식 일식등에 집들로 가득 메워지는 변천을 가져왔다.

관혼상제에 있어서도 이조 말기까지는 관습과 전통이 명맥을 이어 왔으나 일제 통치후 많은 변혁이 있었으며 특히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의례의 간소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옛 관습은 이제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옛 관습을 행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민속에 관한 풍습과 습관 역시 이 고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세시풍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특별히 숭상하는 토속신앙과 이 고장 주민들의 옛 생활모습을 살펴본다.

의생활(衣生活)

의복(衣服)의 종류

한복(韓服)의 종류(種類)는 평복(平服), 예복(禮服), 상복(喪服) 등이 있으며 그 제도(制度)는 특이(特異)한 바 있으나 현대(現代)에는 혼(婚), 상복(喪服)만이 전승(傳承) 습용(襲用)될 뿐이다.

남자용(男子用)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도포(道袍), 토시, 버선, 대넒, 행전중 토시는 약 30여년전 부터 점차 쇠퇴(漸次衰退)하여 지금은 거의 형색(形色)을 볼 수 없고 도포(道袍)는 일부(一部)에서 제사(祭祀)때만 사용(使用)하고 있으나 이도 거의 퇴멸상태(退滅狀態)이며 행전은 상복(喪服)에만 사용(使用)되고 있다.

그 밖에는 대부분(大部分) 특별한 변천이 없으나 버선도 노인계급(老人階級)에서만 이용되고 양말이 유행(流行)되고 있다.

여자용(女子用) 저고리, 치마, 배자(背子), 단속곳, 장의(長衣), 적삼(赤衫), 버선등이 있으나 장의(長衣)는 이미 없어졌고 버선만은 아직 젊은 부녀자(婦女子)까지 애용(愛用)되고 있다.

버선은 특히 고래(古來)로 외씨같은 발 모양을 내기 위하여 되도록 발을 좁게 해 신던 풍속(風俗)도 위생상(衛生上)의 견지(見地)로 넓어졌고 젊은 여성(女性)과 지식계급(知識階級)의 여성들이 해방 이후에 긴 치마를 많이 입은 경향(傾向)이 생긴것도 왜정(倭政)때 구속(拘束)에 대한 반동적 심리(反動的心理)로 작용(作用)되었지만 여자용 양말(洋襪)이 고가(高價)인 것도 큰 이유(理由)의 하나가 되어 있다.

현상(現狀)

이러한 백의생활(白衣生活)과 의관제도(衣冠制度)가 소위(所謂) 왜정(倭政) 36년간 색의장려정책(色衣獎勵政策)과 현대(現代)의 생활환경(生活環境)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함은 용서(容恕)치 않을 뿐더러 백의(白衣)를 허락(許諾)치 않아 점차(漸次) 우리나라 정책(政策)도 색복(色服)을 권장(勸獎)하는 현실(現實)임에 비추어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것으로 예상(豫想)되는 바이며 자택(自宅)에서 유희한적(悠悠閑適)한 생활을 할때는 우아(優雅)하고 고상(高尚)하며 너그러운 백색한복(白色韓服)도 좋지만 현대(現代) 과학문명(科學文明)의 와중(渦中)에

서 생존경쟁(生存競爭)을 하는데는 부자유한 점도 있고 세탁(洗濯) 재봉(裁逢) 등 경제적(經濟的) 이유(理由)도 있어서 의복(衣服)은 양복(洋服)으로 변천을 강요한 것이, 무리가 아닌 오늘의 현상(現狀)이라 하겠다.

더우기 우리는 과거 일제의 식민정책(殖民政策)에 강도이상(強盜以上)의 착취(擄取)를 당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貧困)한 생활을 근근히 유지(維持)해 온 고(故)로 육체를 가릴 정도의 의생활(衣生活)에는 막대(莫大)한 곤란(困難)을 받았으며 특히 2차대전말기의 농촌생활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慘狀)이었으니 우리가 상상(想像)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다행(多幸)히 아련 처지에서 한국(韓國)은 일제학정(日帝虐政)에서 정치(政治)적으로는 해방 되었지만 경제적(經濟的)으로는 오히려 우심(尤甚)한 질곡(桎梏)에다 몰아 넣었으니 미군정(美軍政)은 종래의 통제경제(統制經濟)를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자유경제체제(自由經濟體制)로 급변(急變)시켰기 때문에 천문학적(天文學的)인 인플레이를 초래(招來)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산(生産)이 저하(低下)된 우리 경제(經濟)가 날로 등귀(騰貴)하는 물가(物價)를 억제(抑制)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었다.

이러한 경제체제(經濟體制)는 서울을 위요(圍繞)한 농촌(農村)을 대부분(大部分)의 치역(治域)으로 하는 우리 고장에 끼친 경향도 상당(相當)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면(反面) 일부 철없는 사람들 간에는 일제(日帝)의 퇴각(退却)이 곧 왕년(往年)의 봉건시대(封建時代)에의 환원(還元)으로 알고 오랫동안 금제(禁制)당 하였던 백의(白衣)와 감투나 탕건까지 쓰고 나선 사람도 있는 희비극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몇가지 현실(現實)은 우리나라 의복변천 사상(衣服變遷史上)에 버릴 수 없는 사실(事實)인바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소위 「몸빼」를 지적(指摘)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왜정시대(倭政時代)의 특산물(特産物)이다.

제 2차 전쟁말기(第二次 戰爭末期)에 이른바 전시체제(戰時體制)를 확립한다는 하나의 구실로서 남녀의복(男女衣服)의 간소화(簡素化)를 강요(強要) 하였는데 남자는 소위 국민복(國民服)에다가 전투모(戰鬪帽)를 쓰고 다리에는 각반(脚絆)을 감고 신은 전부 「지까다비」를 신게 마련이었다.

여기서 남자는 모두 베타이를 매고 절금양복(折襟洋服)을 입는 일을 전폐(全廢)하고 모두 국방색(國防色) 절금(詰襟)을 입게 하였는데 여자는 반드시 「몸빼」를 전부(全部) 강제착용(強制着用)하도록 하였다

몸빼는 치마위에 더 입은 하나의 통바지인데, 노동작업시(勞動作業時)에는 대

단히 편리하다 하여 처음에는 반대(反對)하였으나 나중에는 여자들 자신이 도리어 이것을 애용(愛用)하여 전국적(全國的)으로 유통(流通)하였다.

처음 보기에는 대단히 흉해보이고 여자들이 치마를 안 입고 통바지바람으로 어디든지 출입(出入)하게끔 되었으니 그의 착용을 주저하였다.

그렇지만 집에서 일할 때 잠시 장터에 다녀오는 정도의 출입(出入)에는 여자들은 여전(如前)히 「몸빼」를 벗지 않고 그냥 착용(着用)하기를 예사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겨울에는 따뜻하여 보온상(保溫上) 좋다하여 촌(村)에서는 담요로 만든 몸빼를 흔히 착용(着用)하고 있는것이 현실(現實)인바 지금은 그것을 홍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말리는 사람도 없으나 이제 또 한가지 이상한 여자옷 하나가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소위(所謂) 「맘보」바지라 부른다.

이것은 순전(純全)한 미국풍(美國風)의 유행복(流行服)으로 특히 최근(最近)에 이르러 젊은 부녀자(婦女子)에 부쩍 유행(流行)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여자 양복바지인데 대단히 바지통이 좁은 것이 특색(特色)이다.

가늘고 길고 좁고 매우 웅색하여 보이는 바지로서 이것을 입고 위에 오-바나 걸치면 또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여자(女子)들이 얇은 휘황찬란한 샤쓰를 입고 밑에 맘보바지나 핫팬츠를 입고다니는 꼴은 하나의 완전(完全)한 추태(醜態)이어서 보는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종래(從來)부터 입어오던 보기좋은 옷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무리 유행(行流)되는 미국풍(美國風)에 전염(傳染)하기를 즐기는 우리나라 부녀(婦女)들의 부화성(浮華性)을 보통으로 알아주어도 무방하다 하기로니 이렇게 부자연(不自然)스러운 그리고 외관상(外觀上)의 풍기면(風紀面)으로 보아도 모골(毛骨)이 선뜻할 정도로 염증(厭症)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옷의 색은 근본적(根本的)으로 찬성(贊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여론(輿論)이다.

식생활(食生活)

우리 한국은 한온지대(寒溫地帶)에 속하므로 음식도 한대(寒帶)의 요리법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은 돼지고기를 주로 하여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생선류의 조리법이 많이 발달되어 왔으며 우리 한국은 쇠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는 재료 생산에 좌우된 이유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일본은 칼슘 한국은 단백질 요구하는 까닭에도 있다.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는 육류나 어류보다는 채식(菜食)을 좋아하는 국민이라 채소요리가 우수하다.

우리 고장의 진산(鎭山)인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요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지방 명물음식을 보면 대부분이 고기를 주재료로 쓰지 않고 채소를 많이 써 왔다.

춘하추동 사시의 각 명절 음식을 보더라도 정월(正月) 초하루의 떡국, 대보름의 약식, 2월 한식(寒食)의 개피, 3월삼짇날의 화전(花煎) 4월8일의 복(醎)국, 단오(端午)의 수단, 유두(流頭)의 밀쌀, 추석(秋夕)의 송편, 9월 9일의 국화전(菊花煎), 동지(冬至)의 팔죽등이다.

그리고 고기 구이는 납향(臘享)뿐이니 우리의 주식인 고기가 아니고 식물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고기 요리가 다른 나라에 뒤졌다는 것은 아니다.

고기 굽는법과 찌는 법을 시작한 것이 고구려(高句麗)때라 하니 수렵(狩獵)을 일삼는 북방종족들 보다도 우리가 앞섰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기찜과 굽는 법을 중국은 고구려에서 배웠다는 중국측 문헌의 기록이 있으니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식생활 최대의 결점은 쌀이 주식이어서 우리 민족이 받은 피해가 많다.

우리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 우리의 농민들에게 혼식이 강제로 강요되었지만 전국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自作農)의 증가로 백미(白米)를 주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기쁘나 우려할 점도 없지 않다.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쌀밥과 혼식과의 영양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혼식 쪽이 더 영양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이 조식생활(粗食生活)을 해 왔음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해 온 것은 실로 혼식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백미를 주식으로 하는 중상류계층에 각기(脚氣)와 심장병 기타 소화불량병 같은 질환(疾患)이 많은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질 성분을 많이 섭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장려하여 국민들을 제몹시키면 우리의 식생활은 그 어떤 선진국가 못지 않은 과학적이고 자양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리(料理)

●밥의 종류 : 쌀밥, 보리밥, 팔밥, 콩밥, 조밥, 감자밥, 오폍밥, 비빔밥, 약밥, 고기밥, 굴밥, 김치밥, 무밥.

●김치류 : 숙박이, 통김치, 석박이, 비늘김치, 보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동김치, 신전지, 찐지, 깍두기, 오이지, 오이소박이, 가지김치, 쓸김치, 채김치, 엇절이, 굴깍두기, 오이깍두기, 멸치젓깍두기, 곤쟁이젓깍두기, 젓무, 무청깍두기, 소금깍두기.

●음료류(飲料類) : 앵두화채, 꿀화채, 딸기화채, 복숭아화채, 진달래화채, 배화채, 순채화채, 장미화채, 보리수단, 흰떡수단, 미수, 얼음수박, 수정과, 식혜, 생강차, 인삼차, 제피차 등이다.

●떡종류 : 개피떡, 경단, 흰떡, 찰편, 녹두떡, 느티편, 백설기, 콩설기, 쪽버무리기, 인절미, 증편, 시루떡, 송편, 쪽개피, 잡채떡, 찰떡, 밀떡, 색떡, 주악, 꿀무떡, 개떡.

●정 월(正月)음식 : 「설날음식」정월초하루는 「설」이라 하여 떡국을 먹는다. 그밖에도 설날 음식으로는 만두, 인절미, 적, 수정과, 다식, 과일등이 장만되어 진다.

설날은 차례를 올리게 되므로 여기에 따르는 음식도 많다. 또한 오폍밥은 정월 열나흘날에 그해 풍년을 기원하여 오폍(五穀)을 짓고 여러가지 산해진미(山海珍味)의 나물과 잘 하는데는 열두가지 나물을 장만하는게 보통이다.

●약식(藥食) : 약식은 밤, 대추, 잣 등을 꿀이나 설탕에 넣어서 찐 찰밥이다. 밥 중에는 가장 공이 들고 재료가 많이 든 밥이다.

식기류(食器類)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기종류(食器種類)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밥그릇...주발, 사발, 바리 (놋쇠로 만든 여자 밥그릇)
- 공기류...탕기, 공기, 갹기 (놋쇠로 만든 어린애 국그릇)
- 대접류...대접, 합, 도반기, 반병두리 (김치 따위를 담는 작은사발)
- 보시기류...종지, 보시기, 접시, 조칫보

이상과 같이 우리 민족은 식기로 원래 유기(鑪器)를 애용해 왔으나 현대에와서는 알미늄, 알바이트, 범랑(琺瑯)등 대용품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사용 종류가 다소 다르다. 여름에는 사기(砂器)를 쓰고 이외에는 대개 유리(鑪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는 유기가 위생상 좋지 못하고 값이 비싸므로 멀지않아 특수용기(特殊用器)를 제외하고는 더욱 개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래요리(傳來料理)

우리에게 어떠한 요리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 조리법은 어떤가 이를 알아 보기로 하자.

●밥 상 : 밥상은 반찬의 가지 수에 따라서 3 접(三浬), 4 접(四浬), 7 접(七浬), 9 접(九浬), 12 접(十二浬) 등 여러가지가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작은 상을 차리는 결상이 있다. 결상에는 대개 반주(飯酒), 전골, 과일등이 놓인다.

밥상에 올려지는 찬의 종류를 보면 밥, 국, 김치, 간장, 초장, 고추장, 구이, 나물, 장아찌, 젓갈, 마른반찬, 회(膾), 찜김, 쌈 등 종류가 다채롭다. 7 접(浬) 이상에는 위에 열거한 찬의 종류가 대개 다 올려진다.

●국수상 : 이 상의 음식은 국수, 김치, 간장, 지짐, 과일, 떡, 화채 등을 차려 놓는게 정식이나 계절에 따라서 끝에 몇가지는 달라질 수도 있다.

●큰 상 : 이 상은 회갑, 결혼등 경사 연회용으로 사용된다. 수화연(壽華蓮)이라는 조화(造花)로 장식하고 음식을 차린다. 음식은 국수, 떡(편강단, 색떡, 증편, 주악, 송편등), 적(누르미, 어적, 육적등), 포(어, 육, 문어, 오징어등), 당류(糖類)(각당, 원당, 오화, 당옥춘등), 간과(밥, 대추, 꽃감, 잣, 호도), 조과(造果), 유과(油果), 전과(煎果), 다식, 강정, 생과(生果), 술, 김치, 채소등이 있다.

주생활(住生活)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초가집, 기와집, 양옥집, 일본식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지방 원주도 이와 별 다를 바 없으나 주로 농촌과 산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초가집이었다.

근세에 와서 새마을사업으로 농촌이나 산촌에도 주택 개량사업이 행해져 점차 양옥으로 탈바꾸어져 가고 있다.

주거생활의 발달을 조사해 보면 처음에는 토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차차 발전하여 흙으로 짓고 지붕은 나무와 흙으로 덮는 움막집이 나타났다. 점차 나무를 이용하여 창문도 내고 지붕은 풀이나 볏짚을 쓰게 되면서 초가집이 등장했다.

이때 구들도 놓아지고 방에 불을 때서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주생활의 시작이었다.

●주거(住居)의 짜임새

제일 오래 된 집은 흙이나 나무로 그 위에 덮어서 바람과 비와 서리, 눈등을 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단군시대부터 백성들의 집을 떠(茅)를 뜯어다가 집을 지었고 부여(扶餘) 때는 풀(草)로서 집을 지었다. 숙진(肅愼)의 집은 모양이 무덤(塚)과 비슷하게 생겼다. 마한(馬韓)때에 비로소 초옥(草屋)과 토옥(土屋)으로 집이 땅 위로 나오게 되었다. 진한(辰韓)의 가옥은 나무를 옆으로 하여 쌓았으나 곧 출입이 편리하도록 문을 옆에 뚫고 만들었다.

●집의 구조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크게 구분하면 남한(南韓), 서한(西韓), 북한(北韓)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집은 주위 환경과 기후, 풍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세 곳의 가옥구조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원주는 지리상으로 중앙에 위치하므로 남한형에 속한다. 삼간초옥(三間草屋)의 일자식(一字式), 7자식, ㄷ자식, ㄱ자식의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좌향(坐向)은 대략 남동향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는 콘크리트 라멘조로 많이 짓고 양기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에 적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또는 원주(原州)의 주택구조의 대략적인 개요(概要)이다.

대체로 보면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에 비하여 주택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조시대 가옥이 제급에 따라 제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조말의 정치적 부패로 가급적 생활의 여유가 있었던 것을 숨기는 습관에도 원인이 있어서 가옥 구조의 개량발전이 위축되었다고 본다.

여하간에 우선적으로 우리 고장의 가옥은 신(新), 구(舊), 한(韓), 양(洋), 내

외식(内外式)을 절충하여 개량해야 될 것이다.

첫째, 창문을 많이 내서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온돌과 아궁이를 개조하여 연료를 절약해야 한다.

셋째, 문의 높이를 높게 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이 있으나 높고 어두워서 쓸모가 적으므로 이를 현대식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오락(娛樂)

● 쌍육(雙六) : 이 놀이는 남자(男子)도 하지만 지방(地方)에 따라서는 여자(女子)도 많이 행(行)한다.

쌍육(雙六)은 나무나 골각(骨角)으로 정육면체(正六面體)를 만들어 각면(各面)에 1에서 6까지의 구멍을 조각(刻)한 주사위 두 개를 굴려 쌍육판(雙六板)에 굴려진 주사위 대로 행마(行馬)하여 노는 놀이이다.

이상은 대개 어른들의 놀이인데 이것 이외에도 세시(歲時)에 따라 놀이가 있으나 세시풍속편(歲時風俗篇)에 이미 취급(取扱)되었다.

전래(傳來)의 아이들 놀이는 지방에 따라 다른 것도 있으나 어느 곳이나 공통성(共通性)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종류(種類)도 많다.

● 돈치기 : 몇 사람이 모여 일정(一定)한 자리 약 2~3m에 동전을 던져놓고 가장 맞추기 어려운 돈을 지적(指摘)하여 주면 그 돈을 맞추어 따먹는 놀이로 마당이나 길가에서 많이 한다.

● 수박 따기 놀이 : 많은 아이들을 수박으로 가장하고, 그 중 한사람은 수박을 지키는 주인 할머니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수박을 따 가려는 영감이 된다.

할머니 아이들을 수박으로 가장하여 여기 저기 앉혀놓고 있노라면 할아버지 수박이 먹고 싶다고 찾아온다.

할머니는 수박이 아직 덜 익었다고 거절하여 보내기를 몇번 한 끝에 마침내 할아버지는 수박이 다 익었다고 한번에 한 아이씩을 데려다가 숨겨 놓는다.

마지막 아이를 데려다 숨겨 놓고 나면 반대(反對)로 할머니 숨겨놓은 아이들을 찾는 놀이로 여름이나 가을의 달밝은 밤에 마당가에서 하는 놀이다.

● 숯바꼭질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아이가 술레가 되어 나무 기둥이나 나무줄기를 집으로 정(定)하고 술레가 그 곳에서 눈을 가리고 50이나 100을 세

고 있는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제각기 숨기 좋은 장소(場所)에 가서숨으면셈을 다
센 술레가 숨은 아이를 찾아다닌다.

술레에게 잡히면 지고 잡히지 아니하고 술레집에 오면 이긴다. 이 놀이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꼭꼭 숨어라 머리 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살금 살금 달아 나자

빨리 빨리 달아 나자

● 고누(꼬니) : 판자나 마당에 말 발을 그리고 흰 말과 검은 말이 두편으로
나누어 벌려 놓고 서로 많이 따 먹음으로써 승부(勝負)를 다투는 놀이이다.

우물고누, 네발고누, 육발고누, 따위의 여러가지 종류(種類)에 따라 노는 방
법(方法)도 다르다. 지방에 따라 끈줄이라고도 한다.

● 제기차기 :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葉錢)같은 것을 얇은 종이로 싸서 구
멍으로 나온 긴 종이를 가늘게 찢어 술을 만들어 차는 놀이로 남자(男子)들이 한
다.

● 땅재먹기 : 두 사람이 커다란 원(圓)을 그려 2등분하여 납작한 돌 또는 토
기(土器) 깨어진 것을 둥글게 만들어 그것을 투겨가며 자기(自己) 손뼉으로 상
대방(相對方)의 땅을 재어서 빼앗는다.

이 놀이는 이것 말고도 큰 원(圓)을 그려놓고 그것을 다시 수(數) 10개의 작은
반원(半圓)으로 나누어 말을 튀겨 하나 하나를 빼앗는 놀이도 있고 못치기라 하
여 땅에 못을 꽂아가며 상대방(相對方)의 땅을 빼앗는 놀이도 있다.

● 군사(軍士)놀이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 두 사람을 뽑아 서로 손
을 맞잡고 높이 들어 문(門)을 만들면 남은 사람은 일렬(一列)로 서서 문(門)으
로 들어 갔다가 나와 다시 들어가면서 노는 놀이이다.

손을 마주잡고 문(門)을 만든 사람을 문(門)지기라 하고 문(門)을 드나드는
사람을 군사(軍士)라고 한다.

군사(軍士)와 문(門)지기는 서로 문답(問答)을 하는데 그 내용(內容)은 다음
과 같다.

문답내용(問答內容)으로 보아 의병(義兵)때의 동요인양 싶다.

「어디 군사(軍士)인가」

『원주(原州) 군사(軍士) 일세』

『몇천명(千名)인가』

『삼천명(三千名) 일세』

『몇 바퀴 돌았나』

『삼백(三百)바퀴 돌았네』

『무슨 칼을 찼나』

『장도 칼을 찼네』

『무슨 신을 신었나』

『가죽신을 신었네』

『어디로 들어가는가』

『동대문(東大門)으로 들어가네』

● 실 놀이 : 한발 가량의 실에 끝을 매어 원(圓)으로 만들어 손 목에 걸고 오른 손으로는 왼쪽 손의 실을 왼 손으로는 오른쪽 손의 실을 각각 당겨 인형(人形)을 만들고 두사람이 마주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절구통 젓가락 등의 모양이 된다.

이때 하다가 실이 뻗으면 아니된다.

● 팽이치기 : 기구로는 팽이와 팽이채가 있다. 팽이는 직경 4.5cm 내외의 크기로, 밑은 뾰족하고 위는 넓고 둥글게 만들며 팽이채는 60cm 내외(内外)의 나무 막대기 끝에 그 나무 길이 정도의 노끈(或)은 천을 달아 만든다.

팽이는 흙 땅에서도 치지만 겨울철 얼음판에서 많이 친다.

팽이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팽이채의 끝을 팽이에 칭칭 감아 순간적(瞬間的)으로 채를 잡아당기면 팽이는 돌기 시작하고 다음 부터는 팽이채로 팽이를 치면 팽이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계속(繼續) 돌아간다.

혼자 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치기도 하는데 오래 돌기 내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뱅글 뱅글 잘 두 돈다.

요리 조리 잘두 돈다.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 짱 치기 : 오늘의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놀이로 얼음판에서 나무로 만든 납작 둥글한 짱을 놓고 두 패로 갈라서 짱채로 쳐서 상대방의 문(門)에 넣는 놀

이이다.

요즈음 동절(冬節)에도 하키는 하지만 전승(傳承)의 이 「짱치기」는 거의 없어졌다. 흔히 나무꾼들이 쉼터에서 많이 했다.

● 돌 치기 : 땅에 일정(一定)한 규격(規格)의 선(線)을 그어 여러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손바닥만한 돌을 발로 차서 한칸 한칸 차 넣어 승부(勝負)를 보는 놀이로 종류(種類)가 다양(多樣)하여 주로 여자(女子)아이들이 많이 한다.

● 팔 씨름 : 남자(男子)들의 놀이로 두 사람이 바닥에 팔꿈치를 세우고 서로 손을 맞잡고 넘기는 게임으로서 한편으로는 힘을 겨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겨뤄내기 게임도 한다.

근래(近來)에 들어서는 팔씨름에 왕을 뽑는 왕위전도 있다.

● 목침(木枕) 빼앗기 : 장정(壯丁)들의 놀이로 목침(木枕)을 서로 길이로 맞잡고 힘을 주어 당겨 빼앗기는 쪽이 지고 빼앗는 쪽이 이기는 놀이인데 주로 농촌(農村)에서 농사(農事)군들이 저녁에 사랑방에서 많이 한다.

● 조조(曹操) 잡기 : 사람의 수에 따라 종이 쪽지에 조조(曹操), 공명(孔明), 유현덕(劉玄德), 황충(黃忠), 조자룡(趙子龍), 관우(關羽), 장비(張飛)등 삼국지(三國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보이지 않게 엮어놓고 제각기 한 장씩 주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갖는다.

그중 유현덕(劉玄德)을 잡은 사람은 명령관(命令官)이 되어 자기 부하에게 가령 『조자룡(趙子龍)은 지금 곧 조조(曹操)를 잡아 대령(待令)하라』하면 조자룡(趙子龍)을 잡은 사람은 좌중(座中)의 눈치를 살펴 조조(曹操)를 잡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적(指摘)한다.

이 때 바로 조조(曹操)를 잡은 사람을 지적(指摘)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진다.

● 엇치기 : 여러 사람이 가락 엇을 한 가락씩 골라 잡되 그중 구멍이 크리라고 생각나는 것을 골라 일시(一時)에 꺾어 그중 엇속에 구멍이 가장 큰 것이 있는 사람이 이기고 가장 작은 사람이 진다.

이 때에 엇 값은 구멍이 가장 작은 사람이 다 내야 한다.

● 공치기 놀이 : 사람 수는 2인 또는 3인이 할 수 있고 4인이면 편(便)을 짠다.

재료(材料)는 조그만 공이며 노는 법은 공을 한손으로 같은 속도(速度)로 고정적(固定的)으로 땅에 내려치기도 하고 오른 손으로 치고 얼른 돌아서 오른 손으로 다시 치기도 하며 발로 살짝 눌러치기도 한다.

노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개(大概)는 삼박자(三拍子)이며 다음과 같다.

우리집 옆집 도둑팽이가
연지 끈지 바르고 눈섭 그리고
연지가 없어서 사리 갈적에
서울 다리 건너갈 적에
사람이 많으니 얼른 감춰라.

제일끝인 「얼른 감춰라」의 노래에 맞추어 재빨리 공을 치마폭으로 감춰버린다.

● 줄넘기 : 필요한 물건은 5m 가량의 새끼줄이다. 사람은 양쪽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줄을 붙들면 된다. 그리고 붙들지 않는 사람은 수(數)를 가리지 않아도 좋다. 특히 사람수가 많으면 재미있다.

여기서 노는 법은 줄을 붙잡은 사람 두사람은 즉 술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편(便)을 갈라서 서로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맨 나중에 진 사람을 뽑아서 줄을 붙들게 한다.

그리하여 술레가 된 두사람이 양쪽에서 줄을 잡는데 평평하게 길가에 줄을 친 것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줄을 땅에 끌리게끔 양쪽에서 서로가 잡고서 땅에 대고 공중에 원(圓)을 그리면서 돌리는 것인데 술레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돌리는 줄 속으로 계속(繼續)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그러다 불행(不幸)하게 잘못하여 줄이 몸 허리에 걸리어 돌릴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술레가 되어서 양쪽중의 술레와 바뀐다. 그러면 술레를 하던 자가 교체해서 자유롭게 뛸 수 있다.

또는 많은 사람 수가 필요없이 셋 또는 네 사람이 노래를 불러 가면서도 할 수가 있다. 다만 하나, 둘, 셋, 수(數)만을 센다.

이 유희(遊戱)는 대개(大概) 여덟살에서 열살되는 여아(女兒)들이 한다. 사내 아이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 고무줄 넘기 : 이것은 해방후에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보고 있는 소녀들이 가장 즐기는 유희(遊戱)이다.

지금도 여전(如前)히 우리고장에서 일년(一年) 사계절(四季節)을 불문하고 대성행(大盛行)을 계속하는 소녀들의 놀이인데 가늘고 길다란 고무줄 하나만이 유일(唯一)한 자료(資料)이다.

양쪽에서 소녀들이 약 10여척(十餘尺)의 간격(間隔)을 두고 고무줄을 마주잡고 있으면 다른 소녀(少女)들이 모두 합창(合唱)으로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2,3명의 소녀들이 나와서 그 고무줄을 가지 각색의 형식(形式)으로 뱅글뱅글 뛰면서 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넘는다.

이것은 순전(純全)한 국민학교(國民學校) 소녀(少女)들이 전용(專用)하는 놀이로써 가운데 나와서 짱충짱충 춤추며 고무줄을 넘는 방식(方式)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階段)로 나누어지는 여러가지가 있다

처음에 고무줄을 잡아주는 높이가 1척(尺) 정도로 부터 시작되지만 차차 높이를 늘리어 가면서 한 계단 두 계단으로 올라간다.

고무줄을 넘다가 실수(失手)로 발에 고무줄이 걸리면 그 소녀(少女)는 실격(失格)이 되는 동시에 쫓겨나가서 고무줄을 잡아주는 소임(所任)을 맞는다. 그러는 동안에 고무줄을 잡아주는 소임(所任)이 실격(失格)되는 소녀(少女)들로 하여금 여러번 교체(交替)를 한다.

이리하여 나중에 고무줄 높이는 출연(出演)하는 소녀(少女)들의 신장(身長)과 같은 정도로 높이므로써 그 과정(課程)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反復)재연(再演)을 한다.

토속신앙(土俗信仰)

재앙(災殃)

인생의 재앙(災殃)과 질병을 가져온다는 악령 악귀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제(祈祭)나 금기(禁忌)등 이지방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치병기도(治病祈禱)

무당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는 곳으로 옛날부터 일종의 의료행사로 널리 행해졌으며 무당의 이러한 의무적(醫巫的)기능은 무교(巫敎)기능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조 세종(世宗 11년 1429)에는 관에서 이에 관하여 무당을 관설(官設)의료기관으로 정하고 각관과 각리(里)에 백성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을 무당에게 부

담시켜 병이 유행하면 의생과 무당으로 하여금 이를 치료케 하였다.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의 무당 총수는 1만명이상이라 하였다.

그런데 우리 원주지방에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무당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역시 명맥을 이어오고는 있으며 그 수는 대단치 않고 몇몇에 불과하다.

무당으로 하여금 굿을 행하는 곳은 아직도 곳곳에 있으며 굿을 함으로써 과연 재앙과 질병이 낫는지는 알 수 없다.

● 제액기도(除厄祀禱)

이것은 재해와 액운을 기도로써 방지하고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안택신사(安宅神祀), 도액신사(禱厄神祀), 풍신신사(風神神祀), 지방계사(地方季祀) 등이 정기적 제액기도로 행해졌고 지금도 일부 마을이나 민가에서 행하는 곳이 있다.

특히 이 지방에서는 고목(古木)이나 거암(巨岩) 바위 밑을 대상으로 정하여 행하고 있다.

금기(禁忌)

재화(災禍)를 벗기 위하여 부적(符籙 : 불교나 도교를 믿는 집에서 기도할 때 익힌 귀신을 쫓고 재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쓰는 야릇한 글씨를 적은 종이)이나 신부(神符)를 붙이거나 주문을 외워 악명을 제거하려는 행사로 이 지방에서는 아직도 성행하여 승려나 무당들에게서 부적을 얻어 들어서는 집안 문위에 붙여 놓기도 하고 특히 드나드는 문 위쪽에 붙여놓는데 집집마다 흔히 볼 수가 있다.

기복(祈福)

신령을 제사(祭祀)하고 복(福)을 비는 행사로 기복신사(祈福神祀)는 이 지방에서도 많이 행해지는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은제(祈恩祭)

왕가에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 지내는 제사와 민가에서 수시로 집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의 두 종류가 있다.

현재 행해지는 곳은 흔히 있으며 특히 가을철 추수를 거두어 놓고 행해진다.

● 기우제(祈雨祭)

가뭄이 심했을 때 농작을 우려하여 비가 내리도록 천신과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다. 이 기우제는 국가적으로 지내기도 하고 지방의 관습에 따라 지방별로 지

내기도 한다.

지금도 이 지방 도처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 남아있다. 원성지방에서도 영원산성(鶴原山城)과 치악제단, 그리고 소초면 둔둔리에서는 큰 제사를 지내온 흔적이 남아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별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 기자제(祈子祭)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은 아들을 귀하게 여겨 아들을 얻기 위하여 삼신(三神)굿, 제왕(帝王)맞이 등이 이에 속하며 각 사찰에서도 이런 종류의 기제가 많이 행해졌다.

우리지방에서는 귀래면 미륵산의 미륵불이 대표적으로 속하며 입석사에 세워져 있는 입석대에서 또는 암벽에 세워진 불상앞에서 행해진다.

● 성황제(城隍祭)

성읍(城邑)이나 동리에 토지신(土地神) 혹은 성황신(城隍神)에게 드리는 제사로 재앙을 멀리하고 화평과 복을 빌기 위한 행사이며 이조시대에는 부락의 수호신인 산신(山神)을 받드는 산신제와 혼합이 되었다.

성황제는 각 고을마다 관(官)에서 지냈으며 부락별로도 지내고 있다.

매년 춘·추로 치악산에서 동악제(東岳祭)라고 해서 각 고을 수령들이 모인 가운데 한양에서 왕의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제주가 되어 지내온 것이 이 지방의 대표적인 것이며 그의 신림면에 있는 성황당과 고둔치 성황당에서 성황제가 행해졌다.

● 안택제(安宅祭)

집안의 재앙을 없애고 한해의 행운을 비는 기도제로 고사 또는 기도라고 한다. 이 외에도 집에서 집을짓고 나서 지내는 낙성제(落成祭) 분묘를 쓰기 위하여 개산(開山)할때 지내는 토지신제, 용신제(龍神祭), 대감제(大監祭) 등 잡다한 종류의 기제가 있다.

원주지방에서도 이상의 제는 최근까지도 지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삼재(三災) 면(免)하는 법

삼재(三災 : 불길한 운성의 하나로 액년(厄年)에 당한다는 뜻)은 12지의 사(巳) 추(丑) 유(酉)해에 난 사람은 해(亥) 자(子) 축(丑)해에, 신(申) 자(子) 진(辰)해에 난 사람은 인(寅) 묘(卯) 진(辰)해에, 해(亥) 묘(卯) 미(未)해에 난 사람은

사(巳) 오(午) 미(未)해에 인(寅) 오(午) 술(戌)해에 난 사람은 신(申) 유(酉) 술(戌)해에 삼재(三災)가 든다.

오행점(五行占)

새해 새날에 신수(身數)를 보기 위하여 오행점(五行占)이란 나무를 깎아서 바둑돌만하게 다섯개를 만들어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다섯자를 각각 새겨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한꺼번에 다섯개를 흔들어 던져서 그 자빠진 오행글자를 가지고 점사(占辭)를 보아 길흉(吉凶)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주문의 예(例)와 점사를 들어보기로 하자.

(가) 주문의 예 = 「하늘밑에 말 있으니 땅밑에 말 없을소냐? 이를 고(告)하여 즉시 응할 것 같으면 느끼어 순통(順通)되어라. 이제 아무 고을(郡面) 아무 동네에 사는 성명(姓名) 아무개 아무해생(生) 아무달 아무날 올해 일신상(一身上)의 도명길흉(道命吉凶)을 보아주십소서. 원(願)컨데 신문(神文)은 지시(指示)해 주시옵기를./」...

(나) 점사(占辭)의 예 = 「금목수화토(상괘 : 上卦), 기린(麒麟)과 봉황(鳳凰)이 글을 받들고 용(龍)과 거북이 경사를 축하하는 고로 재앙(災殃)은 가고 복록(福祿)은 올 것이다. 풀어 이르기를 다섯별이 밝아져서 하늘이 비치고 사람이 괘(卦)에 당하자 자손(子孫)이 창성(昌盛)하고 오래도록 영화를 누릴 것이다.

「금(金) 중괘(中卦)」옛일을 고쳐서 새로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기가 용문(龍門)에 뛰므로 범인(凡人)이 신선(神仙)이 된다. 풀어 이르기를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귀인(貴人)이 영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목화(木火 : 하괘(下卦))」불이 나무에서 나서 다시 나무를 태우므로 은혜(恩惠)가 변하여 도리어 원수가 된다. 심란(心亂)하여 타향에서 고생할 것이다. 풀어 이르기를 나무가 불에 타서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살아져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재물(財物)은 소실(消失)하며 비방(誹謗)을 듣는다.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해마다 일정한 때가 오면 관습적으로 반복하여 거행하는 생활풍속의 의례적인 풍속을 말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흔히 연중행사의 풍속을 말하지만 예전에는 세시 월령(月令)시령(時令)이라 불러 한해의 절기를 나타냈으며 세시풍속일은 그러한 한해의 전습적인 절기중에서 특히 골라 명절로 정하고 한해의 생활과정중에서 여러가지 큰 힘을 그날에 부여시켰던 것이다.

4계절에 대한 절후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각 명절을 월령에 의하여 나누었고 또 이 월령은 농업을 중심으로한 인간의 생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농업을 주업으로한 우리의 경우에는 명절세시는 농작물의 파종, 제초, 수확, 저장등 생활활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그 대부분이었다.

봄이 시작되면 농사준비를 위한 씨담그는 일에서 시작하여 파종을 하고 풍작이 들기를 기원하고 또 가을이 되어 풍년이 들면 하늘에 감사하는 예속(禮俗)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세시풍속은 생산활동을 알리는 절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 이러한 현상은 생활풍속 자체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신앙과도 결부지워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역법은 1895년 태양력을 쓰기까지는 일반에서는 태음력을 써왔다. 그런만큼 우리나라의 예전 세시풍속을 알아보는데는 무엇보다도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음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종래 이 방면의 조사도 음력 중심의 기술이었으며 지금도 생산활동 즉 씨앗의 파종, 제초, 수확등을 알아보는데는 음력이 우리 생활습성에 적합하게 느껴진다.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전습적인 신앙과 관습도 다 음력 중심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원주지방에 걸쳐 내려오는 세시유풍을 월별로 때의 순서대로 알아본다.

정월(正月)

음력 정월 초일을 설날 또는 원일(元日), 원단(元旦), 원조(元朝) 또는 정조(正祖)라고 한다.

三元[○]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연월일의 처음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다. 원주지방에서는 이날을 설, 설날, 설명절, 세배날등으로 부르며 일부에서는 양력설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구정(舊正)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대부분이 구정을 중심으로한 설날행사를 지내며 혹 양력에 따라 신정(新正)을 지내는 사람들도 예속만은 구정과 같이 함을 볼수 있다.

●세배(歲拜)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남녀노소 누구나 새옷(설빔)을 갈아입고는 조부모, 부모에게 절하며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도 절을 하며 새해인사를 하니 이를 세배라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세배의 열이 계속되었으나 근대에 와서는 차츰 그 열이 식어가는 느낌이 든다.

나이 많은이는 집에서 자녀들과 친척 또는 나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고 나이 젊은이는 자기 집에서 예를 마치고는 친척이나 이웃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하고 난뒤 서로 친구들을 찾아 새해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이때 세배하러 온 이에게 어른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약간의 돈이나 과자를 나누어 준다. 상중에 있는 사람은 정월보름까지 출입을 삼가하며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에게는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서 세배를 하는 것이 예이다.

이 고장에서도 정초가 되면 아직까지는 거리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세배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복(福)조리

정월 초하룻날 이른아침, 또는 선달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조리대로 엮어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으니 이것을 「복조리」라 한다.

이고장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조리장수들이 복조리를 팔기 위해 초하루 전날밤부터 「복조리 사시오」 하고 밤이 새도록 골목을 누비고 다닌다. 이 복조리의 풍습은 생각컨대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니 그해의 행운을 조리와 같이 일어 취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요즈음엔 조리도 화학성 제품이 많아 조리대로 엮어 만든 것은 정초때나 선을 보일뿐 실생활에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택제(安宅祭)

자가정에서는 대보름 전날 또는 정월에 택일을 하여 안택을 하는데 이 안택이란 집에 아무 탈이 없기를 비는 뜻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개인제라 본다.

안택은 무당이 안택경을 읽으며 터주신을 비롯하여 조상신(祖上神), 용신(龍神), 동신(洞神) 등을 제사하는 것이다.

집안의 질병, 화액, 재앙을 쫓고 가내의 평안을 비는 것이 목적이다. 안택에 차렸던 음식은 이웃과 집안끼리 나누어 먹는다.

안택은 한해의 재화소복(除禍招福)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부정을 피하고 정성

것 거행하며 농가나 상인을 막론하고 모든 집안에서 거행된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무당이 중심이 되었으나 근래에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고 다만 택일만은 점장이, 유식한 노인, 혹은 무당을 불러서 한다.

●상자일(上子日)

정월 첫 자(子)일을 쥐날이라 하니 특히 농가에서는 이날에 방아를 찧으면 그 해에 쥐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으므로 밤이 되면 부녀자들이 빈방아를 찧는 일이 있다.

또 쥐불이라 하여 이날은 마을마다 청년들이 자기동네 부근의 밭이나 논두렁에 짚을 펴놓고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질러 잡초를 태운다. 불은 사방에서 일어나 장관을 이루는데 이 쥐불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해의 풍·흉년 또는 마을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각 마을에서는 다투어 불길올 높이는 풍속이 있다.

이렇게 번진 불길은 자정이 돼도 끄지않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는 논밭의 쥐를 멸하기 위함과 잡충을 제거하고 또 새싹을 왕성하게 함이라고 한다.

요즈음도 이때가 되면 마을마다 전답에 불을 놓아 연기가 치솟곤 한다.

●상묘일(上卯日)

정월 첫 묘일을 토끼날이라 하니 이 날은 그 집안의 가장되는 남자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연다. 그런뒤에 여자가 문밖을 나오게 되는데 만일 여자가 먼저 나와 문을 열면 그 해에 신변이 불길하다고 하며 남자가 먼저 나와 열어야 길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은 무명실을 짜서 옷을 지으면 그 사람의 명이 길다고 해서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는 그 실을 서로 주고 받으니 이 실을 명사, 상원사 또는 뭇실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이 명사란 긴 실과 같이 수명이 길어지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상진일(上辰日)

정월 첫 진일을 용날이라 하니 이날 농가의 부녀자들은 서토 남먼저 일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이 용날 밤에 하늘에서 용이 하강하여 우물속에 들어가 알을 낳는데 그 알낳은 우물물을 누구보다도 먼저 길어와서 밥을 지으면 그해의 자기집 농사

가 잘된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먼저 우물물을 길어간 사람은 표시로 우물에 지푸라기를 조금 띄워놓는다고 한다.

●상사일(上巳日)

정월 첫 사일을 뱀날이라 하니 이날 머리를 빗으면 그해 집안에 뱀이 들어온다는 속언이 있어 남·녀 모두 빗질을 하지 않는다.

●더위팔기

정월 열 나흘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전에 개에게는 동쪽으로 뺀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개목에 둥그렇게 하여 걸어주고 소에게는 왼새끼를 파서 목에 매어주면서 『금년에는 더위를 먹지 말아라』하고나서 본인도 동리에 사는 벗이나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아무개 하고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더위 사가게』하여 더위를 팔고 만일 대답을 하기 전에 내더위 사가게 하면 오히려 사는 수도 있다 한다.

이렇게 해가 뜨기 전 서로 서로 분주하게 더위를 팔러 다니는데 열 나흘날 더위를 팔면 그해 여름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요즈음도 어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진다.

●귀밝이 술(耳明酒)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술 한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며 또는 그해중에 길한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날 아침이면 남녀노소 구별없이 모두 다 한잔씩 마신다고 한다.

●부름(腫果)

정월 보름날 새벽에 밤, 호두, 은행, 잣 등 굳은 껍질의 과실을 깨물고 축원하기를 『1년 열두달 무사태평하고 부스럼, 종기 하나 나지 맙시다』고 하니 이것을 부름껌다고 하는데 이날 먹는 과실을 총칭해서 「부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중에는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며 일설에는 이를 툇튼히 하고자 행해진 것이라 하는데 이 고장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인접한 중국, 일본에서도 행해진다고 한다.

●잡곡밥 진채식(雜穀밥 陳菜食)

정월 보름날 5곡 잡곡으로 밥을 지어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데 밥은 찹쌀을 찌서 여기에 대추, 밤, 기름, 꿀, 간장, 꽃감을 섞어 함께 찌는 것이 있고 또는

콩, 팥, 조, 수수를 쌀과 함께 섞어 짓는 밥이 있다.

또한 진채식으로 평소 고사리, 버섯, 호박고지, 외떡지, 가지접질, 무시래기등을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잘 씻어 삶아 간을 친 것을 이르며 이렇게 해서 먹는 잡곡밥과 진채식은 보름날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풍속으로 이 음식을 해 먹으면 한여름에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도 보름날이면 음식을 만들어 이웃끼리 나누어 먹곤 한다.

●개보름 쇠기

정월 대보름 날은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날 개에게 먹이를 먹이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피고 마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풍속으로 인하여 사람이 굶는 것을 보면 『개보름 쇠듯 한다』는 속설이 생겨났다.

●달맞이

대보름날 저녁 햇불을 해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달떠오르는 것을 맞이하러 어것을 「달맞이」라고 하는데 달이 떠오르면 서로 다투어 질을 하며 화에다 불을 붙여 달을 향해 놓고는 일년축수를 기원한다.

또한 이날 달이 뜰때의 형체, 대·소, 출렁거림, 높고 낮음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데 사방이 두터우면 풍년이 들고 얇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 한다.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라고 하며 달의 빛이 희면 우량이 많고 붉으면 가뭄이 있으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들 징조라 보았고 북으로 치우치면 산촌에 풍년이 든다고 했다.

정초에 달맞이를 하면서 달을 보고 농사의 풍·흉년을 점치는 풍속은 최근에도 행해지는 일이다.

●동신제(洞神祭)

각 부락 단위로 1년에 한번씩 대개 정월 15일 즉 14일 밤 자정이 지나면 동신제를 지낸다. 장소는 대개 부락의 입구 또는 뒷산에 있는 제단이나 사당에서 지내는데 제주는 3일전부터 제단등 장소를 청결히 하며 일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제주는 동리의 노인이나 청결한 사람을 선정하며 제주는 한주일 전부터 목욕제개하고 육류를 삼가하며 상인과 병자도 만나지 않는다.

제가 시작되기 전 밥, 나물, 떡, 어류, 과일, 술등을 차려놓고 15일 오전 영시가 되면 동신제문을 읽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음식과 술을 부락민들이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연중무병과 평온무사 및 농사풍년을 기원한다. 지금도 각 부락단위로 행하는 곳이 있지만 대개는 중단되어 있다.

●정월놀이

정월의 놀이로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뿔불놀이등이 원주지방의 대표적인 놀이다.

먼저 윷놀이는 설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족단위의 놀이로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한다. 보통 장작윷을 사용하며 최근에도 각 가정에서 널리 놀이로 삼고 있다.

또한 널뛰기도 설날에 여자들의 놀이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마를 나풀거리며 공중으로 서로 번갈아 솟구치는 모습은 우리나라만이 간직한 고유한 풍속이라 하겠다.

연날리기 또한 정월초부터 보름날까지 빼놓을 수 없는 놀이로 주로 청년들이 많이 행한다. 연을 공중높이 날려 맞이하는 일년의 재앙을 멀리 쫓아보낸다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날려보낸다. 어떤때는 각 마을단위로 시합을 벌여 내기를 걸기도 한다.

줄다리기 또한 흥미를 돋구는 놀이로 부락단위가 동서로 구분하여 여러 집에서 짚을 모아 두가닥 또는 세가닥의 큰 줄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줄을 당기어 승부를 겨룬다.

줄에는 암·숫이 있어 동쪽을 숫줄 서쪽을 암줄이라고 일컬으며 이긴쪽은 그 해에 무병하며 풍년이 든다 하여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승부를 겨루는 광경은 실로 대단하다 하겠다.

특히 원주지방에서는 상동리, 하동리로 구분하여 매년 연중행사처럼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중단되어 있다.

또한 어느날이 못지않게 뿔불놀이가 성행했다 하겠다. 대보름날 청년들 사이에 벌이는 놀이로 둥근 달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준비된 화에 불을 붙여 휘두르는데 휘두르는 불길의 불만하다. 이 뿔불놀이도 마을단위로 대결을 하는데 서로 뿔불을 많이 빼앗는 편이 승리하는 놀이로 협동과 단결력을 기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원주지방에서도 전래되어 오는 민속놀이는 다른 곳에 못지않게 성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그 열이 좁은 식은 듯하다. 하지만 맥이 완전히 그친것은 아니고 정월이 되면 곳곳에서 놀이를 즐기고는 있다.

●경칩(驚蟄)

2월이 되어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고 한다. 곧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며 얼음이 녹으면 일손이 바빠져서 농사일이 시작됨을 애기한 것이다.

경칩날이 되면 흙일을 해야 탈이 없다고 하여 각 가정에서는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이날 흙으로 벽을 바르면 빈대등 잡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하며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일년의 풍·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또한 경칩때 단풍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에서 흐르는 물을 먹으면 위병이나 성병에 좋다고 하여 약으로 먹기도 하는데 경칩무렵이면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짐승들도 땅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사일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큰 뜻을 갖는다.

●좀생이 보기(占昴)

2월 6일 혹은 7일 초저녁에 별(昴宿)과 달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좀생이 보기」 또는 「좀생이점」이라고 한다.

숙은 서양에서는 플레아데스라 하여 육안으로 보면 6~10개의 별로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백여개 이상이고 사진으로 촬영하면 2천개 이상이 된다.

이 별들이 달과 나란히 가거나 또는 조금 앞서 있으면 길하다고 말하며 그와 반대로 뒤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이 「좀생이 보기」는 일종의 농점으로 아직까지도 이것을 본후 길·흉년을 점치며 믿는이는 흔히 있다.

●삼월삼진날

3월 3일은 강남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 돌아온다고 하며 제비들은 집짓기에 바쁘고 새끼를 낳다.

이 무렵이면 날씨도 따뜻하여 산과 들에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것을 화전(花煎)이라 하는데 시절음식으로는 대표적인 것이며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날이 되면 나비들이 다시 선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

비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라 믿고 흰나비를 먼저 보면 부모의 상을 당하는 흉조라고 믿는다.

최근에도 그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흔히 있으며 또 이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일년동안 윤이 나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다투어서 머리를 감는다.

● 화류(花柳)놀이

꽃과 버들은 3월이 한창이니 날이 화창하고 마른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는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은 하루를 택하여 물맑고 경치좋은 산으로 가는데 노인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녀자는 부녀자들끼리 한패를 지어서 놀이를 하니 이것을 원주지방에서는 화전놀이, 꽃놀이, 천렵이라고 한다.

이 놀이를 하는데 있어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제가꿈 얼마씩 회비를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끼리끼리 제가꿈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 가는 것이다.

산기슭이나 계곡에서 하루를 즐기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면 철쭉꽃을 꺾어 들고 삼삼오오 짝을지어 장단을 치고 여흥을 하며 내려오는 것이다.

이 꽃놀이는 일반적인 민속으로 옛날서 부터 성행하여 오는 것으로 지금도 음력 3월이 되면 구룡사 계곡이나 국향사 계곡, 금대리 유원지등에 보다많은 행락 인파가 몰리고 있다.

● 기자숙(祈子俗)

자식을 두지 못한 부녀자들은 자식을 얻기 위하여 신께 기도드리거나 비는 풍속이 옛부터 있었다.

특히 만물이 소생하고 겨울내내 닫혀있던 것들이 봄철을 맞으면 자식을 갖고싶은 충동과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 자연의 여러현상과도 연유된다 하겠다.

하여간 축자의 풍속은 2월과 3월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고장의 장소로는 산신에게 비는 치악산, 암석에 치성을 드리는 입석사 입암, 서낭당등이 있다.

시기는 대개 삼짇날로 부터 8일 사이에 행하며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최근에도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하고자 찾아가는 부녀자를 흔히 볼 수 있다.

● 곡우(穀雨)

곡우는 24절후의 하나로 3월에 든다. 곡우때가 되면 못자리를 마련하여 본격

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며 법씨를 담근다.

법씨 담았던 가마니는 솔가지로 덮어두며 밖에 나갔다가 상가에 들르거나 부정할 일을 당했을 때에는 집앞에 와서 불을놓아 악귀를 몰아낸 다음 집안에 들어 온다.

법씨를 보거나 만지지 않으며 부정할 사람이 법씨를 보았을 경우에는 법씨의 싹이 트지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옛선인들은 논농사의 중요성을 생활화 시키며 살았다고 보아야겠다.

●궁술회(弓術會)

해마다 3월이 되면 이지방의 한량들이 어느 한 날을 택하여 정자에서 편을 가리어 궁술회를 연다.

궁술회에는 활을 쏘는 한량들 뒤로 기생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는 열을 지어서서 활쏘는 이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 쏜 화살이 과녁에 맞으면 뒤에 섰던 기생들은 「지화자!」라는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

이 궁술회가 열리면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도 이고장에는 학봉정(鶴鳳亭)이 위치하고 있어 조기 궁도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고장 시민 보건향상의 도장으로서 전국대회도 유치한다.

4月

●초파일(初八日)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며 우리나라 풍속에 이날은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 또는 육불일(浴佛日)이라고 한다.

며칠전 부터 민가에서는 각기 등대(燈竿)를 세우고 왼쪽에 평의 꼬리를 장식하여 채색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단다.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노송을 붙들어 매며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수대로 등을 매달고 그 밝은 것을 길하게 여긴다.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가지 등을 만드는데 살림이 넉넉치 못한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혹은 추녀끝에 빨랫줄처럼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달아 놓기도 한다.

이날 밤이되면 등에도 불을 밝히는데 부잣집이나 사치를 부리는 집에서는 큰 대나무 수십개를 이어매고 오강(五江)의 돛대를 실어다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다.

등의 모양은 과일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꽃이나 어류, 또는 여러가지 동물모양을 본따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만 해도 수박등, 마늘등, 참외등, 연화등, 거북등, 봉등, 학등, 오리등, 일월등, 선인등, 칠성등, 누각등, 종등, 용등, 잉어등,

자라등, 향아리등 이루 해아릴 수 없이 많다.

등에는 태평만세(太平萬歲) 수복(壽福) 등의 글귀를 쓰기도 하고 기마장군상이나 선인상을 그리기도 한다.

또 화약을 총총으로 새끼줄에 매어 불을 붙이면 요즘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튀면서 퍼지는데 이런 놀이로 흥을 돋구기도 하고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여 놀기도 한다. 혹은 종이쪽지를 수십발이나 되게 이어 붙여 펄펄 날리면 마치 용의 모양 같다고 한다.

이런 풍속은 신라의 팔관회(八關會)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려사에 왕궁이 있는 수도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보름에 이틀 저녁 연등하던 것을 최태(崔怡)가 4月 8日로 연등을 옮겼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전국적으로 연등행사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데 원주지방에서는 사찰마다 연등을 밝혀놓은 것이 장관을 이루며 불교단체에서 행하는 연등시가 열이 불만하다.

● 봉선화

봉선화를 화초로 가꾸어 심고 또 이를 따다가 소년소녀들이 손톱에 물을 들인다. 봉선화를 따서 백반과 된장을 섞어 돌로 짓쪼은 다음 물들이고 싶은 손톱에다 봉선화를 얹고 피마자윳이나 봉선화윳으로 단단히 얹어맨 다음 하룻밤을 지난후 풀어보면 색깔이 곱게 물든다. 세번 정도 들이면 붉게 물이 드는데 어린남자아이는 엄지손가락에다 들인다.

이것은 봉선화의 붉은 색이 피사(辟邪)의 의미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유한 풍속도 현대사회의 제품에 밀려 이젠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5月

● 단오(端午)

5月 5일은 단오, 수리(戌衣),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 수리날 등으로 불리어 온다.

옛날에는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날이었으나 지금은 농촌의 명절로 되어 이날이면 각 가정에서 수리취떡등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단오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여자는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등의 놀이를 한다.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3月 3日, 5月 5日, 7月 7日, 9月 9日등 월일이 홀수면서 같은 숫자가 겹치는 날이면 대개 명절로 정하여 즐겨왔다.

그중에서도 5월 5일은 양(陽)이 가장 강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지내왔는데 단오를 수리란 말로 일컫는데는 이날 쪽떡을 해먹는데 쪽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둥글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한다. 요즈음도 단오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떡을 하여 별식으로 먹는 풍속이 전해지며 마을단위로 씨름대회, 그네뛰기가 성행하고 있다.

●천중적부(天中赤符)

단오날에는 각가정에서 불길한 것을 제거하고 나쁜 귀신을 쫓아버린다고 하여 주사로 부적을 만들어 문위에 붙이는 풍속으로 천중적부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궐에 붙이는 것으로 글귀는『5월 5일 천중지절에 위로 천록을 얻고 아래로는 지복을 얻는다. 치우신의 구리머리, 쇠이마, 붉은입, 붉은혀의 4백 4가지 병이 일시에 없어져라. 빨리빨리 법대로 시행하라』하였다.

이는 지금의 부적붙이는 제도의 시초라 하겠다. 원주지방에도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안방문 위를 보면 부적을 흔히 볼수 있다.

●익모초(益母草) 즙 내 먹기

단오날이면 익모초와 쪽을 뜯어 이를 즙으로 내어 먹는데 단오날 오시에 익모초와 쪽을 뜯어 말려두었다가 약으로 쓰기도 한다.

이날 아침 일찍 익모초를 찢어 즙을 내어 먹는데 식구의 수대로 먹기도 한다 이 즙은 몹시 쓰기때문에 이를 먹으면 식욕이 생기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다. 특히 이름 그대로 산모가 먹으면 몸에 이롭다고 한다.

이날 또 이른아침 쪽을 베어다가 다발로 묶어서 말려놓는데 액을 물리치는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고장에서도 단오날은 물론 한여름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될때 흔히 먹는다.

●대추나무 시집가기

해마다 단오일에 대추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대추나무를 시집보낸다 하여 나무 양쪽가지 사이에 작은돌을 끼워 놓는다.

이와같이 하여 단오일 오시에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면 그해 대추가 많이 열린다고 하여 생긴 풍습이다. 또한 대추나무 시집보내기에는 단오일의 오시가 좋고 도끼로써 여러 과일나무의 가지를 내려치면 결실이 많다 하였다.

●5월의 놀이

5월의 놀이로는 단오절날 주로 여자들의 유희로 그네뛰기와 남자의 놀이인

씨름대회 등이 이 고장에서는 성행하였으며 요즈음도 행해지고 있다.

타지방과 같이 거대적인 행사는 없지만 고유한 민속놀이로 전래되어 오는 그네뛰기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마을앞 큰 고목이나 거수(巨樹)의 가지에 새끼를 꼬아 줄을 매어 그네를 만들어 뛰게 되는데 녹음이 짙은 사이로 붉은뎡기 치마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자들의 그네뛰는 모습은 우리나라만이 간직한 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의 힘세기를 겨루는 씨름 역시 단오때 어디서나 행해지는 놀이로 우람한 체격들을 자랑하며 겨루는 힘의 대결은 보는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한다. 많은 장정들이 겨루어 최우승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황소 한마리가 상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예전서 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이라 하겠다.

6月

●유두일(流頭日)

6月 15일은 유두일이라 하여 해마다 이날이면 마을사람들은 주식을 장만하여 맑은 물 혹은 산계곡으로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며 술을마시고 놀면서 하루를 서늘하게 해를 보내니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화를 면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유두천신(流頭薦新)

이날 아침 각 가정에서는 밀국수와 수단(水團), 전단(乾團), 그리고 피, 조, 버, 콩등 모든 곡식을 참외 기타 신과(新果)와 함께 사당에 바치고 제사를 행하니 이것을 유두천신이라고 하며 농가에서는 연중 농사가 잘되어 달라고 농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삼복(三伏)

하지로부터 셋째 강일을 초복, 넷째 강일을 중복, 입추로 부터 첫째 강일을 말복이라 하니 이것을 3복이라 하는데 삼복이라 하면 여름중에서 가장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복중에는 대개 폭서를 피하여 술과 음식을 가지고 물가 또는 산간폭포수가 있는데 가서 잔을 주고 받으며 더위를 보내기도 한다. 또 이날에 팔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하며 또 고사리와 묵은 나물 여러가지 양념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 먹으니 이는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 몸을 보하기 위함이다.

요즈음도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개를 잡아 보신탕을 제곡이나
들에서 끓여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7月

●칠석(七夕)

7月7日을 칠석이라 한다. 이날 밤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씩 만나
애꿔듯 기다렸던 정을 서로 주고 받으며 지내는 날로서 그 전날에는 서로 만날
준비를 위해 먼지물은 수레를 씻기때문에 그 물이 흘러서 으레 비가 오는 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비가 오지 않는 해엔 곡물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 비오기를 기
다리게 된다. 또한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기쁨
의 눈물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처녀들은 두 별을 보며 절하고 바느질 솜씨가 빨리 익혀지기를 기
원하기도 하며 문사들은 시를 읊기도 한다. 또한 칠석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옷과 책을 벌에 쫓이는데 이는 오랜 옛날의 관습으로써 여름장마를 지나고 나서
축축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말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백종일(百種日)

7月15日을 백종일, 백중일 또는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남녀가 서로 모여 온갖 음식과 여러가지 과일을 갖추어 노래하고 춤추
며 즐겁게 노는데 원주지방에서는 이날 씨름대회, 장치기등 놀이를 즐겼다. 또
한 승려들은 각 사찰에서 재를 올리는데 부처에게 백가지 실과와 나물을 갖추어
공양함으로써 이날 이름을 백종일이라 했다.

●호미씻기

오랜 옛날부터 해마다 이날에 각 부락의 농부들은 제각기 응분의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시냇가나 산밑 나무그늘 밑에 모여앉아 서로얘기를 나누면서 징, 팽과
리, 날날이, 북, 장고등을 치며 춤을추고 노래하며 마음껏 노는데 이것을 호미
씻기라고 한다.

이때는 이미 논밭의 김을 다 맨후라 그해는 호미를 더 쓸일이 없는고로 호미
를 씻어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날은 그 부락에서 그해 농사가 잘된 집을 선정하여 그집 머슴으로
하여금 머슴중의 우두머리로 삼아 그 머슴에게 샷갓을 씌우고 황소에 태운다고

한다. 그러면 선정된 머슴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잘 차려 내어 먹이곤 했다.

●파리불기

7월이 되면 파리가 많이 열리는데 이때 마을 아이들은 다투어 파리열매를 따서는 가운데 오덤을 바늘로 구멍을 내어 껍질이 상하지 않게 살금살금 속을 꺼내 버린 다음 구멍에 공기를 불어넣어 둥글게 한후 입안에 넣고 이로 가만히 누르면 빠드득하는 소리가 누를때마다 계속된다.

이것을 파리분다고 하는데 아직도 번두리 촌락에서는 볼수 있는 풍습이다.

8月

●벌초(伐草)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아 잔디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묘를 손질한다. 이를 벌초라 하는데 봄날 한식때에 묘를 손질하고 한해가 다가는 가을에 다시 묘를 손질한다.

가을이 되면 봄 여름내내 자란 풀이 무성하고 비와 바람에 묘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추석을 앞두고 손질하여 추석 성묘때 묘소가 정결하도록 한다. 지금도 조상의 묘소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 시기에 누구나 손질을 하게된다.

●추석(秋夕)

8월 15일은 우리나라 풍속에 추석 또는 가배(嘉俳), 중추절(仲秋節), 가위, 한가위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함께 큰 행사로 치며 명절로 여긴다.

신라 풍속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행해지는 중요한 명절인데 새 곡식과 과일이 익고 추수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날 오랜만에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 햅쌀떡과 술등으로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새옷으로 갈아입고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그리고 온갖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을 앞세우고 조상들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저녁이 되면 친척과 이웃 또는 집안끼리 모여앉아 여러가지 놀이를 하거나 또는 달을 보기위해 높은 뒷산에 오르기도 하며 장만했던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추석날의 일기로 여러가지 점도 치는데 이날 청명해서 달이 밝아야 좋다고 한다. 추석날 비가 내리면 보리가 흉년이 든다고 믿으며 이날밤 달이 없으면 토끼가 수태를 못하고 메밀은 결실을 못한다고 하며 추석날 구름이 끼어도 그해는

흥년이 든다고 한다.

원주지방에서도 설과 함께 풍성한 명절로 지낸다.

● 추절시식(秋節時食)

추석명절의 시식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햅쌀로 빚은 송편이다.

송편의 속은 밤, 대추, 햅콩, 팥등을 넣고 찰때는 솔잎을 깎다듬 찌며 무우, 호박을 섞어서 시루에다 찐것은 시루떡이다. 또 찹쌀을 찌서 인절미를 하고 찹쌀에 밤을 섞어서 단자도 하는데 토란단자 밤단자도 많이 한다.

술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데 쌀과 누룩을 반죽해서 잘 익힌 다음 체로 걸러 마신다. 또한 숙주나물과 토란국을 곁들이며 신과(新果)로는 대추, 밤, 잣, 배 등이 소반에 가득히 오른다.

9月

● 9日

9月 9日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고 부른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양이란 양수가 겹쳤다는 것이다. 기수(奇數)는 양수이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를 만들어 먹는데 이를 국화전이라 한다. 봄철 진달래 화전과 함께 제절시식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이 국화전은 가을의 미각을 새롭게 한다.

국화전에 국화뿐만 아니라 가을의 맨드라미꽃과 잎을 많이 넣어서 찜어 만든다. 또는 술에다 국화술을 넣어서 국화주를 빚기도 하는데 그향기가 일품이다.

사람들은 메지어 단풍이 든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서 장만해온 술과 음식을 들면서 단풍놀이도 한다. 이때는 청년 농부들도 메를 지어 하루를 즐기는데 문인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어 주흥을 내기도 한다.

요즈음도 이때가 되면 어른들은 가을 야유회라 하여 들과 산을 찾고 아이들은 소풍이라하여 산과 들에서 단풍놀이를 즐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제비들이 강남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며 집안에는 수세미 넝쿨과 박넝쿨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정취를 이룬다. 박과 수세미를 수확할때는 그 넝쿨 밑둥을 베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 향료로도 쓰는데 특히 해수병에 약이 된다하여 노인들에게 권한다.

● 개천절(開天節)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한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따르면 10월 3일 단군께서 천계의 문을 열고 인간세상에 내려왔다고 전한다. 따라서 개천절은 국가기원을 기념하는 날이며 지금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옛적부터 민가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1년중 가장 높은 달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고대사회의 유품이며 농사가 끝나는 수확의 계절에 감사의뜻으로 신께 그해의 신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또한 겨울철이 시작되는 달이어서 입동(立冬)의 날씨를 보아 겨울날씨를 점치는데 저녁에 달이 완전히 지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 그해는 춥지않고 그 반대로 달이 아직 지지 않았는데 날이 새면 그 겨울은 춥다고 하였다.

● 성주제(城主祭)

10월 상달이 되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길일을 택하여 성주께 제사를 지낸다.

성주신은 가내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여 특히 정성을 다하여 햅곡식으로 술과 떡을 빚고 갖가지 과일을 장만하여 성주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주로 가족의 평안을 빌었으며 제주는 주부가 되어 간략하게 지낸다. 지금도 10월이면 이 성주제는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 김 장

겨울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 하며, 이 김장은 입동을 전후해서 일기에 따라 담그는데 대개 배추와 무우를 일기전에 담근다.

재료로는 무, 배추, 파, 마늘, 고춧가루, 소금, 당근, 갓, 생강 그리고 각종 젓갈과 조미료가 있으며 종류로는 통김치, 쌈김치, 깍두기, 속박이, 동치미, 젓국지, 절절이, 채김치, 채깍두기, 찐지등을 들 수 있다.

재료와 종류는 각가정의 생활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김장은 독에 담아 땅속에 묻어두고 겨우내 반찬으로 꺼내먹는다. 아마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누구나 이때 김장을 안하는 집이 없을 것이다.

● 동 지

동지는 1년 24절후중 22에 해당하며 옛적부터 4대명절 중의 하나로 여겨왔

다.

각가정에서는 팔죽을 쑤어먹게 되는데 팔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물에 찹쌀로 단자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넣어서 죽을 쑀다. 이 단자는 새알심 또는 웅시미라 하며 팔죽을 쑤면 우선 먼저 사당에 차례를 지낸다음 방, 마루, 뚝간 같은 데 한그릇씩 떠다놓으며 대문이나 벽에도 수저로 뿌리고 난 후에야 먹는다.

이것은 팔죽이 액을 막고 잡귀를 없애준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며 팔죽을 먹을 때는 나이수대로 웅시미를 먹어야 하며 웅시미를 먹고나면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각가정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12月

● 납 향(臘享)

동지로 부터 세번째 미일(末日)로 납일을 정하며 그해 지은 농사와 형편에 따라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냈다.

납(臘)이란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 선조께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삿상에는 짐승을 잡아 고기를 올려놓는데 이고장에서는 주로 산돼지와 토끼고기를 사용했다.

● 수 세(守歲)

섣달 그믐날 밤은 각가정에서 다락, 마루, 방, 부엌 등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놓으며 잠을 자지않고 밤을 새우는데 이것을 수세라 한다.

환사기 접시에 실을 여러접으로 꼬아 십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환하게 켜놓아 새벽까지 끄지 않는데 이는 집안의 광명(光明)을 얻기 위함이라 한다.

또한 잠을 자지않는데 이날 저녁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모두 세어진다고 전하기 때문이며 어린아이들은 이 얘기를 믿고 잠자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일찍 자는 아이에게는 흰분이나 떡가루를 눈썹에 묻혀놓고는 깨워서 놀리기도 하는데 이 풍습은 각 가정마다 새해 차례 준비를 하면서 흔히 행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원주지방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으나 이고장에서 옛부터 성행하였고 최근까지도 흔히 행해지는 내용만을 간추렸으며 기술한 내용들이 이 고장만의 풍속만은 아니고 도내 어디서고 행해지는 풍속이란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제3장 특산명물(特産名物)

원성군 관내의 특산물로 손꼽을 수 있는 품목은 특별한것이 없으나 각 면별로 조금씩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소초면과 홍업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있는것은 양잠인데 전국적으로 많은 양잠단지가 있지만 이곳에서 나는 누에고치가 상품으로서의 최상급에 진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막면, 부론면, 귀래면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엽연초도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기후와 토질이 엽연초 재배의 최적지로 우수한 황색종만을 생산해 냄으로써 전국 제일의 엽연초 재배 생산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곳에서 재배된 엽연초는 전량 중국, 일본,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호저면에서는 산간지의 재배품목인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어 전국 어느 시장을 가도 으뜸을 차지하며 특히 이곳을 대표할수있는 옷(漆)이 옷단지를 조성 많은량이 채집되며 저(楮)도 값싸게 생산되어 한지(漢紙) 원료로 자처에 공급되고 있다.

참외 오이등 원예작물로는 지정면에서 많은 량이 생산되는데 모두 개량된 현대영농을 실시하여 조기 시장출하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품질과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상인들로 하여금 지정(地正)오이라는 선전과 함께 수요자 들에게 공급되며 시선을 끌게 한다.

부론면에서는 엽연초 땅콩외에 특히 향나무가 많이 자생되는데 수종이 우수하여 부론 향나무라면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있다. 그러나 서울등 전국으로 무리하게 반출되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부론의 촉감이 부드러운 향나무는 부분적으로 서식되고 있는데 옛 법천사로 부터 번식된 것으로 전해진다.

표고생산이 많은 귀래면은 특히 한지를 생산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판부면에서는 양잠과 미곡외에 천마등 약초가 많이 생산되어 약재상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치악산이 있음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추측되는 이고장에 유일하게 신평면에서 농지개량에 필요한 농용석회와 건축자재인 인조석이 생산되어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

이렇듯 뚜렷하게 이고장만의 특산물은 없는 편이지만 각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거나 생산되는 품목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최상품으로서의 진가를 인정받고 있으니 고장의 자랑이라 하겠다.

몇가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초면(所草面)의 양잠(養蠶)

소초면의 누에고치가 전국제일의 우량품으로 진가가 있는데 양잠이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것은 고조선시대 중국에서 가져다 길렀다고 하며 점차 퍼지기 시작한 것이 전국 어디에서나 누에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 전쟁과 식량곤란 인조화학섬유 발달로 말미암아 누에치는 일은 그 열의가 점차 식어갔고 농촌의 부업으로써 근근히 맥을 이어오는 실정이었다. 이렇듯 외면당해 오던 누에고치도 고급 자연생사의 명가와 외화획득의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그 규모는 양상을 달리하였는데 우선 누에치기에 적합한 기온분포를 갖고 있는 소초면이 1966년 정부적인 차원에서 양잠단지로 적극 추진되었고 주민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이제는 명실상부 전국 제일의 우수한 양잠단지며 우량의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발전되었다.

우량의 누에고치를 얻으려면 생육기간 3개월의 누에가 평균기온 12℃ 이상의 기온과 질병예방, 풍성한 뽕잎을 먹어야 하는데 이곳 소초면의 양잠이 이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전국 제일의 누에고치로 진가를 얻을수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누에고치는 춘추잠과 소잠이 있으며 공정을 보면 누에끼기 누에떨기, 자리넓히기, 채반가름, 섶올리기, 고치따기의 순이며, 이렇게 해서 자란 고치는 생사공장으로 들어가 옷감의 원료인 실로 뽑아지게 된다.

특히 우량의 고치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뽕나무를 잘가꾸어 풍성한 잎을 적시 적시에 누에에 공급하여야 하며 누에씨로부터 고치가 될때까지 정성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결국은 우량의 누에고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면민들의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오늘의 전국제일의 누에를 생산하는 발판이라 하겠다. 이렇듯 이고장의 특산물로 대표되는 누에고치는 푸른숲으로 육어진 뽕나무 단지와 함께 계속 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이며 우량의 고치생산처로써 존재할 것이다.

담배재배

원성군내에서 특기할만한 기호작물을 든다면 엽연초 즉 잎담배에 대하여 말해 볼직하다.

여기서 먼저 생산되는 양을 보면 1년을 기준으로 975ha의 면적에 1986t이라는

생산고를 올리고 있으며 또한 돈으로 환산한다면 3조 5억 1천 5백 96만 8천원이라는 엄청난 생산액을 올리고 있는 한편 황색연초로서의 그 질이 우수하여 세계에 수출도 하고 있다.

왜정시대부터 손이닿은 연초재배는 그동안의 많은 종자개량과 함께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옴으로써 그동안 이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종자개량에 대로(大路)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 연초의 생후기간을 알아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약 170일 정도인데 그중 묘상(모종을 키우는 자리) 기간은 50~60일로 비교적 저온에서도 견디어 내기 때문에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냉상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보통 연초를 생산하는 주산지의 평균 기온은 23℃를 들수 있으나 모자리를 옮기는 시기의 강우량은 과다한 편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성군의 토질, 기후, 모든 풍토 조건이 완만하여 많은 생산량을 올리는 반면 많은 인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편이긴 하나 지금으로서는 구애됨없이 연초재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 연초의 용도는 주로 피우는 담배에 사용되며 또한 구충제로서 농약에도 사용된다 하겠다.

또한 이것은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조합에 가입 하여야만 그 재배가 가능하고 어느 누구나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지금은 원주에도 엽연초 공장이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초의 생산액은 더욱 늘어만 갈 전망이다.

강냉이 엿(飴)의 원산지 황골(黃谷)

강냉이 엿(飴) 하면 특산물이라기 보다는 회귀의 종류일 것이다.

옛날부터 엿장수들이 가세를 찢깍 찢깍 소리내며 외우는 말에 울릉도 호박엿, 강원도 강냉이 엿 하며 외쳤다.

이 강원도 강냉이 엿에 산지가 바로 원성군 소초면 홍양리 황골이라는 곳이다. 황골은 치악산 북쪽 비로봉의 서편 밑이 된다.

여기서 강냉이 엿이 유명했던 것은 이 골짜기의 마을은 전답이 거의 없다. 그래서 화전농민이 화전을 일구므로써 강냉이 농사가 주농이다.

그런데 한편 이곳은 치악산의 혜택을 땀 나무가 풍부했다. 그러므로 강냉이로 엿 고는 일이 시작되었고 이 엿이 유명해지자 너도 나도 엿고는 일을 주업으

로 삼다시피 되어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엿을 찢고 주업이 되었다.

6. 25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나오는 엿이 전국으로 팔려 갔으며 황골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엿을 골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변 후부터 원주에 엿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 자연 판로도 판로지만 제조 금지령이 내려졌다. 결국 유명했던 강원도 강병이 엿이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농지개량(農地改良)에 필요한 농용석회(農用石灰)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龍岩里)와 구학리(九鶴里)지역은 석회암(石灰岩) 지대로 농지개량에 필요한 농용석회와 건축자재인 인조석(人造石)이 생산되어 원주지역은 물론 타지방까지도 반출되고 있다.

이 농용석회는 석회질 비료중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은 고토(苦土) 석회인데 이것은 석회와 마찬가지로 토양산성중화의 작용을 하며 마그네슘 결핍 토양에서는 마그네슘 비료로서의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농용석회는 간접비료로 취급되지만 가급태(可給態) 칼슘이 극도로 부족한 토양에는 직접비료로서의 역할도 한다. 즉 산성토양의 개량은 석회의 사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석회에 의한 산도(酸度)의 중화가 제 1 단계 이다.

특히 논에서는 석회를 그 염기성(鹼基性)에 의하여 유기태질소의 일부를 무기화(無機化)시키든가 녹비(綠肥) 시비의 시기에 그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쓰기도 한다.

때문에 처음에는 농민들이 이것을 잘 쓰지를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써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신림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신림에는 원성광업소, 마지광업소, 한국도로마이트광업소, 신림광업소, 부명광업소 등 다섯군데의 광업소가 모두 이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업소들이다.

약간씩의 생산품목은 다르지만 주로 농용석회와 건축용 인조석이고 세멘트 원료도 생산되어 쌍용세멘트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편

천 해 의 자 원 과 보 배

제 1 장 명 승 경 관

제 2 장 희 귀 의 종

제 1 장 명승(名勝) 과 경관(景觀)

우리 원성지역에서 명승과 경관을 말하자면 이미 유적과 유물편에서 거의 언급한바 있으며 특별히 여기서 기술한다면 치악산과 섬강을 들수 있겠다.

산중에 명산으로 꼽히는 치악산이 있으며 푸른강물에 기암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가히 절경을 이루는 섬강이 있다.

봄이면 꽃과 신록이 있고 여름엔 피서지로서 주민보건에 기여하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며 겨울엔 흰눈으로 나무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이 아름다움에 극치를 이루는 곳이 치악산과 섬강이라 하겠다.

이외 유적지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3군데의 사지(寺址)가 있으며 심산 유곡으로 옛 선인들이 자주 찾던 자연경관이 우리 고장에는 많은 것이다.

지금도 휴일이면 휴식처로 많은이가 찾아들고 있는 이 고장의 명승 경관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립공원 치악산중에서도 가장 풍치가 좋은 구룡폭포〉

진귀(眞貴) 명산(名山) 치악산(雉岳山)

원주 동쪽을 바라보면 마치 병풍을 둘러친양 남북으로 비로봉과 남대봉이 있다. 웅대한 양대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비로봉과 남대봉은 일찍부터 동악명산(東岳名山)이라 하여 옛날에는 고승대덕의 수도처가 되었다.

한때는 양길(梁吉)이 궁예(弓裔)같은 큰 뜻을 품은 풍운의 호걸들이 넘나들었고 그런가하면 함단(哈丹)의 무리가 원주를 침입했을때 원충갑(元冲甲)은 이 산 중에서 싸워 적을 몰아냈고 왜적이 침입하여 대 격전장이 되는 등 유사시에는 원주 수호에 방패가 되었던 산이었다.

최근에는 관광지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이 바로 치악산(雉岳山)이다. 애초에는 적악산(赤岳山)이었다가 평의 보은 전설과 같이 치악산이 되었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 더욱 유명해진 것은 신문학소설가 이인직(李仁植)이 쓴 「치악산」이라는 소설이 나오기 부터다. 이 소설의 한 줄거리에는 원주 치악산 밑에 단구(丹邱) 마을에 홍판서(洪判書)댁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된 책에는 치악산이 십산유곡으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험준한 산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와 같이 높고 크고 깊고 험준했던 산이기에 또한 역사도 많이 간직한 산이기도 하다.

이 산은 북단에 비로봉(시루봉)이 해발 1278m의 고봉이고 그 남단에는 1187m의 남대봉이 주봉이 되어 이 양대봉 사이에는 24km의 주능선에 이어서 동서로 켜켜이 뻗어 내린 계곡은 천태만상의 기암 괴석들이 서로 시새움이라도 하는듯 솟아 있다.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이 모두 철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이산에는 봄이면 진달래, 철쭉 등으로 산을 물들게 하고 이어서 피어나는 산목련 또한 향기롭다.

가을이면 5색이 영농하게 물드는 단풍 겨울이면 또한 설화(雪花)가 불만하다. 뿐만 아니라 천태만상의 봉우리 밑으로 깔려 있는 흰구름 사이로 봉긋 봉긋 솟아 오른 봉은 지평선 저 너머에 섬들을 연상케 한다.

계곡과 폭포로 이어지는 청냉한 맑은 물은 차갑다기 보다는 뼈가 저릴 정도로 시원함을 느껴 등산객의 갈증을 덜어 주기도 한다. 물소리와 산새들의 합창소리에 산을 찾는 사람에게서는 피곤함을 잊게해준다.

산상에서 바라보면 서북쪽 멀리에서 용문산(龍門山)이 눈앞에 아롱거리며 서남간으로는 충주비료공장이 바라다 보이고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의 장맥이 남북으로 한일자를 그었고 산밑으로는 산을 묶으거나 하는듯 섬강과 남한강이 떠를 두르고 있다.

남대봉을 중심으로 평의 보은지라는 상원사(上院寺)는 수많은 전설을 안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세존대(世尊臺), 만경대(萬景臺), 문바위, 아들바위 등 유래가 깊은 경관이 있는가 하면 영원산성(領願山城), 해미산성(海尾山城), 금두산성(金頭山城) 등 전란사(戰亂史)가 담긴 유서깊은 곳에 또한 지하에는 천연동굴(아직 미개발지)이 숨을 쉬고 있다. 북원적(北原賊) 양길(梁吉)이 이곳을 본거지로 하고 궁예(弓裔)를 맞아드려 병마(兵馬)를 정돈하였다는 성남사(城南寺)도 이곳에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며 웅지(雄志)를 품었던 영웅호걸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이 치악산!

한편, 북단의 시루봉을 중심으로는 일찍부터 도승들이 수도하던 구룡사(龜龍寺)를 비롯하여 태종(太宗)의 스승인 운곡(耘谷)선생을 찾아 이곳 치악산까지 넘어왔으나 불사이군의 군은 정절을 끝까지 지키려는 운곡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생긴 애처로운 지명 태종대(太宗臺)·주필대(駐畢臺)·노고소(老姑沼)·횡지암(橫指岩)·병암(屏岩)·원통재·대왕재·화시내 등 많은 지명이 생긴 것도 운곡의 군은 정절에 연유된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세련폭포·사다리병창·창대바위·투구봉·도끼봉 등의 경관을 자랑할 지명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구룡계곡에는 많은 노목들이 울창하여 한때는 궁궐을 짓는데만 쓰기 위하여 황장목으로 정하고 황장금표(黃腸禁標)까지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의상조사(義湘祖師)의 발자취가 안 미친 곳이 없는 치악산에는 입석사(立石寺)에 의상대가 있고 쥐네미재, 베네미재 등 의상대사와의 얽힌 전설이 많다. 그러기에 치악산하에 6백여 사찰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 있는 사지(寺址)만도 백여개는 된다.

아름든 치악산은 동악(東岳)에 명산이다. 약수도 많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로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회회공주가 이곳 동악에 와서 백일 기도로 뇌점병이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환궁하니 부왕이 좋아라고 지어 주었다는 국향사(國享寺)의 유래 또한 거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때 멸종위기에까지 갔던 각종 짐승들도 지금은 자연보호 수렵금지 등으로 이곳 저곳에 서식하고 번식되어 간다. 특히 멧돼지·산양·노루 등은 사람들의 발길이 안닿는 곳에서는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또한가지 치악산을 10m 더 높여논 사람도 있다. 주봉인 비로봉에다 10m 높이에 돌탑을 나란히 3개를 세웠다. 용진수(龍振秀)라는 사람이 혼자서 10년을 걸려 쌓아올린 돌탑이다. 3도(道)가 보이는 곳에 3도의 돌로 3년에 한번씩 세번을 쌓아야 했다는 것이 용씨의 말이었고 또한 사실이 그와 같다.

신화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탑이 완성된 그해 그는 신의 부름을 받고 타계했다. 이렇듯 이 고장 원주에서 대표라고 할수 있는 치악산은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개발되고 있거니와 벌써부터 원거리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중앙선 철도가 전철화되었고 영동고속도로가 개설된 후 부터는 더욱 많은 관광객으로 구룡계곡은 붐비고 있다.

또한 해변보다는 수목이 우거진 심산유곡이 피서에도 좋다고 피서인파까지 몰려들고 있다.

앞으로 도립공원으로서의 완전 개발이 되었을때 치악산은 더욱 진귀 명산으로 널리 이름날 것을 기대한다.

섬강(蟾江)의 위용

섬강(蟾江)은 장강(長江)은 아니지만 유서깊은 유명한 강이다. 원주하면 치악산, 치악산 하면 섬강이라 할수 있듯이 이것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섬강은 원성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치악산 보다 섬강을 먼저 찾았다고 한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교통이 불편하던 옛날에는 섬강이야 말로 영서에서 영동을 잇는 대로(大路)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송강 정철(松江 鄭澈)이 「한수를 돌아들어 섬강은 어디매뇨. 치악은 여기로다」라고 읊은 것도 뱃길(船便)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섬강(蟾江)은 횡성(橫城)의 태기산(泰崎山)에서부터 시류(始流)하여 서남간(西南間)으로 흐르면서 치악산(雉岳山) 북편(北便) 물을 받으면서 횡성 앞을 거쳐 소초면 의관리(所草面 衣冠里)로 들어와서 고산리(高山里) 종포(終浦)에서 치악산과 백운산(白雲山) 서편(西便) 물을 받으면서 서쪽으로 흘러 지정면 간현리(地正面 艮峴里)에 와서는 원주, 원성, 횡성지방의 물과 경기도(京畿道) 땅의 양동, 지평등지의 물까지 합류되어 큰 강이 형성된다.

여기서 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문막(文幕)을 거쳐 부론면 흥호리(富論面 興湖里)에서 남한강(南漢江)과 합류된다.

이와같이 시류 지점에서 합류지점까지는 기암절벽의 산곡(山谷)과 백운(白雲)같은 백사장(白沙場)의 넓은 평야(平野)를 이루면서 2백리(약 80km)의 산간 계곡을 두르면서 주야장천 흐르고 있다.

그 사이에는 많은 비화(秘話) 애사(哀史)등 유서가 담뿍 담겨 있을뿐 아니라 많은 시인 묵객(詩人 墨客)들이 다녀간 흔적도 많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천하를

주름 잡으려던 영웅호걸(英雄豪傑)들의 발자취가 연변에 쌓여 있고 명산대천(名山 大川)을 찾아 명당(名堂)의 산소자리 또는 집터를 찾던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의 발걸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와같은 장강의 이름을 섬강이라고 한 연유는 무엇일까? 한번 섬강이라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하자.

2백리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 바로 지정면 간현리(地正面 良峴里)에 간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강변에서 약 3백미터 동쪽으로 병암(屏岩)이라는 바위산이 있다. 이 병암이 있는 강 건너에는 점촌(도요지)이라는 두집 마을이 있다. 병암이란 이곳 바위가 꼭 병풍을 둘러친 모양으로 동·남·서(東·南·西)편은 깎아세운듯 한 벽석 밑은 사방 5미터 가량의 반석이 깔려 있으며 이 반석 역시 북쪽으로는 10미터 정도의 절벽이고 그 밑은 강물이 흐른다. 이와같은 병암 동남쪽으로 기암 절벽의 바위가 겹겹이 층대를 이루면서 약 50미터 올라간다. 물론 사람은 오르지 못할 벼루(위험한 벼랑)의 바위산이다.

이 바위 위에는 또 하나의 바위가 올라 앉아 있다. 이 바위가 바로 「두꺼비」 바위란다.

그것은 먼저 말한 강 건너 점촌 마을에서 건너다 보면 조금도 다름 없는 큰두꺼비가 올라 앉아 강물을 내려다 보는 것과 흡사하다. 이 바위가 바로 섬강이라는 강 이름을 만들게 한 것이다. 섬(蟾)자가 바로 두꺼비 섬자다.

두꺼비란 무미류(無尾類) 즉, 꼬리가 없는 두꺼비과의 양서(兩棲)동물이다. 몸 크기는 대개 약 12cm의 길이며 살과 가죽이 두껍고 온몸에 우툴두툴한 것이 많이 솟았으며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몸의 2.5배나 길고 등은 흙갈색 또는 황갈색인데 검은빛 대리석 모양의 아롱진 무늬가 있다. (생김새는 개구리와 비슷하다) 낮에는 돌 밑 혹은, 풀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때는 나와서 잔 벌레를 잡아 먹는다. 살가죽에는 분비되는 산액(酸液)이 있는데 독(毒)이 있어 대개 잘못 만지면 음 이 오른다고 전한다.

이와같이 「두꺼비」 바위로 인해서 지어진 섬강(蟾江)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리어져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곳 병암에는 주먹같은 큰 글씨로 「屏岩」이라는 글씨가 병풍 동쪽면 귀퉁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 병암이라는 글씨는 이조명종(李祖明宗) 때의 인물인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菡) 선생이 쓰고 조각은 당대의 판서를 지낸 이희(李璽) 간옹(艮翁)이 하였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덕수이씨(德水李氏)의 중시조인택당(宅堂) 선생이 써서 조각한 것이라고도 한다.

한편 그 강 건너에는 사기를 굽던 사기점마을이라는 「점말」 동네가 있다. 언제부터 이곳이 도요지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여기는 두집 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거 역시 고증이 될만한 자료는 못되고 또한 두꺼비 바위에서 약 2백미터 내려온 현 간현유원지 철교 건너에 나란히 다섯개의 암벽으로 이루어진 봉이 있다.

이 첫봉 벼랑 밑의 암벽에 문연동천(汶淵洞天)이라고 큰 글자로 새겨놓은 것이 있다. 지금은 강물 속에 있어 볼수는 없지만 몹시 가물어서 물이 빠지면 이 「문연동천」이 들어나기도 하나 좀체로 보기가 어렵다. 이것도 역시 병암과 같이 누구의 글씨였느냐가 수수께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5백여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깃들여져 있으니 「섬강」이라는 강이름도 언제부터 섬강이라고 했는지 알길이 없다. 다만 지금도 변함없이 앉아 있는 두꺼비 바위가 그 전설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산유곡(深山幽谷) 구룡계곡(龜龍溪谷)

치악산(雉岳山) 북단에 위치한 비로봉(일명:시루봉)에서 서북간으로 흘러 내린 계곡과 계곡에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삐죽 삐죽 솟구쳐 있는 계곡을 따라서 10여km 내려 오면 수목이 울창하고 여러 갈래의 산곡간에서 흘러 내리는 맑은 물이 풍부한 계곡이 바로 구룡골이다.

이 구룡골에는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룡사(龜龍寺)가 자리하고 있다. 치악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구룡사는 아홉구(九)자와 거북구(龜)자를 번갈아 가며 쓰고 있다(구룡사의 유래는 전설편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구룡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보광루가 있는데 보광루에 깔려 있는 명석은 우리 국내에서 제일 큰 것으로 유명하고 일주문 또한 가경이며 구룡소(沼)를 비롯 크고 작은 폭포며 국수가락과도 같은 산골짜기 등 웅장하며 장엄하기만 하다.

입구에서부터 울창하게 우거진 노송숲이 모두가 치악산을 대표할만한 신기스러운 계곡이다.

등으로 솟아 있는 천지봉과 비로봉의 양대봉은 1200m 를 넘는 높은 봉이다. 여기에는 또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황장금표(黃腸禁標)가 있다. 그러기에 인근에서 관광객이 모여 들고 오는이 마다 한마디씩 남기고 가는말 과연 또 오고 싶구나.

이것이 치악산을 대표하는 구룡계곡이며 강원 도립공원이다.

옥산동대(玉山東臺)

이 옥산동대(玉山東臺)는 원성군 호저면 옥산리(原城郡 好楮面 玉山里) 섬강(蟾江) 유역에 있다. 「옥산동대」라고 하게 된 것은 옥산리 동쪽에 있다는 데서 유래된다.

섬강의 맑은 물이 구비쳐 흐르는 강변에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동산으로서 산상(山上)에는 오랜세월 석벽 위에서 풍상(風霜)에 시달리며 자란 노송(老松)들이 우거져 풍치를 이루었고 동북쪽으로는 기름진 옥산이지만 서남쪽은 기암절벽의 벼루를 이루어 그 벼루 밑으로 섬강의 물줄기가 들이받아 깊은 소(沼)를 이루고 있다.

원주(原州)에서 10여키로 밖에 안 되어 옛부터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즐겨 찾아 시흥에 도취되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유흥객들이 찾아들어 하루의 강바람을 쏘이며 피서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동대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원주에서 누대를 살고 있는 문충록에서도 이 옥산동대에서 지어진 시구(詩句)를 엿볼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동대의 아름다움을 알수 있다. 원성군(原城郡) 내의 유적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옛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간현(艮峴)의 병풍바위와 문연동천(汶淵洞天)

어느 지방이고 전설이 서려있듯 암벽(岩壁)이나 지명(地名)이 있게 마련이다.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原城郡地正面良峴里)도 예외는 아닌상 싶다.

우선 먼저 간현이라는 지명부터가 그러하다. 원래 「간재」라고 했다. 간재는간현(良峴)이다. 「현」자가 「재」로 통한다. 그래서 쓰기는 간현으로 쓰고 부르기는 간재라고 했다. 이곳이 간좌(艮坐=간방을 등진 자리) 곤향(坤向=8방의 하나로 서 남방) 판이어서 간현(良峴)이라 했다. 간재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 앞에는 섬강(蟾江)의 중심부가 되며 강건너에는 기암절벽으로 천태만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소금산(小金山)의 5형제봉이 있어 강물과 산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까닭에 옛 선인(先人)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조때 재상을 지낸 청백리(淸白吏) 이회(李璽) 선생이 판직을 그만두고 산수(山水)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간옹(艮翁)이라는 별호까지 갖게 되었다.

또한 병암(屏岩)이라는 바위가 있다.

실은 「병풍바위」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간옹이 이곳에 와서부터 많은 선비 학자들이 오게 되었고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선생도 이때부터 자주 찾아 와서 간옹과 이 병풍바위에서 시사도 이야기 하며 세월을 지냈는데 이때 이 바위에다가 병암(屏岩)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 놓았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곳을 병암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많은 노리꾼들이 즐겨 찾고있다.

注: 간재 앞 강 건너 5 형제봉 좌측으로 첫째 봉의 강쪽으로는 절벽인데 그 절벽 물속 암벽에다 문연동천(汶淵洞天)이라고 큰글씨로 4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곳을 문연동천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곳은 지금 두어질 물속에 있어서 직접 볼수는 없으나 잠수해 들어가면 볼수 있다. 그러나 이곳 수심이 깊을 뿐만아니라 물이 빙빙 돌아서 위험하게 되어 있어 함부로 들어 갈수도 없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이곳에 이런 글자를 새겨 놓았을까 두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병암과 같이 토정선생과 간옹의 유작(遺作)이라고도 하고 또 한가지는 덕수(德水)이씨(李氏)의 중시조인 태당(宅堂)선생의 유작이라고도 한다.

좌우간 누구의 유작이던 원래 물속에 들어가서 제작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토정이나 간옹은 4백여년전 사람이다. 그렇다면 4백년전의 강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같았겠느냐가 바로 이 문연동천이라는 글과 연관이 된다고 하겠다.

4백년전의 강줄기는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문연동천은 강변에 있는 놀기 좋은 바위밑이었으리라.

하상이 높아지면서 따라서 물결도 변하고 절벽쪽으로 파고 들었을 것이다. 수없이 있었던 홍수로 말미암아 토사가 내려밀리므로써 하상이 높아지매 자연적으로 물줄기도 변화가 왔을 것이다. 그러니 원래의 강물은 문연동천보다 아래쪽에 있었다고 하겠고 강변 벼랑 밑 놀기 좋은 곳이어서 토정선생과 간옹선생이 써서 조각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근자에 와서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 들어 원성군에서는 유원지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희귀(稀貴) 식물대(植物帶) 수림지(樹林地)

이 수림지는 신림면(神林面) 소재지에서 동북방 4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지적(地積) 157평, 902평, 816평의 둘레를 가진 수풀림이며 이곳에는 수백년 묵은 노송(老松)이 군림(群林)하고 있어 일명 신림(神林)이라고도 호칭한다.

노송으로 이루어진 이 송림은 소나무 이외에도 전나무와 들참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죽동나무, 들매나무, 귀동나무, 산들매나무, 느릅나무등 20여종의 수종(樹種)이 울창하여 나무와 나무 사이가 가지로 엮여 있어 눈이나 비가 와도 나무밀이 좀처럼 젖지 않는다.

또한 이곳에는 옛부터 이숲을 수호하는 수호신(守護神)을 모신 성황당(城隍堂)이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허물어졌으며 수목들도 동란 이후 토벌(盜伐)로 인하여 많은 노목이 없어지고 지금은 성황당이 있던 주변에 수십그루의 노송이 있을 뿐이다.

일정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가치가 없게 되었다.

회전터널(또아리굴)과 천연동굴

관부면 금대리(板富面 金垈里)에 있는 것으로 회전터널을 또아리굴 또는 금대터널로 부르고 있는데 길이가 무려 1970m로 또아리처럼 원형을 그려 한바퀴 돌아 치악산을 뚫고 신림방면으로 나가다가 다시 치악터널을 맞게 되는데 이 터널 역시 3천 6백 50m로 10리굴 이라 부른다.

금대터널입구 50m앞에는 기라천철교 또는 백척철교라 부르는 철교가 있는데 길이 227m, 높이 33m의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또아리굴 속에는 터널안에 천연동굴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이 천연동굴은 신비스러운 만치의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이 매달려 있으며 속으로 들어 갈수록 작은 연못과 각종 형태의 종류석과 넓은 광장등이 나타나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나 철교와 철로가 위치한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열두봉의 장엄한 미륵산(彌勒山)과 황산골

치악산에 버금가는 백운산(白雲山)의 지맥(枝脈)인 미륵산(彌勒山)은 귀래면 귀래리(貴來面 貴來里)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이 산은 선녀봉을 비롯한 열두봉의 장엄한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으로 주봉인 미륵봉(彌勒峰)에는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 불상이 음양각으로 조각되어 약 4「키로」전방에서야 확인되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있음으로 미륵산이라고 부르게 된 산인데 여기에는 황산골(黃山谷)이라는 골짜기가 또한 원시림(原始林)을 방불케 한다. 약 3「키로」의 짧은 계곡이지만 선녀봉을 비롯한 열두봉의 이름 모를 봉우리를 바라보며 암벽과 암벽 사이로 흐

르는 맑은 물 소리를 들어가며 산을 오르면 황산사(黃山寺)라는 옛 절터가 있고 이 절터에는 근대에 재건된 석조건물의 아담한 모습과 옛 절터에서 발굴된 신라 5층석탑과 부도탑들이 눈에 뜨인다. 법당 뒤에는 미륵산의 주봉이 깎아 세운듯 우뚝하게 솟아있는데 동쪽을 향한 산상 암벽에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조각 되어있다.

이 미륵상은 국내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일컬어 온다. 주봉에 올라서면 열두봉의 봉우리가 한 능선에 웅기 종기 솟아 있으며 이 모두의 봉우리가 암벽으로 이루어져 등산객들의 눈길을 끌게 한다.

때로는 아기 자기한 암벽의 건널목이 있는가 하면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의 가파른 암벽을 걸기도 해야 한다.

이 미륵산은 해발 800m밖에 안되지만 동쪽으로 웅대한 백운산이 솟구쳐 보이고 서편으로는 남한강의 유유했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현재 하루 코스의 등산로로서는 더이상 없다고하며 많은 등산객과 거대한 미륵상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관광객으로 황산곶은 붐비고 있으며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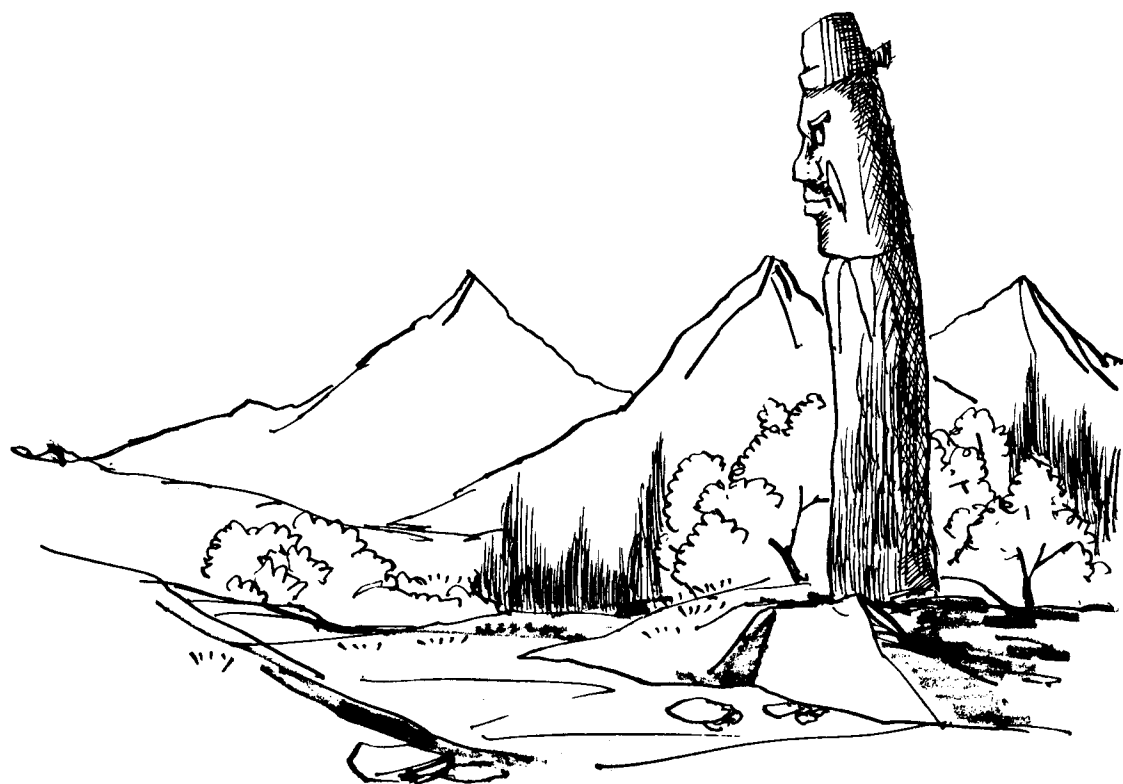
평천(平川)과 종포(終浦)

원주시내에서 약 12「km」 서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강변을 피내라고 일컫고 있다. 원주에서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이곳 자연 경관을 찾아오는 인파는 날이 갈수록 늘고있다.

그러나 이곳은 겨울 한철은 별로 찾는 사람이 없다. 이곳의 경관은 우선 섬강의 맑은 물이며 원주에서 흐르는 원주천과 섬강과의 합수지점이 되며 유명한 옥산동태가 멀리 동북간으로 바라다 보인다. 이곳을 옛 부터 종포(終浦)라고 불러왔으며 이 종포라는 말에는 두가지 설이있는데 섬강으로 잘리어 와서 마지막 포구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더 이상 올라가서상선(商船)들이 이 포구(浦口)에서 짐을 싣고 풀고 하기때문에 마지막 항구 즉 종포라고하며 또 하나의 설인즉 피내(平川)다리 건너의 산이 흡사 큰 범종을 꺼꾸로 얹어놓은것 같다고 해서 종포라고 했다는 설이 있으나 전자의 이론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듣기도 이상한 말구리 바위라는 암석의 벼랑이 있는데 이곳에는 임진왜란당시李大樹(李大樹)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어느날 왜병부대의 척후병이 말을타고 그 벼랑을 지나가는 것을 강 이쪽에서 말 앞쪽지를 향해서 활 시위를 놓는 순간 말 두필이 모두 쏘어져서

허둥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후속부대가 뒤에서 척후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지를 잃으니까 다시 몇 사람의 선발대를 보냈다 마침 이대수는 강이쪽에서 숨어서 건너다 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왜병이 바위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한발의 화살을 쏘았다. 또 왜병은 말과 함께 굴러 떨어졌고 그것을 본 일군(日軍)은 부근에 복병이 있음을 알고 갈가마귀 떼와도 같이 물러나와 피내 일대를 뒤지는 소동이 있었으나 결국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바위를 말이 굴러 떨어졌다고 해서 말구리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산수가 아름다워 찾는 이들이 많으나 별다른 큰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제2장 희귀(稀貴)의 종(種)

원성군 지역은 강원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한대(寒帶)와 온대(溫帶)의 동식물이 함께 번식하는 곳이다.

원성군은 치악산과 백운산을 중심으로 고산식물과 야산식물등 각종 동식물이 동시에 생장 서식하고 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일시 멸종 위기에 까지 다다른바 있었으나 휴전후 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책으로써 적극적인 산림보호에 힘입어 산림이 녹화되는 한편 자연보호 운동으로 많은 야생동물을 비롯한 식물이 번식 성장하여 위기를 벗어났을뿐 아니라 산림은 무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지방에 없는 희귀한 종류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원성군 내에서 구태여 찾아 본다면 「웃나무」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을뿐 아니라 질이 우수해서 칠(漆)의 생산이 이지방에 희귀의 종류가 될것이고 강냉이 엿(飴)이 그중에 또 하나가 될것이다.

한편 섬강(蟾江)과 남한강(南漢江)으로 둘러 쌓인 곳이기는 하지만 특이한 어류는 없고 약간의 황쏘가리가 있기는 하나 일정한 번식처는 없다. 다만 신림면 지역이 석회암석지대로 농지 개량에 필요한 농용석회와 건축자재인 인조석이 생산될 뿐이다.

이것은 특산명물 편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부론의 향나무와 웃나무등 몇 가지만 기록에 남겨 둔다.

●관상수(觀賞樹) 향(香)나무

원성군 부론면(富論面)이 원산지로 알려진 이 향(香)나무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산과 들에 야생목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종이 다른 향나무와 약간 닮아 우수한 편으로 부른 향나무라면 일제시대 때도 알아주었다. 근간에 와서 또다시 전국에 알려지자 서울등 전국으로 반출돼 나가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멸종의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는 촉감이 부드럽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래의 사과 능금나무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일륜골(一輪谷) 영원사(領原寺) 앞 정원에 2백년은 되었다는 「능금나무」가 한그루 있다. 이 나무는 원래 고목이어서 옆 가지는 별로 없고 앙상한 몇개의 가지에 해마다 능금은 많이 열린다. 가을이 되면 짙은 분홍빛으로 물들며 성숙하게 된다. 맛은 홍옥의 맛과 같지만 향기는 더욱 좋다. 전해지는 말로는 타지방에는 별로 없는 희귀한 과수의 일종이라고 한다.

영원사라는 사찰이 몇번 소실되어 없어졌다가도 이나무가 표적이 되어 재건하기도 했다는 희귀한 나무다.

●나전칠기(漆器)와 옷(漆)나무

원성군 지정면에 차면(叉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논둑 밭둑은 물론 집 뒷뜰에도 온통 옷나무와 산이고 들이고 간에 옷나무로 꽉 차 있다. 원래 원주의 칠이 유명했다는 것도 원래의 산지는 이곳 차면이었다고 한다.

왜정때에 일본사람들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칠(漆)의 품질 조사를 한 결과 원주에서 생산되는 칠이 가장 좋았고 그중에서도 이곳 차면이의 칠이 제일 좋았다. 이것은 풍토관계라고 하여 그후 이곳에 옷나무 재배를 특별히 권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연유로 지금도 다른 곳 보다는 칠의 생산이 많이 되고 또한 칠도 으뜸이라고 한다.

제 3 장 유서 (由緒) 깊은 나무

정부에서 보호수 육성책으로 1973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각 지역의 1백년 이상된 나무를 조사 보호수로 지정 보호토록 한 것인데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는 외에 도·시·군 및 동과 마을까지 지정했다.

5백년 이상은 도 나무, 3백년 이상은 시 나무, 2백년 이상은 동 나무, 1백년 이상은 마을 나무로 지정 보호하며 지정된 나무에는 나무 이름과 소재지, 수령과 높이, 둘레 등을 기록하여 나무에 부착하는 한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했다.

원성 관내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은행나무 1본과 도지방 나무로 은행나무·느티나무 등 2종으로 3본이 있으며 군 나무로는 느티나무·은행나무·소나무·느릅나무·신사나무 등 5종으로 23본이 있다.

면 나무로는 소나무·느티나무·참나무·갈참나무·매차나무·느릅나무 등 6종에 26본이 있고 마을 나무로는 느티나무·참나무·향나무·은행나무·전나무·오리나무·굴참나무·소나무·시무나무 등 9종으로 50본이 있다.

특히 이렇게 오래된 거목수나 노목수는 마을이나 동리에서 하나의 믿음에 바탕이 되어 왔는데 이 고장에서는 대개 무병을 기원하며 풍년·득남·재앙 등을 빌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이 고장의 유서 깊은 나무를 소개해 보자.



〈치악산의 풍치림〉

●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제167호 반계리(礪溪里) 은행(銀杏)나무

이 은행나무는 문막면 반계리(文幕面 礪溪里) 경강(京江) 국도변에 위치한 노목으로써 높이 23m 둘레 14.4m 면적 100평의 수령 1,0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거목이다.

이 나무는 옛날 한 도사가 이곳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는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간 것이 성장한 것으로 1929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현지 조사후 거목대장에 기재하고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했다.

용문사(龍門寺) 은행나무에 버금간다고 할수 있는 이 나무는 예전부터 나무가 일시에 단풍이 들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도 이를 믿는 사람은 많으며 또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이 언제 어떻게 지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시에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기함을 느끼게 한다.

약 200년전 화재를 당했었으나 소생하여 현재는 웅장하리만치 무성하게 잘자라고 있다.

● 흥업면(興業面)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279호 흥업면 느티나무 이나무의 나이는 확실치 않으나 나무의 높이는 22m 줄기의 둘레 직경 7.6m 지하고 2.0m 근원주 9.8m의 노고수목이다.

이 나무는 흥업면 대안리 금산 마을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 노인에 의하면 수령은 약 350년 정도라고 전하며 현재 이 나무는 원성군에서 제일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 신림면(神林面) 느릅나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구학리(九鶴里)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거목수로써 높이 30m, 둘레 4m, 차지면적 140m²의 수령 3백년된 나무이다.

● 호저면(好楮面) 은행나무

강원도 원성군 호저면 옥산리(玉山里) 절경속에 위치한 거목수로써 높이 20m, 둘레 10m, 차지면적 480m²의 수령 6백년되는 나무이다.

● 소초면(所草面) 은행나무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교항리(橋項里)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거목수로써 높이 16m, 둘레 8.1m, 차지면적 350m²의 수령 430년 되는 나무이다.

● 부론면(富論面) 느티나무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鼎山里) 옛 거둔사지에 위치한 거목수로써 높이 15m, 둘레 4m, 차지면적 300m²로 수령 1,000년 되는 거대한 나무이다.

● 판부면(板富面) 소나무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 2리(金垈二里) 야산에 위치한 거목수로써 높이 7m 둘레 2.5m, 차지면적 100m²의 수령 300년된 나무이다.

● 지정면(地正面) 느티나무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安昌里) 연안김씨 사당옆에 있는 거목수로써 높이가 15m, 둘레 1.5m, 차지면적 120m²의 수령 4백30년 되는 나무이다.

연안김씨 김제남의 딸로 인목대비가 된 왕후가 태어난 곳이며 경치가 좋고 이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의 이 나무인데 2그루 중 1그루는 왜놈들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현재는 1그루 뿐으로 상태는 양호하며 잘 자라고 있다.

● 지정면(地平面) 느티나무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보통리(普通里) 마을 한복판에 있는 거목수로 높이 14m 둘레 1.5m, 차지면적 140m²의 수령 6백년된 나무이다.

이 나무는 시국이 안정치 못하거나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가지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최근에도 시국이 안정치 못하면 가지가 부러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나무의 상태는 양호하며 거목으로써 잘 보호되고 있다.

● 판부면(板富面) 갈참나무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 2리(金垈二里) 벌판 한가운데 위치한 회귀목으로 높이 17m, 둘레 1.5m, 차지면적 180m²의 수령 2백 50년 되는 나무이다.

● 신림면(神林面) 매차나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龍岩里) 밭가운데 위치한 회귀목으로 높이 25m, 둘레 2.5m, , 차지면적 140m²의 수령 2백 20년 되는 나무이다.

1850년부터 이마을에서 나무에 서낭당을 세우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한해나 풍수시에도 이 나무에 빌어 풍수해를 방지한다고 믿고 있다.

●신림면(神林面) 앞갈나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성남리(城南里) 상원사 경내 대웅전 앞에 위치한 거목으로 높이 9m, 둘레 1.2m, 차지면적 50m²로 수령 4백 90년 되는 희귀목이다.

최근까지도 계수나무로 알려져 지정보호되고 있었으나 서울대학교 거목 조사단에 조사결과 「앞갈나무」로 판명되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이 나무는 신라 말기 무학대사가 상원사를 창건한 후 절앞에 사찰전립 기념으로 심은 것이라 전해지는데 일설에는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쏘아 놓은 것이라고도 전한다. 상태는 양호하며 나무가 위치한 바로 밑이 벼랑이라 보는이로 하여금 운치를 느끼게 한다.

●신림면(神林面) 삼사나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성남리(城南里) 615 상원골로 향하는 길옆에 위치한 진귀목으로 높이 6m, 둘레 1m, 차지면적 80m²의 수령 3백년 되는 나무이다.

●성황림(城隍林)

이 성황림(城隍林)은 신림면 소재지에서 6km 동북방 성남(城南) 계곡에 있는 것으로 지적(地積) 3정, 5정의 넓이를 차지하는 수림이며 이곳에는 고산식물(高山植物)에서부터 야산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초식물(草植物)이 서식하고 있어 학계의 큰 관심이 되어 왔다.

일정때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나 현재는 많은 초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

서울 등 각 대학에서 연구팀들이 초식물 표본 채집을 내려와 조사하는 이곳에는 초식물 이외에도 각종 조류(鳥類)들이 서식하고 있어 조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어 왔으나 관리가 소홀하고 서식되던 초식물이 멸종을 하게되자 1980년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 취소되었다.

원성군 노거수 현황

수종	소재지	수령	둘레	높이	차지면적	유형	수목전국 일람번호	비고
느티나무	소초면 장양리 875	350	4.8	23	300	거수	371	
은행나무	소초면 교항리 2	350	6	50	350	거수	372	
느티나무	문막면 후용리 501	300	4.9	20	70	거수	375	
느티나무	문막면 건동리 854	350	5.5	30	300	거수	376	
느티나무	문막면 건동리 241	300	4.5	12	130	노목	377	
느티나무	문막면 건동리 104	300	6	18	130	노목	378	
느티나무	문막면 포진리 640	300	5	12	250	노목	379	

느티나무	부론면 홍호리	300	7	20	360	거수	380
느티나무	부론면 단강리	350	4	17	300	거수	381
느티나무	홍업면 사제리 봉내	300	3.4	25	200	거수	382
은행나무	홍업면 대안리 은행정	350	6	30	300	거수	383
느티나무	홍업면 매지 3리	370	5.4	40	250	거수	388
느티나무	홍업면 대안리 하해삼	300	4	30	200	거수	390
느티나무	홍업면 대안리 상해삼	350	4	25	200	거수	391
느티나무	홍업면 대안리 금산	350	6	25	300	거수	392
느티나무	판부면 서곡리	350	4	15	270	거수	394
소나무	판부면 금대 2리	300	2.5	7	100	거수	395
느릅나무	신림면 구학리	300	4	30	140	거수	397
소나무	소초면 학곡리	210	1.5	25	180	노목	593
느티나무	소초면 교항리	250	1.5	20	60	거수	594
느티나무	소초면 평장 2	210	1.5	15	120	거수	595
느티나무	소초면 평장리	205	1.5	21	120	거수	596
느티나무	소초면 수암리 2	290	1.5	21	145	거수	597
느티나무	소초면 장양리	270	1.5	19	150	거수	598
느티나무	호저면 대덕리 247	290	1	20	170	거수	600
느티나무	문막면 문막 2리	200	1	15	100	거수	601
느티나무	문막면 전동리 329	210	1.5	20	210	거수	602
느티나무	문막면 전동리 467	250	1.5	10	210	거수	603
느티나무	문막면 반제리 664	250	1.5	10	150	거수	604
느티나무	문막면 후용리 601	200	1.5	20	120	거수	605
느티나무	문막면 전동리 51	200	1.5	18	100	거수	606
느티나무	문막면 비두리 505	250	1.5	15	100	노목	607
느티나무	문막면 포진리 174	200	1.5	18	100	거수	608
느티나무	문막면 궁촌 2567	200	1	17	100	거수	609
느티나무	문막면 궁촌 1147	250	1	15	150	거수	610
느티나무	귀래면 주포리	200	2	15	135	거수	611
느티나무	홍업면 사제리 골말	200	1.5	35	300	거수	613
느티나무	판부면 서곡 2리	250	2	32	160	노목	615
참나무	판부면 금대 1리	220	1.5	29	170	거수	616
느릅나무	신림면 구학리	200	1.5	30	350	거수	620

총

람

인 물 (人 物)

유 적 (遺 蹟)

●인 물 (人物)

인명 (人名)	생 애 (生涯)와 행 적 (行蹟)
<p>지 광 국 사 (智 光 國 師) 984~1067</p>	<p>자는 거룡(巨龍), 성은 원(元)이며 본관은 원주(原州)로 휴(休)의 아들로 태어났다. 법고사(法阜寺) 관웅에게서 수학한 후 해안사 준광에게서 중이 되었으며 999년(목종2년) 용흥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1004년 승과에 급제 대덕(大德)이 되었고 1011년엔 대사 1021년 호경(平陽) 증흥사에서 중대사(重大師)가 된후 수다사(水多寺), 해안사(海安寺)의 주지로 있었다.</p> <p>덕종때 삼중대사에 올라 수좌가 되고 정종말에 승통이 되었다가 1054년 현화사 주지, 1056년 왕사(王師)가 되고 1058년 봉은사에서 국사에 올라 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원주 법천사(法泉寺)에서 죽었다. 시호는 지광(智光)이며 현 법천사지에 국보 제 59호로 지정된 현묘탑비(玄妙塔碑)와 서울 경복궁에 국보 제101호로 지정된 현묘탑이 전해진다.</p>
<p>한 백 겸 (韓 百 謙) 1552~1615</p>	<p>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庵)이며 본관은 청주(淸州)로 부론면 노림리에서 한효윤(韓孝胤)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선조조에 역학(歷學)과 역사, 지리학 연구에 고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 중기 실학(實學)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배움에 힘써 육경논맹(六經論孟)과 겸락관민(濂洛關閩)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던 그는 1586년 천거에 의해 중부참봉(中部參奉)이 되어 1611년 파주목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날때 까지 실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항상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1613년(광해군5) 향년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 저서로는 기전고(箕田考), 주역전의(周易傳義),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구암유고(久庵遺稿)등이 있으며 원주 칠봉서원에서 제향했다.</p>

인명 (人名)	생 애 (生涯)와 행 적 (行蹟)
<p>한 준 겸 (韓 浚 謙) 1557~1627</p>	<p>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川)이며 본관은 청주((淸州)로 부르면 노림리에서 효윤(孝胤)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실학자 한백겸의 아우이며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으로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1526년(선조 1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그는 162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기까지 많은 벼슬길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슬기롭게 이겨낸 인물이다. 또한 조선 왕조의 처족 거족 명문으로써 대의명분을 세웠고 청주한씨의 인물중의 인물로 부각되었다 하겠다. 말년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세자를 전주(全州)에 모시고 있다가 평정된 후 환궁했는데 얼마 후 죽게되니 1627년(인조 5) 그의 나이 70세였다. 저서로 유천유고(柳川遺稿)가 전해진다.</p>
<p>김 제 남 (金 悌 男) 1562~1613</p>	<p>자는 공언(恭彦),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지정면 안창리에 서 전(詮)의 증손자로 태어난 그는 1602년 이조좌랑(吏曹佐郎) 때 딸이 선조의 계비(繼妃:인목대비)가 됨으로써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인물이다. 1613년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사사(賜死) 되었다가 1616년(광해군 8) 다시 부관참시(剖棺斬屍: 죽은 사람에게 또 가하는 극형)되었던 그는 인조반정후 관직이 복구되고 왕명으로 사당이 지어졌다. 현 지정면 안창리에 그의 사당과 묘소가 있고 옆에 김제남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귀부와 이수를 갖춘 거대한 비석으로 특히 이수의 조각은 정교하고 섬세하여 그 당시의 조각수법을 감탄케 한다.</p>

인명 (人名)	생애 (生涯)와 행적 (行蹟)
<p>황 무 진 (黃 戊 鎭) 1568~1652</p>	<p>호는 용담(龍潭)으로 현 봉산동 무진고개에서 증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일찌기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문막면 반계리로 이사하여 원주감영의 일을 보던 인물이다.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효행이 어찌나 지극한지 호랑이도 감동하고 산신령도 감탄하였다는데 그는 출퇴근시 항상 호랑이를 타고 다녔으며 한겨울 어머니의 병이 위중할 때는 두꺼운 얼음속에서 잉어를 얻어 어머니의 병을 쾌차시켰다는 전설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설과 같이 남다른 효심이 있었던 그에게 1634년(인조 13) 나라에서는 효자정문(孝子旌門)을 그의 집앞에 세우게 하였고 효종(孝宗) 원년에는 특히 일중추(逸中樞)를 제수하고 자룡(子龍)이라는 이름까지 내려졌다. 85세 까지 장수한 그는 효종 3년에 별세하였으며 죽은후 나라에서는 충효공(忠孝公)의 시호를 내렸고 이듬해 또다시 효자정문을 세우게 했다. 현재 지정면 반계리에 그의 사당이 있는데 사당 옆에는 충호비(忠虎碑)와 비각이 세워져 있다.</p>
<p>이 달 (李 達) (1539~1609)</p>	<p>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 본관은 홍주인(洪州人)으로 쌍매당(雙梅堂) 첩(簾)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리었으나 첩(妾)의 자식으로 사회 진출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한리학관(漢吏學官)의 일을 보다가 사직하고는 향리에 돌아와 시문(詩文)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시는 새로운 경지를 터득하여 삼당(三唐)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그의 시는 율절가곡(律絶歌曲)에서 가장 재능을 발휘하였고 패강사, 한식가(寒食歌) 등이 모두 절창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는 또한 고독과 체념으로 승화된 것이 많으며 특히 생애자체의 불만과 울분에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p> <p>말년에는 허균과 허난설헌을 제자로 맞아 그들에게 그의 많은 영향을 주므로써 반항적인 요소가 많은 일들을 했다 하겠다. 불우한 평민시인으로 한많은 세상을 산 그는 57세 때인 1609년(선조 10)에 세상을 떠났다.</p>

인명 (人名)	생 애 (生涯) 와 행 적 (行蹟)
<p>임 경 업 (林 慶 業) 1594~1646</p>	<p>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며 본관은 평택(平澤)으로 부론면 손곡리에서 임정(林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김자점(金自點)에게 죽을 것이라는 전설이 지금도 이고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1618년 무과에 급제하여 1643년 명군의 총병으로 청나라를 공격할때까지 조선의 명장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1643년 청나라를 공격했다가 포로가 되었으나 국내의 모반설에 관련이 있다하여 송환되어 온후 인조의 친국을 받다가 김자점의 명에 의해 1646년 그의 나이 53세에 장살(杖殺)되었다. 그후 나라에서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가 내렸고 정조(正祖) 때는 충민공실기(忠愍公實記)라는 책을 만들어 그의 음덕을 기렸다. 1968년에는 그의 생가터인 부론면 손곡리에 원주문화원에서 추모비(追慕碑)를 건립 그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그를 모델로 한 전쟁소설이 많이 전해내려 온다.</p>
<p>정 시 한 (丁 時 翰) 1625~1707</p>	<p>자는 군익(君翊), 호는 우담(愚潭) 본관은 나주(羅州)로 관찰사 언황(彦璜)의 아들로 부론면 법천리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면서 향리에서 후진양성과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집의(執義), 사업(司業)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가 그후에 진선(進善)으로 다시 기용되었는데 강직한 성품으로 직언을 잘해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p> <p>그는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나타나 있듯이 잘못되는 일에는 반드시 상소를 올림으로써 말쟁도 많았는데 그의 끝은 성품은 목숨을 두려워 하지 않고 직필로써 상소를 올리곤 했다</p> <p>그는 이렇게 절기(節氣) 외에도 학문은 깊고 효행은 두터웠다 1904년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던 그는 저서로 우담집(愚潭集)을 남기고 있으며 1707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원주 광엄사(廣嚴寺)에서 제향되다.</p>

인명 (人名)	생애 (生涯)와 행적 (行蹟)
<p>조업 (趙 曠) 1719~1777</p>	<p>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라 했고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지정면 간현리에서 상형(尙炯)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752년 정시문과(庭試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사서(事書)로 벼슬길에 올라 이조판서를 지낼때 까지 청렴한 관리로서 항시 백성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다. 관제에 있으면서도 문장에 뛰어나 해차록(海槎錄) 등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경제가로서 세곡수송에 민폐를 덜어줌으로 국고에 충실을 기하기도 했다.</p> <p>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사신일을 마치고 고구마 종자를 수입 재배한 고구마 재배의 시초자이기도 하다. 1777년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무고로 김해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57세를 일기로 병사했다. 그후 순조(純祖) 14년 협의가 풀려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됨과 동시에 문익(文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묘소는 현 지정면 간현리에 있으며 사적비(史蹟碑)가 세워져 있다. 저서로는 해차록(海槎錄) 해행총재(海行總載)가 있다.</p>
<p>한기악 (韓 基 岳) 1898~1941</p>	<p>호는 월봉(月峰)으로 부론면 홍호리에서 한정우(韓正愚)의 유복자(遺腹子)로 태어난 그는 문벌 좋은 명문집 귀공자답게 성장하였으며 병오정미(丙午丁未)때 왜병들의 병화로 마을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자 자기집을 헐어 나누어 주었으며 서울에 올라와서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를 졸업후 망국의 한을 달래며 만주둥지에서 구국 운동으로 젊음을 불태웠다. 3·1운동 당시는 일본에 건너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국지사이다. 다시 상해로 건너가서는 임시정부의 법무위원으로 국권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p> <p>1920년 귀국하여서는 동아일보사 창설때 정치부 기자로 입사 필봉으로 왜적을 공박하는등 구국이념에 생을 바치다 시피한 인물이다. 한때는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중앙학원(中央學院) 감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신간회의 한 주역으로 민족해방과 사회평등의 구현에 분골쇄신하다가 1941년 병에 걸려 별세하니 44세였다. 한참 일할수 있는 나이에 숨진 그의 유덕을 기리고자 1975년에는 기념사업회가 발족 월봉저작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으며 1981년에는 그의 송덕과 유지를 받들고자 생가가 있던 부론면 홍호리에 사적비를 세웠다.</p>

●유 적(遺蹟)

명칭(名稱)	유 래(由來)와 연 혁(沿革)
지 광 국 사 현 묘 탑 비 (智 光 國 師 玄 妙 塔 碑)	<p>문화재지정 : 국보 제 59호</p> <p>소유 : 국유</p> <p>위치 : 부론면 법천리(富論面 法泉里)</p> <p>크기 : 높이 - 455cm 폭 - 260cm 두께 - 260cm</p> <p>재료 : 화강암 청석(비신)</p> <p>시대 : 고려 선종(宣宗) 3년</p> <p>법천사지에 있는 이탑은 지광국사의 유덕을 기리고 불교도덕의 진리를 통달한 국사의 행장을 기록한 것으로 왕명에 의해 탑과 함께 건립되었다. 국내 6기의 국보 탑비 중에서도 제일로 꼽는 이탑은 러말석비의 특징적인 양식으로 워낙 정교한 조각과 치밀한 수법으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최대 극치를 이룬 유산이며 걸작품이다. 현재는 1,000여년의 오랜동안 풍화작용으로 파손된 곳이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p>
원 공 국 사 승 묘 탑 비 (圓 空 國 師 勝 妙 塔 碑)	<p>문화재지정 : 보물 제 78호</p> <p>소유 : 국유</p> <p>위치 : 부론면 정산리(富論面 鼎山里)</p> <p>크기 : 높이 - 245cm 폭 - 126cm 귀두높이 - 120cm</p> <p>재료 : 화강암 대리석(비신)</p> <p>시대 : 고려 현종 16년(1025)</p> <p>거둔사지에 있는 탑비로 원공국사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현종 16년 왕명에 의해 부도탑과 함께 건립되었다. 귀부와 이수가 있는 탑비로 조각이 정교한 고려시대 작품이다.</p>

명칭 (名稱)	유 래 (由來)와 연 혁 (沿革)
진공대사비 귀부및이수 (眞空大師碑 龜趺螭首)	<p>문화재지정 : 보물 제 463 호</p> <p>소유 : 국유</p> <p>위치 : 지정면 안창리 (地正面 安昌里)</p> <p>크기 : 이수 - 1.8m×0.99m 귀두 - 252cm×195cm×75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고려초기</p> <p>홍법사지에 있는 이 귀부와 이수는 특히 이수의 조각이 정교하고 섬세하여 고려시대의 최대 걸작품으로 꼽힌다. 태조의 왕사였던 진공대사의 유덕을 기리고져 왕명으로 이 탑비와 함께 부도탑을 세웠다.</p>
홍법사지 삼층석탑 (興法寺址 三層石塔)	<p>문화재지정 : 보물 제 464 호</p> <p>소유 : 국유</p> <p>위치 : 지정면 안창리 (地正面 安昌里)</p> <p>크기 : 높이 - 369cm 폭 - 215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고려시대</p> <p>홍법사지에 있는 이 석탑은 발가운데 세워져 있으며 지대석(地臺石) 일부가 도굴범에 의해 드러나 있다. 조각은 그렇게 세밀한 편이 아니며 고려시대의 일반정형이다. 기단과 옥계석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p>
거둔사지 (居頓寺址)	<p>문화재지정 : 사적 제 168 호</p> <p>소유 : 국유</p> <p>크기 : 7500여평</p> <p>재료 : 사지 (寺址)</p> <p>시대 : 신라시대</p> <p>신라시대때 거대한 사찰로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원공국사 승묘탑비, 3층석탑 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 외 좌불대, 지주석 등 많은 유구가 남아 있고 또한 출토되고 있다. 한옆에는 미완성 당간지주도 있다. 아직도 주초석이 전면 6줄, 측면 5줄로 잘 보존되어 있어 20여칸의 대법당이 있었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p>

명칭 (名稱)	유 래 (由來)와 연 혁 (沿革)
법 천 사 지 (法泉寺址) 記念物 제48호	<p>위치 : 부론면 법천리 (富論面 法泉里)</p> <p>크기 :</p> <p>재료 : 사지 (寺址)</p> <p>시대 : 서기 725년 창건</p> <p>임진왜란때 소실되었다고 하는 대찰로써 현재 국보 59호와 당간지주가 보존되며 1965년 발굴당시 많은 유구가 출토되었다.</p>
흥 법 사 지 (興法寺址) 강원사적제1호	<p>위치 : 지정면 안창리 (地正面 安昌里)</p> <p>크기 : 10,000 여평</p> <p>재료 : 사지 (寺址)</p> <p>시대 : 신라말기</p> <p>신라말기의 대찰로 현재 보존되고 있는 유물은 진공대사탑비의 이수와 귀부, 3층석탑, 그외 축대석과 많은 유구들이 출토되고 있다.</p>
구룡사대웅전 (龜龍寺大雄殿) 강원지정제25호	<p>위치 : 소초면 학곡리 (所草面 鶴谷里) 구룡사 경내</p> <p>크기 : 전면 3칸, 56평</p> <p>재료 : 목조</p> <p>시대 : 조선 숙종 32년</p> <p>이 대웅전의 건축수법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며 대웅전 안에 닻집이 유명하다. 주존과 석가여래불이 양쪽에 있다.</p>
거 둔 사 지 삼 층 석 탑 (居頓寺址 三層石塔) 강원지정제43호	<p>위치 : 부론면 정산리 (富論面 鼎山里)</p> <p>크기 : 높이 530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신라시대</p> <p>거둔사지에 있는 이탑은 원공국사 승묘탑비가 있는 옆에 위치하며 신라 일반정형으로된 3층석탑이다.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p>
상 원 사 삼 층 석 탑 (上院寺 三層石塔)	<p>위치 : 신림면 성남리 (神林面 城南里) 상원사 경내</p> <p>크기 : 높이 150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신라시대</p> <p>상원사 대웅전 앞에 있는 쌍탑으로 조각수법은 섬세한 편으로 신라일반 정형이다. 탑 옆에 광배가 1기 있다.</p>

명칭 (名稱)	유 래 (由來)와 연 혁 (沿革)
입석대청석탑 (立石臺靑石塔)	<p>위치 : 소초면 흥양리 (所草面 興陽里) 입석사 경내</p> <p>크기 : 높이 2m</p> <p>재료 : 청석</p> <p>시대 : 미상</p> <p>원래 현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고 폐탑을 다시 쌓은 것으로 조각수법이 섬세하나 기단과 옥제석 귀퉁이에 손상이 많다.</p>
황산사미륵 불상과 3층석탑 (黃山寺彌勒 佛像 三層石塔)	<p>위치 : 귀래면 귀래리 (貴來面 貴來里) 황산사 경내</p> <p>크기 : 미륵불상 - 길이 13.5m</p> <p>석 탑 : 높이 2m</p> <p>재료 : 미륵불상 - 바위</p> <p>석 탑 : 화강암</p> <p>시대 : 신라시대</p> <p>미륵불상은 바위 위에 거대하게 조각하였으며 조각이 확실하여 멀리서 보아야 선명한 형태를 볼수 있다. 석탑은 손상이 많이 되어 있으며 조각 또한 단조로운 편이다.</p>
미륵불입상 (彌勒佛立像)	<p>위치 : 흥업면 매지리 (興業面 梅芝里)</p> <p>크기 : 높이 - 270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미상</p> <p>어느 사지에 있던 미륵불을 현위치에 옮겨 놓았으며 조각은 사실성있게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특히 이 미륵불은 영험하다고 전한다.</p>
평 장 리 석 조 불 두 (平 庄 里 石 造 佛 頭)	<p>위치 : 소초면 평장리 (所草面 平庄里)</p> <p>크기 : 높이 - 103cm</p> <p>폭 - 92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미상</p> <p>석조불두로 얼굴의 윤곽은 명확히 조각하였으나 조각 수법이 다소 졸속하고 투박하다.</p>
운 산 태 봉 (雲 山 胎 峰)	<p>위치 : 흥업면 대안리 (興業面 大安里)</p> <p>크기 : 높이 1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p> <p>비석은 마멸이 심하여 글씨를 알아보기가 힘들며 태실도 훼손되어 그 자체를 알아보기 힘들다.</p>

명칭(名稱)	유래(由來)와 연혁(沿革)
관어대지 (觀魚臺址)	<p>위치 : 호저면 주산리(好楮面 珠山里)</p> <p>크기 : 3 평</p> <p>재료 : 바위</p> <p>시대 : 이조시대</p> <p>기암절벽을 이룬 밑으로 맑은 물이 흘러 옛날 시인묵객들이 맑은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즐기던 놀이터이다.</p>
취병정지 (翠屏亭址)	<p>위치 : 문막면 취병리(文幕面 翠屏里)</p> <p>크기 : 정자 1칸</p> <p>재료 : 목조</p> <p>시대 : 이조시대</p> <p>섬강이 흐르는 기암위에 있던 정자이나 현재는 빈터만 남아 있다.</p>
고산입석 (高山立石)	<p>위치 : 호저면 고산리(好楮面 高山里)</p> <p>크기 : 높이 - 10m 둘레 - 10m</p> <p>재료 : 암석</p> <p>시대 :</p> <p>거대한 바위로 옆에 약수가 있어 신병 치료차 찾는이가 많다.</p>
조엄선생 사적비 (趙嚴史蹟碑)	<p>위치 : 지정면 간현리(地正面 良峴里)</p> <p>크기 : 높이 - 380 cm 폭 - 100 cm</p> <p>재료 : 화강암 옥석(비신)</p> <p>시대 : 이조 순조(純祖) 14년</p> <p>이조 영조때 문장가며 경제가이고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처음 수입 재배한 조엄의 사적비로 비문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갈 때 풍랑으로 고생하던 일등이 낱알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적비 옆에 묘소와 석등, 석비가 세워져 있다.</p>

명칭(名稱)	유래(由來)와 연혁(沿革)
김제남 신도비 (金悌男神道碑)	<p>위치 : 지정면 안창리(地正面 安昌里)</p> <p>크기 : 높이 340cm 폭 165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이조 인조(1623년) 때</p> <p>1616년 부관참시후 왕명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귀부와 이수 의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섬세하다.</p>
임경업 추모비 (林慶業追慕碑)	<p>위치 : 부론면 손곡리(富論面 蓀谷里)</p> <p>크기 : 높이 - 330cm 폭 - 60cm</p> <p>재료 : 화강암</p> <p>시대 : 1968년 건립</p> <p>이조 인조때 사람으로 명장이었던 그의 생가터에 1968년에 원주문화원에서 유덕을 기리고자 건립하였다.</p>
충효사 (忠孝祠)	<p>위치 : 문막면 반계리(文幕面 礪溪里)</p> <p>크기 : 건물 1동</p> <p>재료 : 목조</p> <p>시대 : 이조 인조(仁祖) 12년</p> <p>황효자의 효심과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사 당옆에 충호비(忠虎碑)도 세워져 있는데 충효사 사당에는 인 조가 친히 하사한 은잔대 3개와 선여지문이 소장되어 있다.</p>

편집후기

오래전부터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한데 묶어 책자를 발간코자 계획을 해 오다가 이번에 계획과는 다소 다르지만 그 뜻을 이루게 됐다.

막상 작업에 들어서자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원주 지방을 두개로 분리해서 발간하는 일이었다. 원주시와 원성군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해서 두권의 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정때문이었는 데 예로부터 원주 원성은 원주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5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되었으나 그 이전의 모든 문제는 단일화하고 일치되어 있었다. 이것을 분리하고 쪼개어 편집 수록하는데는 남다른 고초와 난관이 많았으며 내용 또한 어색한 곳이 없지않다.

또한 가급적 한자(漢字)를 피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쓰자니 전문용어 풀이등 더욱 어려움이 많았으며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뿌리를 찾아 한권의 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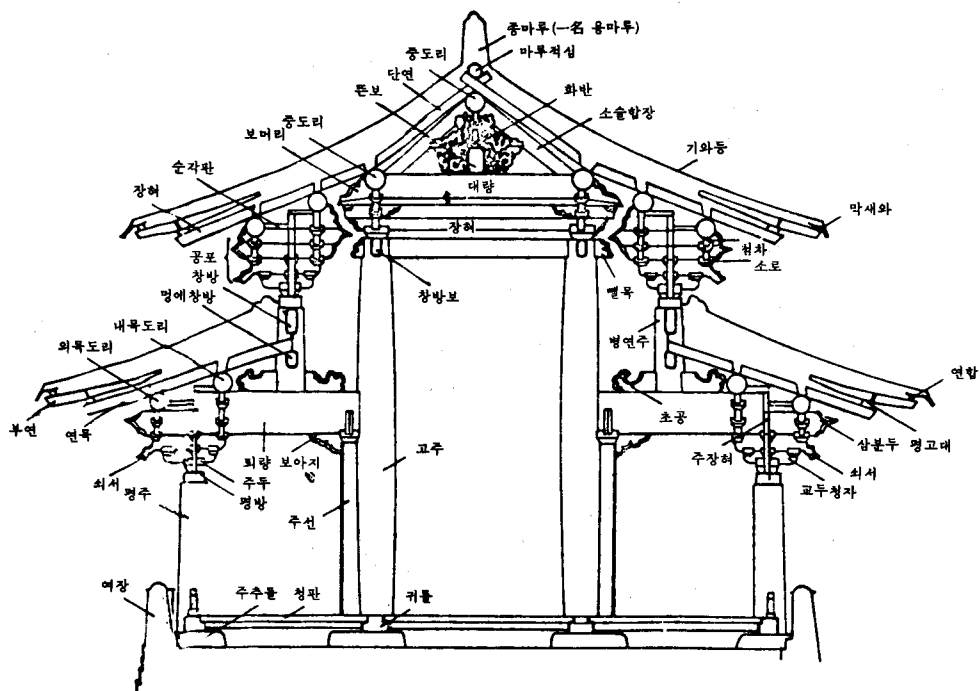
그러나 먼저 편과 장을 정하여 인물과 전설 유물 유적을 분리한 다음 천혜의 자원과 보배등을 수록하기로 하고 자료 수집 발굴을 위하여 직접 현지를 찾아 고증을 하는등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 기회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다.

그러나 자료조사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혹시 조사가 미치지 못해 행여나 수록에 빠져서 안될것이 빠지지나 않았는가 걱정이 태산같다. 또한 편집상의 난점에 쫓기다가 배려(配慮)가 알맞잖은 경우도 있으니 지면의 내용에 있어 관계분들의 꾸지람이 있을 것이요 미처 생각이 못미친 부면(部面)도 있을터이니 열번 사과드리는 하회(下懷)부터 간절하다. 질책(叱責)과 함께 용서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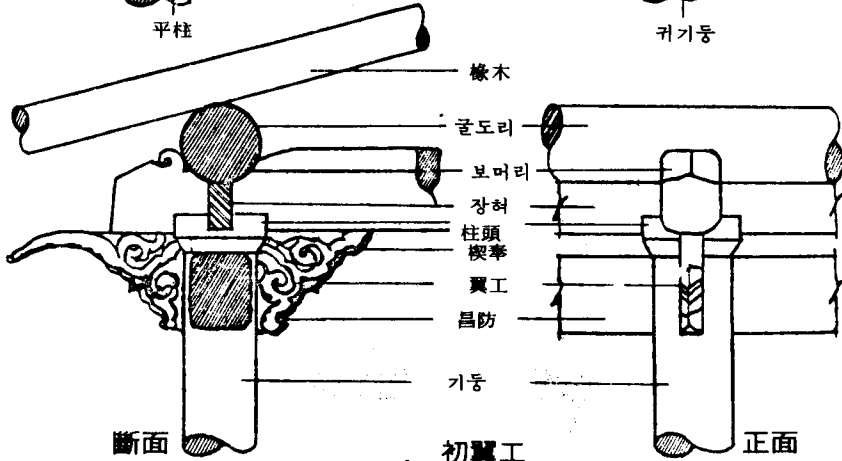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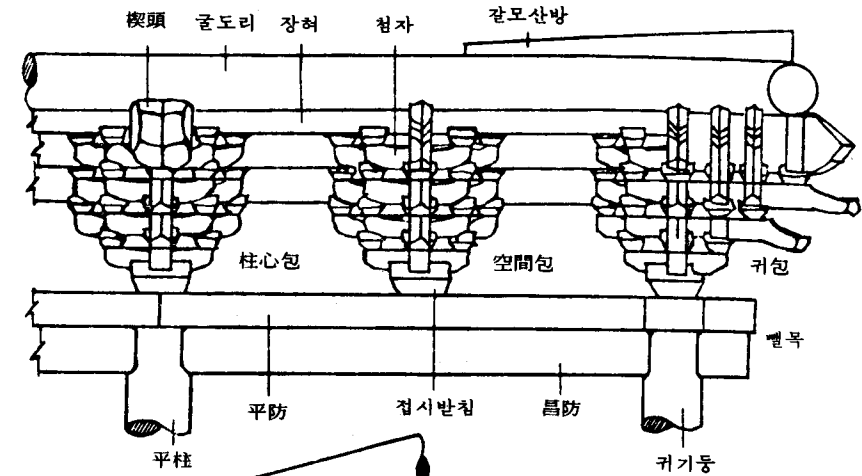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점에서 앞으로 더욱 보완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여기며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 자료수집에 직·간접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향토지가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附 錄

木造建物の各部分名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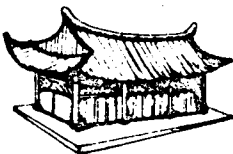
木造建物の各部分名稱(2)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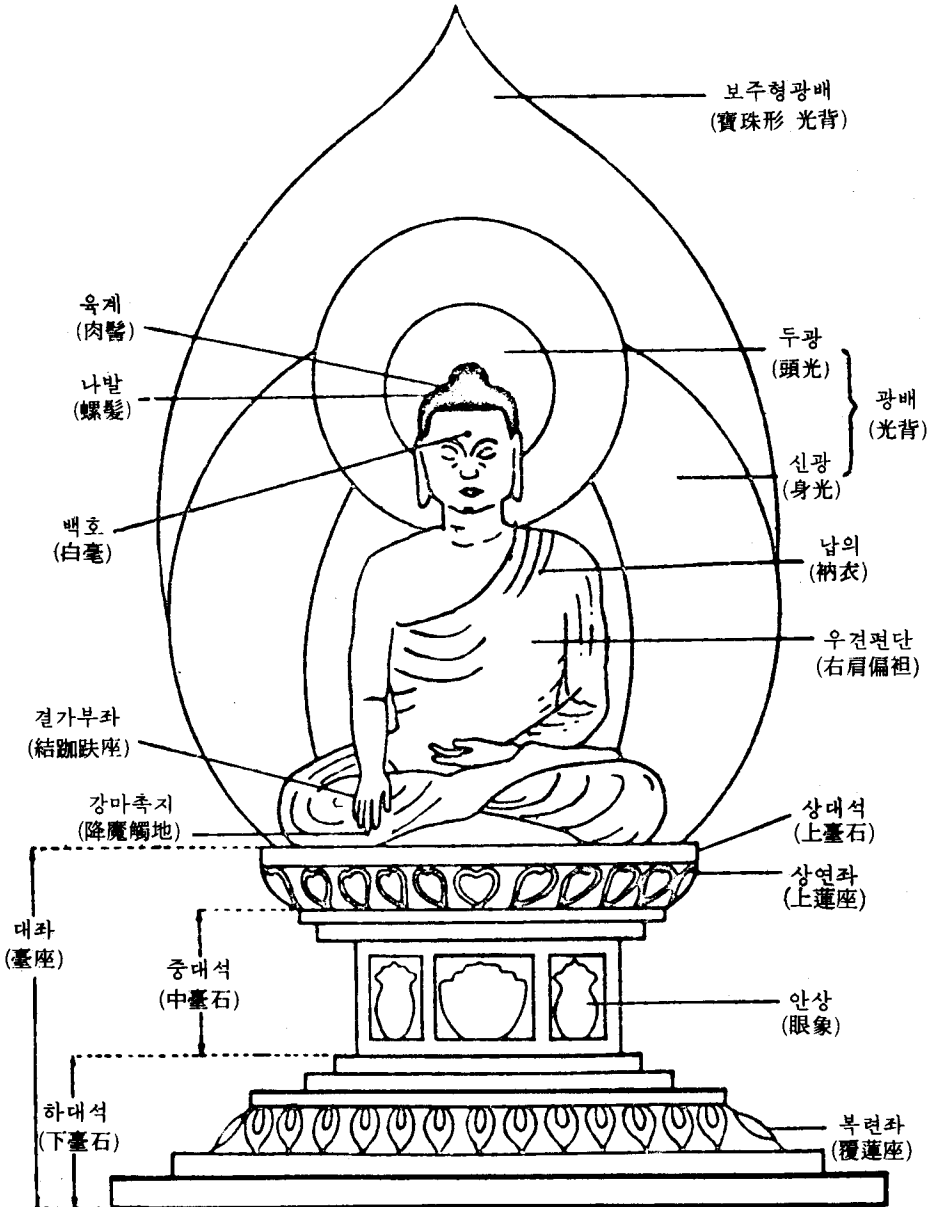
사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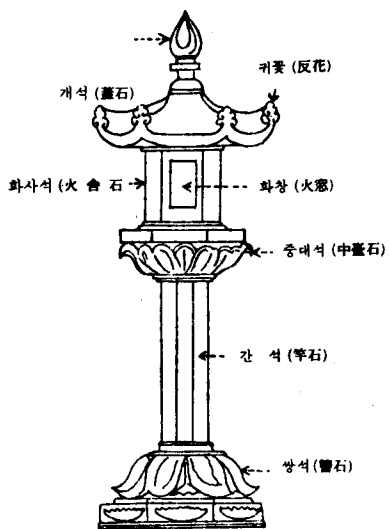
팔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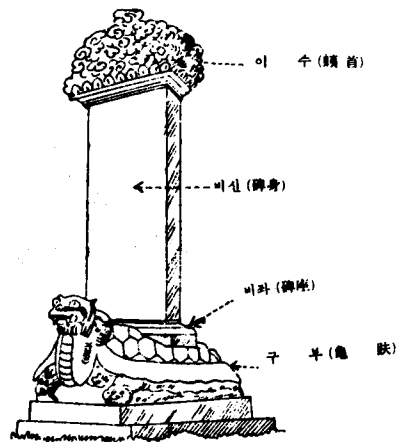
佛像의 各 部分 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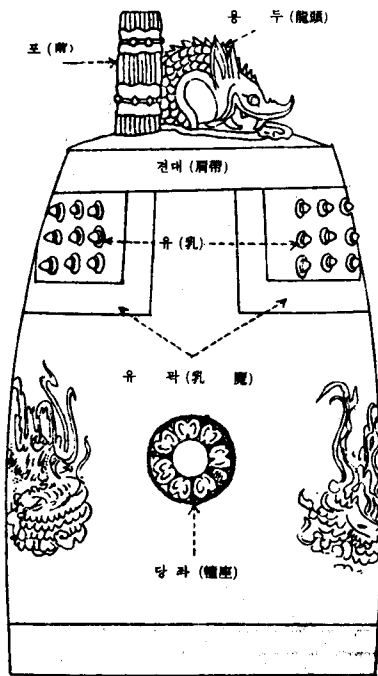
石燈・碑石・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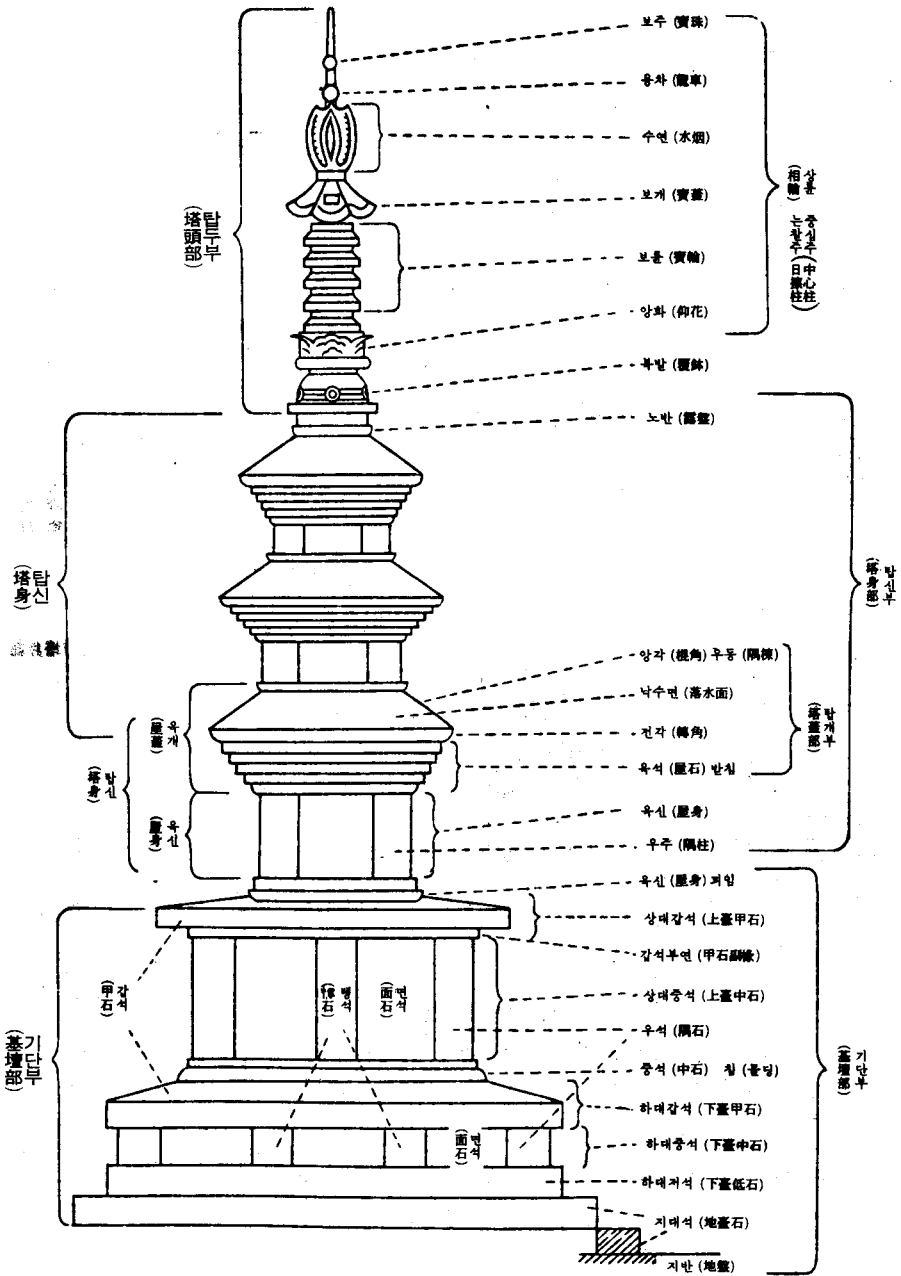
세三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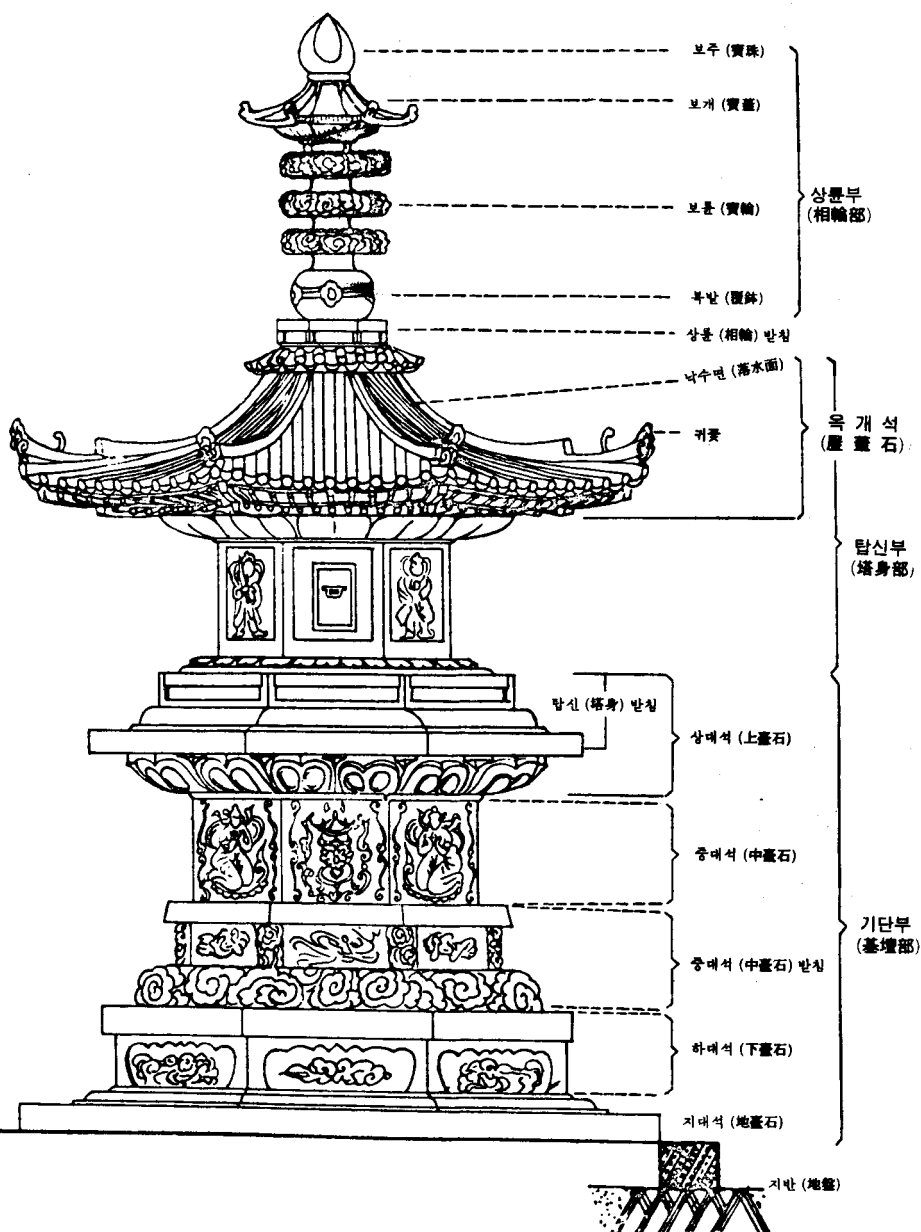
세二道



石塔의 部分 名稱(1)



石塔의 部分 名稱(2)



北原의 자취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1. 10. 30 인 쇄

1981. 12. 1 발 행

1987. 10. 재발간인쇄

1987. 11. 발 행

편 집 문 화 공 보 실

발 행 원 성 군 수

비 매 품